

국립국어원 2011-01-38

발간등록번호
11-137028-000361-01

결과보고서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연구책임자: 장경희

국립국어원 2011-01-38

발간등록번호
11-137028-000361-01

결과보고서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연구책임자: 장경희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연구 책임자: 장경희(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장경희

공동 연구원 이삼형, 이필영, 김명희, 김태경, 김정선, 송수민

연구 보조원 전은진, 안정호, 문선희, 김시정, 권대호, 박보령

요약문

1. 과업명: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2. 과업의 목적: 본 과제는 전국 청소년들의 언어실태와 언어의식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실천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3. 과업의 배경: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과제로 이루어진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과 언어 규범 파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둘째, 청소년의 비속어·은어 사용이나 공격적 언어 표현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실천적인 개선 방안 마련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정적인 언어 표현 사용을 부추기는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연구 방법 및 내용: 청소년 언어실태와 언어의식, 그리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국 6개 권역(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6,000여명과 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500여명의 입말과 글말 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과업1】 청소년 언어실태 조사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유행어·은어의 사용 빈도, 사용 맥락, 확산도
- 비속어·유행어·은어 목록, 공격적 언어 표현의 유형
- (비속어의) 거친 강도 ·(유행어·은어의) 규범 파괴 정도에 따른 사용 여부

【과업2】 청소년 언어의식 조사

- 공격적 언어 표현과 유행어·은어의 사용 동기
- 공격적 언어 표현과 유행어·은어에 대한 용인 태도
- 언어 사용 전반에 관한 문제점 인식
- 개선 의지

【과업3】 문제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장·발달적 요인, 가정·교육·사회문화 환경 요인 분석
- 각 환경별 개선 방안 제시

5. 연구 결과: 본 조사 결과 비속어나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과 은어·유행어의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유행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이러한 언어실태는 언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이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해 용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유행어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언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의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학업 성적, 자기통제력, 공감능력 등이 청소년의 공격적 언어 표현과 은어·유행어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개인 특성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학교·사회문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언어 사용에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이고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스로 비속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또래들에게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 표현의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문제 요인과 개선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언어 개선 사업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명
우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품격 높이기 사업 ▪ 청소년 집단활동 활성화 사업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 ▪ 청소년 언어 개선 기반구축 사업
차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소통 역량 강화 사업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사업 ▪ 초등학생 학업 스트레스 줄이기 사업 ▪ 건강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사업

Abstract

1. Title: A national survey on language use and language attitude in adolescents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language use and the language attitude in adolescents nationwide and suggest the practical improvement plan.

3. Background: As a result of "A survey of adolescents' language use" which was performed as the task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0, the problematic language use in adolescents has thrown up a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rvey scope into the whole nation took place.

And in the face of the indication as saying that adolescents' using slang and jargon or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causes serious problem, a practical improvement plan failed to be arrange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of specifically grasping environmental factors, which stir up adolescents' using negative language expression, and of arranging improvement plan based on this.

4. Research method and conten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anguage and the language attitude in adolescents, and the relevant factors, we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6,053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s and 184 teachers in 6 regions(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Jeju). And we collected and analyzed materials of the spoken words and the written words of 542 studen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ask 1】 A survey on the language use in adolescents

- frequency, context and expansion level in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expletive, buzzword, jargon such as teenage slang
- List of slangbuzzword-jargon, a type of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 (slang) rough intensity, (buzzwordslang) norm destruction level

【Task 2】 A survey on the language attitude in adolescents

- A motive of using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buzzword & jargon
- Attitude of allowance on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buzzword & jargon
- Recognition of problems about the whole of using language
- Intention of improvement

【Task 3】 Analysis of problematic factors and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 Analysis on socio-demographic factors, growth & developmental factors, and home, educational, socio-cultural environmental factors
-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5.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urvey, the use of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such as slang and curses, jargon and buzzword could be known to be spread extensively among adolescents. And it was surveyed that the rough intensity of slang, jargon and buzzword and the language destruction level deepens with age. According to gender, the boy students used more negative language expression compared to the girl students. Adolescents' actual language use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language attitude. Especially, it was surveyed that the more the adolescents have the attitude of allowance on using verbal abuse, jargon and buzzword, the more they use curses, slang, jargon and buzzword. And the adolescents' language problem from teachers' perspective was surveyed to be much more serious than the level that adolescents perceive.

As a result of analyzing factors of having influence upon adolescents' language problem, the urbanization layer of dwelling place, home financial level, schoolwork result, self-control, and empathy were indicated to hav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upon adolescents' use of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jargon and buzzword. And it was indicated that the biggest negative factor on adolescents' using language is 'stress caused by parents' verbal abuse' and that the biggest positive factor is 'peer-based informal control.' Result imply that social strategies such as building mutual forbearance and dissuading friends from language violence through adolescents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the language use problem.

We suggest the language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imminent level of improvement, which were grasped through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Classification	Project title
top-priority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of increasing adolescents' language dignity ▪ Project of vitalizing adolescents' group activity ▪ Project of implementing adolescents' verbal-abuse counseling system ▪ Project of implementing the foundation of improving adolescents' language
second-priority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of reinforcing capacity of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 Project of parent education for improving adolescents' language ▪ Project of redu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work stress ▪ Project of making the healthy cyber world

차례

제1장 서론	1
1. 과업의 목적과 배경	1
2. 과업의 내용과 조사 범위	2
2.1 과업의 내용	2
2.2 조사 범위	4
3. 과업 수행 방법	5
3.1 이론 연구	5
3.2 설문 조사	5
3.3 직접 조사	6
제2장 기초연구	9
1.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구분	9
1.1 비속어의 정의와 특징	10
1.2 공격적 언어 표현의 정의와 특징	12
1.3 은어의 정의와 특징	15
1.4 유행어의 정의와 특징	16
1.5 종합	17
2. 선행 연구	20
2.1 청소년 언어 연구	20
2.2 청소년 정책	30
2.3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방향	35
제3장 설문 조사	39
1.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39
1.1 조사 목적	39
1.2 조사 내용	39
1.3 표본 설계	41
1.4 문항 설계	44
1.5 응답자 분포	51
1.6 조사 결과	52
2. 교사 대상 설문 조사	122
2.1 조사 목적	122
2.2 조사 내용	122
2.3 표본 설계	123
2.4 문항 구성	124
2.5 응답자 분포	125
2.6 조사 결과	125

3. 설문 조사 결과 종합	144
3.1 청소년 언어 실태	144
3.2 청소년 언어 의식	146
3.3 문제 원인	147
제4장 직접 조사	149
1. 입말 수집 조사	149
1.1 조사 목적과 내용	149
1.2 조사 방법	150
1.3 조사 결과	155
2. 글말·통신언어 수집 조사	189
2.1 조사 목적과 내용	189
2.2 조사 방법	190
2.3 조사 결과	197
3. 직접 조사 결과 종합	238
3.1 비속어 사용 실태	238
3.2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239
3.3 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240
제5장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 방안	243
1. 청소년 언어 실태의 문제점	243
2. 주요 요인	245
3. 추진 및 시행 체계	247
3.1 추진 체계	247
3.2 시행 체계	251
4. 개선 방안 시안	254
참고문헌	275
【부록1】 인터넷 설문지	
【부록2】 설문 조사 결과 집계표	
【부록3】 직접 조사(비속어·은어·유행어) 어휘 목록	

표 차례

<표 2-1> 비어 예시	10
<표 2-2> 속어 예시	12
<표 2-3> 선행 연구와 청소년 정책의 분석 범위	20
<표 2-4> 언어 실태 조사 연구	21
<표 2-5> 언어 의식 조사 연구	26
<표 2-6> 언어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7
<표 2-7>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수정된 4대 정책 분야	30
<표 2-8> 해외 정책 사례의 주안점 및 시사점	36
<표 3-1>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권역별 추출 학급 수)	41
<표 3-2> 지역별 표본 추출 대상 학교 수(권역 내 도시화 층별 배분)	42
<표 3-3> 2차 추출 단위 후보지	42
<표 3-4>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학교 수)	43
<표 3-5> 초등학생용 설문 문항 구성	47
<표 3-6> 중고등학생용 설문 문항 구성	49
<표 3-7> 초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Scheffe 다중비교) 결과	55
<표 3-8> 초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독립표본 t-검정) 결과	56
<표 3-9>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57
<표 3-10>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57
<표 3-11>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57
<표 3-12>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58
<표 3-13>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58
<표 3-14>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58
<표 3-15>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Scheffe 다중비교) 결과	60
<표 3-16>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독립표본 t-검정) 결과	61
<표 3-17>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62
<표 3-18>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62
<표 3-19>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62
<표 3-20>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63
<표 3-21>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63
<표 3-22>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64
<표 3-23>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학년별 사용 빈도	68
<표 3-24>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69
<표 3-25> 중고등학생 공격적 언어 표현 학년별 사용 빈도	71
<표 3-26> 성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72
<표 3-27>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79
<표 3-28>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0
<표 3-29>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0

<표 3-30>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0
<표 3-31>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0
<표 3-3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81
<표 3-33>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4
<표 3-34>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5
<표 3-35>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5
<표 3-36>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5
<표 3-37>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86
<표 3-38>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86
<표 3-39>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용인 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88
<표 3-40>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용인 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90
<표 3-41>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100
<표 3-42>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01
<표 3-43>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01
<표 3-44>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02
<표 3-45>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02
<표 3-46>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02
<표 3-47>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103
<표 3-48>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105
<표 3-49>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11
<표 3-50>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12
<표 3-51>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12
<표 3-52>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12
<표 3-53>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113
<표 3-54>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113
<표 3-55>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초등학생) 상관분석 결과	115
<표 3-56>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중학생) 상관분석 결과	117
<표 3-57>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권역별 추출 표본 수)	123
<표 3-58> 교사용 설문 문항 구성	124
<표 3-59>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분석 결과	127
<표 3-60> 개선점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128
<표 3-61>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분석 결과	139
<표 4-1> 학교급·지역별 규모(입말)	151
<표 4-2> 조사 어절 수(입말)	151
<표 4-3> 고빈도 비속어의 출현 빈도(입말)	155
<표 4-4> 비속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156
<표 4-5>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158
<표 4-6> 성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159
<표 4-7>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160
<표 4-8> 비속어의 어휘별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163
<표 4-9> 공격적 언어 표현의 출현 빈도 분포(입말)	166

<표 4-10> 고빈도 은어의 출현 빈도(입말)	173
<표 4-11> 은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174
<표 4-12>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175
<표 4-13> 성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176
<표 4-14>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178
<표 4-15> 은어의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180
<표 4-16> 고빈도 유행어의 출현 빈도(입말)	181
<표 4-17> 유행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182
<표 4-18>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183
<표 4-19> 성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184
<표 4-20>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185
<표 4-21> 유행어의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187
<표 4-22> 학교급 · 지역별 규모(글말 · 통신언어)	191
<표 4-23> 글말 자료 수집 규모	191
<표 4-24> 통신언어 자료 수집 규모	192
<표 4-25> 고빈도 비속어의 출현 빈도	198
<표 4-26>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글말)	200
<표 4-27>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02
<표 4-28>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글말)	205
<표 4-29>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06
<표 4-30> 고빈도 은어의 출현 빈도(글말 · 통신언어)	218
<표 4-31>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글말)	220
<표 4-32>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21
<표 4-33>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글말)	223
<표 4-34>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24
<표 4-35> 고빈도 유행어의 출현 빈도(글말 · 통신언어)	226
<표 4-36>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글말)	228
<표 4-37>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30
<표 4-38>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글말)	233
<표 4-39>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235
<표 5-1>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254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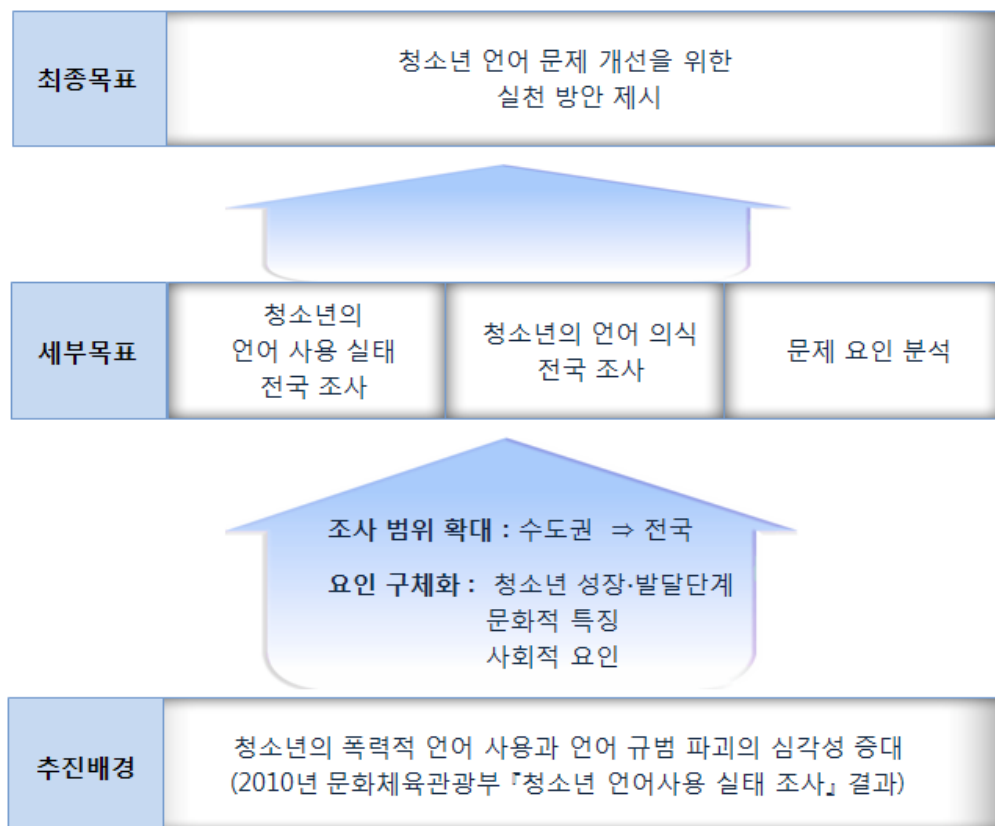
[그림 3-1] 변인 간 상관 모형	44
[그림 3-2]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비율	54
[그림 3-3] 초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비교	55
[그림 3-4] 초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56
[그림 3-5]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비율	59
[그림 3-6]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비교	60
[그림 3-7]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61
[그림 3-8]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67
[그림 3-9]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70
[그림 3-10]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유형	73
[그림 3-11]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유형	74
[그림 3-1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75
[그림 3-13]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76
[그림 3-14] 초등학생 입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77
[그림 3-15] 초등학생 글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78
[그림 3-16] 초등학생 통신언어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79
[그림 3-17] 중고등학생 입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82
[그림 3-18] 중고등학생 글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83
[그림 3-19] 중고등학생 통신언어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84
[그림 3-20] 초등학생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	87
[그림 3-21] 중고등학생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	90
[그림 3-2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발생 빈도	91
[그림 3-23]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유형	92
[그림 3-24]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에 대한 대응 유형	93
[그림 3-25]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발생 빈도	94
[그림 3-26]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유형	95
[그림 3-27]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에 대한 대응 유형	96
[그림 3-28]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비율	99
[그림 3-29]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100
[그림 3-30]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104
[그림 3-31] 입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106
[그림 3-32] 글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107
[그림 3-33] 통신언어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108
[그림 3-34] 입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109
[그림 3-35] 글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110
[그림 3-36] 통신언어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111
[그림 3-37]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115

[그림 3-38]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117
[그림 3-39] 초등학생의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118
[그림 3-40] 중고등학생의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119
[그림 3-41]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초등학생)	120
[그림 3-42]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중고등학생)	121
[그림 3-43]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분석 결과	126
[그림 3-44] 청소년의 비속어(낮은 강도) 사용 실태	130
[그림 3-45] 청소년의 비속어(중간 강도) 사용 실태	131
[그림 3-46] 청소년의 비속어(높은 강도) 사용 실태	131
[그림 3-47] 청소년의 은어·유행어(낮은 강도) 사용 실태	132
[그림 3-48] 청소년의 은어·유행어(중간 강도) 사용 실태	132
[그림 3-49] 청소년의 은어·유행어(높은 강도) 사용 실태	133
[그림 3-50] 교사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134
[그림 3-51] 학생들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	135
[그림 3-52]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	136
[그림 3-53] 학교급별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	136
[그림 3-54] 언어 실태(문제)의 원인	137
[그림 3-55] 개선책 구안 및 관리 주체	140
[그림 3-56] 개선방안의 실효성	142
[그림 4-1] 비속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162
[그림 4-2] 학교급별 비속어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162
[그림 4-3] 성별 비속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163
[그림 4-4]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165
[그림 4-5]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별 비율(입말)	167
[그림 4-6]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학교급별 하위 유형 비율(입말)	167
[그림 4-7] 공격적 언어 표현의 성별 하위 유형 비율(입말)	168
[그림 4-8] 은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179
[그림 4-9] 학교급별 은어 사용화자수 비율(입말)	179
[그림 4-10] 성별 은어 사용화자수 비율(입말)	179
[그림 4-11]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별 비율	210
[그림 4-12] 글말과 통신언어 사용 비율	210
[그림 4-13]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 비율	211
[그림 4-14]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글말)	211
[그림 4-15]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통신언어)	212
[그림 4-16]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	212
[그림 4-17]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글말)	213
[그림 4-18]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통신언어)	213

제1장 서론

1. 과업의 목적과 배경

본 과업은 청소년의 언어 실태와 언어 의식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과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문화적 특성,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업의 내용과 조사 범위

2.1 과업의 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 언어 사용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언어 규범 파괴에 초점을 두고 이에 관련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 나. 청소년 언어 의식 조사
- 다. 문제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가.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언어 실태 조사의 내용은 언어폭력 실태를 보여주는 비속어 사용 및 욕설·협박·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언어 규범 파괴로 이어지는 은어·유행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 조사 대상 표현

- 공격적 언어 표현: 비속어, 욕설·협박·비하·저주·조롱 등
- 규범 파괴적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

○ 조사 내용

- 사용 빈도, 확산도
- 사용 맥락, 매체
- (비속어의) 거친 강도, (은어/유행어의) 규범 파괴 정도에 따른 사용 여부
- (비속어·은어·유행어) 어휘 형태
- 폐해 정도

나. 청소년 언어 의식 조사

언어 의식 조사의 내용은 공격적 언어 표현 및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사

용 동기, 인지도,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 의지로 구성된다.

-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의식
 - 사용 동기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 언어 규범 파괴에 대한 의식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 은어·유행어 어휘별 인지도
-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의식
 - 자신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 개선책에 대한 의식
 - 언어 개선 방안에 대한 수용 의지

다. 문제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언어 실태 및 의식 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되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예상 관련 요인
 - 사회인구학적 요인: 연령, 성별,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 가정경제 수준, 부모 학력
 - 개인 특성(성장·발달) 요인: 자기통제력, 공감 능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 가정환경 요인: 가족 응집성, 부모의 통제 수준, 스트레스
 - 교육 환경 요인: 교사-학생 간 응집성, 교사의 통제 수준, 학업 스트레스
 - 사회·문화 환경 요인: 또래 간 응집성,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청소년 집단 활동 여부, 청소년 집단 내 정서적 지지도

2.2 조사 범위

- 조사 대상자(제보자)
 -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 초·중·고등학교 교사
- 조사 자료
 - 설문 응답 자료: 자유코드 응답, 자유 응답
 - 입말: 일상대화(또래 간)
 - 글말: 작문, 편지 등
 - 통신언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메신저 대화 등
- 조사 내용
 - 청소년 언어 실태: 비속어, 공격적 언어 표현, 은어·유행어의 사용 실태
 - 청소년 언어 의식: 언어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
- 조사 지역: 전국 6개 권역(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3. 과업 수행 방법

3.1 이론 연구

이론 연구는 본 연구의 대상인 비규범적 언어(비속어·은어·유행어,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개념과 특징 정리, 선행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는 크게 청소년 언어에 관한 선행 연구와 청소년 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비규범적 언어(비속어·은어·유행어, 공격적 언어 표현)

- 연구 내용
 - 비속어의 정의와 특징
 - 은어의 정의와 특징
 - 유행어의 정의와 특징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정의와 특징

2) 선행 연구 검토

- 연구 내용
 - 청소년 언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검토
 - : 청소년 언어 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 검토
 -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 검토
 - 청소년 정책 사례 검토
 - : 국내 사례 검토
 - : 해외 사례 검토

3.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청소년(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 청소년 대상 설문

- 조사 내용
 -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 심리 성향

- 가정환경, 교육 환경, 사회 문화 환경
 -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의식
- 조사 방법: 온라인(인터넷 설문지) 조사, 자유코드응답법, 자유응답법
- 조사 규모: 전국 초중고 학생 6,053명(유효 표본)
- 조사 기간: 2011년 10월 10일 ~ 2011년 10월 24일 (15일 간)

2) 교사 대상 설문

- 조사 내용
- 청소년들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 교사들의 언어 사용 및 지도 실태
 -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 조사 방법: 온라인(인터넷 설문지) 조사, 자유코드응답법, 자유응답법
- 조사 규모: 전국 초중고 교사 184명(유효 표본)
- 조사 기간: 2011년 10월 10일 ~ 2011년 10월 24일 (15일 간)

3.3 직접 조사

직접 조사는 입말 조사, 글말 조사, 통신언어 조사로 이루어졌다.

- 조사 목적
- 청소년의 언어 사용 문제의 심각성 증대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현장 조사 실시
 - 설문 조사에서 파악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 조사 내용
- 입말, 글말, 통신언어에서의 비속어,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 입말, 글말, 통신언어에서의 은어, 유행어 사용 실태

○ 조사 규모

- 전국 초중고 학생 542명
- 지역: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6개 권역
- 학년: 초 5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 총 18개 학급

○ 조사 방법

- 입말: 또래 대화(남남, 여여, 남녀)
- 글말: 작문(기억에 남는 일), 롤링페이퍼
- 통신언어: 학급 커뮤니티 및 미니홈피 게시판 글, 댓글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2011년 7월 30일 (2개월 간)

제2장 기초연구

1.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구분

요즘 청소년들은 표준적이고 규범적이지 않은 언어 표현이 습관화되어 있고,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 등의 사용에 무감각해져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자존감에 큰 해를 입히는 언어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특별히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기분에 따라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 발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적 언어 표현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깎아내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언어 행위로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욕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고,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은 표현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국어에는 매우 많은 비속어가 존재하고 수식 구성이나 접속 구성으로 무수한 욕설이 사용되는데, 이들이 모두 공격성이라는 기능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언어는 사용자 범위나 사용 시기의 한정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또 일반 대중에게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말도 있다. 우선, 한정성을 지니는 말에는 유행어와 은어가 있다. 은어는 특정 집단 안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라는 점에서 사용 집단의 한정성을 지니고, 유행어는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용 기간의 한정성을 지닌다.

은어, 유행어와는 달리 일반적인 통용성을 지닌 말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보거나, 구별하거나, 혹은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고 다시 하위 범주화하는 관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관점을 취하여 비표준적이며 일반적인 통용성을 지닌 말들을 구분하고 다시 하위 범주화하려고 한다. 김동언(1999)에서는 ‘비어’에는 가리키는 대상을 낮추어 말하는 낮춤말의 의미가, 속어에는 통속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 구별되고 있지만 ‘낮은말’을 매개로 비어와 속어가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계를 긋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를 통합하여 이르는 것으로, 낮은말, 낮춤말, 속된 말을 모두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비표준적이면서 일반적인 통용성을 지닌 말들은 비속어로 범주화하며,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로 하위 범주화한다.

이러한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언어 파괴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공적인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국어 어법 자체에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일상적 사용이 불려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은어와 유행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거의 모든 언어생활을 점령하고

있다. 기성세대에게 은어와 유행어는 뜻을 전혀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소통 단절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절은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세대 내 즉,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일부 청소년에게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1 비속어의 정의와 특징

‘비속어(卑俗語)’는 사회적으로 격이 낮으며 통속적인 말로, 비어(卑語)와 속어(俗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비어의 정의와 특징

기존 연구에서 비어(卑語)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¹⁾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이희승, 1961; 신기철 외, 1989; 국립국어원, 1999)로, 속어보다 더 비천하고 야비한 어감을 가진다(김현주, 200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에서는 비어가 ‘낮잡아 이르는 말’, ‘낮추어 이르는 말’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풀이말을 중심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해 보면, ‘낮잡아 이르는 말’이 1,066개이며, ‘낮추어 이르는 말’은 147개에 이른다. ‘낮추어 이르는 말’은 주로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칭 표현, 자신의 소유물이나 언행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표 2-1> 비어 예시²⁾

구분	예시
계층	년, 놈, 새끼, 가난뱅이, 각설이, 계집, 계집불이, 계집사람, 계집아이, 남산골딸각발이, 너울짜리, 노배, 놈팡이, 농사치기, 바닥쇠, 배랑뱅이, 보살태기 등
출신	시골뜨기, 양키, 오랑캐, 촌놈, 되광대, 되놈, 떡부엉이 등
직업	가계쟁이, 간판장이, 계정꾼, 견마지류, 고기잡이꾼, 고리백장, 고수, 공돌이, 공순이, 그림쟁이, 당책쟁이, 대서쟁이, 대장장이, 대장질, 동자질, 동학쟁이, 되거리장사군, 두냥머리, 두더지꾼, 뜯보기장사치, 딱따기꾼, 딱따이패, 탄꾼, 탄따라, 탄따라패, 땀쟁이, 또드락장이, 똥닥개, 똥통쟁이, 뽕쟁이, 뜸쟁이, 마름꾼, 머슴꾼, 머슴살이꾼, 모사꾼, 박수패, 반찬쟁이, 보행꾼, 복술쟁이, 부엌것, 부엌데기, 사주쟁이, 상머슴꾼, 생판내기, 석수장이, 설레꾼, 장돌뱅이, 장사치, 창녀 등
관계	가시버시, 가시아비, 가시아미, 가시할미, 가시할아버, 계집자식, 덤받이, 돌씨, 떨거지, 마누라쟁이, 본계집 등
집단 내 역할	똥마니(숙), 줄개(낮), 첩자(부), 가살쟁이 등

1) <표준국어대사전>(국어국어원 1999)에서의 다음의 비어 정의 가운데, 둘째 뜻으로 사용한다.

「1」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비언02(鄙言).

「2」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

2) 장경희 외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13.

정신 특성	등신, 멍청이, 바보, 얼간이, 맹추, 무식쟁이, 간나위, 고정배기, 고지식쟁이, 곰통, 글방물림, 꺼병이, 내숭쟁이, 돼지바우, 둔자, 둔치, 등신, 똑쟁이, 멍추, 미치광이, 반놈 등
신체 특성	똥보, 키다리, 늙다리, 외팔이, 절름발이, 꼬추, 사팔뜨기, 간질쟁이, 곰보, 까꾸머리, 감둥이, 깽비리, 넓적추니, 노객, 노생, 늙다리처녀, 늙으데기, 늙은것, 늙은데기, 다리병신, 담쟁이, 대갈쟁이, 돼지눈, 똥똥보, 똥차, 목발이, 배불뚝이, 부지꾼, 상투쟁이, 새알뽑재기 등
행동 특성	극성쟁이, 게으름뱅이, 궂보, 술꾼, 잔소리꾼, 노름꾼, 개구쟁이, 욕심쟁이, 간장보기, 감돌이, 강포자, 개구멍서방, 개년, 개놈, 개다리상제, 개팔년, 개통상놈, 게으름뱅이, 계명위리, 고생쟁이, 고자쟁이, 귀양다리, 극렬분자, 극성쟁이, 꺾떡쇠, 너털뱅이, 노죽쟁이, 놀음쟁이, 농땡이꾼, 대식한, 둔물, 뒤똥발이, 뒤뜰바리, 득득거리, 따리꾼, 딱뽕쟁이, 떼꾸러기, 먹자파, 모양꾼, 박쥐족, 방해꾼, 배상꾼, 새살바가지 등
주거	강것, 경기까투리, 낭한, 두메내기, 두멧놈, 본바닥내기 등
의복, 옷차림	갓쟁이, 감투쟁이 등

비어는 의미 대상 자체가 지니는 비천한 속성 자질을 포함하여, 비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모욕감, 수치감 등을 느끼게 된다. 대화 상대자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하의 태도’가 전달되고, 결국 체면의 손상을 경험한다.

국어의 비어들은 조선조 수직적 신분사회에서 발달된 것으로, 양반과 같은 지배 계급이 상민, 천민 등을 비하하여 낮잡아 이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장경희, 2010)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다. 비어 가운데는 사람 또는 직업에 관한 것이 매우 많은데³⁾, 사람이나 직업을 낮잡아 이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만인이 평등하고, 의사소통의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현대의 언어 예절에 따르면, 비어의 사용은 부적절한 것이며 언어 예절을 벗어난 것이다.

2) 속어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이희승, 1961; 신기철 외, 1989; 국립국어원, 1999) 정통 어법에서는 벗어났다고(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94) 생각되는 구어적 표현을 이른다. 또 대화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거나, 주목을 끌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서정범, 1973; 강신항, 1967; 김혜숙, 1991). 그러나 요즘 청소년은 속어를 대상에 상관없이, 수업 시간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성적인 저속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어가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되고 있으며, 뜻풀이에 ‘속되

3) 이는 천민이나 하층이 맡았던 직업 관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쟁이, 대장쟁이, 두더지꾼, 딱따기꾼, 판꾼, 판따라, 똥통쟁이, 똥쟁이, 마름꾼, 박수패, 부엌데기, 석수장이 등이 있다.

계'라는 말을 포함한 단어는 1,157개에 이른다. 그 내용은 사람의 신체 부위, 직업, 계층에서부터 동작, 성상, 정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예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속어 예시⁴⁾

	구분	예시
인칭	신체	가슴팍, 간땡이, 간판 짹, 개눈깔, 고기, 골비단지, 나발, 낫바닥, 네굽, 내눈깔잡이, 눈꼽자기, 눈구멍, 다리짹이, 다리몽둥이, 닭살, 대가리, 대옆구리, 배지, 배통이, 볼따구니, 볼알망태, 볼쪽, 빠드렁이 등
	직업	갈보, 골부인, 논다니, 골선비, 벽돌장이, 볼쟁이, 빠끼 등
	계층	별짜리, 부르주아, 빨갱이 등
	정신	개고기, 골양반, 꼬쟁이, 빠꼼이 등
	행동 성향	개빠다귀, 거사, 건달잡놈, 골생원, 날고갈, 늦새끼, 배짱파, 백여우, 별종, 별짜, 봉짜, 비겅덩어리, 사곳덩어리 등
비인칭	동작	가꾸러뜨리다, 각볼때다, 갈구다, 감내다, 개잡다, 꿰차다, 끝내주다, 나가 빠드러지다, 낫다, 내빠다, 내리먹다, 네굽질, 논풀다, 누비다, 돈지랄하다, 백정질, 보리타작, 볏다, 불장난, 불어먹다, 빠구리, 빨갱이질, 빠개다, 뺑까다, 뺑나다, 뺑놓다, 뺑치다, 뽕록나다, 뽕나다, 뽕놓다, 뽕빠다, 뽕나다, 뽕내다 등
	성상	가짜배기, 개코같이, 개좃같다, 부어터지다, 붓다, 뺑뺑하다, 뺑썰하다 등
	사물	감은약, 개뿔, 누렁이, 달러돈, 닭장차, 담뱃값, 담요때기, 백로지, 병거지, 북통, 불알시계, 불통, 빗구멍, 빨간책, 뽕뽕이차, 뽕, 뽕짝 등
	장소	감옥소, 돌구멍안, 백골집, 뽕죽집 등

<표 2-2>에 제시된 예시된 속어들은 <표 2-1>의 비어가 대부분이 인칭 표현인 것과 달리, 인칭과 비인칭 표현, 특히 동작 등의 표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속어를 많이 볼 수 있다.

1.2 공격적 언어 표현의 정의와 특징

‘공격적 언어 표현’이란 공격성을 지닌 발화가 대화 상대방에게 부정적 영향력 끼치는 표현을 말한다. 즉, 언어를 사용하면서 가지게 된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에 포함되는 ‘욕설’에는 ‘남을 저주하거나 비하, 모욕, 위협하는 말’(이희승, 1961; 신기철 외, 1989; 한글학회, 1992; 국립국어원, 1999)이나 ‘상대를 조소, 야유, 조롱하는 것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신기상, 1992)고 보고 있다. 기존 정의에서 변별 자질로

4) 장경희 외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15

분석된 행위적 특징들은 ‘미워하기, 저주하기, 명예훼손하기, 무시하기, 모욕하기’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들 언어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가 상대방을 훼손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행위적 특징은 바로 ‘언어의 공격성’이다.

물리적, 신체적 공격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을 공격하지만, 언어적인 공격은 인간의 내부, 즉 욕구를 공격한다(장경희, 2010). 갈통(Johan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오승호 2009: 100), 언어적인 공격 행위도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매슬로우(Maslow, A)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들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다고 보았다.⁵⁾ 언어폭력은 이들 욕구를 공격하는 것으로, 기존 언어폭력의 내용으로 파악된 ‘지적 능력, 사회성, 신체,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⁶⁾

그러므로 폭력적 언어 표현은 어떠한 욕구를 공격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비방’하기도 하며, 누군가의 단점이나 약점을 농담 삼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조롱’을 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협박’을 할 수도 있고, 제3자의 흠을 들추어 헐뜯으며, 대화에 참여한 화자와 청자의 친분을 쌓고 즐기는 ‘헐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비하·비방’은 상대방의 행위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낮춰 공격하여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 훼손한다. 예문을 제시하면 (1)과 같다.

- (1) ㄱ. 돼지 같은 게 어디서.
 ㄴ. 눈은 왜 달고 다니냐?

(1)에서 상대방의 ‘돼지’는 똥똥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눈은 왜 달고 다니냐?’는 상대방이 지닌 관점이나 안목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롱은 누군가의 단점이나 약점을 농담 삼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에 의하면,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으로 뜻풀이되어 있는데, 상대방보다 우위에 위치하면서 존중의 욕구를 훼손하는 기능을 한다.

- (2) ㄱ. 그런 것도 못 하니.
 ㄴ. 너는 맨날 끝까지 해서 좋겠다.

5)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임철성 옮김 1995 : 114-116, 홍대식 1983 : 375-376 참조)

- 생리적 욕구 : 생명 보존에 필수적인 먹고 마시고자 하는 등의 욕구
- 안전 욕구 : 위험, 공포, 박탈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 사회적 욕구 : 인간 집단에 소속되고 우정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 존중 욕구 :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 자기만족, 창조적 표현,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욕구

6) Infante et al(1992)에서는 언어적 폭력을 ‘성격 공격, 능력 공격, 배경 공격, 생김새 공격, 저주, 회롱, 조롱, 협박, 욕설’로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성격 공격, 능력 공격, 배경 공격, 생김새 공격’은 언어적 폭력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저주, 회롱, 조롱, 협박, 욕설’은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박미애 2003:18).

이러한 발화를 통해 상대방을 깔보며, 놀리면서 비웃고 있다. 조롱은 다른 공격적 언어 표현에 비해 공격 의도가 강하진 않으나, 상대방을 놀리면서 화자 기쁨을 느낀다는 특성을 지닌다.

어떤 나쁜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기를 기원문의 형식을 통해 초인적인 자연의 힘이나 신적 존재, 제3의 힘에 기원하는 것을 ‘저주’라 한다. 주로 상대방의 죽음이나 가혹한 형벌, 무서운 질병, 경제적인 패망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 (3) ㄱ. 천벌이나 받아라.
 ㄴ. 벼락 맞아 죽을
 ㄷ. 지옥이나 가라.

(3)과 같이 화자는 신적인 존재가 상대자에게 벌을 내리기를 기원하거나, ‘벼락’과 같은 초인적인 자연의 힘에 기대어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죽어서 ‘지옥’에나 가기를 바라고 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폭력적인 언어 표현도 있는데, 이를 ‘위협·협박’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화자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한다.

- (4) ㄱ. 너 죽을래?
 ㄴ. 나 건들면 가만 안 댈.
 ㄷ. 치워라. 죽기 싫으면.

(4)의 ‘죽을래?’와 같이 앞으로의 화자의 행동 의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미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다. ‘나를 건들면 너를 (앞으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것 역시 미래 사건에 대한 내용이며, ‘치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위협은 상대방이 화자의 욕구를 좌절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자의 내적 동기나 욕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 제3자의 흠을 들추어 헐뜯으며, 대화에 참여한 화자와 청자의 친분을 쌓고 즐기는 ‘협담’ 등도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이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상황에 자리하지 않은 사람을 훼손한다는 것 역시 언어에 의한 부정적인 힘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격적 언어 표현은 어떤 욕구를 공격하는가에 따라 비난·비방, 조롱, 저주, 위협·협박, 협담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개개의 공격적 언어 표현은 그 실현 방식에 따라 ‘비속어가 포함되어 실현되는 경우’와 ‘그 외의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장경희(2010)에서는 두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비어와 부정 가치어’⁷⁾가 사용되었는지

7) 비어는 대상을 낮잡아(낮추어) 이르는 말로, 사람의 지위, 출신, 직업, 관계, 정신, 행동, 복장 등과 관련된 말

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비난·비방을 중심으로 ‘비속어 포함되어 실현된 경우’와 ‘그 외의 표현으로 실현된 경우’로 구분한다.

- (5) ㄱ. 병신같은 게 어디서
 ㄴ. 멍청아, 대가리는 품으로 달고 다니냐?
 ㄷ. 좇만한 게 어디서 나대냐?
- (6) ㄱ. 돼지야.
 ㄴ. 개념 없는 것.

(5)의 비난·비방 같은 경우, ‘병신’, ‘멍청이’, ‘대가리’, ‘좇’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로 실현되어 상대방을 비하하며 ‘자기 존중의 욕구’를 훼손한다. 반면에 (6)의 경우, 욕설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을 비난·비방하는 의도가 실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7) ㄱ. 지랄 씹 싸 먹을 놈
 ㄴ. 염병할 놈
- (8) ㄱ. 길가다가 굴러라.
 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7)의 경우에는 ‘지랄’, ‘염병’, ‘놈’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로서 ‘저주’라는 공격적 언어 표현이 실현되고 있음에 반해 (8)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처벌을 기원하기는 하지만,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1.3 은어의 정의와 특징

‘변, 변말’로 불리기도 하는 은어는 기존 연구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 은비(隱秘)를 목적으로 하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김민수, 1975; 이승녕, 1975; 김해성, 1977; 장태진, 1982; 김종훈 외, 2005). 이러한 은어는 사용되면서 자기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방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김광해, 1993). 또 학생, 군인, 노름꾼, 거지, 부랑패, 도둑, 도박꾼 등의 각종 집단에 따라 형성된 사회 방언의 하나로 볼 수 있다(이희승, 1961; 신기철 외, 1989; 한글학회, 1992; 국립국어원, 1999). 집단 내적으로 볼 때는 외부에 대한 방어나 결속 등의 효과를 지니

들이 주를 이룬다. 지위와 관련되는 비어로, ‘년, 놈, 새끼’ 등을, 출신과 관련되는 비어로, ‘촌놈, 갓놈’, 직업과 관련되는 비어로, ‘그림쟁이, 대장쟁이, 탄따라, 땀쟁이, 장사꾼, 장돌뱅이, 정신과 관련되는 비어로, ‘등신, 멍청이, 마보, 맹추’, 신체와 관련되는 비어로, ‘똥똥이, 늪다리, 절름발이, 꼬추, 간질쟁이, 곰보’, 행동과 관련있는 비어로, ‘게으름뱅이, 껌보, 술꾼, 잔소리꾼, 욕심쟁이’, 복장과 관련되는 비어로 ‘갓쟁이, 감투쟁이’ 등을 들 수 있다.

부정 가치어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부도덕성, 성실성 결여, 신뢰 결여, 조심성 결여 등의 의미 자질 포함하는 단어’를 말한다. ‘협잡꾼, 배신자, 악당, 지랄하다, 까불다, 나대다, 처먹다, 방정맞다, 치사하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도 하나, 타 집단과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한다.

이른 시기의 은어 연구에서는 은어 사용 집단이 범죄 집단이나 거지 집단과 같이 하류 계층으로 파악되는 경향을 보였는데(김민수, 1953; 장태진, 1982),⁸⁾ 근래에 들어서는 은어 사용 집단이 특수 집단, 사회의 특정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해성, 1977; 이규창, 1981; 라용호, 1993; 임은미, 1997). 은어의 생산에는 언어 형식을 변형하는 방법, 기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방법, 통신 언어적 구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은어의 경우 통신 관련 어휘들이 활용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은어는 사용 목적이 ‘은비성’으로 특성화되며, 특수 집단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용자 및 사용 집단에 대한 제약이 있다.⁹⁾ 특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집단 결속, 집단 보호, 외부에 대한 방어, 불만의 표출 등 여러 효과를 도모한다. 학생 집단의 은어는 청소년이 교사나 부모 등 다른 세대에 대한 대립 감정, 비행, 일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금기의 대상인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은어가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ㄷㅅ’는 ‘담배’, ‘셔틀’은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 ‘아바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등을 뜻한다. 또 ‘왕가(왕가슴)’와 같이 청소년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성과 관련하여 은어가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은어가 지니는 구성원 결속 강화 기능, 또래 문화 형성 기능 등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되, 지나치게 비속한 은어에의 사용에 대한 언어 의식을 길러주고, 청소년들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는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

1.4 유행어의 정의와 특징

유행어는 어떤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일시적¹⁰⁾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로(이희승, 1961; 신기철 외, 1989), 신기하거나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신어의 일종으로 해학성, 풍자성을 띠는 경우(신기철 외, 1989; 국립국어원, 1999)가 많다. 대개 말 자체의 재미와 신기성·발음 형태가 두드러지고, 유행의 원인이 된 사람의 영향력 등에 따라 급속도로 퍼지기도 한다. 유행어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상어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 일상어로 자리 잡은 신조어는 이미 유행어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행어는 그 사용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한을 지닌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유행어를 ‘언중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로 파악하였다.

8) 그 밖에 이규창(1981)에서는 은어의 조건으로 ‘은비성, 반사회성, 제재성(制裁性), 대상성, 관용성, 기피성, 작위성’을 들고 있다.

9) 유행어는 사용 집단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은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은어와 구별되는 점이다.

10) 일시적으로 쓰인다는 사실로 인하여 신어와의 경계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백동선 1999; 문금현 1999). 신어란 그 말이 새로이 생겼다는 측면이 핵심 요소가 되는데, 새로 생겨난 신어가 바로 유행어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유행어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상어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 일상어로 자리 잡은 신조어는 이미 유행어의 범주를 벗어난다.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당대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선거 등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명퇴, 밤새 안녕하십니까’ 등의 유행어가 널리 쓰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스컴의 보급 등에 힘입어 코미디 프로그램, 광고방송 등에서 많은 유행어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통신어의 영향으로 ‘아헿헿, 헿’ 등이 유행하였다.¹¹⁾ 인터넷이 보급되고 폭 넓게 활용됨에 따라 인터넷 통신어의 표기 방식이 유행어에 적용되어서 ‘절친(절친한 친구), 베프(베스트 프렌드)’ 등의 줄임말이나 ‘ㄱㅅ(감사), ㅇㅇ(응응)’ 등과 같이 음절 초성만으로 된 유행어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줄임말은 예전에도 있었던 방법으로, 명사와 명사의 결합과 같이 통사적 구성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사와 동사(감놀: 깜짝 놀라다), 두 문장의 결합(취존: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에서처럼 비통사적으로 구성된 단어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하다. 이처럼 유행어는 기존 단어의 의미나 형태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장이나 구 차원에서 단어로 압축되기도 한다.

1.5 종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문제를 언어폭력과 규범 파괴로 규정하고, 언어폭력은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에 의해 실현되고, 규범 파괴는 은어, 유행어에 의해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이들 개념을 종합해 보기로 한다.¹²⁾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은 거친 언어 사용의 문제를 야기하고, 모두 대화 상대자를 낮추거나 공격하는 등의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뿐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언어관, 가치관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의 차이는 그 구성 방식에서 드러난다. 비속어가 하나의 어휘로 실현되는 반면에, 공격적 언어 표현은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욕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고,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은 표현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욕설을 포함한 공격적 언어 표현은 욕설, 저주, 위협·협박, 비하·비방 등으로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11) 원래 통신상에서 사용된 유행어들이 구어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요즘 유행어의 특징 중 하나다.

12) 비속어는 단위는 어휘이고, 기능은 공격적 언어 사용으로, 은어 유행어와는 단위가 공통되고, 기능은 공격적 언어표현과 동일하다. 논의를 위해 비속어를 은어, 유행어와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유형	정의 및 특징	사례
욕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어나 속어 사용 -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를 훼손 - 타인에 의해 주어진 좌절원이나 자극을 동기로 하여 출발 	씨발 새끼야, 시발년아, 좆밥 새끼야, 갑치지 마, 존 간나새끼, 지랄 말고 씨발년아, 니미 씨부렐, 좆도 못생긴 새끼, 고이거나 처먹어라
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나쁜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기를 바람. - 기원문의 형식 - 초인적인 자연이나 신적 존재, 제3의 힘에 기원 - 상대방의 죽음, 가혹한 형벌, 무서운 질병, 경제적인 패망 등의 내용 	고자나 되라, 그러다 저주 받는다,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길가다가 굴러라, 나락으로 떨어져라, 망해버려라, 응카나 밟아라, 시험 망쳐버려라
위협·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 - 화자의 행동 의도 표현(미래 사건) - 상대방의 좌절원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도 공격자의 내적 동기나 욕구에 의해 발생 	갈아줄게 이 얼굴을, 뒷동산으로 올라?, 고자 시킬 꺼야, 나대면 밟는다, 욱하면 DIE, 목 날라간다, 안올리는 사람 죽여 버릴 거야, 입을 확 찢어버린다
비하·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 훼손 - 상대방의 행위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공격 	언어 장애 주제에, 니가 여자야? skei 지 마, 개념 없는 것, 닥쳐, 고자질쟁이, 돼지야, 애자, 게이 같애, 여드름 괴물아, 엉덩이킹

욕설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 표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의 신분, 인성 등을 비하하여 상대의 존중 욕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저주나 위협·협박, 비하·비방은 상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거나, 미래에 상대를 처벌할 것이라고 행동 의도를 표현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행위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며 공격하는 것이다. 비속어가 포함된 표현으로 공격하는 욕설은 다른 하위 유형에 비해 공격의 강도가 강하여 청소년의 욕설 사용 증가는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수준임을 말해준다. 청소년들은 저주, 위협·협박, 비하·비방도 ‘염병할 놈, 벼락이나 맞아라’와 같은 기존의 표현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개념과 사용자의 범위, 특징적 자질, 활성화 범위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비속어	은어	유행어
개념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태도를 가지고 쓰이는 통속적이고 저속한 말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말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을 표현하고자 일시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
사용자 범위	전 세대 사용 가능	특정 집단 내	시대/세대별로 구분 가능
자질	[+저속성]	[+은비성]	[+일시성]
활성화 범위	- 신체, 직업, 계층, 정신 등에 대한 낮춤 - 동작이나 성상, 사물, 장소 등에 대한 낮춤	- 대립 집단에 대한 호칭, 행위 - 내부 집단의 은비 사항: 학습 활동, 이성 관계, 금기 행위 및 대상	- 시대적 관심 집중 - 세대별 관심 집중
예시	뼈끼, 허접새끼, 개-(개편다, 개싫다), 갈구다, 띠껍다	물고기방, 셔틀, 십덕후	절친, 쌍수, 완전, 헐, 미친, 대박, 되게, 짐승돌, 레알
특징	- 대응하는 표준형 존재	- 특정 집단에서만 은비를 목적으로 사용. - 배타성으로 인해 다른 집단 은 이해하기 어려움.	- 사라지거나 일상어로 자리함. -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 - 통신 언어가 많음. - 줄임말 형식이 많이 쓰임.

비속어가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 세대 간 구분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통속적이고 저속한 말이다. 비속어는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대응하는 표준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갈구다’라는 비속어는 ‘괴롭히다’라는 표준형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은어와 유행어는 사용자 범위가 특정 집단 혹은, 시대나 세대로 구분지어 질 수 있다. 은어는 구성원들 내에서 은비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고, 유행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일시적인 표현들을 이르는 말이다. 은어의 경우는 보다 명확히 단어를 알고 모름에 따라 집단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셔틀’이라는 단어를 알고 사용하지만, 청소년이 아닌 보통의 어른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 유행어의 경우 시대별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에 IMF를 겪으며 ‘명퇴(명예 퇴직)’,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와 같은 유행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유행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줄여 사용하는 ‘쌍수’라는 유행어를 노인층은 모르기도 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의식·언어 실태 전국 조사에 앞서, 청소년 언어 조사(언어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와 개선 방안을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국내외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선행 연구와 청소년 정책의 분석 범위

연구 영역		유형
청소년 언어에 관한 연구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연구	비규범적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
		욕설 사용에 대한 연구
	청소년 언어 의식 조사 연구	정책 목적으로 접근된 연구
		연구 목적으로 접근된 연구
	청소년 언어 문제개선에 관한 연구	언어 문제의 전반을 다룬 연구
		언어 문제의 특정 측면에 주목한 연구
청소년 정책	국내 사례	청소년 인성 교육 정책
		가정 및 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
		매체에 관한 정책
	해외 사례	영국의 청소년 정책
		일본의 청소년 정책
		독일의 청소년 정책

2.1 청소년 언어 연구

청소년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언어 문제 개선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청소년 언어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 실태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언어 실태의 연구를 검토해 보면, 언어 실태에 관한 개념 정의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비속어·은어·유행어 및 욕설 사용 실태, 통신 언어 사용 실태, 외국어 및 외래어 사용 실태, 신조어 사용 실태, 어문 규정 인지 및 사용 실태,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 경어법 사용 실태 등을 연구하였다. 이 중 특히 청소년의 언어는 청소년 세대 내에서만 소통되는 사회 방언으로서 비규범적인 어어 표현이 많고 특히, 욕설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어 사용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언어 의식에 대한 조사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언어의식의 조사는 국민의 언어 의식이나 국어 의식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 주로 정책 과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많지만,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의 하위 항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언어 의식 조사가 이루어진 연구도 보인다.

그 외에 언어 현상의 측면이 아니라 청소년의 비규범어와 욕설 사용이 심화되는 등 문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소개된 언어 실태나 언어 의식과 연관되어 제시된 경우도 많다.

2.1.1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의 언어 실태에 관한 연구는 크게 비규범적 언어 사용과 욕설 사용의 실태를 다룬 연구로 구분된다. 그리고 전자는 비속어, 은어 등 청소년 언어가 지닌 비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와 주로 통신언어의 특성과 연관 지어 접근한 연구로 다시 구분되고, 후자는 욕설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표 2-4>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유형		연구 목록		
청소년 언어 실태 조사 연구	비규범적 언어 사용의 실태	비속어, 은어, 유행어	임은미(1997), 이정민·최혜경(2001), 장경희(2010)	
		통신언어	하위유형별 접근	김주덕(2002), 이경민(2003), 오창석(2010)/ 신종희(2002), 조일규(2003), 손세모돌(2003), 허재영(2008), 김은영(2009)
			종합적 접근	이정복(2005)
	욕설 사용의 실태	언어학적 접근	박종률(2006), 전병철(2007), 권선미(2008), 손봉희(2009), 소재희(2010), 양명희(2010)	
		심리학적 접근	손봉희(2009), 소재희(2010)	

1) 비규범적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먼저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 비규범어를 다룬 연구는 임은미(1997), 이정민·최혜경(2001), 장경희(2010) 등이 대표적이다. 임은미(1997)에서는 전국 24개 중·고등학생 120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은어, 속어, 욕설을 각각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은 은어, 속어, 욕설을 왜 사용하는지, 청소년들이 은어, 속어, 욕설을 사용하여 얻는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정민·최혜경(2001)에서는 강원도의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비속어, 은어, 통신언어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속어, 은어, 통신언어 각각의 사용 빈도와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의 언어에서 PC 통신 언어가 많이 차용되고 있다는 경향을 밝혀냈다.

장경희(2010)에서는 청소년의 언어 문제를 다각적인 변인과 관련지으면서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 진단과 원인 파악을 목표로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600여명의 입말과 글말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했다. 기존 조사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청소년 언어 사용의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총체적인 양상을 조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속어·유행어·은어의 목록과 사용 빈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비속어·유행어·은어의 사용 맥락과 확산 경로, 언어 실태와 의식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환경적·개인적 요인과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들의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이 습관화됨으로써 친구와의 대화 중 평균 20어절에 한 번 꼴로 비속어·유행어·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도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통신언어에서 발음·형태·통사 규칙이 파괴되면 그것이 실제의 의사소통의 장면에까지 확산되고 그 심각성은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진단하였다.

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는 김주덕(2002), 신종희(2002), 손세모돌(2003), 이정민(2003), 조일규(2003), 이정복(2005), 허재영(2008), 김은영(2009), 오창석(2010) 등이 있다.

이 연구들 가운데는 통신언어를 그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그 각각에 집중한 연구가 있고, 그러한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전자의 방법론을 택한 연구가 많은 것은 통신언어가 그 본질상 다매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통신언어라는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 국면에 따라 지니는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연구에서 통신언어는 인터넷 게시판 언어, 채팅 언어, 댓글 등으로 재구분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김주덕(2002), 이정민(2003), 오창석(2010), 손세모돌(2003) 등이다. 이정민(2003)에서는 통신언어의 개념, 특성, 발생 원인을 살폈다. 그리고 게시판 언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음운, 어휘, 문법, 표기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통신언어의 양가적 측면을 모두 인정하였다. 즉, 통신 언어의 사용이 세대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국어의 창의적 사용 등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기존의 언어 질

서 파괴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오창석(2010)에서는 인터넷 공개 게시판의 글을 분석하여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표기법, 음운, 어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사용 실태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이경민(2003)의 연구와 유사한 분석 방식과 결과를 드러내고 있으나 학교에서 실시한 작문 과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통신언어의 특징이 실제 글쓰기에도 제약적이긴 하나 반영됨을 확인했다. 손세모돌(2003)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 제목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글 제목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결과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익명성 여부보다는 게시판 이용자와 관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은 주로 화자의 '불만'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청소년 채팅 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신종희(2002), 조일규(2003) 등을 들 수 있다. 신종희(2002)에서는 중학생 채팅 언어의 텍스트적 특징을 파악하고, 문법, 어휘 및 의미, 음운 및 표기 면에서 살폈다. 텍스트적 실태로는 입말의 글말화, 짧은 문장들의 나열 등을, 대화 전개상의 특징으로는 내용전개의 부자연스러움, 통일성의 결여, 짝대화의 양상, 탐색 대화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제가 이원적(二元的)이고 급변하며 별 의미 없는 말 유희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문법적 특징으로는 문장성분의 생략, 조사의 생략,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사용, 첨어의 사용¹³⁾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어휘 및 의미상의 특징으로는 통신어, 은어, 비속어 사용 등을 들었다. 음운상의 실태로는 음운 탈락, 축약, 된소리되기 등을, 표기상의 실태로는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이어적기, 띄어쓰기 혼란, 음절 일부 숨기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일규(2003)에서는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신 대화 속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채팅 언어에서 사용되는 한 문장의 낱말 수는 하나의 낱말로 된 것이 51%, 1~3개로 이루어진 것이 82%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통신 대화에서는 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문장 중 틀린 낱말이 포함된 것이 76.5%나 되었으며 틀린 낱말이 많은 품사는 용언(32.5%) - 수식언(17.6%) - 체언(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임법 사용 실태는 '격식 갖춘 높임법'¹⁴⁾이 21.3%, '격식을 갖추지 않은 높임법'이 78.7%로 나타나, 대면 대화에서 가지는 상대에 대한 예절이 채팅 언어에서는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소년의 통신언어 중에서 댓글의 언어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허재영(2008), 김은영(2009) 등이 있다. 허재영(2008)에서는 2363개의 댓글을 조사하여 음운, 어휘, 문법, 담화, 표기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통신 언어의 음운적인 특징은 '강화 현상', '음운 교체', '생략과 축약', '첨가'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어휘적인 특징은 '비속어와 비하어', '상징어', '의미 변화', '일본어와 외래어', '신조어'로 파악되었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문법 형태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사(화)', '조사와 어미' 등을 관찰, 설명하였고, 담화의 차원에서는 관용 표현과 사회상을 반영의 측면이 다루어졌다. 표기 및 규범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여 두드러진 특징만을 제시하였는데,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과 숫자, 기호, 한글 약자 사용 등이 제시

13) 하나의 실질형태소로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소를 중복하여 표현하는 언어를 뜻한다. 예로는 "ㅇㅋㅇㅋ, ㅋㅋㅋㅋ, 진지진지, 당연당연, 아뿔아뿔, 마자마자" 등이 있다.

14)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등을 격식 갖춘 높임, "해요체, 해체"를 격식 안갖춘 높임으로 보았다.

되었다. 김은영(2009)에서는 댓글 언어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댓글 문화를 평가하였다. 이 중 청소년 댓글 언어는 소리나는 대로 쓰기, 음절 줄여 쓰기, 기호의 사용 등 통신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통신언어를 하위 유형별로 분절적인 접근을 취했던 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하위 유형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정복(2005)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과 대구 지역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게시판 언어, 대화방 언어, 전자편지 언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언어, 모뎀일기의 텍스트를 장르별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소년 언어 사용의 창의성과 규범성, 통신 언어 사용의 국어학적 특징, 경어법 사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언어 자료는 서울지역 5개 학교와 대구 지역 4개 학교의 2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국어 교사가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조사결과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 분석의 내용 중에 특징적인 것으로 창의적 언어 사용 실태, 비규범적 언어 사용 실태, 경어법 사용 실태 등이 분석되었는데 창의적 언어 사용 실태로는 새말 만들기, 참신하게 표현하기 등을 들었다. 그 외에 비규범적 언어 사용 실태로는 어문 규범에서 벗어나기, 비속어를 일상적으로 쓰기, 방언과 외계어 적극적으로 쓰기 등을 제시하였다.

2) 욕설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의 욕설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박종률(2006), 전병철(2007), 권선미(2008), 손봉희(2009), 소재희(2010), 양명희(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욕설의 사용 실태나 유형, 문제성, 개선 방안 등을 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와 언어 실태와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언어학적 접근을 취한 연구로는 박종률(2006), 전병철(2007), 권선미(2008), 양명희(2010)이 있다. 박종률(2006)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체육수업 중 발생하는 욕설의 빈도와 유형적 특성, 교육적 해악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모방적 심리와 습관에 의해 체육 수업 시 욕설을 매우 자주 사용하였으며, 욕설의 유형은 몇 가지 한정된 욕설, 성에 관한 욕설, 발문형 욕설, 명령형 욕설, 비유형 욕설, 외국어로 된 욕설, 음운변이와 변형을 통한 욕설 등으로 구분되었다. 욕설의 해악으로는 체육교육의 의미와 목적 변질, 부정적 언어 습관 강화, 개인의 감정 손상 등이 있었고, 욕설이 스트레스 해소와 친숙함을 제공한다고 인식은 교육적 맥락 속에서 인식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전병철(2007)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댓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욕설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댓글에 나타난 욕설의 의미상 특징으로는 직설적 표현,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상대를 은근히 힐난하는 고차원적인 욕설 표현, 저주 표현, 반어적 표현, '개' 접두사를 활용한 표현 등이 나타났고, 형태상으로는 이어적기, 소리나는 대로 적기, 본래의 형태를 깨뜨리고 분절하여 적기, 음운 및 음절 탈락, 첨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권선미(2008)에서는 인터넷 대화방의 성과 관련한 욕설 실태를 조사하였다. 성과 관련한 욕설을 크게 '성기'와 '성 행위'로

구분하였고, 성 욕설의 기능으로는 친교의 기능, 배설의 기능, 풍자의 기능, 저항의 기능 등이 있다고 보았다. 양명희(2010)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욕설 사용 현황과 욕설 사용 원인, 욕설이 습관화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들었고,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욕설 사용을 시작하였다. 욕설 사용의 원인으로는 친구(47.7%)와 대중매체(42.8%)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욕설 사용과 심리학적 상관성을 주로 분석한 연구로 손봉희(2009), 소재희(2010)가 있다. 손봉희(2009)에서는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욕설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욕설 사용 빈도에 따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학생이 욕설을 사용하였고, 사용 대상은 주로 친구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형제자매, 자기 자신, 웃어른에게 욕설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으며 욕설 사용 찬반 여부를 살펴보면 욕설 사용에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하는 응답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욕설 사용에 대하여 자신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욕설 사용의 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 척도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문적 자아존중감은 욕설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욕설 사용 빈도가 중간 정도인 집단에서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학문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욕설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욕설의 사용에 다각적 변인이 복잡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소재희(2010)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욕설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욕설 사용 빈도와 자아개념 및 충동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여학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욕설 사용을 단순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욕설 사용의 빈도로는 남녀 모두 하루에 5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욕설 습득과 욕설 사용의 대상은 모두 '친구'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욕설과의 관계는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가족 자아, 정서 자아, 학급 및 성취 자아 개념이 낮게 조사되었고,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충동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욕설 사용이 인성 및 장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2.1.2 청소년 언어 의식 연구

청소년 언어 의식에 대한 연구는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접근과 학술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접근은 청소년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학술적 접근은 다시 설문 조사를 통한 실제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표 2-5> 언어 의식 조사 연구

유형		연구 목록	
청소년 언어 의식 조사 연구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접근	문화관광부(2001), 문화관광부(2003), 국립국어원(2005)	
	학술적 접근	실제적 접근	전병철(2003), 문종두(2003), 박용성(2009)
		이론적 접근	김시정(2011)

정부 주도의 정책적 과제에는 문화관광부(2001), 문화관광부(2003), 국립국어원(2005)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2001)과 문화관광부(2003)은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론과 실태 지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국어 실태의 영역을 문화관광부(2001)에서는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행동, 국어 환경, 국어 정책 등으로 구분하였고, 문화관광부(2003)에서는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 사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사회언어학적 언어 실태의 조사에서 흔히 드러나는 관점으로, 국어 의식이나 언어 의식 등을 실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2001)에서는 소위 ‘국어 의식 지수’를 국어에 대하여 내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을 조사하여 산출한 지수로 규정하고 국어 의식 조사를 모국어 및 외국어 의식 조사, 한국어 호감도 조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화관광부(2003)은 문화관광부(200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국어 실태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국어 실태 지수가 개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어 의식 지수를 국어 자궁도, 국어 애정도, 한글 자궁도, 외래어·외국어 기피도, 국어능력 자기 평가도, 어문규범 준수 의식도 등을 통하여 판단된다고 보았다.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국어에 관한 관심과 문제 의식, 언어 행동과 언어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으로 구분되었다.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의식은 관심 정도, 관심 분야, 국어에 대한 인상, 아름다운 국어에 대한 기준, 국어사용 실태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 국어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어 영역 등이 조사되었다. 언어 행동과 언어 사용은 언어 행동에 대한 인식,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와 사용 이유, 표준어 및 방언 사용 실태와 견해,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에 대한 실태와 인식, 대중매체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 정도, 외국 문자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외국어 간판 사용 선호도 등이 조사되었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은 국어 능력 및 국어 교육, 한자 교육, 외국어 교육, 어문 규범, 언어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 의식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폭넓게 접근하였다.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청소년의 언어 의식을 설문 조사로 분석한 연구는 전병철(2003), 문종두(2003), 박용성(2009)가 있다. 전병철(2003)에서는 N세대를 정의하고 이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많은 활동을 해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N세대의 언어 의식을 세대의 특성과 연관지어 정리하였다. 문종두(2003)에서는 진해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통신 언어의 사용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통신 언어 사용을 학생들만의 새로운 문화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통신 언어 역시 우리말 자원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박용성(2009)에서는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467명을 대상으로 통신 언어의 특징과 통신 언어 사용으로 인한 영향력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 언어는 언어 규범의 혼란이 가속화된 편이고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저급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상 언어에서 과다하게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 언어의 영향력으로 이질적인 문화 형성, 언어 사용의 경제성과 개성의 조화 등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언어 의식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로는 김시정(2011)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의식의 개념, 유형 및 특징 등을 의식이론의 관점에서 정립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어교육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어 의식은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의향적 요소로 구분하여 상세화되는데, 인지적 요소는 국어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어에 대한 인식과 주제인 나와 의 관계에 대한 견해로 이루어지고, 정의적 요소는 국어의 인식에 수반되는 감정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과 평가를 포괄하는 판단으로 보았으며, 의향적 요소는 국어 행위에 대한 의식의 방향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국어 의식의 교육은 국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을 심도 깊은 국어인식을 위한 내용, 국어의 심미성과 정서의 함양을 위한 내용, 국어 사용의 실현 방식이나 원리 습득을 위한 내용, 국어공동체의 발전상과 당면 상황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2.1.3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언어 문제 전반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한 연구와 언어 문제의 특정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표 2-6> 언어 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유형		연구 목록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언어 문제 전반에 관한 접근	백경녀(2001), 변성은(2006), 장경희(2010)
	특정 측면에 주목한 접근	이도민(2007), 양명희(2010)

청소년 언어 문제의 전반을 다룬 연구는 백경녀(2001), 변성은(2006), 장경희(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언어 실태가 지닌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경녀(2001)에서는 청소년 언어에서의 일탈 현상이 사회와 학교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해졌다고 보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서 잘못 쓰인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교정해 주는 것,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반성해 보고, 통신 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는 단원을 포함하는 것,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어로 바꾸어 써보게 하는 것, 문법 교육을 강화하는 것, 잘못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를 학생들 스스로가 조사해 볼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여 발표하는 것, 일상공간과 통신공간에서 올바른 언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개선 방안으로는 바람직한 통신 환경 조성,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외래어 등을 사용할 경우 교정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방송 매체에서 자정 노력을 하는 것, 부모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변성은(2006)은 청소년 언어 문제의 개선이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고,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학교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통신 언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부족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도 제시하였다. 둘째로 사회교육적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차원과 통신망 안에서의 기술적인 차원, 언론과 대중매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민 단체 및 언론들의 자각적인 노력과 이러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가정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평소 자녀들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평소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 스스로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녀와 함께 통신 공간에서도 올바른 대화를 나눔으로써 언어 문제를 고쳐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장경희(2010)에서는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언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교육 정책 수립에 관한 것과 사회·문화 정책 수립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교육 정책 수립에 관련된 것으로는 바른말 사용 교육 강화와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바른말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바른말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우수 교안 공모를 통한 자료집 제작 배포, 이러닝 콘텐츠 개발, 언어 사용 측면을 강화한 국어과 교육과정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 교육과 관련하여 욕설의 폐해에 대한 홍보물 제작,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심리 치료 프로그램 마련, 욕설 금지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정책 수립에 관련된 것으로는 가족 의사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방송 언어 순화 및 청소년 언어 선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데, 가족 의사소통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정지원센터에 의사소통 관련 부서 설립, 시도별 기구의 의사소통 컨설팅 프로그램 활성화, 부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고, 방송 언어 순화 및 청소년 언어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방송 언어 심의 기준 강화, 심의 과정

의 전문화, 바른말 사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들과는 달리, 이도민(2007), 양명희(2010)는 청소년 언어 문제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주로 욕설 표현에 주목하여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도민(2007)에서는 고등학생의 욕설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욕설 표현의 국어과 지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학적 관점의 지도에 나타난 문제점, 국어지식적 관점의 지도에 나타난 문제점, 국어순화적 관점의 지도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욕설 표현에 대한 국어교육적 지도 방안을 문학 작품을 통한 메타적 지도, 체계적 접근을 통한 언어순화 지도, 언어 표현의 고급화,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도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양명희(2010)에서는 학생들의 언어행동 가운데 욕설 사용을 자제 또는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 자신의 자기 점검과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거친 말, 폭력적 언어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 점검의 기회 강화, 품위를 갖춘 언어 사용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인식 점검의 기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제시한 학생 자신의 개인적 노력 방안으로는 심성 수련 훈련, 욕설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 강화 등을 들었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 방안으로 상벌 제도의 도입과 캠페인 전개, 법적 장치 마련 및 사회 분위기 개선 등 언어 운동과 언어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언어 순화 운동 추진,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 권장, 그린 마일리지 등 상벌제도의 도입 강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캠페인 전개,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교육 환경 조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들었다.

2.2 청소년 정책

2.2.1 청소년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방향부터 살펴보면, 과거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러 “제4차 기본계획('08~'12)”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이라는 비전(vision) 하에, 4대 정책분야 8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4대 정책 분야는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복지 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기존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된 4대 정책 분야는 ‘청소년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비전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이고 통합적·보편적·수요자 중심 청소년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표 2-7>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수정된 4대 정책 분야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2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정비

4대 정책 분야 중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에 속해 있는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크게 가정의 청소년 인성교육기능 강화와 학교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과정 내실화,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청소년 인성교육기능 강화 부분은 가정에서의 언어·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등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의 부모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사업이 세부 과제로 설정되었다.

학교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과정 내실화 부분은 다섯 가지의 세부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문화 개선 프로그램 도입, 교육청별 ‘Wee센터15)’를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품성개발과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학생

15) Wee센터(We + Emotion + Education) :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위기학생 상담과

생활규정 제·개정 시 공공규칙(폭언, 악플, 수업 방해 등) 포함 정비, 교원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공공규칙 문화 존중하기 교육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성과 올바른 언어습관 함양 및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 청소년 표준 화법 개발을 통한 건전한 언어문화 확립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큰 틀에서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 현행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2011 청소년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언어 순화 및 인성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시민 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 언어와 관련하여 대등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구 운영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청소년 언어 순화의 문제를 청소년의 대(對)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방통위에서 청소년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관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방지나 방송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6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과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 언어 문제를 따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게임 및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활용 여부에 따라 효율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2 국내의 청소년 정책 사례

청소년 언어 정책의 유관기관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의 정책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추진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각 기관의 정책들은 청소년 인성 교육, 가정 및 학교, 매체 및 미디어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청소년 인성 교육과 관련지어 각 부처의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언어 순화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매체환경 대응 강화라는 실행 목표 아래 네 가지의 실천 전략을 두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부모 및 청소년 대상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등 가정의 청소년 인성 교육기능 강화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표준화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지원을 2010년에 400개교에서 2011년 1000개교로 늘렸다. 그리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라는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창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는 ‘가칭 대안형 자율교’ 도입, 둘째,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상담, 치유하는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스템) 확대¹⁶⁾, 셋째, ADHD¹⁷⁾, 우울 등 정서·행동문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치료와 연계하는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¹⁸⁾, 넷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대상 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Wee 프로젝트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상담·치유 서비스 지원, 다섯째, 정규학교 출석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방송통신고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받고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들고 있다.

가정 및 학교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문화 선진학교 운영,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으나 예산 항목에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콘텐츠 개선을 위한 항목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언어와 관련해서는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의 차원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합적 언어 사용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 이외에는 제시된 바가 없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매체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심의기준 보완 및 제재조치 강화, 방송언어 순화 지원 등 건전한 언어 및 매체환경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¹⁹⁾. 또한 인터넷상 금칙어 차단 및 유해 용어 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중점 정책에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방안 마련’이라는 업무 계획이 있다.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게임법 개정을 통하여 게임서비스 업자에게 게임 과몰입·게임 중독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종래의 자율규제에서 강제적 의무부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게임이용정보(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둘째, 게임 과몰입의 상담·치료 기반 확충이다.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기존 16개에서 80여개로 확대 운영하고, 게임 과몰입 실태 조사 시행 및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셋째,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게임문화 지도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600여 명을

16) Wee 클래스(교내) : ('10) 2,530개 → ('11) 3,530개 / Wee 센터(교육지원청) : ('10) 110개 → ('11) 170개 / Wee 스쿨(기숙형장기위탁기관) : ('10) 5개 → ('11) 8개

1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말한다. 이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18)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학교 : ('09) 470교 → ('10) 1,126교 → ('11) 4,300교 → ('12) 모든 초·중·고

19)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3사가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의 M.O.U를 체결 (2010년 10월)한 바 있다.

양성하고, 이에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 사업을 500개교에서 10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가 청소년 등 국민의 가치·규범·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디어 소통(선별/이해/비판/창작) 능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하면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NIE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11년 중등 → '12년 초등/고등 확대), 둘째 미디어 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100개교/10,000명),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NIE 실시(30개소)를 들고 있다.

2.2.3 해외의 청소년 정책 사례

최근 각국의 청소년 정책은 정책 방향 설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적극적 복지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독립과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2년 러셀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적인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청소년 스스로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여 자기주도적인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고 영국의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모든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다문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이 복지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 이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 정책 기조(2010년 5월 이후)는 최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학교의 자치권 확대, 둘째,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셋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넷째, 교사의 권위 회복과 교사를 통한 교육의 질 확보, 다섯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질 개선, 여섯째, 교육과정 개편이 그것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관련된 부분이다. 취약 지역의 학교에게는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일반 학교보다 학생 수를 줄이며 일대일 학습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청소년 정책은 공동체의 공동 과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은 예방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위험이나 위험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청소년들이 위험과 위험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과 위험 가능성이 방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책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각 부서 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결정 및 참여 과정에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을 공동체의 공동과제로 여기는 독일에서는 연방주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독자적인 청소년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적인 청소년 복지행정에 민간청소년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평생학습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발달단계와 그에 따른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육

성추진요강(2002)과 청소년육성시책대강(2003)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은 가정에 대한 정책, 학교에 대한 정책, 직장에 대한 정책,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정보 및 소비의 장에 대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가정과 학교에 대한 정책이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는 가정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 서포터(supporter)’, ‘가정교육 조연자(advisor)’의 배치를 확대하고 ‘가정교육 수첩 및 노트’의 작성과 배포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학교에 대한 정책으로 심성교육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익혀야 할 도덕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마음의 노트’를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배포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마음의 교사’로 선정하여 각급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3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방향

2.3.1 청소년 언어 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기존 청소년 언어 연구를 검토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청소년 언어 문제의 개선 방안이나 전체적인 연구 방향의 수립 등에 참고가 된다. 청소년 언어 연구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언어가 지닌 성격의 규명이다. 청소년 언어는 그 역시 언어이므로 본질상 총체성을 지닌다. 즉 청소년의 언어는 입말, 글말, 통신언어를 막론하고 언어 사용의 국면으로 볼 때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는 어느 특정한 현상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청소년 언어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라는 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교육, 사회 환경 등 청소년 언어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변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언어 문제가 지닌 개인적 심각성의 측면이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 대한 성공적인 성인 생활을 예비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장차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청소년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내면을 바르게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은 바르게 자라야 할 청소년의 심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도 드러났듯이 욕설 사용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청소년 언어가 그 개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러한 언어 사용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언어사용을 개인적 차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적 접근과 함께, 교육과정적 고려나 반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청소년 언어 문제가 지닌 사회적 심각성의 측면이다.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가 지닌 문제점은 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언어생활에서 흔히 범하고 있는 언어적 공격성의 실현과 언어 규범 파괴 등은 세대와 세대, 심하게는 세대 내에서도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한 사회가 응집력을 기반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로 볼 때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공동체로서의 한국 사회는 국어의 소통을 통해서 그 응집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문제적 언어의 사용은 남녀나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분포 범위를 보이는데 이는 문제 학생의 처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수(全數) 대상의 예방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넷째, 청소년 언어 문제에 관한 충실한 접근의 필요성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언어 문제는 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구체성이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사실상 비속어, 은어 등 청소년 언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적 징후들은 청소년이 그 시기에 겪는 격렬한 갈등과 함께 청소년만의 독특한 심리적, 개인 내적 변인들이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심에 따라 청소년 언어 문제가 부각되며, 상식적이고 즉자적인 차원에서만 대책 수립이 이루어졌을 뿐 청소년과 청소년 언어가 지닌 특성이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는 청소년 언어에 대한 장기적, 이론적, 논리적 접근이 필요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차원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3.2. 청소년 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이나 실천 전략들은 구체적인 청소년 언어 문제의 개선방안을 구안하는데 참고가 된다.

청소년 언어 문제의 환경적 변인인 가정, 학교, 방송, 인터넷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방향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결과와 이를 재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설정을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책들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실현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 정책을 공동체의 공동과제로 인식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서 청소년 정책 개선에 좋은 참고가 된다.

또한 청소년 언어 문제를 인성의 미비로 인식함으로써 그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청소년 언어 문제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청소년기의 급격한 심리, 육체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청소년 언어 자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진단도구나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의 정책 프로그램을 유유아기(乳幼兒期), 학동기(學童期), 사춘기(思春期), 청년기(青年期)²⁰⁾로 나누어 발달적 특성에 따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전문가적, 구체적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의 언어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만큼 상업성이나 비즈니스와 같은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대사회적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보완 및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경우 게임이라는 문화의 한 콘텐츠 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향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게임문화 교육이나 게임 치료 등을 청소년의 병리적 문화의 치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의 언어를 핵심 문제 요인으로 지정하여 현행의 정책을 확장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표 2-8> 해외 정책 사례의 주안점 및 시사점

	정책의 주안점	개선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독립과 자립에 중점 ·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의 틀에 수용할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 유유아기는 취학 전 단계, 학동기는 초등학교 단계, 사춘기는 중·고등학교 단계, 청년기는 고등학교 졸업부터 30세 정도의 연령대를 말한다.

		마련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제는 공동체의 공동과제로 이해 · 예방적 성격의 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위험과 위험가능성에 대한 정보전달과 교육,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및 보호권자들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와 정부, 가정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 : 청소년과 가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습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수립 · 가정교육 지원 정책의 구체화 : ‘육아 서포터(supporter)’, ‘가정 교육 조언자(advisor)’의 배치, ‘가정교육 수첩 및 노트’의 작성과 배포 · 학교교육 지원 정책의 구체화 : 도덕적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마음의 노트’를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배포, 지역사회의 인재를 ‘마음의 교사’로 선정하여 각급 학교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별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가정의 본원적 기능 복원 방안 마련 :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전방위적 접근 필요

제3장 설문 조사

1.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1.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비속어·은어·유행어·공격적 언어 표현 등 언어 사용 실태와 의식, 사회인구학적·개인적·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여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한 국어 정책 입안 및 사회·문화·교육 환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언어 사용 실태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속어 사용 빈도 : 거친 강도에 따른 비속어 형태별 빈도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협박, 비하, 저주, 조롱, 헐뜯)의 빈도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맥락 : 의사소통 매체(입말·글말·통신언어), 수신자(상하관계, 친소관계), 익명성, 공적·사적 공간 요인별 빈도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의 결과(폐해)
	은어·유행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은어·유행어 사용 빈도 : 규범 파괴 정도에 따른 은어·유행어 형태별 빈도은어·유행어의 사용 맥락 : 의사소통 매체(입말·글말·통신언어), 수신자(상하관계, 친소관계), 익명성, 공적·사적 공간 요인별 빈도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	비속어· 욕설 등 공격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표현의 사용 동기 ▪ 공격적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 :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인식 여부 청자 범위에 따른 용인 태도 사용 동기에 따른 용인 태도
	은어·유행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유행어에 대한 인지도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인식 여부 청자 범위에 따른 용인 태도 사용 동기에 따른 용인 태도
	언어 사용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개선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
응답자 특성		<p>학교급과 학년/ 성별/ 지역/ 가정 경제 수준/ 부모 학력/ 성격(자기 통제력, 공감능력, 자존감)/ 학업 성적/ 가정환경(가족 응집성, 언어 사용에 관한 비공식적 통제력, 가정 내 언어폭력)/ 교육환경(교사-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 언어 사용에 관한 비공식적 통제력, 학업 스트레스), 사회문화환경(또래집단의 응집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언어 사용에 관한 비공식적 통제력, 청소년집단 활동)</p>

1.3 표본 설계

1) 모집단의 정의

- 목표 모집단: 전국 청소년(남녀)
- 조사 모집단: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 표본 추출 단위: 학급

2) 표본 크기: 6,000명(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1.5%)

- 학교급별 초:중:고=30%:30%:40%로 할당
- 성별 남:여=50%:50%로 할당

3)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²¹⁾

(가) 모집단의 층화: 전국을 6개 권역²²⁾으로 분할하고 각 권역을 도시화 수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층화

(나) 권역별 배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배분²³⁾

<표 3-1>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권역별 추출 학급 수)

권역	초	중	고	합계
경인 지역	20	20	26	65
강원 지역	5	5	6	16
충청 지역	9	9	12	30
전라 지역	9	9	12	31
경상 지역	14	14	19	48
제주 지역	3	3	4	10
	60	60	80	200

21) 모집단을 그룹(학년별, 성별, 지역별)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
22) 6개 권역: 경인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권(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권(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권(제주도)
23) 인구 수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할 경우 경인권에 편중된 배분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식과 같이 보정함.

$$nh = 200 \times \frac{\sqrt{Nh}}{\sum \sqrt{Nh}} \quad (Nh \text{는 } h\text{권역의 모집단, } nh \text{는 } h\text{권역에 할당된 표본 수})$$

(다) 도시화 층별 배분: 권역 내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

<표 3-2> 지역별 표본 추출 대상 학교 수(권역 내 도시화 층별 배분)²⁴⁾

권역	초			중			고			합계 (학교 수)
	대 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	대 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	대 도시	중소 도시	군 지역	
경인 지역	4	3		4	3		4	3		21
강원 지역		1	1		1	1		1	1	6
충청 지역	1	1	1	1	1	1	1	1	1	9
전라 지역	1	1	1	1	1	1	1	1	1	9
경상 지역	2	2	1	2	2	1	2	2	1	15
제주 지역		1			1			1		3
합계 (학교 수)	8	9	4	8	9	4	8	9	4	63

(라) 시/군 선정: 인구수 기준(지역별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

(마) 시/군 내에서 2차 추출 단위(구) 후보 선정: 가구당 지방세액 기준(중양값을 갖는 지역)²⁵⁾

<표 3-3> 2차 추출 단위 후보지

권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지역 수)
경인 지역	서울 - 강서구, 구로구, 광진구, 강동구 인천 - 서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안산		14
강원 지역		춘천, 원주	홍천, 인제	4
충청 지역	대전 - 서구, 대덕구	청주(충북), 천안(충남)	홍성(충남), 청원(충북)	6
전라 지역	광주 - 서구, 동구	전주(전북), 순천(전남)	완주(전북), 화순(전남)	6
경상 지역	부산 - 사상구, 부산진구 대구 - 북구, 달서구	창원(경남), 포항(경북), 김해(경남), 구미(경북)	칠곡(경북), 거창(경남)	10
제주 지역		제주		1
합계 (지역 수)	16	17	8	41

24) 제주 지역은 별도

25) 후보지는 최종 표본 할당 지역의 2배수로 정함.

(바) 표본 할당: 필터링 → 무작위추출(난수 생성 함수 사용)

※ 필터링 기준

1. 학생성별: 남녀공학
2. 설립구분: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3. 학교유형: 일반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제외)
4. 학업수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중간

☞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국어 성취 수준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는 학교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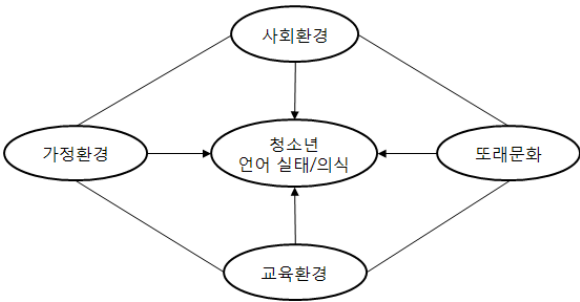
기초학력미달	20% 미만
기초학력	40-60%
보통학력이상	30-50%

<표 3-4>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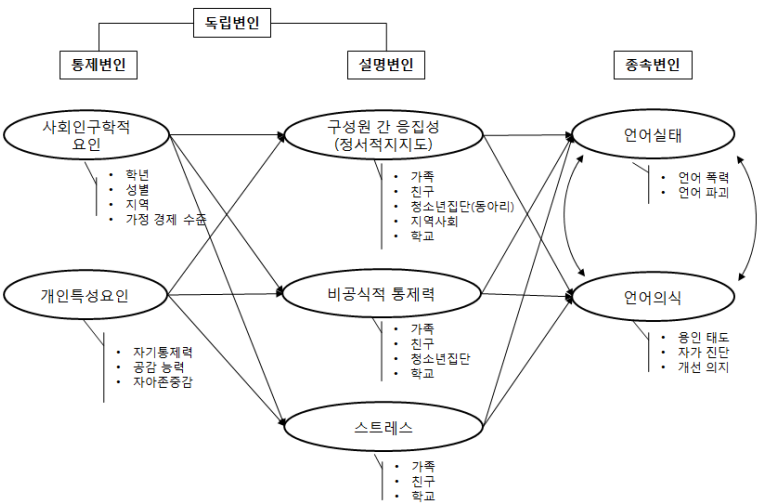
권역	도시화 층	지역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인 지역	대도시	서울시 강서구	1	1	1
		구로구	1	1	1
		인천시 서구	1	1	1
		부평구	1	1	1
	중소도시	수원시	1	1	1
		고양시	1	1	1
		부천시		1	1
		안산시	1		
강원 지역	중소도시	강릉시	1	1	1
	군 지역	홍천군	1	1	1
충청 지역	대도시	대전시 서구	1	1	1
	중소도시	청주시(충북)	1	1	1
	군 지역	청원군(충북)	1	1	1
전라 지역	대도시	광주시 서구	1	1	1
	중소도시	전주시(전남)	1	1	1
	군 지역	화순군(전남)	1	1	1
경상 지역	대도시	부산시 사상구	1	1	1
		대구시 북구	1	1	1
	중소도시	창원시(경남)	1	1	1
		김해시(경남)	1	1	1
	군 지역	거창군(경남)	1	1	1
제주 지역	중소도시	제주시	1	1	1

1.4 문항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 실태 및 언어 의식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는 가설을 가지고, 응답자의 여러 환경 요인 가운데에서 청소년 언어폭력 및 언어파괴의 원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 특성 요인, 구성원 간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스트레스 정도를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원 간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스트레스 정도를 주요 설명 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은 통제 변인²⁶⁾으로 설정하였다. 구성원 간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스트레스 정도는 가정, 사회·문화, 교육 환경 영역별로 각각 측정된다.



[그림 3-1] 변인 간 상관 모형

26) 통제변인(control variable)은 실험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잠재적인 독립변인이다. 설명변인에 속하지 않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이들 요인이 독립변인의 효과를 혼동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 주요 설명 변인 및 통제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조사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설명 변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구성원 간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스트레스 요인이 그것이다. 첫째, 구성원 간 응집성은 구성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송근진 1999). 즉, 구성원 간 응집성은 집단 내의 감정적 정서적 차원을 설명해준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청소년 집단(동아리 등), 지역 사회,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지도를 중심으로 응집성을 측정한다.

둘째, 비공식적 통제력은 언어폭력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 집단 구성원 간의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통제를 위한 기대감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²⁷⁾의 개념에 근거한다. 본 조사에서는 가족 간, 친구 간, 청소년 집단 내부, 학교에서 언어폭력 사용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그러한 비공식적 통제가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계층과 상관 없이 모든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장들, 예를 들면 부모와의 불화,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생활 불만족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장들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주요한 긴장 요인이 된다(Agnew 1992, Mazerolle & Piquero 1997).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러한 이론들은 언어폭력 등 공격적 언어 사용 문제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가정 내 언어폭력, 친구 관계, 학업과 관련하여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언어 사용 실태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언어폭력 연구에서 주요 설명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던 연령·성별·지역·가정경제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기통제력·공감능력·자아존중감·성격 등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자기통제력은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말한다(김선영 외 2004). 하던 행동을 중단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행동 억제와 격렬한 분노를 참는 등 정서를 억제하는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의 분노와 공격성 등 과격한 정서의 부적합한 표출로 인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충동성, 사회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낮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공격성도 높아진다는(송명자 2003). 본 조사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화내는 기질 정도를 측정한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27) Shaw & McKay(1969)의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을 원인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빈곤, 인종의 다양성, 이동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이웃 간의 연결망이나 유대, 결속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지역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가 항상 범죄를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ilson(1996)에 따르면 빈곤하거나 주류 사회와 고립되고 범죄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은 비록 그 구성원들 간의 유대가 높다 하더라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낮아 오히려 범죄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통제를 위한 기대감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주민들 간에 응집력과 신뢰가 높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통제를 가하는가가 범죄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Sampson et al. 1997).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구성원 간 응집성과 비공식적 통제력을 주요 설명 변인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김용희 2007), 개인의 감정 조절 능력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회인지 능력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²⁸⁾ 따라서 공감능력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적 신호를 무시하거나 이를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아존중감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의 가치, 능력, 성격 등에 대해 가지는 평상시의 생각을 의미한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방영자 1997).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또는 스트레스와의 정적인 상관성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다(유지선·유계숙 2007, 안차수 2008).

2) 조사 항목(종속 변인)

본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1)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2) 언어 사용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으로 나뉜다. 언어 실태 조사의 내용은 비속어·욕설·협박·비방·저주·조롱 등 폭력적 언어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언어 규범 파괴로 이어지는 은어·유행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은 폭력적 언어 표현과 유행어·은어 등의 사용 동기와 이에 대한 용인 태도,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조사 범주	항목
(가)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사용 실태(사용 범위, 강도) · 욕설·협박·비방·저주·조롱·허위사실유포 발생 실태(빈도, 매체, 맥락, 피해 정도) ○ 언어 규범 파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유행어 사용 실태(사용 빈도, 확산도, 언어파괴 정도/양상, 매체, 사용 맥락)
(나) 청소년 언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폭력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동기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표현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 언어 규범 파괴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 은어·유행어 어휘별 인지도 ○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 개선책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개선 방안에 대한 수용 의지

28) Saarni(1999)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구별하는 능력, 감정 상태를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능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문항 구성

<표 3-5> 초등학생용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범주	항목(문항 번호)	기본 문항	탈린 문항
A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요인	■ 사회인구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학년 A1 ▪ 성별 A2 ▪ 지역(도시화 층별) A3 ▪ 가정 경제 수준 A4 ▪ 부모 학력 A5 ■ 개인 특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능력 A6(1) ▪ 자기통제력 A6(2) ▪ 자기존중감 A6(3,4) ▪ 학업 성적 A7 	7	5
B	환경 요인	■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응집성(의사소통, 정서적 지지도) B1(1,2,3,4,5) ▪ 비공식적 통제력 B3(1) ▪ 스트레스(가정 내 언어폭력) B1(6) ■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집성(교사-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 B2(1) ▪ 비공식적 사회통제 B3(2) ▪ 학업 스트레스 B2(2) ■ 사회·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 응집성(정서적 지지도) B2(3) 대인관계 스트레스 B2(4) 비공식적 통제력 B3(3) ▪ 방과후 활동: 참여 여부 B4 유형 B4 응집성 B4-1 	3	10
C	언어 실태 및 언어 의식	■ 언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사용 빈도 C1 ▪ 욕설, 협박, 비방, 저주,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빈도 (화자측, 청자측, 공격적 언어 표현 유형별) C2, C5, C2-2 	1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맥락: 입말·글말·통신언어, 수신자, 사적/공적 공간 요인별 빈도 C3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의 결과(폐해): C5-1, C5-2 ▪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 은비성/규범파괴 정도별 C6 ▪ 은어·유행어 사용 맥락: 입말·글말·통신언어, 수신자, 사적/공적 공간 요인별 빈도 C7 <p>■ 언어 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C2-2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폐해 인식 여부, 청자 범위와 동기(의도)에 따른 용인도) C4(1,2,3,4) ▪ 유행어·은어에 대한 인지도 C6(2) ▪ 유행어·은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폐해 인식 여부, 청자 범위와 목적에 따른 유행어·은어 용인 태도) C8(1,2,3) ▪ 자신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C9 <p>■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 활동 프로그램 C10(1) ▪ 온라인 프로그램 C10(2) ▪ 대중매체 프로그램 C10(3) ▪ 교내 정규 수업 C10(4) ▪ 교내 상벌점제 C10(5) 		
		합계	24	40

<표 3-6> 중고등학생용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범주	항목(문항 번호)	기본 문항	탈린 문항
A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구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학년 A1 ▪ 성별 A2 ▪ 지역(도시화 층별) A3 ▪ 가정 경제 수준 A4 ▪ 부모 학력 A5 ■ 개인 특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능력 A6(1) ▪ 자기통제력 A6(2) ▪ 자기존중감 A6(3,4) ▪ 학업 성적 A7 	7	4
B	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응집성(의사소통, 정서적 지지도) B1(1,2,3,4,5) ▪ 비공식적 통제력 B3(1) ▪ 스트레스(가정 내 언어폭력) B1(6) ■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집성(교사-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 B2(1) ▪ 비공식적 통제력 B3(2) ▪ 학업 스트레스 B2(2) ■ 사회·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관계: 응집성(정서적 지지도) B2(3) 대인관계 스트레스 B2(4) 비공식적 통제력 B3(3) ▪ 청소년 집단 활동: 참여 여부 B4 유형 B4, B4-1 응집성 B4-2 비공식적 통제력 B4-3 ▪ 지역사회 관련 보호 요소(멘토 역할) B7 	8	10
C	언어 실태 및 언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사용 빈도 C1 ▪ 욕설, 헐박, 비방, 저주,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빈도 (화자측, 청자측, 공격적 언어 표현 유형별) C2, C5, C2-2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맥락: 입말·글말 	14	25

	<p>·통신언어, 수신자, 사적/공적 공간 요인별 빈도 C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언어 표현의 결과(폐해): C5-1, C5-2 ▪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 은비성/규범파괴 정도별 C6 ▪ 은어·유행어 사용 맥락: 입말·글말·통신언어, 수신자, 사적/공적 공간 요인별 빈도 C7 <p>■ 언어 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C2-2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폐해 인식 여부, 청자 범위와 동기(의도)에 따른 용인도) C4(1,2,3,4) ▪ 유행어·은어에 대한 인지도 C6(2) ▪ 유행어·은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폐해 인식 여부, 청자 범위와 목적에 따른 유행어·은어 용인 태도) C8(1,2,3) ▪ 자신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C9 <p>■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 활동 프로그램 C10(1) ▪ 온라인 프로그램 C10(2) ▪ 대중매체 프로그램 C10(3) ▪ 교내 정규 수업 C10(4) ▪ 교내 상벌점제 C10(5) 			
합계			29	39

1.5 응답자 분포

구분		표본 조사	
		사례 수	%
전체		6053	100.0%
학교 급	초등학생	1695	28.0%
	중학생	1906	31.5%
	고등학생	2452	40.5%
성별	남	3221	53.2%
	여	2832	46.8%
권역	강원	429	7.1%
	경상	1518	25.1%
	경인	2106	34.8%
	전라	928	15.3%
	제주	249	4.1%
	충청	823	13.6%
도시화 층	대도시	2270	37.5%
	중소도시	2738	45.2%
	군 지역	1045	17.3%
가정경제수준	하	134	2.2%
	중하	576	9.5%
	중	3124	51.6%
	중상	1601	26.4%
	상	618	10.2%
어머니 학력	초졸 이하	67	1.4%
	중졸	172	3.5%
	고졸	2365	48.4%
	대졸 이상	2285	46.7%
	모름	1164	19.2%
아버지 학력	초졸 이하	86	1.8%
	중졸	160	3.3%
	고졸	1894	39.3%
	대졸 이상	2678	55.6%
	모름	1235	20.4%
학업 성적	하	433	7.2%
	중하	1247	20.6%
	중	2085	34.4%
	중상	1600	26.4%
	상	688	11.4%

1.6 조사 결과

□□ 비속어 사용

가. 비속어 사용 실태

‘짱, 찌질이, 찔다, 뒷담까다, 갑치다, 야리다, 존나, 빠치다, 엠창/엠창’ 등의 비속어 예를 제시하고 사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전체 응답자 1695명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641명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4358명 가운데 99%(4309명)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분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하는 비속어 어휘에 학년별·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속어 어휘 목록을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 이전 단계의 학년이 사용하는 비속어 정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속어 사용 원인(관련 요인)

비속어 사용 정도는 거주지역의 도시화 층, 학업 성적, 공감 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 수준이나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상관이 나타났지만,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관련이 없었다.

위에서 보인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개인별 특성 요인을 통제하고 환경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학업 스트레스’이고,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이 거친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거친 말을 쓸 때 또래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비속어 사용이 줄어들었다. 반면, 거친 말 사용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통제는 비속어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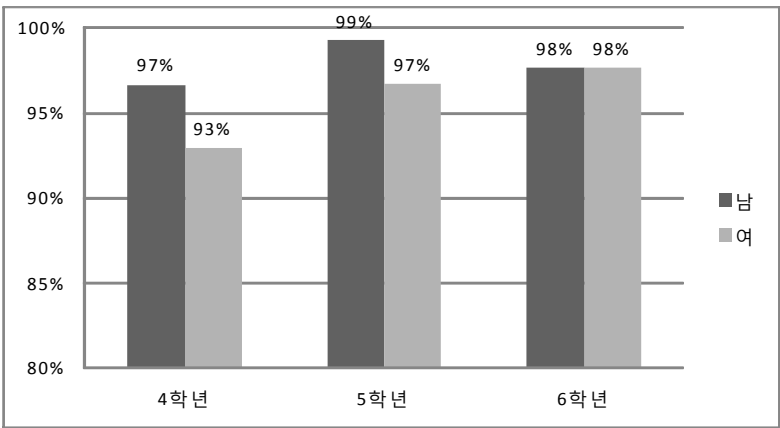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환경보다는 가정환경과 친구·청소년집단활동과 같은 사회·문화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는 요인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래 간 응집성' 등이었고, 비속어 사용이 감소하는 요인은 '가족응집성',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 집단(방과후) 활동' 등이 있었다. 특히, 방과후활동집단의 응집성이 강한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속어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보면 방과후활동이 비속어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정경제수준이나 학업 성적과 같은 요인이 동일할 경우 방과후활동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가 오히려 비속어 사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집단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비속어 사용 비율(초등학생)

C1. 다음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용한 적이...	
짱	있다	없다
찌질이	있다	없다
쩔다(예. 찢다)	있다	없다
뒷담-까다	있다	없다
깡치다	있다	없다
아리다	있다	없다
존나	있다	없다
빡치다	있다	없다
엄창/엠창	있다	없다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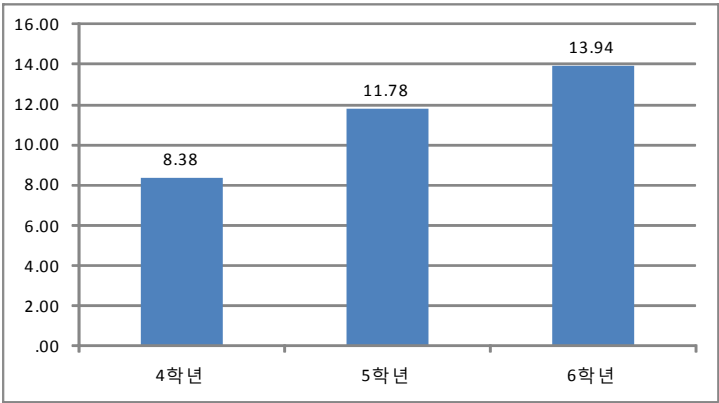
■ ‘짱, 찌질이, 찔다, 뒷담까다, 깡치다, 아리다, 존나, 빡치다, 엄창/엠창’ 등의 비속어 예를 제시하고 사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전체 응답자 1695명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641명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의 경우 95%의 응답자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98%의 응답자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98%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96%)에 비해 좀 더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림 3-2]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비율

【집단별 분석 결과】

■ 비속어 어휘를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²⁹⁾ 비속어 사용 범위와 거친 강도에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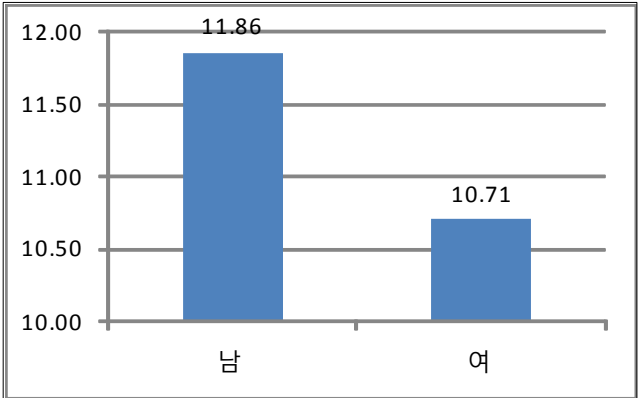
[그림 3-3] 초등학교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비교

<표 3-7> 초등학교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Scheffe 다중비교) 결과

(I) 학년	(J) 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4	5	-3.402	.303	.000	-4.14	-2.66
	6	-5.564	.304	.000	-6.31	-4.82
5	4	3.402	.303	.000	2.66	4.14
	6	-2.162	.307	.000	-2.92	-1.41
6	4	5.564	.304	.000	4.82	6.31
	5	2.162	.307	.000	1.41	2.92

29) 거친 강도에 따른 비속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비속어 어휘 233개에 대하여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초등학교용 설문에 제시된 어휘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추린 것이다. 제시된 어휘 중 ‘짱, 찌질이, 찢다’는 거친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뒋땡까다, 갑치다, 야리다’ 등은 중간 정도인 2, ‘존나, 빠치다, 엠창/엠창’ 등은 거친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림 3-4] 초등학교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표 3-8> 초등학교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독립표본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15.066	.000	4.228	1693	.000	1.148	.271	.615	1.680
C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10	1638	.000	1.148	.273	.613	1.682

【상관분석 결과】

- 비속어 어휘를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 층, 가정경제수준, 어머니 학력 등의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의 순으로 다양하고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정 경제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학력의 낮을수록 비속어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초등학교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1	Pearson 상관계수	.140***	-.097***	-.068*	-.02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21	.483
	N	1695	1695	1147	1117

- 개인 특성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비속어를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표 3-10〉 초등학교생의 비속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1	Pearson 상관계수	-.077**	-.296***	-.136***	-.067**
	유의확률 (양쪽)	.002	.000	.000	.006
	N	1695	1695	1695	1695

- 가정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크게 받을수록 비속어를 적게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비속어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친 말에 대한 부모의 통제 여부는 비속어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초등학교생의 비속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1	Pearson 상관계수	-.098***	.145***	-.02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366
	N	1695	1695	1695

- 교육 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학업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초등학교생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비속어 사용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나 비속어 사용에 관한 교사의 통제는 비속어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

<표 3-12> 초등학교 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1	Pearson 상관계수	-.047	.236***	-.035
	유의확률 (양쪽)	.054	.000	.149
	N	1695	1695	1695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비공식적 통제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또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통제가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집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방과후 활동과 같은 사회·문화 환경 요인들은 비속어 사용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초등학교 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방과후 활동
C1	Pearson 상관계수	-.001	-.015	-.234***	-.008
	유의확률 (양쪽)	.959	.525	.000	.789
	N	1695	1695	1695	1237

【회귀분석 결과】

- 초등학교 학생의 ‘비속어 사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거주지의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어머니 학력, 응답자의 공감 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가족응집성,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학업 스트레스,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요 설명 변수 가운데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가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친 말을 사용할 때 또래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비속어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속어 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그 밖의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초등학교 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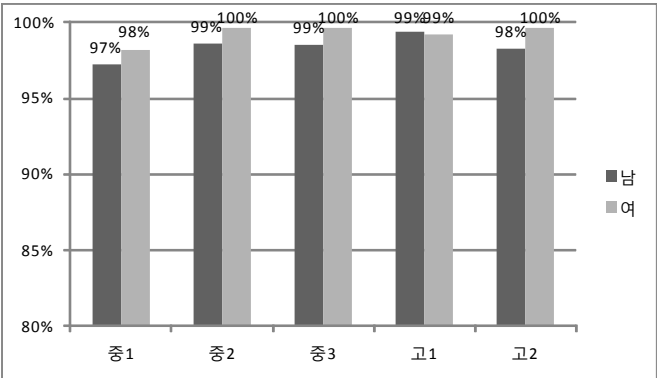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8.422	1.653		5.095	.000
	도시화 층	.900	.213	.116	4.221	.000
	가정 형편	-.317	.213	-.042	-1.489	.137
	모 학력	.000	.273	.000	-.001	.999
	공감 능력	-.238	.171	-.039	-1.390	.165
	자기통제력	-1.347	.140	-.270	-9.645	.000
	자기존중감	-.243	.180	-.041	-1.353	.176
	학업 성적	-.122	.171	-.021	-.714	.475
	가족응집성	.263	.151	.051	1.739	.082
	부모의 언어폭력	.228	.141	.046	1.616	.106
	학업 스트레스	.601	.121	.139	4.955	.000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792	.121	-.181	-6.538	.000

1-2. 비속어 사용 비율(중고등학생)

C1. 다음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용한 적이...	
짱	있다	없다
열라	있다	없다
이빨-까다	있다	없다
쫄다	있다	없다
마빡	있다	없다
뒷담-까다	있다	없다
쌔비다	있다	없다
쪼개다	있다	없다
존나	있다	없다
썰리다	있다	없다
빡치다	있다	없다
엄창/엠창	있다	없다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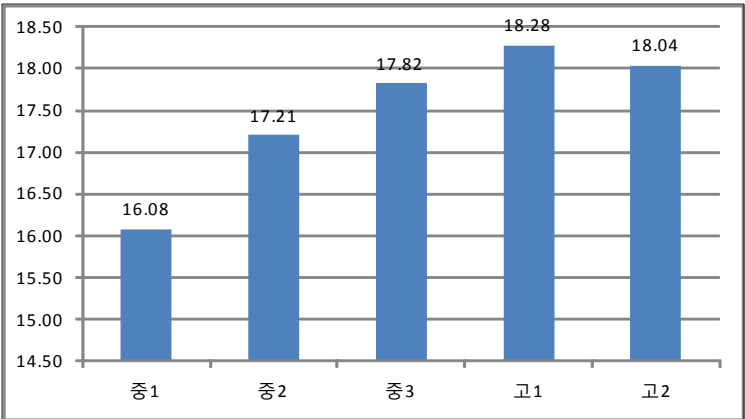
■ ‘짱, 열라, 이빨까다, 쫄다, 마빡, 뒷담까다, 쌔비다, 쪼개다, 존나, 썰리다, 빡치다, 엄창/엠창’ 등의 비속어 예를 제시하고 사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 전체 응답자 4358명 가운데 4309명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비속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다른 학년에 비해 비속어 사용 비율이 다소 낮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5]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비율

【집단별 분석 결과】

■ 비속어 어휘를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³⁰⁾, 비속어 사용 범위와 거친 강도에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 사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p < .01$).



[그림 3-6]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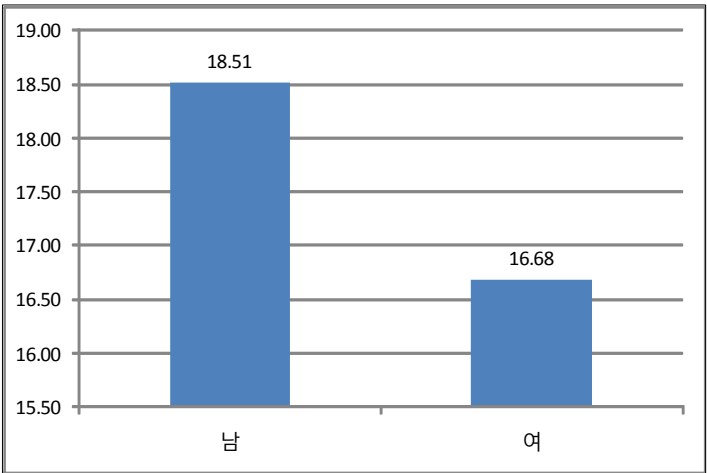
<표 3-15>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학년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Scheffe 다중비교) 결과

(I) 학년	(J) 학년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1.125	.289	.004	-2.02	-.23
	3	-1.741	.288	.000	-2.63	-.85
	4	-2.194	.245	.000	-2.95	-1.44
	5	-1.957	.251	.000	-2.73	-1.18
2	1	1.125	.289	.004	.23	2.02
	3	-.616	.295	.362	-1.53	.29
	4	-1.069	.254	.001	-1.85	-.29
	5	-.832	.259	.036	-1.63	-.03
3	1	1.741	.288	.000	.85	2.63
	2	.616	.295	.362	-.29	1.53
	4	-.454	.253	.523	-1.23	.33
	5	-.216	.259	.952	-1.01	.58
4	1	2.194	.245	.000	1.44	2.95
	2	1.069	.254	.001	.29	1.85
	3	.454	.253	.523	-.33	1.23

30) 거친 강도에 따른 비속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비속어 어휘 233개에 대하여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본 설문(고등학생용)에 제시된 어휘 가운데 ‘짱, 열라, 이빨까다, 쫄다’는 거친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마빡, 뒷담까다, 썩비다, 쪼개다’는 중간 정도인 2, ‘존나, 썰리다, 뺨치다, 엄창/엠텇창’은 거친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5	5	.237	.210	.864	-.41	.88
	1	1.957	.251	.000	1.18	2.73
	2	.832	.259	.036	.03	1.63
	3	.216	.259	.952	-.58	1.01
	4	-.237	.210	.864	-.88	.41

■ 성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림 3-7]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비교

<표 3-16> 중고등학생 비속어 사용 정도의 성별 평균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독립표본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C1	21.458	.000	11.730	4356	.000	1.835	.156	1.529	2.142
			11.815	4348	.000	1.835	.155	1.531	2.140

【상관분석 결과】

■ 비속어 어휘를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 층, 아버지 학력 등의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의 순으로 다양하고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어머니 학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가정 경제 수준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중고등학교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1	Pearson 상관계수	.047**	-.022	-.032	-.052**
	유의확률 (양쪽)	.002	.141	.053	.001
	N	4358	4358	3742	3701

■ 개인 특성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앞서 보인 초등학교 응답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해 상관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중고등학교 역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비속어를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중고등학교의 비속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1	Pearson 상관계수	-.030*	-.146***	-.031*	-.063***
	유의확률 (양쪽)	.046	.000	.040	.000
	N	4358	4358	4358	4358

■ 가정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가족응집성과 언어 사용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비속어 사용 정도가 낮았고,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속어 사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중고등학교의 비속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통제
C1	Pearson 상관계수	-.090***	.083***	-.07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4358	4358	4358

- 교육 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비속어 사용 정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0>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1	Pearson 상관계수	-.039*	.029	-.030*
	유의확률 (양쪽)	.010	.053	.047
	N	4358	4358	4358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비속어 사용 정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 집단 활동 등과 비속어 사용 정도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응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집단 활동 안에서 정서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은 청소년일수록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언어 사용에 관한 또래 간 자발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비속어를 적게 사용하였다.

<표 3-21>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대인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집단활동
C1	Pearson 상관계수	.069***	-.122***	-.224***	.07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4358	4358	4358	2652

【회귀분석 결과】

-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비속어 사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가 주요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교사-학생 간 응집성’ 등 교육 환경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가운데에서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래 간 응집성’, ‘청소년집단활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는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비속어 사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위기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래 간 응집성’ 또한 비속어 사용이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방과후활동’과 같은 청소년집단활동의 경우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집단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언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3-22> 중고등학생의 비속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0.248	1.085		18.670	.000
도시화 총	.373	.147	.051	2.537	.011
부 학력	-.192	.154	-.025	-1.242	.214
공감 능력	-.167	.130	-.027	-1.289	.198
자기통제력	-.412	.099	-.085	-4.158	.000
자기존중감	.145	.110	.029	1.317	.188
학업 성적	-.182	.098	-.039	-1.852	.064
가족응집성	-.298	.103	-.067	-2.887	.004
부모의 언어폭력	.400	.097	.090	4.137	.000
교사-학생 응집성	.008	.099	.002	.078	.938
또래 간 응집성	.341	.120	.065	2.851	.004
대인관계 스트레스	-.400	.104	-.086	-3.840	.000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057	.107	-.011	-.535	.592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972	.092	-.220	-10.564	.000
청소년 집단 활동	-.127	.058	-.043	-2.172	.030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욕설·협박·저주·비하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60.7%였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0.3%로 조사되었다. 사용자 비율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집단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고등학생 집단은 중학생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언어 표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욕설이었고, 욕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높았다.

맥락에 따른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아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말을 통해 공격적 언어 표현을 쓰는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높지 않았으나, 친구에게 공격적 언어 표현을 담은 편지나 쪽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두 배 가량 많았다. 통신언어에서는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도 그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나.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장난으로’,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서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라는 응답자 비율이 줄어들고,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라는 응답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상대방이 특별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단순한 화풀이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는 그 폐해, 청자 범위와 사용 동기 등에 따른 용인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욕을 해도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 욕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친 말을 써도 된다',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해도 된다' 등의 4개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훨씬 높은 용인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공격적 언어 표현을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용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이 실제로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공격적 언어 표현의 원인(관련 요인)

공격적 언어 표현은 도시화 정도, 가정 경제 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공감 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그 사용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가정 경제 수준과 학업 성적이 낮고 공감 능력이나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이 떨어질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개인 특성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학교·사회문화 환경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공격적 언어 표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이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는 특히 초등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언어 표현을 줄이는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즉, 좋지 않은 표현을 썼을 때 또래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모나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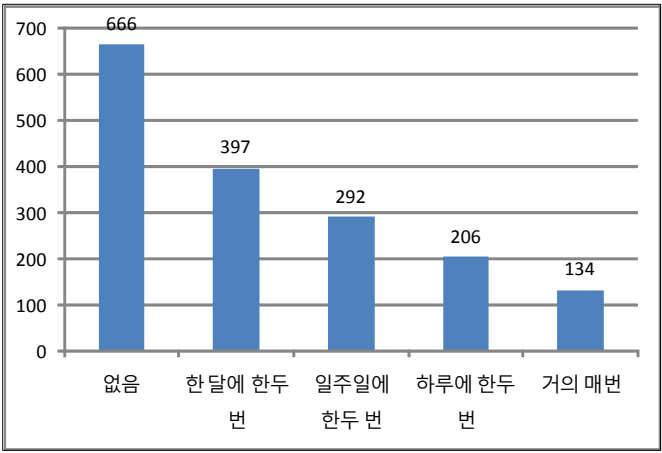
- 이 멍청아, 한번 죽어볼래?
- 돼지 같은 게 어디서 까부냐?
- 너 이번에 꼴찌 했다면?
- 가다가 돌에 걸려서 콧 넘어져버려.

C2.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거친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C4로 바로 이동)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전체 분석 결과】

■ 욕설, 헐박, 비하, 조롱, 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와 그 빈도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에 해당하는 1029명(60.7%)이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3.4%),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그림 3-8]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1 없음	39.3%
2 한 달에 한두 번	23.4%
3 일주일에 한두 번	17.2%
4 하루에 한두 번	12.2%
5 거의 매번	7.9%
<hr/>	
계(N=1,695)	100.0%

【집단별 분석 결과】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 빈도를 학년별로 관찰한 결과, 4학년의 경우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모두 314명(54%)로 기대치(229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5학년은 196명(35%)로 기대치(221명)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6학년은 156명(28%)로 기대치(216명)보다 훨씬 적었다. 반면, ‘거의 매번’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4학년의 경우 4%, 5학년은 8%, 6학년은 1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의 범위가 커지고, 사용 빈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 119.305$, $p < .001$).

<표 3-23>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학년별 사용 빈도

		C2					전체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학년	빈도	314	139	70	37	23	583
	4 기대빈도	229.1	136.5	100.4	70.9	46.1	583.0
	학년 중 %	54%	24%	12%	6%	4%	100%
	빈도	196	130	119	72	45	562
	5 기대빈도	220.8	131.6	96.8	68.3	44.4	562.0
	학년 중 %	35%	23%	21%	13%	8%	100%
	빈도	156	128	103	97	66	550
	6 기대빈도	216.1	128.8	94.7	66.8	43.5	550.0
	학년 중 %	28%	23%	19%	18%	12%	100%
전체	빈도	666	397	292	206	134	1695
	기대빈도	666.0	397.0	292.0	206.0	134.0	1695.0
	학년 중 %	39%	23%	17%	12%	8%	100%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기대치(348명)보다 적은 272명(31%)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대치(318명)보다 많은 394명(49%)였다. 반면, '하루에 한두 번' 혹은 '거의 매번'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각각 15%와 9%였고, 여학생은 각각 9%, 7%로 남학생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 60.549, p < .001$).

<표 3-24>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C2					전체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성별	남	빈도 272	224	176	133	80	885
	기대빈도	347.7	207.3	152.5	107.6	70.0	885.0
	성별 중 %	31%	25%	20%	15%	9%	100%
	여	빈도 394	173	116	73	54	810
	기대빈도	318.3	189.7	139.5	98.4	64.0	810.0
	성별 중 %	49%	21%	14%	9%	7%	100%
전체	빈도	666	397	292	206	134	1695
	기대빈도	666.0	397.0	292.0	206.0	134.0	1695.0
	성별 중 %	39%	23%	17%	12%	8%	100%

2-0-2.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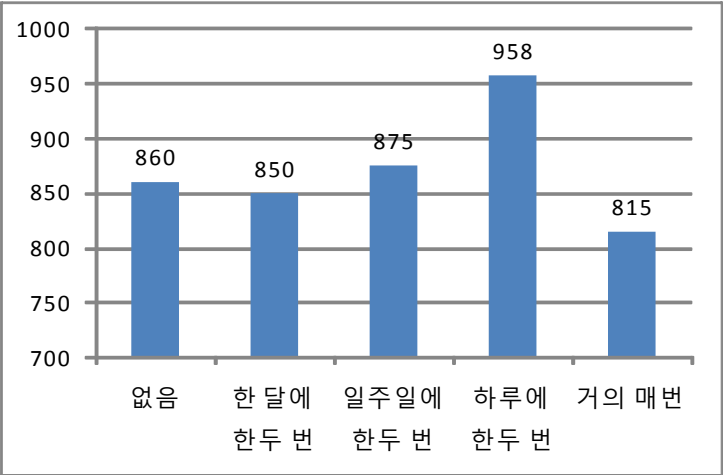
- 이 멍청아, 한번 죽어볼래?
- 돼지 같은 게 어디서 까부냐?
- 너 이번에 꼴찌 했대며?
- 가다가 맨홀에나 빠져버려

C2.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거친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C4로 바로 이동)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전체 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비하, 조롱, 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 이 있는지와 그 빈도를 물어본 결과, 80.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같은 응답을 한 초등학생 응답자가 60.7%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에 관해서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5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22%)을 차지하여, 중고등학생들이 공격적 언어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9]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1 없음	19.7%
2 한 달에 한두 번	19.5%
3 일주일에 한두 번	20.1%
4 하루에 한두 번	22.0%
5 거의 매번	18.7%
계(N=4,358)	100.0%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 여부 및 빈도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중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기대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거의 매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사용 빈도는 고등학생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 48.231, p < .001$).

<표 3-25> 중고등학생 공격적 언어 표현 학년별 사용 빈도

			C2					전체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학년	중1	빈도	137	151	145	146	98	677
		기대빈도	133.6	132.0	135.9	148.8	126.6	677.0
		학년 중 %	20%	22%	21%	22%	14%	100%
	중2	빈도	119	143	132	130	88	612
		기대빈도	120.8	119.4	122.9	134.5	114.5	612.0
		학년 중 %	19%	23%	22%	21%	14%	100%
	중3	빈도	118	135	129	137	98	617
		기대빈도	121.8	120.3	123.9	135.6	115.4	617.0
		학년 중 %	19%	22%	21%	22%	16%	100%
	고1	빈도	266	225	236	290	290	1307
		기대빈도	257.9	254.9	262.4	287.3	244.4	1307.0
		학년 중 %	20%	17%	18%	22%	22%	100%
	고2	빈도	220	196	233	255	241	1145
		기대빈도	226.0	223.3	229.9	251.7	214.1	1145.0
		학년 중 %	19%	17%	20%	22%	21%	100%
전체	빈도	860	850	875	958	815	4358	
	기대빈도	860.0	850.0	875.0	958.0	815.0	4358.0	
	학년 중 %	20%	20%	20%	22%	19%	100%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기대치 (461명)보다 적은 372명(16%)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대치(399명)보다 많은 488명(24%)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에 한두 번’ 혹은 ‘거의 매번’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남 학생의 비율은 각각 25%와 23%로 나타나 기대치보다 모두 높았고, 여학생은 각각 19%와 14%가 이같이 응답하여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초등학생과 마 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더 자주 사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i^2 = 132.249$, $p < .001$).

<표 3-26> 성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C2					전체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성별	남	빈도	372	381	467	576	540	2336
		기대빈도	461.0	455.6	469.0	513.5	436.9	2336.0
		성별 중 %	16%	16%	20%	25%	23%	100%
	여	빈도	488	469	408	382	275	2022
		기대빈도	399.0	394.4	406.0	444.5	378.1	2022.0
		성별 중 %	24%	23%	20%	19%	14%	100%
전체		빈도	860	850	875	958	815	4358
		기대빈도	860.0	850.0	875.0	958.0	815.0	4358.0
		성별 중 %	20%	20%	20%	22%	19%	100%

2-1-1. 공격적 언어 표현 유형에 따른 빈도 (초등학생)

C2-1.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쓴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욕설 (예. “이 멍청아”, “미친놈”)

협박하는 말 (예. “한번 죽어볼래?”)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예.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넌 눈이 없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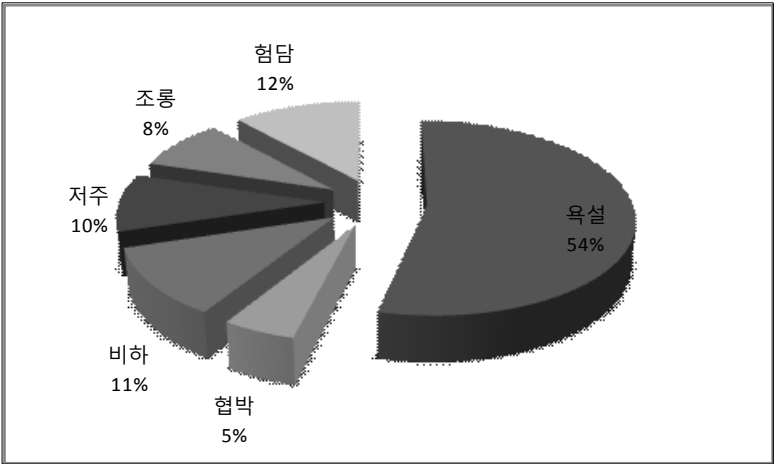
저주 (예. “가다가 확 자빠져라.”)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예. “너 꼴찌해서 좋겠다.”)

거짓소문내기, 뒤에서 헐뜯하기

【전체 분석 결과】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1,030명)들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비하, 저주, 조롱, 헐뜯 가운데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은 결과, 욕설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헐뜯(12%), 비하(11%)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 3-10]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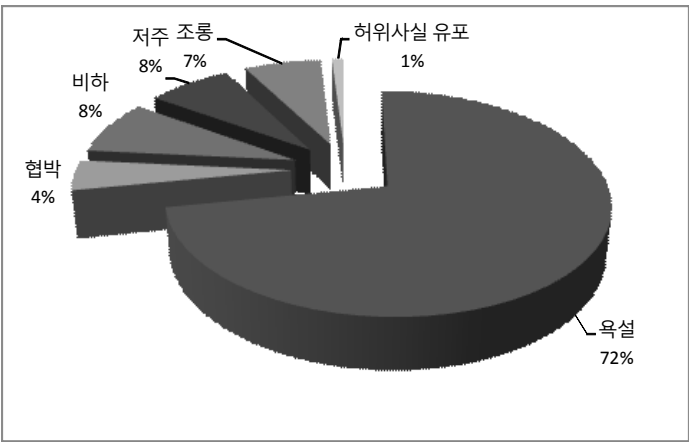
1 욕설	53.9%
2 협박	5.0%
3 비하	11.4%
4 저주	9.6%
5 조롱	8.5%
6 헐뜯	11.7%
<hr/>	
계(N=1,030)	100.0%

2-1-2. 공격적 언어 표현 유형에 따른 빈도 (중고등학생)

C2-1.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쓴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욕설 (예. “이 멍청아”, “미친놈”)
협박하는 말 (예. “한번 죽어볼래?”)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예.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넌 눈이 없냐?”)
저주 (예. “가다가 확 자빠져라.”)
악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예. “너 꼴찌해서 좋겠다.”)
허위사실 유포(거짓소문내기, 인터넷게시판 도배)

【전체 분석 결과】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중고등학생 응답자(3,498명)만을 대상으로 욕설, 협박, 비하, 저주, 조롱, 허위사실 유포 가운데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은 결과, 욕설이 7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하(8.1%), 저주(7.5%)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앞서 보인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에 비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욕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유형

1 욕설	72.0%
2 협박	4.5%
3 비하	8.1%
4 저주	7.5%
5 조롱	6.8%
6 허위사실 유포	1.0%
계(N=3,498)	100.0%

2-2-1.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초등학생)

C2-2. 위와 같이 거친 말이 나오는 경우는 주로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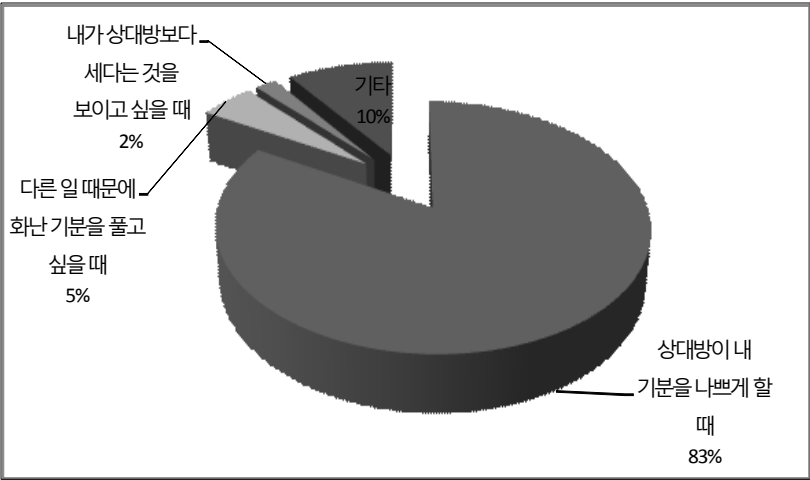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1,030명)를 대상으로 그런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물은 결과,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라는 응답자가 859명(8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와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51명(5%), 20명(2%)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욕하거나 때릴 때’, ‘장난삼아’, ‘나를 따돌릴 때’ 등이 있었다.



[그림 3-1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1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83.4%
2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5.0%
3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1.9%
4 기타	9.7%
계(N=1,030)	100.0%

2-2-2.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중고등학생)

C2-2. 여러분은 위와 같은 폭력적 언어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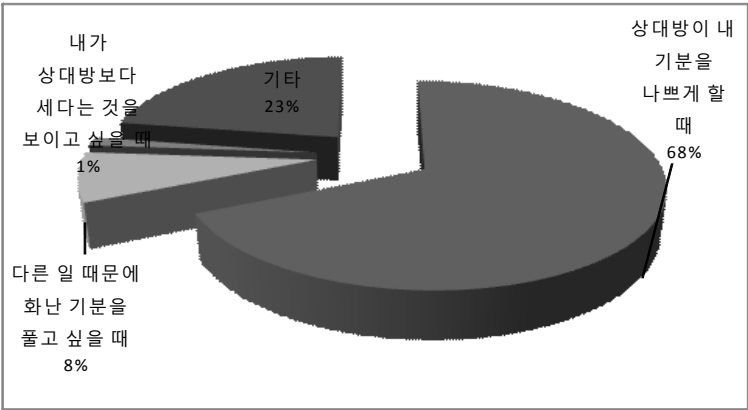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3,498명)를 대상으로 언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묻은 결과,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라는 응답자가 2390명(68%),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라는 응답자가 276명(8%),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라는 응답자가 47명(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화풀이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장난으로’,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3-13]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동기

1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68.3%
2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7.9%
3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	1.3%
4 기타	22.4%
계(N=4,3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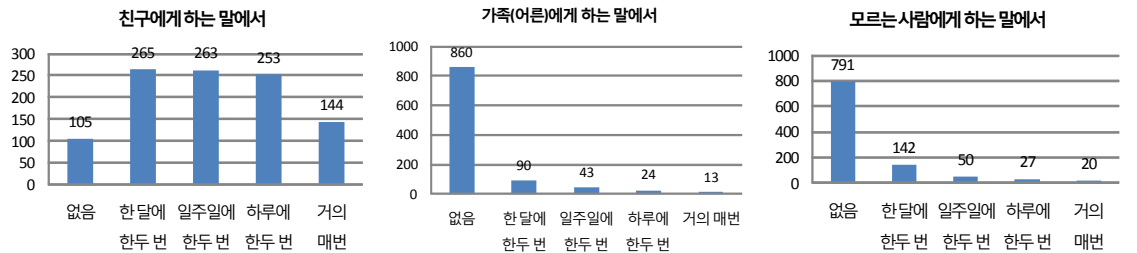
3-1. 상황 맥락에 따른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초등학생)

C3. 위와 같은 거친 말을 다음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아는 사람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모르는 사람(유명인 포함)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나 공공기관(방송국, 학교 등)의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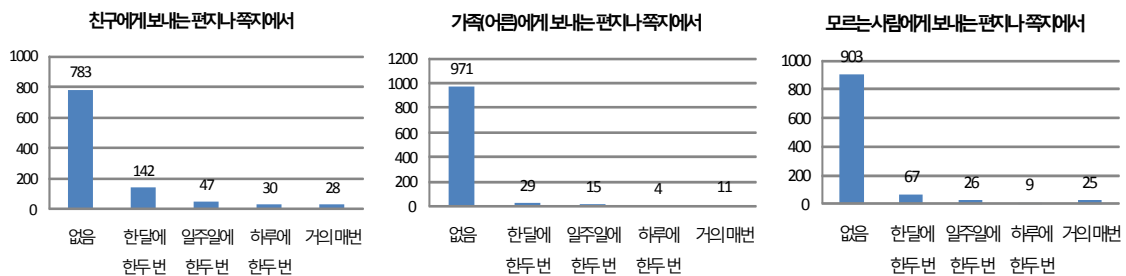
■ 입말에서 대화상대자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25.7%, ‘일주일에 한두 번’이 25.5%, ‘하루에 한두 번’이 24.6%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각각 94.3%와 87.7%로 나타났다.



[그림 3-14] 초등학생 입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10.2%	83.5%	76.8%
2 한 달에 한두 번	25.7%	8.7%	13.8%
3 일주일에 한두 번	25.5%	4.2%	4.9%
4 하루에 한두 번	24.6%	2.3%	2.6%
5 거의 매번	14.0%	1.3%	1.9%
계(N=1,695)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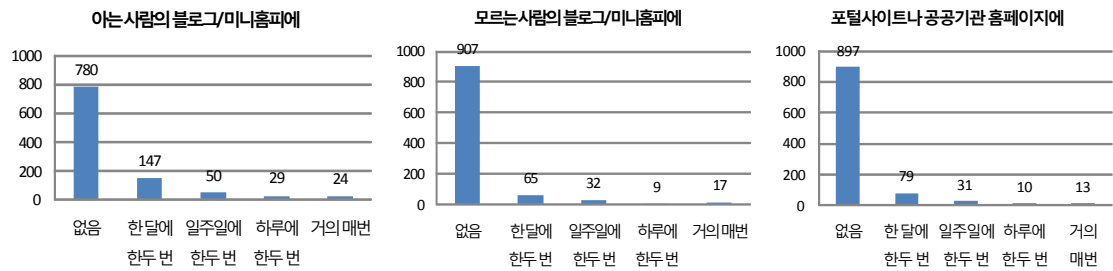
■ 글말에서 대화상대자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여부와 빈도를 살펴 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24%의 초등학생 응답자가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13.8%).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5.7%에 불과하였다. 반면, 모르는 사람에게 ‘한 달에 한두 번’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6.5%(67명)로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적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초등학생 글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76.0%	94.3%	87.7%
2 한 달에 한두 번	13.8%	2.8%	6.5%
3 일주일에 한두 번	4.6%	1.5%	2.5%
4 하루에 한두 번	2.9%	0.4%	0.9%
5 거의 매번	2.7%	1.1%	2.4%
계(N=1,695)	100.0%	100.0%	100.0%

■ 통신언어에서 대화상대자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여부와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폭력적 언어 표현을 쓴다는 응답자가 14.3%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6.3%,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7.7%로 조사되었다.



[그림 3-16] 초등학교생 통신언어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포털사이트
1 없음	75.7%	88.1%	87.1%
2 한 달에 한두 번	14.3%	6.3%	7.7%
3 일주일에 한두 번	4.9%	3.1%	3.0%
4 하루에 한두 번	2.8%	0.9%	1.0%
5 거의 매번	2.3%	1.7%	1.3%
계(N=1,695)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초등학교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 층 및 가정 경제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의 순으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학력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7> 초등학교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3	Pearson 상관계수	.112***	-.053*	-.056	-.021
	유의확률 (양쪽)	.000	.030	.057	.486
	N	1695	1695	1147	1117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와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감능력, 자기 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이 낮고, 자기통제력과 자기존중감 정도가 낮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초등학교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3	Pearson 상관계수	-.132***	-.292***	-.110***	-.09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1695	1695	1695	1695

■ 가정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도로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9> 초등학교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3	Pearson 상관계수	-.149***	.192***	-.08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1
	N	1695	1695	1695

■ 교육 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도로 측정되는 응집성이 낮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교사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0> 초등학교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3	Pearson 상관계수	-.070**	.184***	-.095***
	유의확률 (양쪽)	.004	.000	.000
	N	1695	1695	1695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 시행 결과, 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방과후활동과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도로 측정되는 응집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또래 간 자발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방과후활동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1> 초등학교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대인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방과후활동
C3	Pearson 상관계수	-.091***	.093***	-.183***	-.05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40
	N	1695	1695	1695	1237

【회귀분석 결과】

■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모의 언어폭력’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가 낮았다.

<표 3-3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6.423	2.160		2.974	.003
도시화층	.522	.278	.050	1.874	.061
가정형편	.039	.289	.004	.134	.894
공감 능력	-.800	.224	-.100	-3.576	.000
자기통제력	-1.737	.189	-.258	-9.181	.000
자기존중감	.077	.243	.010	.318	.750
학업성적	-.031	.228	-.004	-.136	.892
가족응집성	-.439	.214	-.063	-2.046	.041
가정 내 언어폭력	.716	.189	.110	3.794	.000
교사-학생 응집성	.231	.201	.036	1.151	.250
학업 스트레스	.468	.165	.080	2.838	.005
또래 간 응집성	.134	.221	.019	.605	.545
대인관계 스트레스	-.079	.211	-.011	-.377	.706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249	.242	-.031	-1.029	.304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	-.184	.233	-.024	-.787	.432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517	.172	-.087	-3.006	.003
청소년집단활동	.013	.223	.002	.057	.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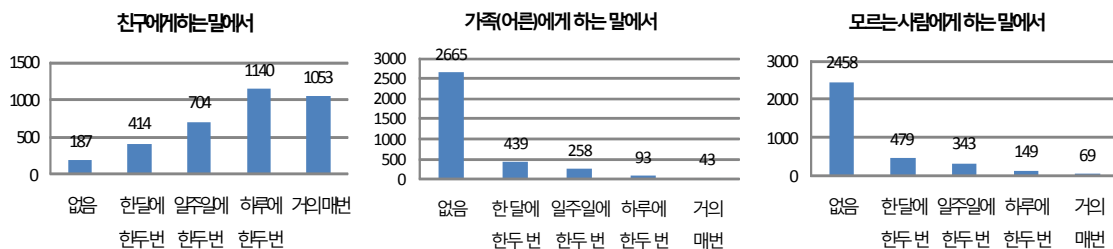
3-2. 상황 맥락에 따른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C3. 위와 같은 거친 말을 다음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아는 사람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모르는 사람(유명인 포함)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나 공공기관(방송국, 학교 등)의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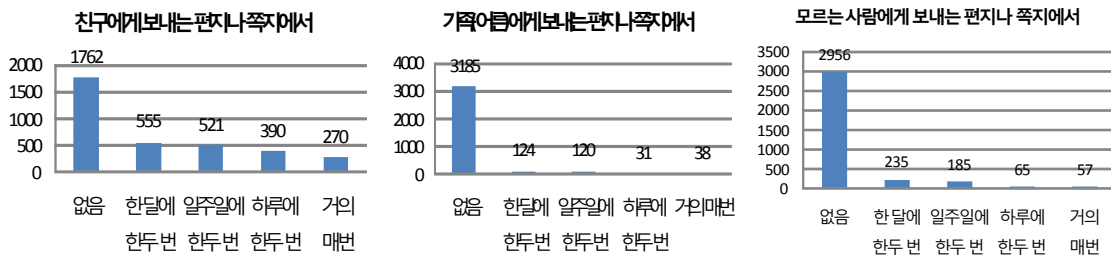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들이 입말(대화)에서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를 대화상대자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1140명(32.6%)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번’이라는 응답도 1054명(30.1%)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24.6%, ‘거의 매번’이라는 응답이 14.0%로 나타난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빈도가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2.7%, ‘거의 매번’이라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4.3%, ‘거의 매번’이라는 응답이 2.0%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17] 중고등학생 입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5.3%	76.2%	70.3%
2 한 달에 한두 번	11.8%	12.6%	13.7%
3 일주일에 한두 번	20.1%	7.4%	9.8%
4 하루에 한두 번	32.6%	2.7%	4.3%
5 거의 매번	30.1%	1.2%	2.0%
계(N=3,498)	100.0%	100.0%	100.0%

■ 중고등학생들이 글말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여부와 그 빈도를 수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9.6%로, 초등학생(24%)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글말을 통해 친구에게 욕설 등 공격적 표현을 쓰는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15.9%로 가장 높았다.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8.9%, 모르는 사람에게는 13.5%의 학생들이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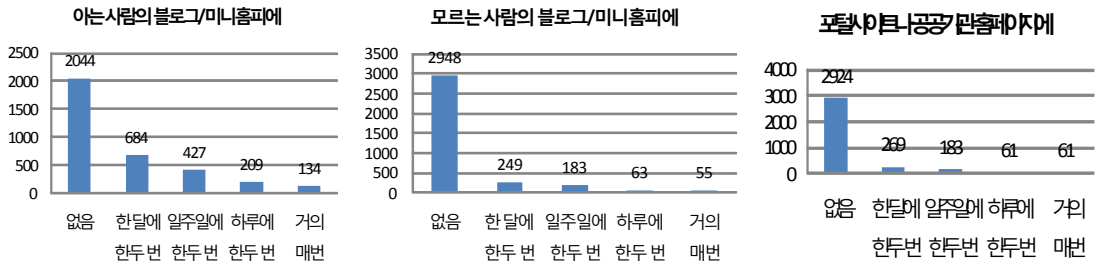


[그림 3-18] 중고등학생 글말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50.4%	91.1%	84.5%
2 한 달에 한두 번	15.9%	3.5%	6.7%
3 일주일에 한두 번	14.9%	3.4%	5.3%
4 하루에 한두 번	11.1%	0.9%	1.9%
5 거의 매번	7.7%	1.1%	1.6%
계(N=3,498)	100.0%	100.0%	100.0%

■ 중고등학생들이 통신언어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를 맥락에 따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42.6%,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15.7%,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16.4%의 응답자가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보인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에서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

홈피에 공격적 언어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그림 3-19] 중고등학생 통신언어에서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포털사이트
1 없음	58.4%	84.3%	83.6%
2 한 달에 한두 번	19.6%	7.1%	7.7%
3 일주일에 한두 번	12.2%	5.2%	5.2%
4 하루에 한두 번	6.0%	1.8%	1.7%
5 거의 매번	3.8%	1.6%	1.7%
계(N=3,498)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아버지의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의 순으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에도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3 Pearson 상관계수	.044**	-.044**	-.028	-.042*
유의확률 (양쪽)	.004	.003	.089	.011
N	4358	4358	3742	3701

■ 개인 특성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감능력, 자기

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는 낮아졌고, 반대로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표 3-34>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3	Pearson 상관계수	-.111***	-.175***	-.043**	-.07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5	.000
	N	4358	4358	4358	4358

■ 가정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도로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거친 말 사용에 대한 가정 내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5>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3	Pearson 상관계수	-.125***	.143***	-.12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4358	4358	4358

■ 교육 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도로 측정되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거친 말 사용에 관한 학교 내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학업 스트레스는 중고등학생 응답 결과에서는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 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3	Pearson 상관계수	-.067***	.004	-.060***
	유의확률 (양쪽)	.000	.807	.000
	N	4358	4358	4358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적은 청소년들이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공격적 언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또래 집단에서 주도권을 지니며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당

연한 행동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친 말 사용에 대한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격적 언어 표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집단활동
C3	Pearson 상관계수	.007	-.040**	-.225***	.029
	유의확률 (양쪽)	.656	.008	.000	.142
	N	4358	4358	4358	2652

【회귀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가 낮았다. 비속어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언어 표현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에 그 사용 빈도가 더 높아졌다.

<표 3-38>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8.330	1.275		14.378	.000
도시화 층	.364	.178	.032	2.047	.041
가정형편	.197	.148	.023	1.333	.183
부 학력	-.237	.193	-.020	-1.231	.219
공감 능력	-.669	.155	-.069	-4.308	.000
자기통제력	-.988	.120	-.131	-8.263	.000
자기존중감	-.110	.133	-.014	-.825	.410
학업성적	-.201	.119	-.028	-1.694	.090
가족 응집성	-.181	.150	-.023	-1.202	.230
부모의 언어폭력	.861	.119	.125	7.232	.000
교사-학생 응집성	.022	.119	.003	.183	.855
대인관계 스트레스	-.489	.123	-.066	-3.974	.000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550	.133	-.071	-4.139	.000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	.121	.126	.016	.957	.338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1.418	.116	-.205	-12.215	.000

4-1.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초등학생)

C4. 위 대화와 같은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욕을 해도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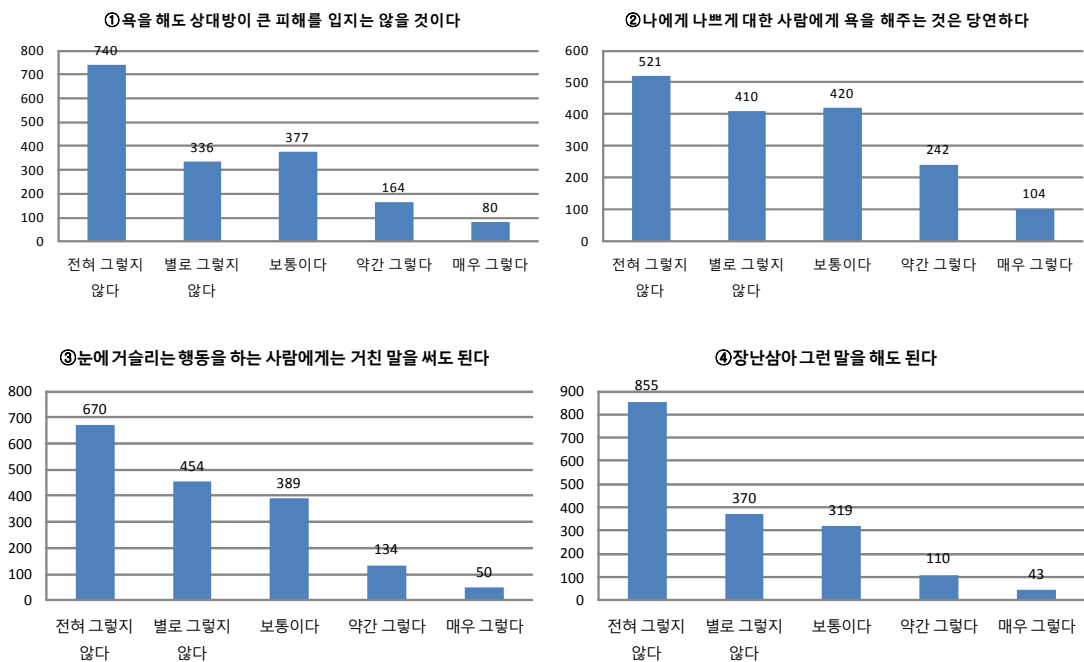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 욕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친 말을 써도 된다.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전체 분석 결과】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는 그 폐해에 대한 인식 여부, 비속어·욕설 사용이 용인되는 청자 범위와 동기(의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욕을 해도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14.4%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으며,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 욕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에는 20.4%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친 말을 써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10.8%,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9.0%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 5명 중 1명 정도가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0] 초등학생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

	①	②	③	④
1 전혀 그렇지 않다	43.6%	30.7%	39.5%	50.4%
2 별로 그렇지 않다	19.8%	24.2%	26.8%	21.8%
3 보통이다	22.2%	24.7%	22.9%	18.8%
4 약간 그렇다	9.7%	14.3%	7.9%	6.5%
5 매우 그렇다	4.7%	6.1%	2.9%	2.5%
계(N=1,697)	100.0%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정도와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 항목으로 측정된 용인 태도 정도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이 갖는 폐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비속어나 욕설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공격적 언어 표현의 실제 사용 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9> 초등학교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용인 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C4_1	C4_2	C4_3	C4_4
C3 Pearson 상관계수	.405***	.447***	.490***	.46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1695	1695	1695	1695

4-2.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중고등학생)

C4. 위 대화와 같은 폭력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폭력적 언어를 사용해도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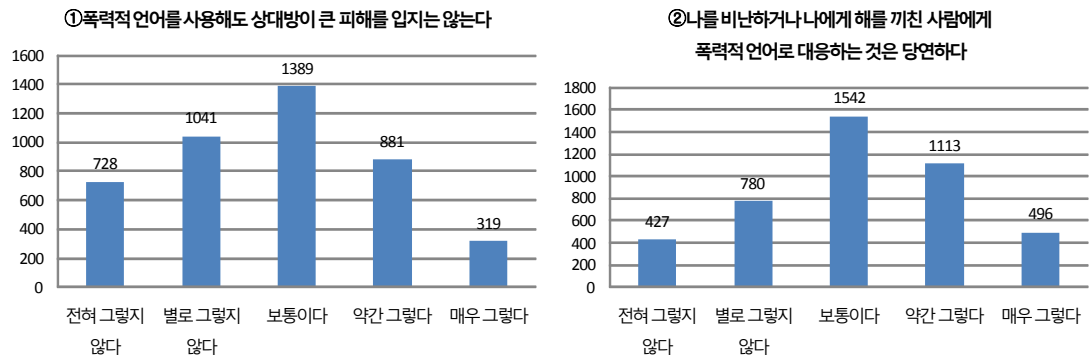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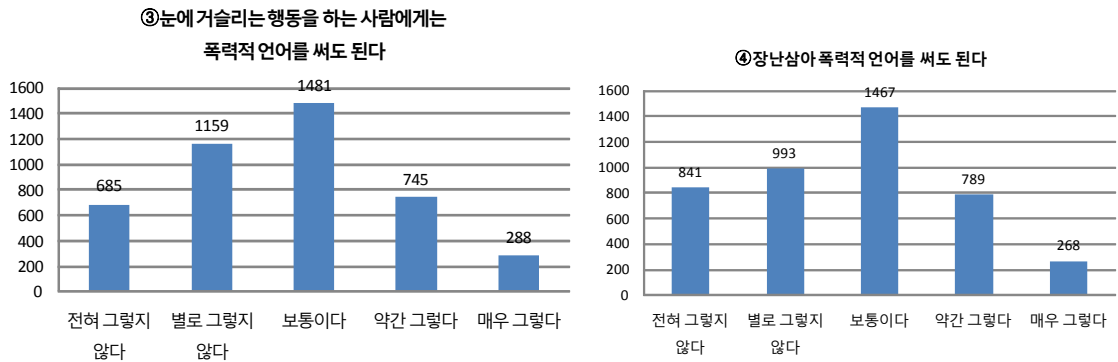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적 언어를 써도 된다.

장난삼아 폭력적 언어를 써도 된다.

【전체 분석 결과】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이 지니는 용인 태도를 조사한 결과, ‘폭력적 언어를 사용해도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27.5%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으며,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에는 36.9%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적 언어를 써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23.7%, ‘장난삼아 폭력적 언어를 써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24.3%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는 수준은 초등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공격적 언어 사용을 용인하는 태도가 가장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으며, 같은 문항에 대한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1] 중고등학생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태도

	①	②	③	④
1 전혀 그렇지 않다	16.7%	9.8%	15.7%	19.3%
2 별로 그렇지 않다	23.9%	17.9%	26.6%	22.8%
3 보통이다	31.9%	35.4%	34.0%	33.7%
4 약간 그렇다	20.2%	25.5%	17.1%	18.1%
5 매우 그렇다	7.3%	11.4%	6.6%	6.1%
계(N=4,358)	100.0%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 정도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 항목으로 측정된 용인 태도 정도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다소 약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3-40>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과 용인 태도 간 상관분석 결과

	C4_1	C4_2	C4_3	C4_4
C3 Pearson 상관계수	.269***	.242***	.315***	.30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4358	4358	4358	4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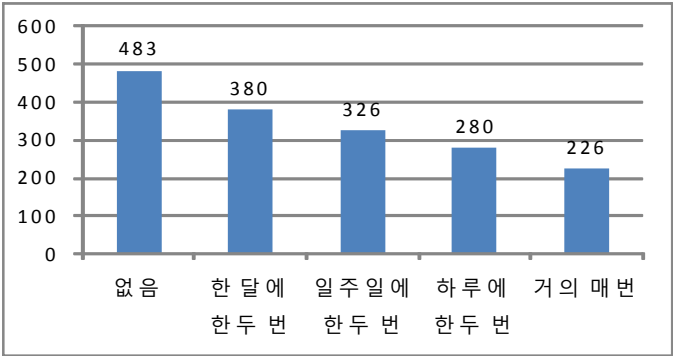
5-0-1.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발생 빈도(초등학생)

C5.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와 같은 거친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C6으로 이동)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

【전체 분석 결과】

■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 협박, 비하, 조롱, 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와 그 빈도를 물어본 결과, 50.9%(1,213명)의 응답자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0.7%인 데 반해 다소 낮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는 언어적 공격이 일부 청소년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은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2.4%).



[그림 3-22]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발생 빈도

1 없음	28.5%
2 한 달에 한두 번	22.4%
3 일주일에 한두 번	19.2%
4 하루에 한두 번	16.5%
5 거의 매번	13.3%
계(N=1,6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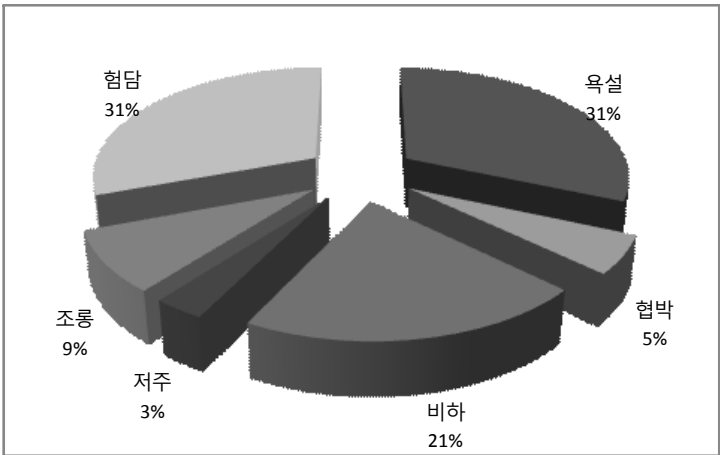
5-1-1.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유형(초등학생)

C5-1.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 욕설 (예. “이 멍청아”, “미친놈”)
- 협박하는 말 (예. “한번 죽어볼래?”)
-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예.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넌 눈이 없냐?”)
- 저주 (예. “가다가 확 자빠져라.”)
-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예. “너 꼴찌해서 좋겠다.”)
-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험담

【전체 분석 결과】

■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1,213명)에게 다시 어떤 말이 가장 불쾌하게 느껴지는지를 묻은 결과, 욕설(31%)과 거짓소문이나 험담(31%)이 가장 많았고, 비하(21%)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그림 3-23]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표현 피해 유형

1 욕설	31.3%
2 협박하는 말	5.4%
3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20.9%
4 저주	3.1%
5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8.7%
6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험담	30.5%
계(N=1,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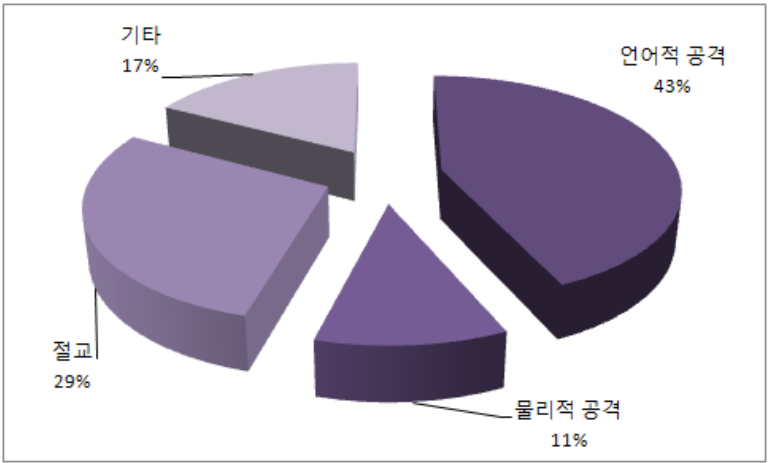
5-2-1. 공격적 언어 사용에 대한 대응 유형(초등학생)

C5-2. 위와 같이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 나도 상대방에게 욕을 해준다.
- 상대방을 때려준다.
-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었을 때 대응 유형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43%), 관계를 끊는다는 응답자가 29%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는 응답자도 11%나 되었다.



[그림 3-24] 초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에 대한 대응 유형

1	나도 상대방에게 욕을 해준다	43.4%
2	상대방을 때려준다	10.8%
3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28.6%
4	기타	17.2%
계(N=1,2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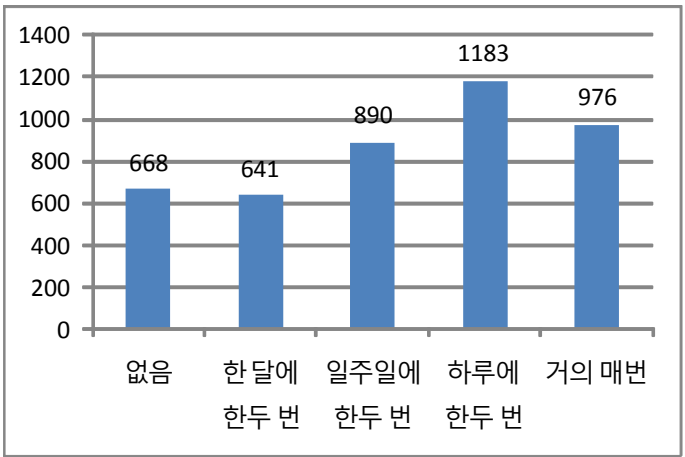
5-0-2.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발생 빈도(중고등학생)

C5.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와 같은 폭력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06으로 이동)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전체 분석 결과】

■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 헐박, 비하, 조롱, 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와 그 빈도를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84.7%(3,690명)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초등학생 50.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은 빈도는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27.1%), 공격적 언어 표현의 피해 발생 빈도가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5]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발생 빈도

1 없음	15.3%
2 한 달에 한두 번	14.7%
3 일주일에 한두 번	20.4%
4 하루에 한두 번	27.1%
5 거의 매번	22.4%
계(N=4,3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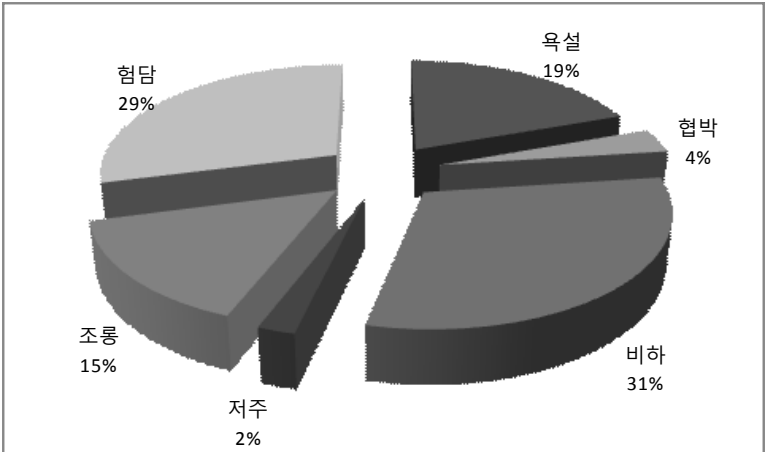
5-1-2.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유형(중고등학생)

C5-1.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니까?

- 욕설 (예. “이 멍청아”, “미친놈”)
- 협박하는 말 (예. “한번 죽어볼래?”)
-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예.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넌 눈이 없냐?”)
- 저주 (예. “가다가 확 자빠져라.”)
-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예. “너 끝까지 해서 좋겠다.”)
- 나에 대한 거짓 소문, 헐담

【전체 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공격적 언어 표현 유형은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31%), 그 다음이 ‘거짓소문이나 헐담’(29%)으로 나타났다. 욕설과 조롱은 각각 19%와 15%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욕설’을 가장 듣기 싫은 유형으로 꼽았던 초등학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3-26]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 피해 유형

1 욕설	19.4%
2 협박하는 말	3.5%
3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30.7%
4 저주	2.1%
5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말	15.1%
6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헐담	29.1%
계(N=3,6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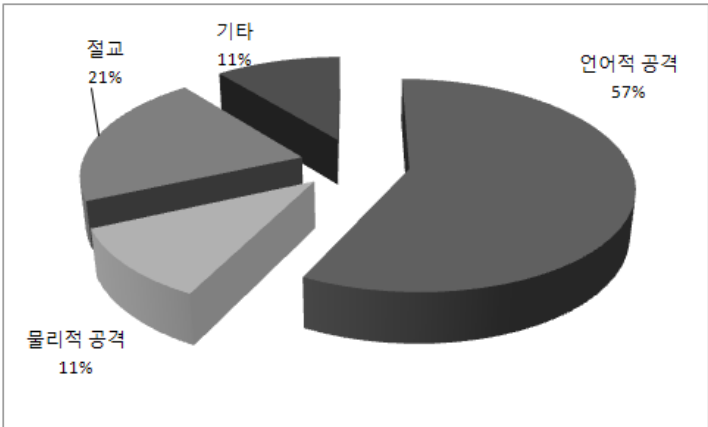
5-2-2. 공격적 언어에 대한 대응 유형(중고등학생)

C5-2. 위와 같이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 나도 상대방에게 욕을 해준다.
- 상대방을 때려준다.
-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언어 표현을 들었을 때 대응 유형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 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57%), 관계를 끊는다는 응답자가 21%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무시한다’, ‘참는다’, ‘두 배로 복수한다’, ‘운다’ 등이 있었다.



[그림 3-27]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 사용에 대한 대응 유형

1	나도 상대방에게 욕을 해준다	57.4%
2	상대방을 때려준다	10.9%
3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20.9%
4	기타	10.8%
계(N=3,690)		100.0%

□□ 은어·유행어 사용

가. 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안습(안구에 습기할 정도로 눈물난다), 발리다(패배하다), 은나(매우), 만렙(최고 레벨), 죽빵치다(집단구타하다), 팔라(만취 상태)’ 등의 은어와 ‘헐(감탄사), 쌤(선생님), 레알(정말), 웰케(왜 이렇게), 개-(매우), ㅇㅋ(okay), ㄸ2(bye)’ 등의 유행어 예를 제시하고³¹⁾ 사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응답자의 97%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응답자의 100%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학년과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사소통 경로 및 상황(대상자, 사적·공적 공간)에 따라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매번’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은어·유행어 사용이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은어·유행어를 쓰는 빈도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신언어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7%,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15%,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13.3%로 나타나, 인터넷 상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친소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사용자 분포를 보였다.

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의식

은어·유행어 어휘별 인지도 조사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제시된 모든 어휘에서 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은어·유행어 어휘 뜻을 아는 응답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은어·유행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있고, 뜻을 아는 은어·유행어 어휘 목록이 추가됨에 따라 사용 빈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는 ‘은어·유행어를 써서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책임이다’,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 ‘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은어·유행어를 써도 된다’ 등의 3개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훨씬 높은 용인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한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해 용인도가 높을수록 실제 사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은어·유행어 사용의 원인(관련 요인)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는 가정 경제 수준과 자기통제력 요인만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 집단에 걸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나 학업 성적에 무관하게 은어·유행어가 그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보인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개인별 특성 요인을 통제하고 환경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은어·유행어의 사용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또래 간 응집성’도 은어·유행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 집단 구성원 간 응집성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은어·유행어의 사용을 줄이는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가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속어 및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친구들에게 이러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은어·유행어의 사용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은어·유행어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는 은어·유행어를 많이 쓰는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회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어·유행어는 말의 재미를 높이고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기능도 지니지만, 지나친 사용으로 언어 파괴와 의사소통 단절에 이르지 않도록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31) 초등학생에게 제시된 어휘 목록과 중고등학생에게 제시된 어휘 목록에는 차이가 있음.

6-1.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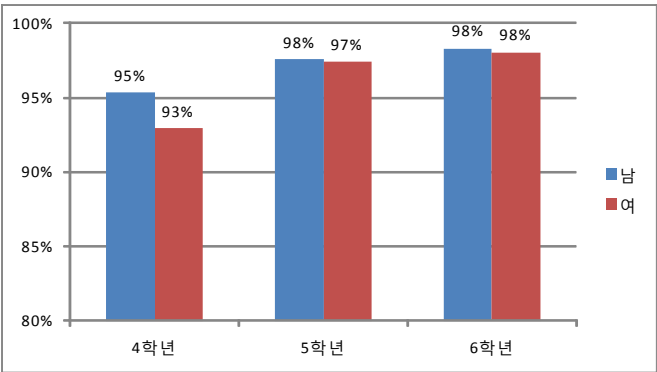
C6. 아래에 보인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용한 적이...		뜻을...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솔까말				
안습				
발리다				
은나				
만렙				
죽빵-치다				
헐				
쌌				
레알				
웰케				
개-(예. 개공감, 개짜증)				
ㅇㅋ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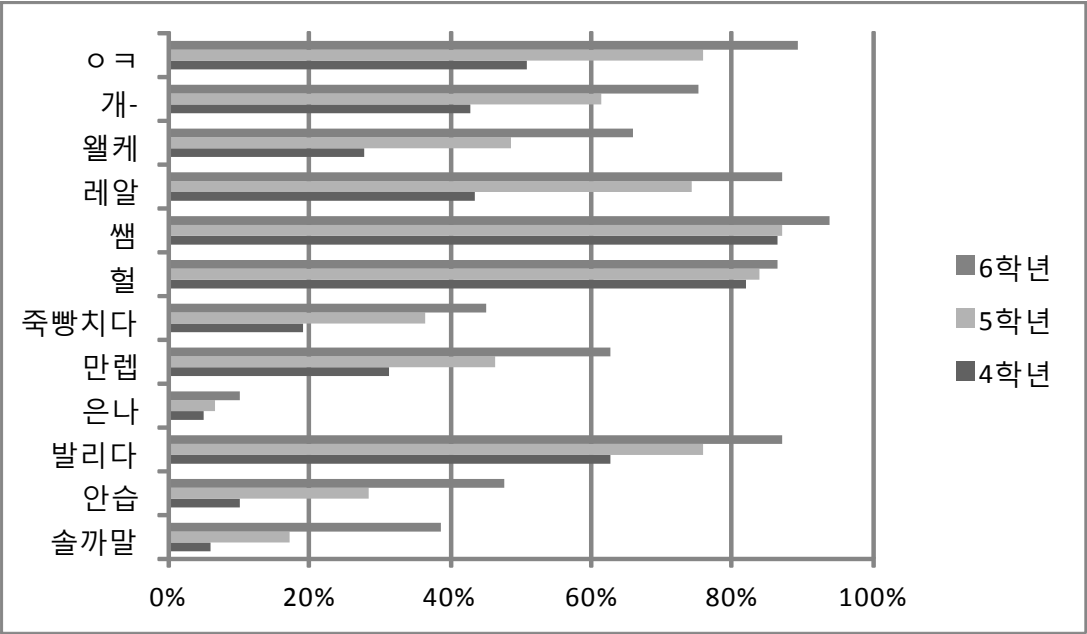
■ 초등학생 응답자의 97%가 은어·유행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자 비율도 높아졌다.

■ 성별로는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 비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8]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비율

■ 어휘별 인지도(뜻을 아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시된 은어·유행어 어휘의 의미를 아는 응답자 수가 많아졌다.



[그림 3-29] 초등학교 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표 3-41> 초등학교 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형태	설명	4학년	5학년	6학년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의 줄임말	6%	17%	39%
안습	‘안구에 습기차다’는 말의 줄임말, 딱한 상황을 대할 때 씀.	10%	28%	48%
발리다	‘완전히 패배하다’는 뜻	63%	76%	87%
은나	‘쫓나’의 변형, ‘매우’라는 뜻	5%	7%	10%
만렙	‘최고 레벨(주로 게임에서)까지 올라감’의 뜻	31%	46%	63%
죽빵치다	‘집단구타하다’는 뜻	19%	36%	45%
헐	감탄사	82%	84%	87%
쌔	‘선생님’의 줄임말	86%	87%	94%
레알	영어 ‘real’을 철자의 발음대로 읽은 것	43%	74%	87%
웰케	‘왜 이렇게’의 줄임말	28%	49%	66%
개-	‘매우’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적인 기능을 지닌 말	43%	62%	75%
ㅇㅋ	영어 ‘오케이’에서 음절의 첫 자소만 따온 것	51%	76%	89%

【상관분석 결과】

■ 은어·유행어 어휘를 언어 규범 파괴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³²⁾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응답자가 사용하는 은어·유행어 어휘 수 및 등급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 층, 가정경제수준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 중소도시 > 군 지역의 순으로 다양하고 규범파괴성 정도가 심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과 은어·유행어 사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2> 초등학교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6	Pearson 상관계수	.098***	-.075**	-.055	-.019
	유의확률 (양쪽)	.000	.002	.062	.520
	N	1695	1695	1147	1117

■ 개인 특성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성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감 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강하며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덜 사용하고 사용하더라도 규범파괴성이 약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학업 성적과 은어·유행어 사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3> 초등학교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6	Pearson 상관계수	-.059*	-.239***	-.073**	-.027
	유의확률 (양쪽)	.015	.000	.003	.266
	N	1695	1695	1695	1695

■ 가정 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성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고, 자녀의 언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덜 사용하고,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언어 규범 파괴 강도에 따른 은어·유행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은어 어휘 144개와 유행어 어휘 142개에 대하여 교양국어 과목 교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초등학교생 설문에 제시된 어휘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생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추린 것이다. 제시된 어휘 중 ‘술 까말, 안습’ 등의 은어는 언어 파괴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발리다, 은나’ 등은 중간 정도인 2, ‘만렙, 죽빵치다’ 등은 의미가 매우 저속하고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제시된 유행어 어휘 중 ‘헐, 쌤’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낮은 1, ‘레알, 웰케’ 등은 2, ‘개-, ㅇㅋ’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의 유행어로 분류하고,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3-44>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6	Pearson 상관계수	-.097***	.131***	-.05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16
	N	1695	1695	1695

■ 교육 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과괴성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 환경 요인들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 요인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이 은어·유행어를 많이, 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나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는 청소년의 은어·유행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6	Pearson 상관계수	-.040	.203***	-.029
	유의확률 (양쪽)	.097	.000	.226
	N	1695	1695	1695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과괴성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의 상관관계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사용할 때 또래 집단에서 보이는 자발적 통제력이 가장 큰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6>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대인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방과후활동
C6	Pearson 상관계수	.004	-.019	-.247***	.036
	유의확률 (양쪽)	.865	.423	.000	.212
	N	1695	1695	1695	1237

【회귀분석 결과】

■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의 사용 빈도가 낮았다.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나 ‘부모의 언어폭력’, ‘가족응집성’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은어·유행어 사용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초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모형 C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8.014	1.490		5.379	.000
	도시화 총	.682	.216	.072	3.161	.002
	가정형편	-.352	.224	-.037	-1.577	.115
	공감 능력	-.157	.173	-.022	-.909	.364
	자기통제력	-1.105	.146	-.180	-7.584	.000
	자기존중감	.165	.182	.023	.905	.365
	가족 응집성	.045	.153	.007	.294	.769
	부모의 언어폭력	.314	.145	.053	2.161	.031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063	.177	.008	.355	.723
	학업 스트레스	.747	.126	.141	5.930	.000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1.160	.130	-.215	-8.919	.000

6-2.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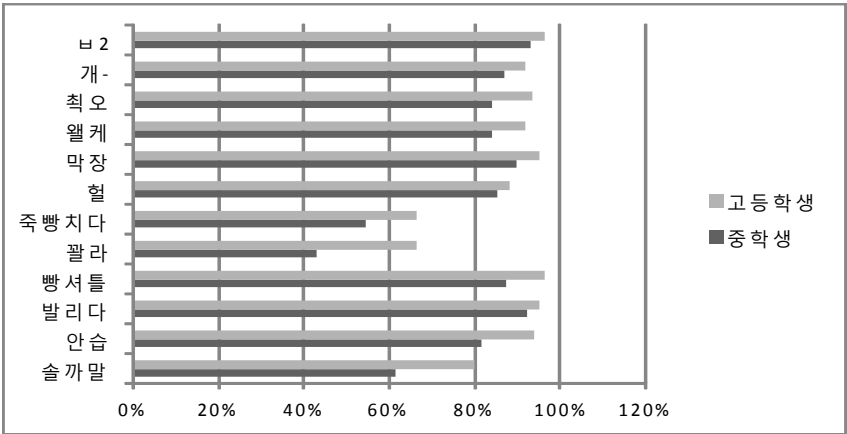
C6. 아래에 보인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사용한 적이...		뜻을...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술까말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안습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발리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빵셔틀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팔라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죽빵치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헐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막장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엘게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척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개-(예. 개공감, 개짜증)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ㅂ2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전체 분석 결과】

■ 확산도(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100%가 은어·유행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년별,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이 은어·유행어를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각 어휘별 인지도 조사 결과, 모든 어휘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은어·유행어 어휘 뜻을 아는 응답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3-30]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표 3-48〉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및 인지도

	설명	중1	중2	중3	고1	고2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의 줄임말	52%	59%	73%	80%	80%
안습	‘안구에 습기차다’는 말의 줄임말, 딱한 상황을 대할 때 씀.	74%	83%	88%	93%	94%
발리다	‘완전히 패배하다’는 뜻	87%	94%	95%	95%	95%
빵셔틀	‘빵심부름 하는 아이’라는 뜻	77%	91%	94%	96%	96%
꼰라	‘만취상태’의 뜻	33%	43%	53%	64%	69%
죽빵치다	‘집단구타하다’는 뜻	48%	55%	60%	67%	67%
헐	감탄사	83%	85%	88%	87%	89%
막장	‘끝장’이라는 뜻	82%	93%	95%	95%	96%
엘게	‘왜 이렇게’의 줄임말	75%	86%	92%	91%	93%
척오	‘최고’를 과잉분절한 것	74%	87%	91%	92%	94%
개-	‘매우’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적인 기능을 지닌 말	80%	89%	91%	92%	92%
ㅂ2	영어 ‘bye’에서 첫음절의 두음은 한글로 표기하고 두 번째 음절은 음이 같은 숫자로 표기한 것	90%	94%	95%	96%	97%

7-1. 은어·유행어 사용 맥락(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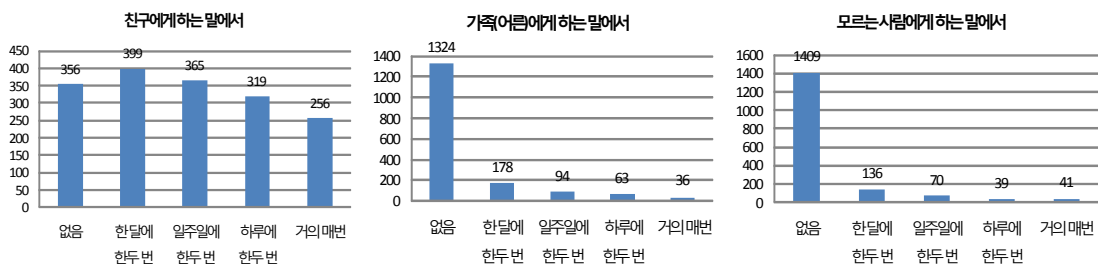
C7. 위(C6)와 같은 말(유행어·은어)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아는 사람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모르는 사람(유명인 포함)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나 공공기관(방송국, 학교 등)의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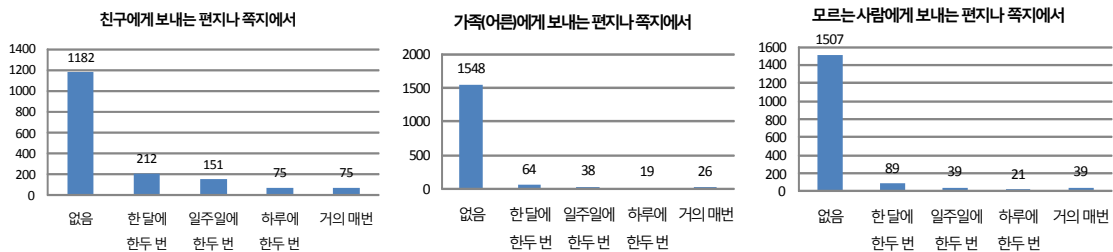
▣ 초등학생들이 입말(대화)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대화상대자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339명(23.5%)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1.5%(21.5%)로 나타났다.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는 대부분(78.0%)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0.5%를 차지하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는 역시 대부분(83.1)의 응답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은 8%를 차지하였다.



[그림 3-31] 입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21.0%	78.0%	83.1%
2 한 달에 한두 번	23.5%	10.5%	8.0%
3 일주일에 한두 번	21.5%	5.5%	4.1%
4 하루에 한두 번	18.8%	3.7%	2.3%
5 거의 매번	15.1%	2.1%	2.4%
계(N=1,695)	100.0%	100.0%	100.0%

■ 초등학생들이 글말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수신자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30.3%의 응답자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사용자 중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182명(12.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8.7%의 응답자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 빈도는 역시 높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11.1%의 응답자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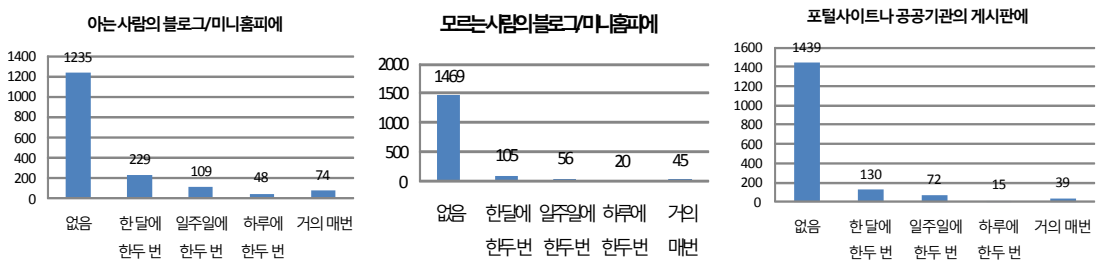


[그림 3-32] 글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69.7%	91.3%	88.9%
2 한 달에 한두 번	12.5%	3.8%	5.3%
3 일주일에 한두 번	8.9%	2.2%	2.3%
4 하루에 한두 번	4.4%	1.1%	1.2%
5 거의 매번	4.4%	1.5%	2.3%
계(N=1,695)	100.0%	100.0%	100.0%

■ 초등학생들이 통신언어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맥락에 따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은어·유행어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7.1%,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13.3%,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15.1%로 나타나, 컴퓨터 통신상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친소 정도에 따라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통신언어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초등학생)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포털사이트
1 없음	72.9%	86.7%	84.9%
2 한 달에 한두 번	13.5%	6.2%	7.7%
3 일주일에 한두 번	6.4%	3.3%	4.2%
4 하루에 한두 번	2.8%	1.2%	0.9%
5 거의 매번	4.4%	2.7%	2.3%
계(N=1,695)	100.0%	100.0%	100.0%

7-2. 은어·유행어 사용 맥락(중고등학생)

C7. 위(C6)와 같은 말(유행어·은어)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거의 매번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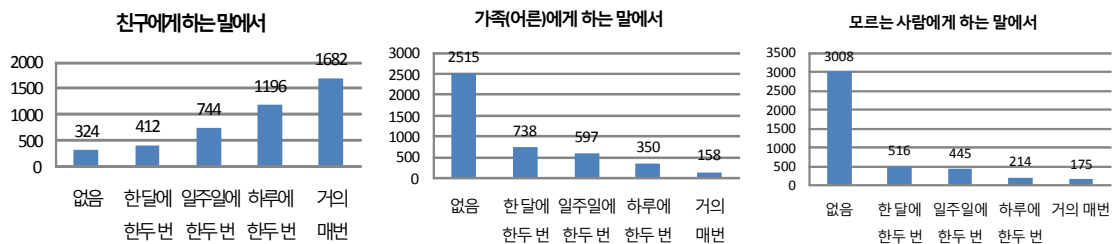
아는 사람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모르는 사람(유명인 포함)의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나 공공기관(방송국, 학교 등)의 게시판에 쓰는 글이나 댓글에서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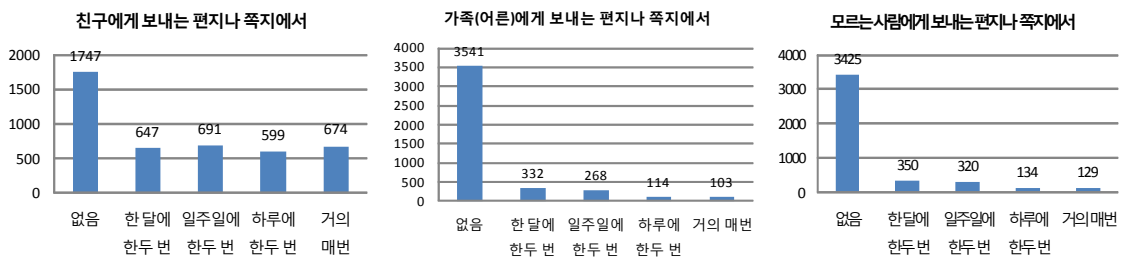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들이 입말(대화)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대화상대자에 따라 살펴 보면,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는 ‘거의 매번’이라는 응답이 1682명(38.6%)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1196명(27.4%)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가족(어른)에게 하는 말에서는 42.3%의 응답자가 은어·유행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16.9%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는 31%의 응답자가 은어·유행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고등학생들은 대화상대자가 가족(어른)이거나 모르는 사람일 때에도 초등학생에 비해 은어·유행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4] 입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7.4%	57.7%	69.0%
2 한 달에 한두 번	9.5%	16.9%	11.8%
3 일주일에 한두 번	17.1%	13.7%	10.2%
4 하루에 한두 번	27.4%	8.0%	4.9%
5 거의 매번	38.6%	3.6%	4.0%
계(N=4,358)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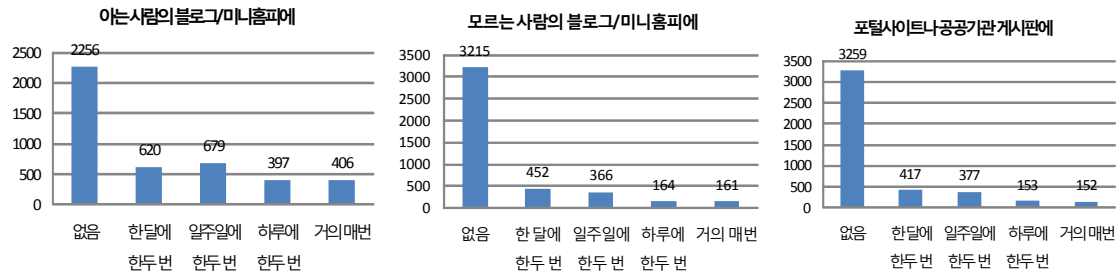
■ 중고등학생들이 글말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수신자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모두 59.9%의 응답자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그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15.9%)이라는 응답과 '거의 매번'(1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족(어른)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18.7%의 응답자가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쪽지에서는 21.4%의 응답자가 은어·유행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3-35] 글말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
1 없음	40.1%	81.3%	78.6%
2 한 달에 한두 번	14.8%	7.6%	8.0%
3 일주일에 한두 번	15.9%	6.1%	7.3%
4 하루에 한두 번	13.7%	2.6%	3.1%
5 거의 매번	15.5%	2.4%	3.0%
계(N=4,358)	100.0%	100.0%	100.0%

■ 중고등학생들이 통신언어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맥락에 따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은어·유행어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2%,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26.2%,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25.2%로 나타났다. 이는 은어·유행어 사용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비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그림 3-36] 통신언어에서의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중고등학생)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포털 사이트
1 없음	51.8%	73.8%	74.8%
2 한 달에 한두 번	14.2%	10.4%	9.6%
3 일주일에 한두 번	15.6%	8.4%	8.7%
4 하루에 한두 번	9.1%	3.8%	3.5%
5 거의 매번	9.3%	3.7%	3.5%
계(N=4,358)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은어·유행어 어휘를 언어 규범 파괴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³³⁾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응답자가 사용하는 은어·유행어 어휘 수 및 등급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정 경제 수준과 부모 학력 등의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 층과 은어·유행어 사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생 응답 결과와 대비되는 점으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도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은어·유행어 사용이 발생하는 반면,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도시화 정도에 상관없이 은어·유행어 사용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9>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도시화 층	가정형편	모 학력	부 학력
C6 Pearson 상관계수	.016	-.063***	-.052**	-.074***
유의확률 (양쪽)	.305	.000	.001	.000
N	4358	4358	3742	3701

33) 언어 규범 파괴 강도에 따른 은어·유행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은어 어휘 144개와 유행어 어휘 142개에 대하여 교양국어 과목 교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제시된 어휘 중 ‘술까말, 안습’ 등의 은어는 언어 파괴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발리다, 뽕서틀’ 등은 중간 정도인 2, ‘팔라, 죽빵치다’ 등은 의미가 매우 저속하고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제시된 유행어 어휘 중 ‘헐, 막장’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낮은 1, ‘칙오, 웰케’ 등은 2, ‘개-, 뽀2’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의 유행어로 분류하고,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설문과 다르게 (추가)제시된 어휘는 ‘뽕서틀, 팔라, 막장, 칙오, 뽀2’ 등이 다.

■ 응답자의 개인 특성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통제력, 학업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은어·유행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 능력 및 자기존중감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50>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개인 특성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학업 성적
C6	Pearson 상관계수	-.021	-.126***	.025	-.067***
	유의확률 (양쪽)	.166	.000	.094	.000
	N	4358	4358	4358	4358

■ 가정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족응집성, 자기통제력,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고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은어·유행어를 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은어·유행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1>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가정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통제
C6	Pearson 상관계수	-.076***	.045**	-.078***
	유의확률 (양쪽)	.000	.003	.000
	N	4358	4358	4358

■ 교육 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 간 정서적 지지도가 높고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덜 사용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응답 결과와 대비되는 점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은어·유행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2>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교육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교사-학생 응집성	학업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C6	Pearson 상관계수	-.056***	.016	-.053***
	유의확률 (양쪽)	.000	.302	.000
	N	4358	4358	4358

■ 사회·문화 환경 요인과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어휘 수 및 규범파괴 정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네 가지 요인(응집성,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 집단 활동)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 친구 집단 또는 '방과후활동'과 같은 청소년 집단 활동 내 응집성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도 높아졌다. 반면,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가 낮아졌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통념과 달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53>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사회·문화 환경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또래 응집성	대인 스트레스	비공식적 통제	청소년집단활동
C6	Pearson 상관계수	.112***	-.132***	-.235***	.04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15
	N	4358	4358	4358	2652

【회귀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와 상관관계가 나타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은어·유행어 사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학생 응집성'이나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 등은 은어·유행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문화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또래 간 응집성', '대인관계 스트레스', '청소년 집단 활동'이 모두 은어·유행어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4>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과 환경 요인 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2.147	1.195		18.529	.000
가정형편	-.193	.145	-.030	-1.333	.183
모 학력	-.479	.240	-.051	-1.999	.046
부 학력	-.144	.230	-.016	-.626	.531
자기통제력	-.457	.118	-.080	-3.858	.000
학업성적	-.293	.117	-.053	-2.504	.012
가족 응집성	-.085	.146	-.014	-.581	.561
부모의 언어폭력	.289	.119	.055	2.433	.015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	-.192	.135	-.031	-1.424	.155
교사-학생 응집성	-.168	.117	-.032	-1.441	.150
교사의 비공식적 통제	-.007	.125	-.001	-.053	.958
또래 간 응집성	.584	.143	.094	4.090	.000
대인관계 스트레스	-.464	.124	-.085	-3.736	.000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1.153	.113	-.222	-10.163	.000
청소년집단활동	-.159	.070	-.046	-2.262	.024

8-1.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초등학생)

C8.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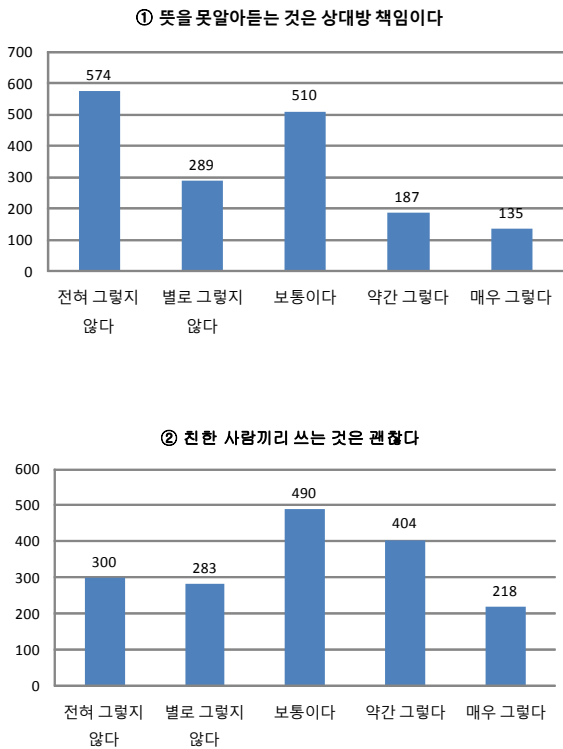
은어·유행어를 써서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또는 읽는 사람)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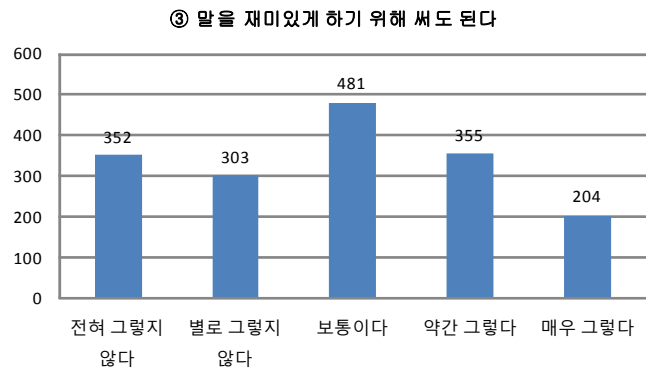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

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은어·유행어를 써도 된다.

【전체 분석 결과】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는 은어·유행어 사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여부, 은어·유행어 사용이 용인되는 청자 범위와 동기(의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은어·유행어를 써서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또는 읽는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19.0%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으며,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는 36.7%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은어·유행어를 써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33.0%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그림 3-37] 초등학교생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①	②	③
1 전혀 그렇지 않다	33.9%	17.7%	20.8%
2 별로 그렇지 않다	17.1%	16.7%	17.9%
3 보통이다	30.1%	28.9%	28.4%
4 약간 그렇다	11.0%	23.8%	20.9%
5 매우 그렇다	8.0%	12.9%	12.0%
계(N=1,695)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정도와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3개 항목으로 측정된 용인 태도 정도와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은어·유행어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할수록 그 실제 사용 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초등학교생) 상관분석 결과

	C8_1	C8_2	C8_3
C6 Pearson 상관계수	.299***	.549***	.52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1695	1695	1695

8-2.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중고등학생)

C8.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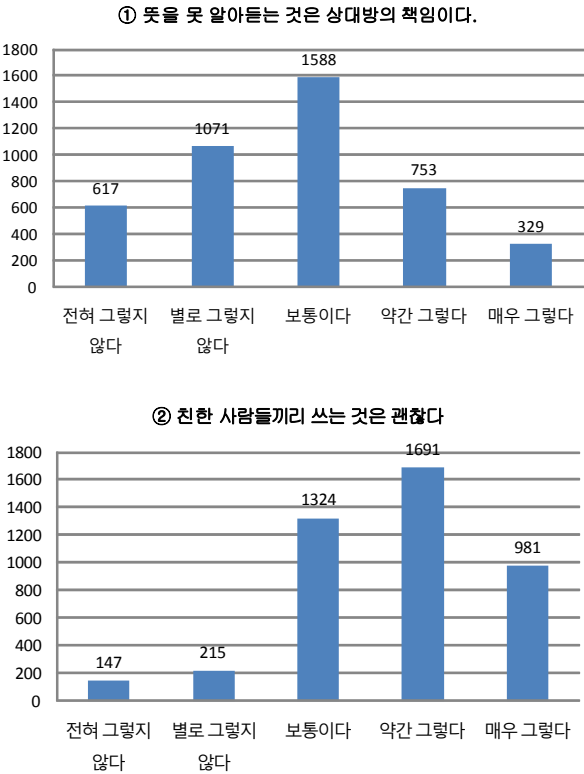
은어·유행어를 써서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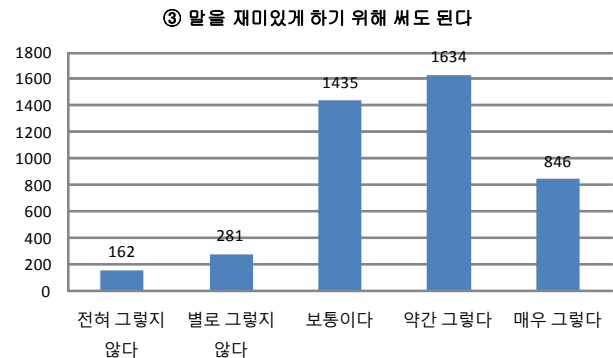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

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은어·유행어를 써도 된다.

【전체 분석 결과】

■ 중고등학생들은 ‘은어·유행어를 써서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또는 읽는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24.8%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으며,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는 61.3%의 응답자가 긍정 하는 입장을 보였다. ‘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은어·유행어를 써도 된다’라는 의견에는 56.9%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해 훨씬 폭넓은 용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8] 중고등학생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

	①	②	③
1 전혀 그렇지 않다	14.2%	3.4%	3.7%
2 별로 그렇지 않다	24.6%	4.9%	6.4%
3 보통이다	36.4%	30.4%	32.9%
4 약간 그렇다	17.3%	38.8%	37.5%
5 매우 그렇다	7.5%	22.5%	19.4%
계(N=4,358)	100.0%	100.0%	100.0%

【상관분석 결과】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정도와 사용 빈도 간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3개 항목으로 측정된 용인 태도 정도와 은어·유행어 사용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은어·유행어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할수록 그 실제 사용 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설문 결과에 비하면 다소 약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6>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중학생) 상관분석 결과

		C8_1	C8_2	C8_3
C6	Pearson 상관계수	.178***	.246***	.24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4358	4358	4358

9-1.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초등학생)

C9.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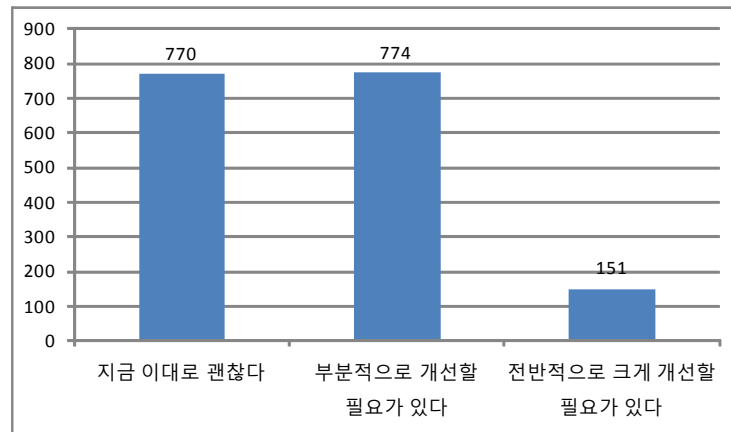
지금 이대로 괜찮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분석 결과】

■ 자신의 일상생활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 응답자는 전체의 54.5%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9] 초등학생의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1	지금 이대로 괜찮다	45.4%
2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5.7%
3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8.9%
계(N=1,695)		100.0%

9-2.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중고등학생)

C9.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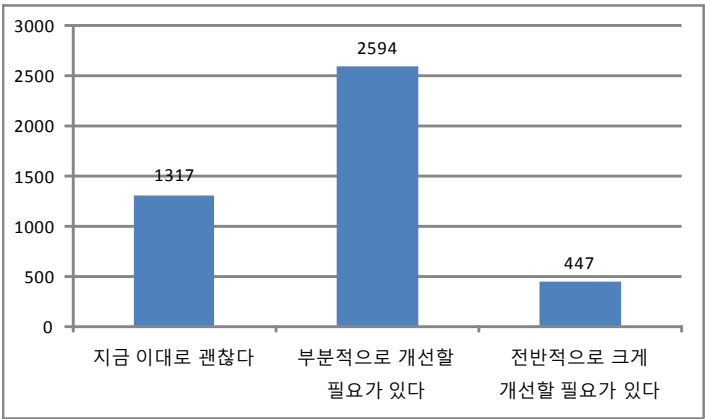
지금 이대로 괜찮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분석 결과】

■ 자신의 일상생활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 응답자는 전체의 69.8%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언어 사용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응답자 비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0] 중고등학생의 언어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1	지금 이대로 괜찮다	30.2%
2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9.5%
3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3%
계(N=4,358)		100.0%

10-1.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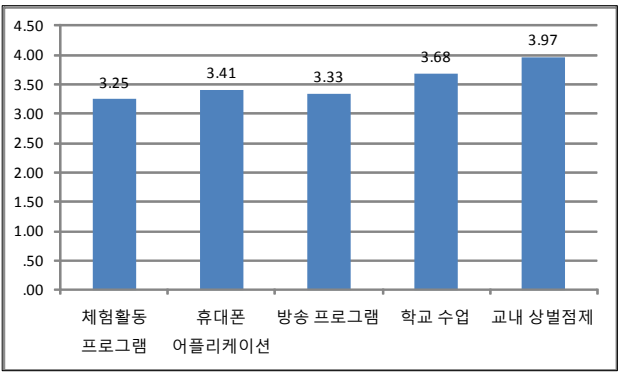
C10. 고운 말을 쓰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말지킴이 캠프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
바른말 사용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사용해볼 생각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바른말 사용에 대해 배우면 평상시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바른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점과 벌점을 준다면 평상시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될 것이다.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교외 활동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대중매체 프로그램, 교내 정규 수업, 교내 상벌점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그 평균을 비교한 결과, ‘교내 상벌점제 > 학교 수업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방송 프로그램 >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순으로 그 실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초등학생 응답자의 44%가 ‘학교에서 바른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점과 벌점을 준다면 평상시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41]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초등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방송	학교수업	상벌점제
1 매우 그렇다	22.2%	24.4%	22.8%	31.9%	44.1%
2 약간 그렇다	22.3%	23.7%	21.6%	24.1%	23.1%
3 보통이다	26.9%	29.9%	31.4%	29.7%	22.9%
4 별로 그렇지 않다	15.5%	12.3%	14.2%	9.1%	5.1%
5 전혀 그렇지 않다	13.2%	9.7%	10.0%	5.3%	4.8%
계(N=1,695)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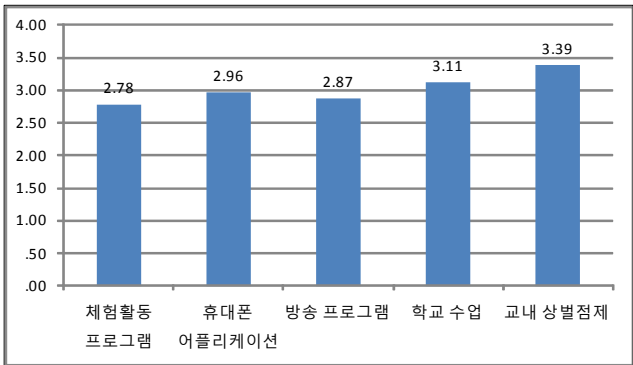
10-2.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중고등학생)

C10. 언어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말지킴이 캠프 등 교외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					
바른말 사용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사용해볼 생각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 것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바른말 사용에 대해 배우면 언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바른말 사용 여부에 따라 상점과 별점을 준다면 언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교외 활동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대중매체 프로그램, 교내 정규 수업, 교내 상벌점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그 평균을 비교한 결과, ‘교내 상벌점제 > 학교 수업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방송 프로그램 >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순으로 그 실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역시 교내 상벌점제가 언어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고, 캠프와 같은 체험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42] 개선책에 대한 수용 의지(중고등학생)

	체험활동	어플리케이션	방송	학교수업	상벌점제
1 매우 그렇다	10.1%	11.2%	9.5%	12.7%	24.2%
2 약간 그렇다	15.9%	22.1%	17.5%	24.0%	23.7%
3 보통이다	34.5%	33.8%	38.6%	36.8%	30.7%
4 별로 그렇지 않다	20.7%	17.3%	19.2%	15.3%	9.7%
5 전혀 그렇지 않다	18.8%	15.6%	15.1%	11.3%	11.7%
계(N=)	100.0%	100.0%	100.0%	100.0%	100.0%

2. 교사 대상 설문 조사

2.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 등 언어 사용 실태와 이에 대한 의식, 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관찰자 시각에서 보는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과 원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언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맥락 및 강도▪ 교사의 부정적 언어 표현 사용 빈도▪ 청소년 언어 사용에 대한 통제(지도) 여부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언어 실태에 대한 의식 : 언어 실태의 문제 정도, 문제 원인, 개선점의 우선 순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개선방안의 중요도(시급성), 실효성, 관리주체, 제안 사항
응답자 특성	(근무)학교급·지역

2.3 표본 설계

- 1) 모집단: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 2) 표본 크기: 184명(유효표본)
- 3) 표본 추출 방법: 층화 추출³⁴⁾

(가) 모집단의 층화: 전국을 6개 권역³⁵⁾으로 분할하고 각 권역을 도시화 수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층화

(나) 권역별 배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배분³⁶⁾

<표 3-57>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권역별 추출 표본 수)

권역	초	중	고	합계
경인 지역	20	20	26	65
강원 지역	5	5	6	16
충청 지역	9	9	12	30
전라 지역	9	9	12	31
경상 지역	14	14	19	48
제주 지역	3	3	4	10
	60	60	80	200

34) 모집단을 그룹(학년별, 성별, 지역별)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
35) 6개 권역: 경인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권(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권(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권(제주도)
36) 인구 수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할 경우 경인권에 편중된 배분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식과 같이 보정함.

$$nh = 200 \times \frac{\sqrt{Nh}}{\sum \sqrt{Nh}} \quad (Nh \text{는 } h\text{권역의 모집단, } nh \text{는 } h\text{권역에 할당된 표본 수})$$

2.4 문항 구성

<표 3-58> 교사용 설문 문항 구성

범주	항목(문항 번호)	기본 문항	탈린 문항
사회인구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 1 ▪ 지역(도시화 층별) 2 	2	
언어 실태 및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인식 3 ▪ 개선점(문제 심각도)에 대한 인식 4 ▪ 청소년들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맥락 및 강도 5 ▪ 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 6 ▪ 비공식적 통제 여부 7 ▪ 언어 실태(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 8 	6	
개선 방안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별(교육, 연구·개발, 제도 구축, 홍보) 중요도 9 ▪ 개선책 구안 및 관리 주체 10 ▪ 개선 방안의 실효성 11 ▪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사항 12 	4	10
합계		12	10

2.5 응답자 분포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계
초등학교 교사	19	26	10	55
중학교 교사	22	26	9	57
고등학교 교사	31	30	11	72
계	72	82	30	184

2.6 조사 결과

□□ 청소년 언어실태에 대한 인식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7점 척도에서 평균 6.24)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가 판단한 학생들의 비속어의 사용 비율은 초>중>고로 갈수록 높아졌고, 청소년의 언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은 ‘폭력적 언어 표현’과 ‘비속어 사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은어·유행어 사용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속어, 은어, 유행어 예를 제시하고, 학생들끼리 대화할 때와 교사에게 말할 때 각각 그런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86%의 응답자가 학생들이 선생님과 대화에서조차 매우 거친 비속어들(‘야리다, 존나, 썰리다, 빠치다, 엠창/엠창’)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비속어 사용이 도를 넘는 실태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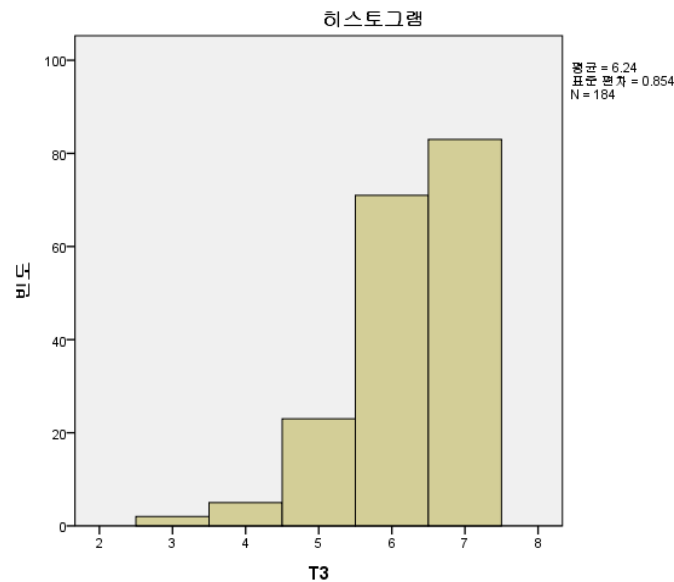
1.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3. 요즘 학생들의 비속어, 욕설, 은어, 유행어 등의 사용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들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7점 척도로 물은 결과, 문제의 심각도가 평균 6.24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파악하는 청소년 언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3]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 수준을 나타내는 7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32.7%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7점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각각 54.4%와 47.2%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9> 청소년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분석 결과

			T3					전체
			3	4	5	6	7	
학교 급	초	빈도	0	2	11	24	18	55
		학교 중 %	0.0%	3.6%	20.0%	43.6%	32.7%	100.0%
	중	빈도	0	2	3	21	31	57
		학교 중 %	0.0%	3.5%	5.3%	36.8%	54.4%	100.0%
	고	빈도	2	1	9	26	34	72
		학교 중 %	2.8%	1.4%	12.5%	36.1%	47.2%	100.0%
전체	빈도	2	5	23	71	83	184	
	학교 중 %	1.1%	2.7%	12.5%	38.6%	45.1%	100.0%	

2. 개선점에 대한 의식

4. 학생들의 언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1에서 4까지 그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폭력적 언어 표현(욕설, 헐박, 비하, 저주, 조롱 등)

허위 사실 유포(거짓소문내기, 인터넷게시판 도배)

비속어 사용(존나, 뽕치다, 엠창 등)

은어·유행어 사용(안습, 뽕셔틀, 헐, 개공감 등)

【전체 분석 결과】

■ 개선이 시급한 문제 순위는 ‘비속어 > 공격적 언어 표현 > 은어·유행어 사용 > 허위사실 유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속어 사용’과 ‘공격적 언어 표현’ 간 차이는 크지 않아서, 사실상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60> 개선점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1위	비속어 사용	184	1.70	.818
2위	공격적 언어 표현	184	1.78	.842
3위	은어 유행어 사용	184	3.02	.789
4위	허위사실 유포	184	3.50	.761

3. 청소년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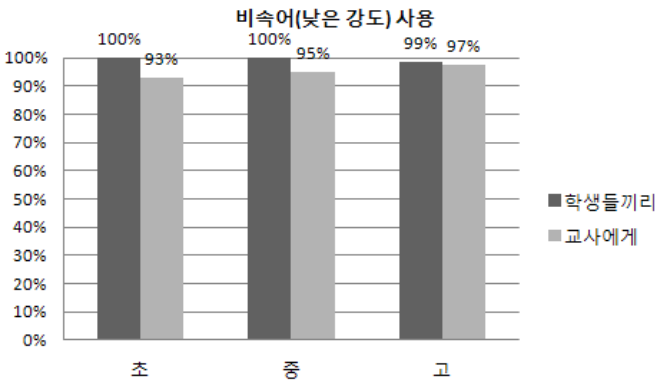
5. 학생들이 아래에 보인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끼리 하는 대화에서...		교사에게 하는 말에서...	
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얼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빨-까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폴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찌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찢다(예. 찢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마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뒹뒹-까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쌔비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쪼개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깍치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야리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존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썰리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뺨치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엄창/엠창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솔까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습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발리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뺨서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은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만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깡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죽빵치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레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막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엘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척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개-(예. 개공강, 개짜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ㅂ2	있다	없다	있다	없다
ㅇㅋ	있다	없다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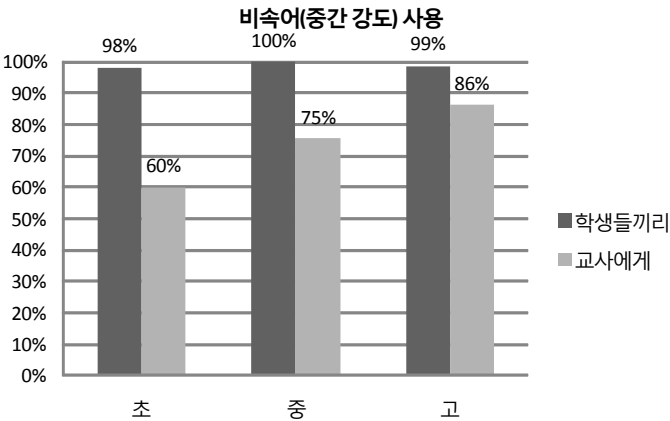
【전체 분석 결과】

■ ‘짱, 열라, 이빨까다, 쫄다, 찌질이, 찼다’ 등 거친 강도가 비교적 낮은 비속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대부분(99% 이상)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93%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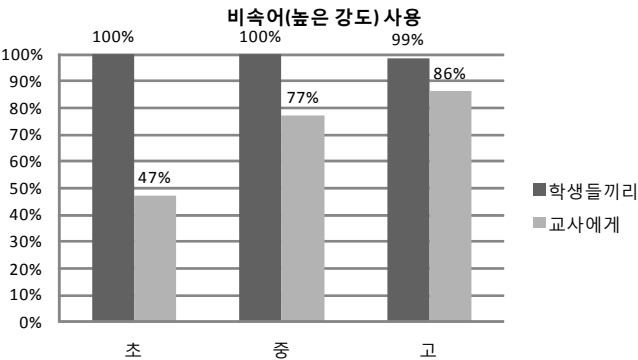
[그림 3-44] 청소년의 비속어(낮은 강도) 사용 실태

■ ‘마빡, 뒷담까다, 썩비다, 쪼개다, 갑치다’ 등 거친 강도가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비속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대부분(98% 이상)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60%,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75%,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86%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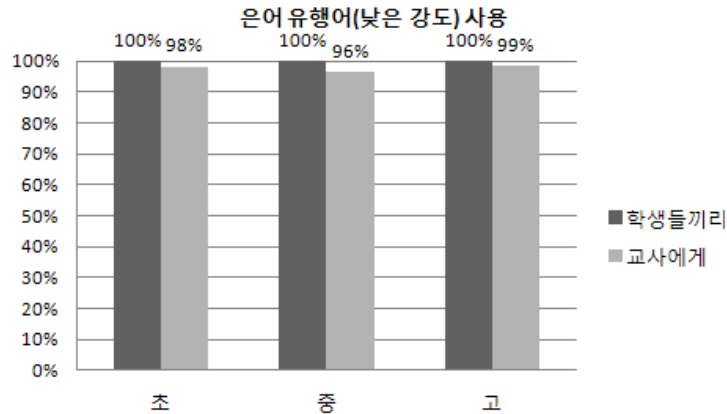
[그림 3-45] 청소년의 비속어(중간 강도) 사용 실태

■ ‘야리다, 존나, 썰리다, 빠치다, 엠창/엠창’ 등 거친 강도가 가장 심한 비속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대부분(99% 이상)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47%,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77%,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86%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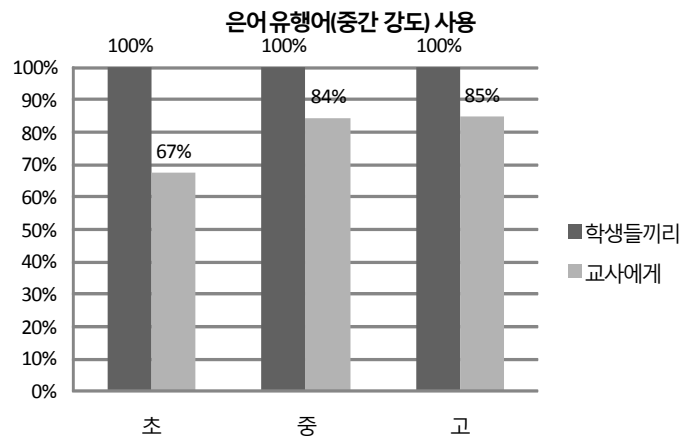
[그림 3-46] 청소년의 비속어(높은 강도) 사용 실태

■ ‘술까말, 안습, 헐, 썸’ 등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어·유행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100%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도 긍정하는 응답이 9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7] 청소년의 은어·유행어(낮은 강도)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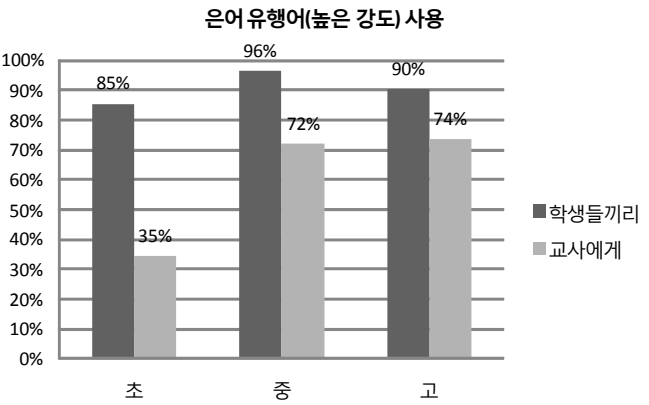
■ ‘발리다, 빵셔틀, 은나, 레알, 막장, 웰케, 척오’ 등 언어 규범 파괴의 정도가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은어·유행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00%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67%,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84%,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85%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3-48] 청소년의 은어·유행어(중간 강도) 사용 실태

■ ‘만렙, 꼴라, 죽빵치다, 개-, ㅂ2, ㅇㄱ’ 등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은어·유행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들끼리의 대화에서는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85%,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96%, 고등학교 교사의 경

우에는 90%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에게 학생이 말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35%, 중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72%,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74%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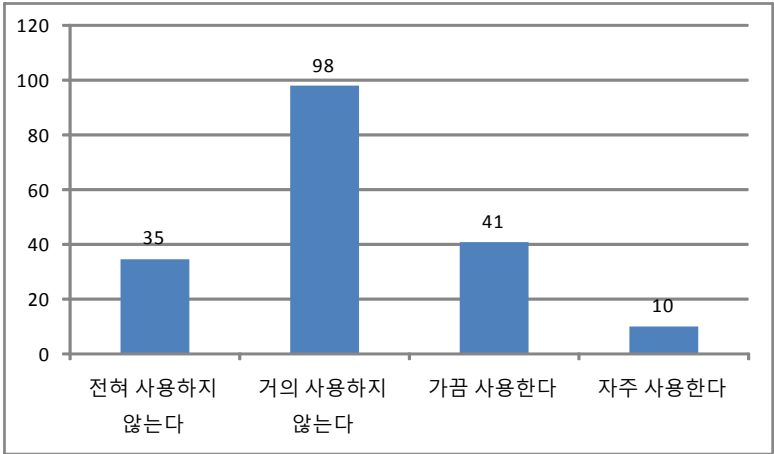
[그림 3-49] 청소년의 은어·유행어(높은 강도) 사용 실태

4. 교사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6.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직접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분석 결과】

■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에서 비속어·은어·유행어를 쓰는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53.5%), ‘사용한다(가끔+자주)’는 응답도 27.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4%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50] 교사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9.0%
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3.3%
3 가끔 사용한다	22.3%
4 자주 사용한다	5.4%
계(N=184)	100.0%

5. 언어 사용 지도 실태(비공식적 통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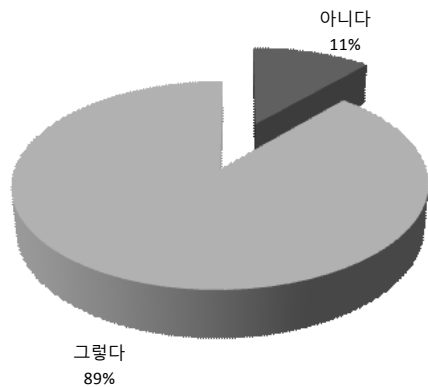
7. 학생들이 위와 같은 말을 사용할 때 제재를 가하시는 편입니까?
그렇다.(※ 7-1로 이동) 아니다.(※ 7-2로 이동)

7-1. 제재를 가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십니까?

7-2.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제재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가해도 효과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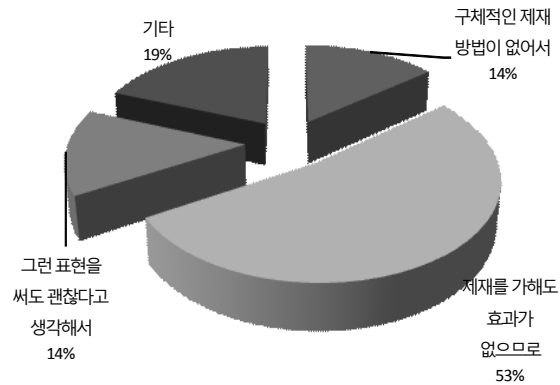
■ 학생들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89%)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림 3-51] 학생들의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

■ 제재 방식은 ‘훈계’, ‘벌점 부여’, ‘공개 사과 지시’, ‘반성문 쓰게 하기’, ‘별도 상담’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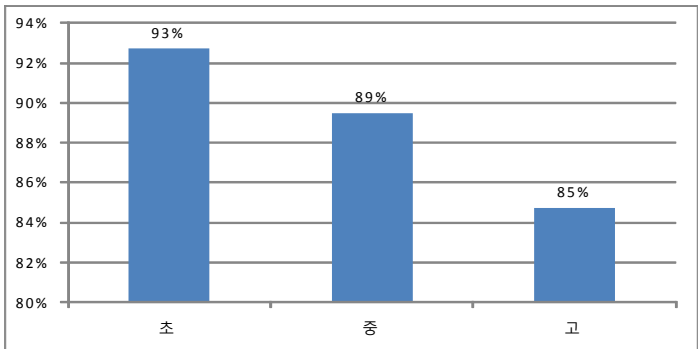
■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재를 가해도 효과가 없으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3%), ‘구체적인 제재 방법이 없어서’와 ‘그런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1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므로 (간섭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그림 3-52]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

【집단별 분석 결과】

■ 학생들이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등을 쓸 때 제재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근무 학교급(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93%) > 중학교(89%) > 고등학교(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 사용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53] 학교급별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제재 여부

6. 언어 실태(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

8. 학생들이 폭력적이거나 규범파괴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 내 언어폭력 등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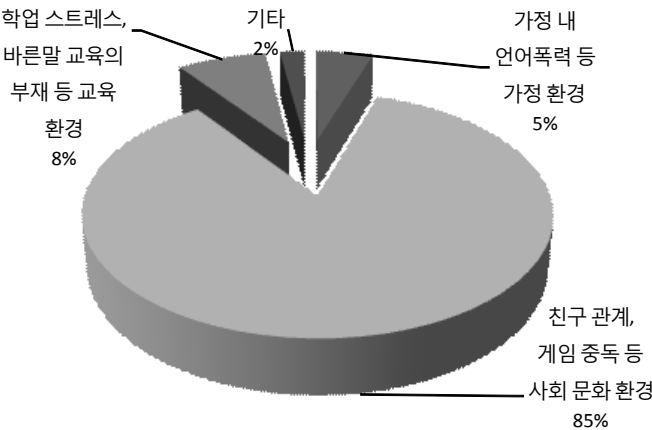
친구 관계, 게임 중독 등 사회·문화 환경

학업 스트레스, 바른말 사용 교육의 부재 등 교육 환경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거나 규범파괴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친구 관계, 게임 중독 등 사회문화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85%로 가장 많았다. ‘학업 스트레스, 바른말 교육의 부재 등 교육 환경’이나 ‘가정 내 언어폭력 등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각각 8%와 5%에 그쳤다.



[그림 3-54] 언어 실태(문제)의 원인

□□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청소년 언어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로는 ‘바른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실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그리고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주체로는 ‘국가 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중등 교육 기관’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청소년 언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방안은 (1)‘언어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교육), (2)‘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홍보), (3)‘가정 내 언어 순화 및 지도 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1.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9. 청소년 언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1에서 4까지 그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바른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청소년 언어 문제 진단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학칙, 인터넷 규정 등 제도 구축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 언어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로는 ‘바른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실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언어 문제 진단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학칙, 인터넷 상의 규정 등 제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1>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1위	바른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184	2.35	.974
2위	청소년 언어 문제 진단 및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184	2.51	1.155
3위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184	2.56	1.153
4위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학칙, 인터넷 상의 규정 등 제도 구축	184	2.59	1.175

2. 개선책 구안 및 관리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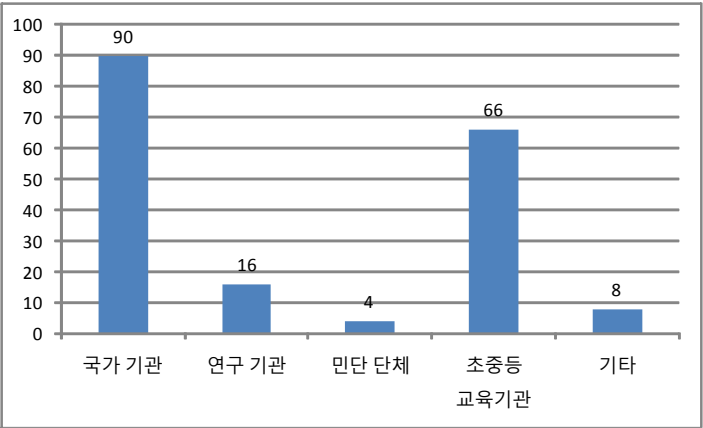
10.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가 기관(교육청, 국립국어원 등) 연구 기관(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민간단체 초·중등 교육 기관 기타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주체로는 ‘국가 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48.9%), 초·중등 교육 기관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35.9%). 기타 응
답으로는 ‘여러 기관의 협력’, ‘가정’ 등이 있었다.



[그림 3-55] 개선책 구안 및 관리 주체

1 국가 기관(교육청, 국립국어원 등)	48.9%
2 연구 기관(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8.7%
3 민간단체	2.2%
4 초·중등 교육 기관	35.9%
5 기타	4.3%
계(N=184)	100.0%

3. 개선방안의 실효성

11. 다음의 개선 방안이 청소년 언어 사용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른 말 사용에 관한 수업 내용 개발

가정 내 언어 순화 및 지도 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언어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캠프, UCC 공모전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
성화

언어 사용 관련(순화어 검색, 비속어 차단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개
발

언어 사용의 문제 유형 및 문제 정도에 대한
진단 도구 개발

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학습 도구 개
발

바른말 사용 여부에 따른 상·벌점제 등 학칙
또는 규정 마련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
정 구체화

‘청소년 언어 지킴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활동 전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

【전체 분석 결과】

■ 교육, 연구, 제도, 홍보 면에서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실효성에 대해 7점 척도로 묻은 결과, 제시된 11개의 개선책 가운데 ‘언어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교육3)의 실효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캠프, UCC 공모전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교육4)의 실효성은 가장 낮게 평가되어 학생들의 응답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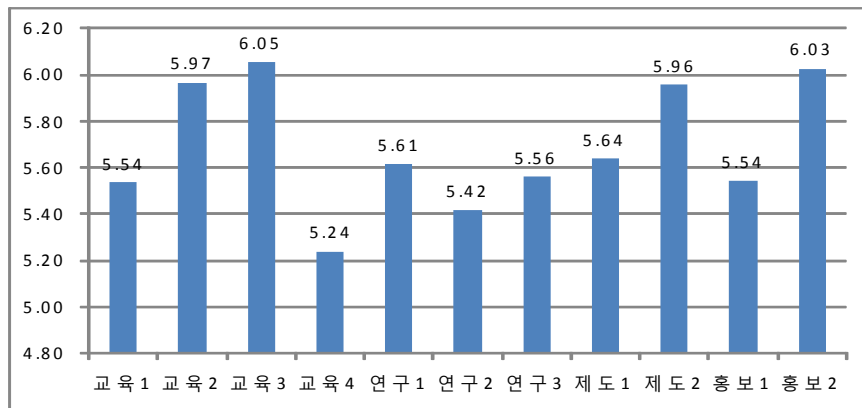
■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관련 과제 중에서는 ‘언어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교육3)에 이어 ‘가정 내 언어순화 및 지도 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2)의 실효성이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 연구·개발 과제 중에서는 ‘언어 사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연구1)의 실효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학습 도구 개

발(연구3)'은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 제도 구축에 관해서는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구체화'(제도2)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홍보 방안으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홍보2)의 실효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전체 개선안 중에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3-56] 개선방안의 실효성

		평균	표준편차
교육1	바른 말 사용에 관한 수업 내용 개발	5.54	1.32
교육2	가정 내 언어 순화 및 지도 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5.97	1.22
교육3	언어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6.05	.94
교육4	캠프, UCC 공모전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5.24	1.33
연구1	언어 사용 관련(순화어 검색, 비속어 차단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5.61	1.34
연구2	언어 사용의 문제 유형 및 문제 정도에 대한 진단 도구 개발	5.42	1.19
연구3	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학습 도구 개발	5.56	1.19
제도1	바른말 사용 여부에 따른 상·벌점제 등 학칙 또는 규정 마련	5.64	1.41
제도2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구체화	5.96	1.21
홍보1	'청소년 언어 지킴이'와 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활동 전개	5.54	1.36
홍보2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	6.03	1.27
계(N=184)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12.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써 주십시오. 연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체 분석 결과】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제안 사항을 자유응답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응답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지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구체적 대안이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되어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속어 및 욕설, 은어 사용을 많이 하는 학생이 학급이나 또래집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 분위기 개선’

‘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학습 도구 개발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으면 함’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거친 언어생활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 환경과 교사의 지도 방식부터 부드럽게 순화되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학생 쪽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미디어 등의 사회 환경 개선 쪽에서 구하는 것이 맞다. 다만 언어는 습관이므로 이미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화된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고 개선 의지를 갖도록 하는 수업 모델이 필요하다.’

3. 설문 조사 결과 종합

3.1 청소년 언어 실태

■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사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이 설문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 초등학생 전체 응답자 1,695명 가운데 97%가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중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 4,358명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4,309명이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욕설이나 헐박, 비하, 조롱, 저주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1%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80%로 늘어났다.

▪ 은어·유행어는 초등학생 응답자의 97%,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100%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비속어나 은어·유행어의 사용 빈도뿐 아니라 사용하는 비속어 및 은어·유행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이 청소년 대상 설문과 교사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 비속어 어휘를 거친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³⁷⁾ 비속어 사용 범위와 거친 강도에 학교급별·학년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 사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빈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매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로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사용 빈도는 고등학생이 훨씬 높았다.

▪ 은어·유행어 어휘를 언어 규범 파괴 정도에 따라 세 개 등급으로 나누고³⁸⁾ 은어·유행어

37) 거친 강도에 따른 비속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비속어 어휘 233개에 대하여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초등학생용 설문에 제시된 어휘는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추린 것이다. 제시된 어휘 중 ‘짱, 찌질이, 찼다’는 거친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뒷담가다, 갑치다, 야리다’ 등은 중간 정도인 2, ‘존나, 빠치다, 엠창/엠텍창’ 등은 거친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38) 언어 규범 파괴 강도에 따른 은어·유행어 등급 구분은 직접 조사 결과 고빈도로 나타난 은어 어휘 144개와 유행어 어휘 142개에 대하여 교양국어 과목 교강사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제시된 어휘 중 ‘술까말, 안습’ 등의 은어는 언어 파괴 정도에 따른 등급이 가장 낮은 1, ‘발리다, 뽕셔틀’ 등은 중간 정도인 2, ‘팔라, 죽빵치다’ 등 의미가 매우 저속하고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제시된 유행어 어휘 중 ‘헐, 막장’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낮은 1, ‘칙오, 웰케’ 등은 2, ‘개-, ㄴ2’ 등은 언어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한 3유형의 유행어로 분류하고, 분석 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설문과 다르게 (추가)제시된 어휘는 ‘뽕셔틀, 팔라, 막장, 칙오, ㄴ2’ 등이다.

사용 범위와 언어 규범 파괴 정도에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은어·유행어 목록이 많아지고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유형으로는 욕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경우는 ‘욕설 > 험담 > 비하 > 저주 > 조롱 > 협박’의 순으로 자주 사용하였고, 욕설을 가장 자주 쓴다는 응답자 비율은 54%였다.

-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욕설 > 비하 > 저주 > 조롱 > 협박 > 험담’의 순으로 자주 사용하였고, 욕설을 가장 자주 쓴다는 응답자 비율이 72%로 초등학생에 비해 크게 늘었다.

■ 맥락에 따라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과 은어·유행어의 사용 빈도를 보면, 글말이나 통신언어에 비해 입말에서, 그리고 대상자가 친구인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하는 말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은 ‘거의 매번’ 사용한다는 응답이 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통신언어에서 은어·유행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중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아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은어·유행어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8.2%,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는 26.2%,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25.2%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빈도는 대개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조사되었다.

3.2 청소년 언어 의식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어서,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동기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기분을 풀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상대방보다 세다는 것을 보이고 싶을 때’라는 응답자는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화풀이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초등학생에 비해서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타 응답으로는 ‘장난으로’,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공격적 언어 표현이나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훨씬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에는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36.9%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4%의 응답자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도는 공격적 언어 표현에 대한 용인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은어·유행어를 쓰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에는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61.3%가, 초등학생 응답자의 36.7%가 긍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해 청소년들이 대체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보는 문제점 수준과는 괴리가 있었다.

▪ 문제점 인식 수준은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언어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교사들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자각하는 문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 7 범위에서 평균 6.24).

3.3 문제 원인

	초등생			중고생		
	공격적언어	비속어	은어/유행어	공격적언어	비속어	은어/유행어
가정환경 (부모)	스트레스(부모의 언어폭력) +					
				비공식적통제-	가족응집성-	
교육환경 (학교, 교사)	학업스트레스 +					
사회문화환경 (친구, 청소년집단활동)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					
				스트레스(대인관계) -		
					응집성(또래간) +	
					청소년집단활동 -	

■ 거주지역의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이나 학업 성적, 자기통제력, 공감능력 등 개인 특성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학교·사회문화 환경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부정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과 비속어, 은어·유행어 사용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이 외에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와 '가족응집성'이 높을 때 공격적 언어 표현과 비속어 사용이 각각 줄어들었다. 즉, 거친 말을 사용할 때 부모가 이를 제재하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특히 중고등학생의 공격적 언어와 비속어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교육 환경 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업 스트레스'만이 청소년의 부정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초등학생에게만 해당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즉,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이 공격적 언어 표현이나 비속어·은어·유행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거친 말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나 교사-학생 간 응집성은 부정적인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문화 환경 중에서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좋지 않은 표현을 썼을 때 또래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외에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래 간 응집성’, ‘청소년 집단 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부정적 언어 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주도권을 잡게 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래 간 응집성’ 역시 비속어나 은어·유행어 사용이 높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방과후활동과 같은 ‘청소년 집단 활동’은 단순한 집계 결과에서는 비속어나 은어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이 통제된 경우에는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 집단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속어 사용을 더 많이 하지만, 가정경제수준이나 학업 성적과 같은 요인이 동일할 경우 청소년 집단 활동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가 오히려 비속어나 은어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학업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부정적 언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직접 조사

1. 입말 수집 조사

1.1 조사 목적과 내용

1) 조사 목적

입말 수집 조사의 목적은 또래 대화에 나타나는 전국 청소년들의 입말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 보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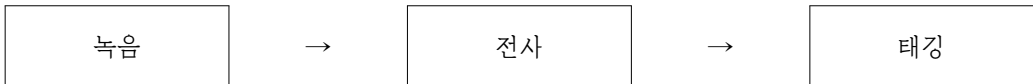
2)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언어 폭력을 일으키는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 규범 파괴와 관련된 은어와 유행어의 사용 실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구분	내용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 비속어의 변인별(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 욕설, 저주, 헐박, 비하·비방의 출현 빈도 ▪ 욕설, 저주, 헐박, 비하·비방의 특징
은어·유행어의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 은어의 변인별(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 유행어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 유행어의 변인별(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1.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또래와 나누는 일상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녹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와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자료 수집은 다시 음성 자료를 녹음하는 단계와 문자화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1) 녹음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였다. 대화 유형은 동성과의 대화와 이성과의 대화로 구분하여 수집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학교급별로 1개 학년을 선정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하였다.³⁹⁾⁴⁰⁾ 지역 범위는 전국 6개 권역의 중소 도시로 선정하였다.

구분	내용
대화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와의 일상 대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성과의 대화- 이성과의 대화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5학년- 중학생: 2학년- 고등학생: 2학년▪ 지역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중소도시

(1) 조사 방법

- 녹음은 학교 현장에 연구팀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
- 한 학급의 학생을 15조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녹음함.
- 대화 집단의 구성: 남학생 조(5조), 여학생 조(5조), 혼성 조(5조)
- 조별 인원: 2명(총 15개 조, 30명)
- 녹음 분량: 30분 이상⁴¹⁾

39) 학교 선정 기준은 초중고 동일하게 국가수준성취도 국어 성적이 중간 수준으로 하였다. 학교급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보이면, 초등학교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를 제외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공학으로 하였다. 중학교는 전문계열 중학교와 대안학교는 제외하였고,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전문계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를 제외하였다.

40) 초등학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 녹음 장소: 교내 교실 등의 빈 공간
- 녹음 도구: 디지털 녹음기
- 대화 주제42): 특정 주제를 제시하지 않음.

(2) 조사 규모

- 전국 6개 권역 총 18개 학교
- 총규모: 18개 학교 * 15팀 = 270파일(파일당 30분)

<표 4-1> 학교급·지역별 규모(입말)

권역	초(5학년)	중(2학년)	고(2학년)	합계
경인 지역(부천, 안산)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강원 지역(강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충청 지역(청주)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전라 지역(전주)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경상 지역(창원, 김해)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제주 지역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개교*3학급
소계	6개교*6학급	6개교*6학급	6개교*6학급	18개교*18학급

2) 전사

(1) 전사 자료 규모

본 조사의 분석 자료는 총 239,448어절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773어절, 중학교 81,261어절, 고등학교 81,414어절이다.

<표 4-2> 조사 어절 수(입말)

(단위: 어절)

학교급 유형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자 대화	여자 대화	남녀 대화	남자 대화	여자 대화	남녀 대화	남자 대화	여자 대화	남녀 대화	
경기	4,445	4,418	4,620	4,314	4,311	4,215	4,319	4,277	4,262	39,181
강원	4,311	4,566	4,390	4,416	4,461	4,353	5,099	5,346	4,389	41,331
충청	4,264	4,382	4,336	4,687	4,571	4,805	4,857	4,622	4,848	41,372
전라	4,103	4,270	4,067	4,281	4,566	4,425	4,171	4,150	4,056	38,089
경상	4,272	4,233	4,141	4,147	4,109	4,175	4,381	4,316	4,325	38,099
제주	4,112	3,663	4,180	6,626	4,439	4,360	4,943	4,235	4,818	41,376
소계	25,507	25,532	25,734	28,471	26,457	26,333	27,770	26,946	26,698	239,448
합계	76,773			81,261			81,414			

41) 동일한 규모의 대화를 수집하기 위해 30분 이상 녹음하였으며, 이를 2,000어절까지 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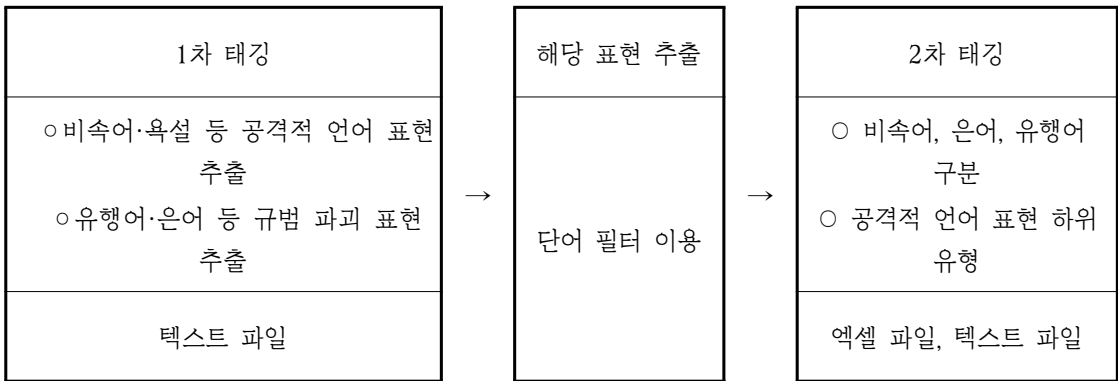
42) 학생들의 평소 언어 습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2) 전사 지침

▷ 형식: 아래한글
▷ 전사 분량
- 음성 파일 하나 당 2,000어절까지 전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화자의 발화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2,000어절이 되는 경우는 해당 발화의 종결 부분까지 전사한다.
▷ 발화자 표시
- 발화자는 숫자로 표시한다.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발화자 다음에 : 를 붙이고,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지 않고 바로 발화를 적는다.
· 발화자가 바뀔 때는 엔터를 쳐서 행을 바꾸어 적는다.
▷ 표기 방법
-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발음 특성이나 구어적 특성이 반영된 부분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 안 들리는 발화는 ((-))로 표시한다.
▷ 발화 기호
- 발화 단위마다 발화 기호를 적는다.
· 질문과 같은 상승 억양으로 종결되는 발화: ?
· 감탄 등과 같이 활기에 넘치는 어조로 종결되는 발화: !
· 약간 상승 또는 하강이 있거나 약간의 휴지가 있는 경우: .(쉽표)
· 서술 등 그 외 기타: . (마침표)

3) 태깅

태깅은 전사 자료에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 1차 태깅

- 자료 형식: 한글 파일
- 분석 단위: 해당 표현
- 분석 내용: 언어 폭력(비속어, 공격적 언어 표현), 규범 파괴(은어, 유행어) 표현

(2) 2차 태깅

- 자료 형식: 엑셀, 텍스트 파일
- 분석 단위: 비속어, 은어, 유행어 → 단어
공격적 언어 표현 → 발화

- 비속어·은어·유행어의 유형

유형	비속어	유행어	은어
정의	통속적이고 저속한 말	한때 집중적으로 쓰이는 말 (사라지거나 일상어로 자리잡음.)	특정 집단에서 비밀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끼리 사용하는 말
예시	좃나, 지랄, 씨발, 뽕치다, 미친년, 찌따	완전, 헐, 대박, 미친, 나대다, 레알	가짜 게임, 겨털, 친삭, 도배

- 공격적 언어의 하위 유형

구분	정의	예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를 훼손하며 공격함.	미친 더러운 년아. 지랄 말고 씨발년아
저주	초인적인 자연이나 신적 존재, 제3의 힘에 의해 상대방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함.	가방을 누가 훔쳐가 버려라.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협박	공격적 입장의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 화자의 이익 위해 공격함.	니 얼굴을 잘라 뽕퉀어로 쓸 거다, 갈아줄게 이 얼굴을. 뒷동산으로 올래?
비방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 훼손함.	돼지야, 꿀꿀꿀 해봐, 언어장애 주제에, 니가 여자냐?, 나대지 마

(3) 3차 태깅

- 2차 태깅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 보완한다.

(4) 분석

- 분석 도구는 엑셀을 활용한다.
- 출현 빈도와 사용 비율을 분석한다.

1.3 조사 결과

□□ 비속어 사용 실태

가. 비속어 사용 비율

비속어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95%가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비속어 어휘 목록의 특징

‘좃나, 씨발, 새끼, 개-’ 등의 비속어가 학교급별, 성별, 지역별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과 중·고등학교는 사용하는 비속어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성과 관련한 비속어가 증가하였다. 남녀 간에는 빈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용하는 비속어 형태에서는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1) 고빈도 비속어의 목록과 특징

자료에서 출현한 전체 541개의 비속어 형태 중 빈도 5이상의 비속어를 고빈도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3> 고빈도 비속어의 출현 빈도(입말)

순위	비속어	빈도	순위	비속어	빈도	순위	비속어	빈도
1	좃나	834	39	멍청이	21	77	좃돼지	8
2	씨발	446	40	미친놈	20	78	쩌다	8
3	새끼	226	41	씨발새끼	20	79	긱도	7
4	개-	187	42	년	19	80	꼴리다	7
5	쩔다	160	43	똥아이	19	81	대가리	7
6	씨	132	44	씨발년	19	82	뽕가다	7
7	병신	124	45	개소리	18	83	뽕까다	7
8	줄라	92	46	에바	18	84	싸가지	7
9	뽕치다	89	47	발리다	17	85	씨바	7
10	개새끼	84	48	찌질하다	17	86	양아치	7
11	느그 엄마	73	49	똥담	15	87	영기다	7
12	바보	66	50	갑치다	14	88	좃	7
13	쓰레기	62	51	느금마	13	89	좃나게	7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14	싸가지 없다	53	52	뽕큐	13	90	구라치다	6
15	지랄	53	53	구리다	12	91	까이다	6
16	까다	49	54	찌질이	12	92	돌다	6
17	좇되다	46	55	갈구다	11	93	튀지다	6
18	지랄하다	42	56	구라	11	94	빙신	6
19	미친년	39	57	좇도	11	95	싸대기	6
20	짱	38	58	장징이	11	96	싸이코	6
21	꺼지다	36	59	찍히다	11	97	씨부리다	6
22	재수없다	34	60	턱주加里	11	98	쌌	6
23	씨발놈	32	61	튀다	11	99	열받다	6
24	뒤지다	31	62	개	10	100	장난 아니다	6
25	쪽팔리다	31	63	오바	10	101	죽이다	6
26	거지	29	64	자식	10	102	토끼다	6
27	뜨다	29	65	째려보다	10	103	개갈다	5
28	쳐-	29	66	걸레	9	104	개기다	5
29	뽕	27	67	그지	9	105	뜯끼	5
30	뒷담까다	25	68	쌩까다	9	106	띠껍다	5
31	쌌다	24	69	쌩	9	107	뽕쫄하다	5
32	쌌새끼	24	70	인간쓰레기	9	108	씨방	5
33	좇갈다	24	71	털다	9	109	엄창	5
34	뽕치다	23	72	뒤담까다	8	110	임마	5
35	구라까다	22	73	떡치다	8	111	제길	5
36	놈	22	74	뽕뽕이	8	112	짜식	5
37	엄창	22	75	바르다	8	113	쪼리다	5
38	전따	22	76	밝히다	8			

<표 4-3>을 다시 빈도 구간을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비속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빈도구간	비속어
500-999	좇나 (총 1개)
100-499	개-, 병신, 씨, 씨발, 새끼, 찢다 (총 6개)
50-99	개새끼, 느그 엄마, 바보, 뽕치다, 싸가지 없다, 쓰레기, 줄라, 지랄 (총 8개)
40-49	까다, 좇되다, 지랄하다 (총 3개)
30-39	꺼지다, 뒤지다, 미친년, 씨발놈, 재수없다, 짱, 쪽팔리다 (총 6개)
20-29	거지, 구라까다, 놈, 뒷담까다, 뜨다, 멍청이, 미친놈, 뽕, 뽕치다, 씨발새끼, 쌌다, 쌌새끼, 엄창, 좇갈다, 전따, 쳐- (총 16개)
10-19	갈구다, 개, 개소리, 구라, 구리다, 갑치다, 년, 뒷담, 뜯아이, 발리다, 뽕큐, 씨발년, 예바, 오바, 자식, 좇도, 징징이, 째려보다, 찢질이, 찢질하다, 찍히다, 턱주加里, 튀다 (총 23개)
5-9	개갈다, 개기다, 걸레, 곳도, 구라치다, 그지, 까이다, 꼴리다, 대加里, 돌다, 튀지다, 뒤담까다., 떡치다, 뜯끼, 뽕뽕이, 띠껍다, 바르다, 밝히다, 병신, 뽕까다, 뽕쫄하다, 뽕까다, 싸가지, 싸대기, 싸이코, 쌩까다, 쌩, 씨마, 씨방, 씨부리다, 쌌, 양아치, 엄창, 엉기다, 열받다, 인간쓰레기, 임마, 장난 아니다, 제길, 좇, 좇나게, 좇되지, 죽이다, 짜식, 째다, 쪼리다, 털다, 토끼다 (총 48개)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비속어는 ‘좇나’로 총 834회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이 ‘씨발(419회), 새끼(226회), 개-(187회)순이었다. ‘좇나’의 변이형 ‘줄라’도 92회 출현하고 있어, 둘의 빈도를 합치면 926회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임을 알 수 있었다.

■ 빈도 10 이상인 어휘 63개가 총 3,765회 출현하고 있어 전체 빈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쫓나, 씨발, 개-, 씨, 줄라’ 등과 같이 정도성을 표시하는 어휘나 감탄사가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감탄사 중에서도 ‘씨’는 총 132회 출현하고 있었는데, ‘아이 씨, 아우 씨, 이 씨’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 접두사 ‘개-, 처-’ 등을 사용해 생산적으로 비속어를 만들고 있었으며, 접두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예도 발견되었다. 특히, 부정의 어휘와 결합하는 이들 접두사가 긍정적 어휘에 까지 확대되어 합성어를 만들면서 사용 어휘에 비속성을 더하고 있었다.

- 개편파, 개감동스럽다
- 긍정 표현과 결합하는 ‘개-’의 예⁴³⁾: 개많다, 개멋있다, 개부럽다, 개여신, 개엘리트, 개웃기다, 개잘하다, 개 재미있다, 개좋다, 개착하다, 개크다
- 부정 표현과 결합하는 ‘개-’의 예: 개거지, 개구리다, 개냄새나다, 개더럽다, 개떡치다, 개꿀아이, 개멍청하다, 개무섭다, 개무시하다, 개미친, 개민망, 개바보, 개변태, 개부정, 개불쌍, 개비싸다, 개빡치다, 개뻔뻔하다, 개 뻔쫘하다, 개뺨, 개사기, 개싫다, 개씩다, 개쓰레기, 개씨발, 개앵기다, 개어렵다, 개어색하다, 개어의없다, 개 정색, 개욕하다, 개지랄, 개짜증, 개절다, 개쪽팔리다, 개피곤하다, 개후지다
- ‘처-’와 결합하는 예: 처맞다, 처발리다, 처야리다, 처마시다

■ 목록 중에는 ‘느그 엄마, 엄창, 엠창’과 같이 ‘엄마’와 관련된 어휘가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자1: 내 꺼는 티비가 [1안 나오냐.
화자2: [1쓰레기 폰이니깐.
화자1: 느그 엄마.
화자2: 병신 새끼.
화자1: 느그 엄마. <중학교, 남자>

화자1: 그 선생님이, 뭐지? 때렸다는데? 막 걸레라면서?
화자2: 걸레라 그러면서 때렸대? 엠창? 헐. <고등학교, 혼성>

2) 변인별 비속어의 목록과 특징

비속어의 출현 어휘 목록과 특징을 학교급,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학교급별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7개, 중학교 287개, 고등학교 261개의 비속어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고, 100위까지 고빈도 목록과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여기에서는 부정 표현 이외의 것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한다.

<표 4-5>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씨발	73	좃나	337	좃나	431
2	좃나	66	씨발	161	씨발	212
3	바보	56	새끼	95	개-	119
4	씨	45	느그 엄마	87	새끼	89
5	새끼	42	병신	81	쩔다	67
6	쩔다	41	쩔다	52	씨	52
7	쓰레기	27	개-	51	좃라	52
8	싸가지 없다	24	씨	41	개새끼	46
9	뜨다	22	빡치다	32	빡치다	37
10	빡치다	20	좃라	30	병신	27
11	개새끼	19	좃되다	29	씨발놈	27
12	지랄	18	꺼지다	28	씹새끼	23
13	개-	17	미친년	24	쓰레기	20
14	뒷담까다	17	까다	22	지랄	20
15	재수없다	17	구라까다	20	지랄하다	19
16	병신	16	개새끼	19	엮창	18
17	멍청이	16	쪽팔리다	19	좃같다	17
18	까다	14	싸가지 없다	16	좃되다	17
19	뺨치다	13	쓰레기	15	씨발새끼	15
20	지랄하다	13	지랄	15	짱	14
21	뺨	11	짱	15	쳐-	14
22	좃라	10	뺨	14	까다	13
23	찍히다	10	거지	13	싸가지 없다	13
24	찢파	10	미친놈	13	거지	12
25	짱	9	씹다	13	뒤지다	12
26	뒤지다	8	발리다	12	미친년	12
27	인간쓰레기	8	쳐-	12	깡치다	11
28	에바	7	뒤지다	11	뺨큐	11
29	째려보다	7	징징이	11	씹다	11
30	뒷담	6	찌질하다	11	떨아이	10
31	바르다	6	개소리	10	좃도	10
32	장난 아니다	6	재수없다	10	쪽팔리다	10
33	년	5	지랄하다	10	놈	9
34	싸가지	5	년	9	씨발년	9
35	자식	5	놈	9	오바	9
36	거지	4	뒷담화	9	턱주加里	9
37	구리다	4	에바	9	꺼지다	8
38	놈	4	찢파	9	뒷담까다	8
39	빡가다	4	씨발년	8	떡치다	8
40	쌍	4	좃돼지	8	째다	8
41	엮창	4	구리다	7	갈구다	7
42	제길	4	폴리다	7	걸레	7
43	죽이다	4	떨아이	7	긱도	7
44	천치	4	똥맹이	7	영기다	7
45	튀다	4	찌질이	7	재수없다	7
46	갈기다	3	털다	7	개	6
47	대加里	3	구라	6	개소리	6
48	뒷담까다	3	그지	6	미친놈	6
49	똥개	3	웨지다	6	구라	5
50	똥구멍	3	바보	6	년	5

■ 학교급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비속어는 초등학교는 ‘씨발’로 73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좃나’로 각각 337회, 431회 출현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초등학교는 ‘좃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씨발’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고, 빈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초등학교는 ‘바보, 씨, 쓰레기, 멍청이’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느그 엄마, 좃되다, 씨발놈, 씹새끼, 엠창’ 등과 같이 성과 관련한 비속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좀 더 비속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웃음>야 그렇게 하면 숨이 들어가잖아. 이 [1바보야. <초등학교, 혼성>

씨부랄. 좀 관리 좀 잘해줘 씹새끼들. 아 좃같아. 학생으로 살기 존나 좃같아. 진짜. 씨발. 아 공부하면 뭐해 씨발. <고등학교, 남자>

(2) 성별

성별 변인에 의하면, 남학생이 380개, 여학생이 370개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빈도 순으로 정렬하여 100위까지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6> 성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남자		여자		순위	남자		여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좃나	472	좃나	362	26	씨발새끼	17	뒷담까다	12
2	씨발	316	씨발	130	27	에바	17	좃되다	12
3	새끼	160	찢다	84	28	좃같다	17	년	11
4	개-	118	개-	69	29	짱	16	똥아이	11
5	병신	106	새끼	66	30	놈	15	엠창	11
6	찢다	76	씨	61	31	발리다	14	지랄하다	11
7	느그 엄마	73	빡치다	47	32	싸가지없다	14	미친놈	10
8	씨	71	싸가지없다	39	33	재수없다	14	뽕큐	10
9	개새끼	66	바보	37	34	개소리	13	뽕치다	10
10	줄라	61	줄라	31	35	갑치다	13	멍청이	9
11	쓰레기	45	지랄	23	36	느금마	13	거지	8
12	빡치다	42	짱	22	37	뒷담까다	13	구라	8
13	좃되다	34	까다	20	38	뽕치다	13	뒤지다	8
14	지랄하다	31	뽕	20	39	쪽팔리다	13	똥뽕이	8
15	지랄	30	재수없다	20	40	멍청이	12	뽕히다	8
16	까다	29	병신	18	41	씨발년	12	인간쓰레기	8
17	뜨다	29	개새끼	18	42	엠창	11	좃돼지	8
18	바보	29	구라까다	18	43	좃도	11	찌질이	8
19	씨발놈	29	쪽팔리다	18	44	미친놈	10	찌질하다	8
20	꺼지다	24	쓰레기	17	45	턱주加里	10	찍히다	8
21	씹새끼	24	미친년	16	46	씹다	9	쳐-	8
22	뒤지다	23	씹다	15	47	자식	9	놈	7

23	미친년	23	편파	15	48	찌질하다	9	쌍	7
24	거지	21	꺼지다	12	49	개	8	씨발년	7
25	쳐-	21	뒗담	12	50	년	8	영기다	7

■ 성별 변인에 의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좃나’와 ‘씨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좃나: 남학생 472회, 여학생 362회
- 씨발: 남학생 316회, 여학생 130회

■ 남학생 자료에서는 ‘느그 엄마’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학생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 있었다.

- 여학생: 싸가지 없다(39회), 뽕(20회), 재수 없다(20회)
- 남학생: 싸가지 없다(14회), 뽕(7회), 재수 없다(14회)

■ 성과 관련된 비속어가 남학생 자료와 여학생 자료 모두에서 출현하고 있었는데, 비속어 목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남학생: 좃되다(34회), 좃같다(17회), 좃도(11회), 좃나게(7회)⁴⁴⁾
- 여학생: 좃되다(12회), 좃같다(7회), 좃돼지(8회)⁴⁵⁾

아니. 좃 같애 진짜. <고등학교, 혼성>

개가 말해 준거야 개는 착하거든 그 좃돼지가 너희 뒗땅 잤다면서 아 그리고 우리는 살짝 맛짱만 쳤지 우린 안 했다. 막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거야 대화 내용까지 그래 갖고 존나 배신감 먹어 갖고. <중학교, 여자>

(3) 지역별

지역별로 경인 지역 188개, 강원 지역 143개, 충청 지역 155개, 전라 183개, 경상 153개, 제주 129개의 비속어 목록이 출현하였고, 50위까지의 목록과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좃나	237	좃나	90	좃나	257	좃나	99	좃나	66	좃나	85
2	씨발	136	씨발	73	씨발	99	씨발	76	씨발	34	개-	41
3	개-	66	바보	49	새끼	82	쩔다	59	개-	29	씨발	28
4	새끼	56	졸라	25	느그 엄마	73	씨	45	씨	20	쩔다	26
5	쓰레기	43	씨	21	병신	64	새끼	33	새끼	17	새끼	22
6	좃되다	33	개-	18	개새끼	38	졸라	31	쩔다	13	빡치다	20
7	싸가지 없다	32	쩔다	17	쩔다	27	개-	19	빡치다	12	졸라	20
8	병신	28	새끼	16	씨발놈	23	까다	19	징징이	11	씨	17
9	뜨다	22	빡치다	11	미친년	21	병신	18	개새끼	9	쌌다	13

44) 남학생 자료에서는 ‘쌌(5회), 좃(5회)’ 등의 비속어도 출현하고 있었다.

45) ‘좃돼지’의 출현빈도 8회는 한명의 여학생이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나온 결과이다.

10	빽치다	22	개새끼	10	쌈새끼	21	개새끼	16	까다	9	재수없다	11
11	구라까다	20	병신	9	씨	15	빽치다	15	좃돼지	8	빽가다	7
12	지랄하다	20	인간쓰레기	8	씨발새끼	15	지랄	15	찌질하다	7	뽕	7
13	쩨다	18	꼴도	7	개-	14	거지	13	싸가지 없다	6	쪽팔리다	7
14	에바	17	엉기다	7	뒤지다	14	짱	12	쳐-	6	찌질이	7
15	꺼지다	15	지랄	7	느금마	13	뒷담	8	토끼다	6	뒷담까다	6
16	지랄	15	찍히다	7	까다	10	전파	8	미친놈	5	멍청이	6
17	씨	14	구리다	6	엠창	10	개소리	7	뽕	5	뽕치다	6
18	미친년	13	바르다	6	좃도	10	갑치다	7	쌈다	5	쳐-	6
19	년	11	뽕	6	지랄	10	멍청이	7	재수없다	5	개새끼	5
20	떨아이	11	좃되다	6	지랄하다	10	미친놈	7	졸라	5	구리다	5
21	빽큐	11	짱	6	빽치다	9	뒤지다	6	지랄	5	꺼지다	5
22	엠창	11	멍청이	5	재수없다	9	똥땡이	6	지랄하다	5	짱	5
23	발리다	10	씨부리다	5	좃같다	9	뽕	6	쪼리다	5	전파	5
24	졸라	9	자식	5	짱	9	뽕치다	6	꺼지다	4	까다	4
25	구라	8	째다	5	턱주가리	9	꺼지다	5	놈	4	갑치다	4
26	오바	8	째려보다	5	꺼지다	7	쪽팔리다	5	뒤담까다	4	꼬리를치다	4
27	좃같다	8	개소리	4	싸가지없다	7	갈구다	4	뽕치다	4	놈	4
28	쪽팔리다	8	거지	4	씨발년	7	개	4	쓰레기	4	죽이다	4
29	폴리다	7	뒷담까다	4	걸레	6	바보	4	씨바	4	병신	3
30	뒷담까다	7	뜨다	4	쳐-	6	싸가지 없다	4	양아치	4	개기다	3
31	개새끼	6	재수없다	4	거지	5	쓰레기	4	입싸다	4	거지	3
32	까다	6	전파	4	그지	5	임마	4	거지	3	꼬시다	3
33	뒤지다	6	쳐-	4	뒷담까다	5	째려보다	4	돌다	3	떨아이	3
34	장난 아니다	6	튀다	4	떡치다	5	년	3	웨지	3	-머리	3
35	쳐-	6	놈	3	쓰레기	5	놈	3	뒷담마	3	미친놈	3
36	놈	5	매려치우다	3	쪽팔리다	5	뒷담까다	3	뜨다	3	빽세다	3
37	웨지다	5	쓰레기	3	갈구다	4	발리다	3	바보	3	쓰레기	3
38	바보	5	씨발년	3	느그 음마	4	뽕쫄하다	3	좃같다	3	좃전파	3
39	발히다	5	좃같다	3	싸대기	4	쌍	3	쪽팔리다	3	지랄하다	3
40	뽕까다	5	지랄하다	3	쌍	4	아이씨	3	병신	2	찌질하다	3
41	뽕치다	5	쪽팔리다	3	씨부랄	4	어우씨	3	가오	2	개	2
42	씨발년	5	천치	3	체길	4	자식	3	구라	2	니미털	2
43	씨발놈	5	길치	2	거시기	3	재수없다	3	대가리	2	돌다	2
44	좃나개	5	뒤지다	2	갑치다	3	좃되다	3	뒤지다	2	뽕까다	2
45	찌질하다	5	떨끼	2	년	3	털다	3	띠껍다	2	똥구멍	2
46	전파	5	떨아이	2	놈	3	갈기다	2	바르다	2	바보	2
47	개소리	4	똥구	2	뒷담화	3	개자식	2	설치다	2	뽕꾸똥꾸	2
48	구라치다	4	말라쟁이	2	바보	3	다굴	2	싸이코	2	싸가지없다	2
49	그지	4	미친년	2	빠삭하다	3	대가리	2	씨발년	2	쟁까다	2
50	꾸리다	4	빽돌다	2	씨방	3	동인년	2	씨발놈	2	앵기다	2

▣ 지역별 고빈도 비속어 목록에서도 6개 권역 모두에서 ‘좃나’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위는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씨발’이 차지하고 있어, 전체 고빈도 목록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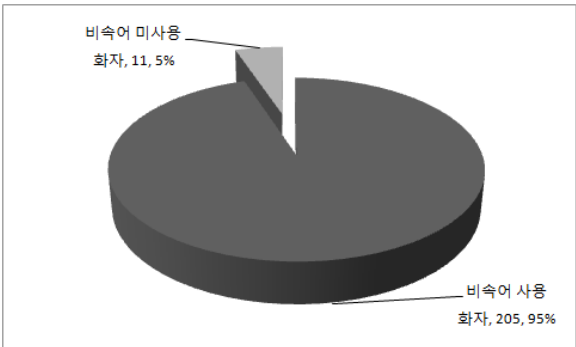
▣ ‘새끼’는 6개 권역 모두에서 10위 안에 들고 있었으며, ‘쩨다, 빽치다, 개-’ 등은 5개 권역에서 10위 안에 들고 있어 이들 비속어들이 권역에 따른 차이 없이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울, 충청, 전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빈도 10위 밖에 있는 비속어의 출현 빈도는 10회 미만이었다.

3) 사용 화자 수에 따른 비속어의 목록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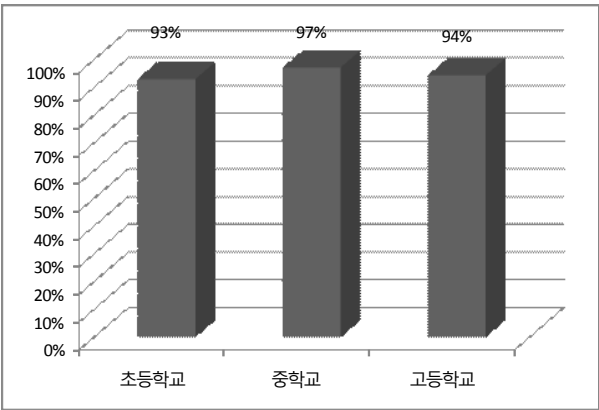
사용 화자 수는 전체 조사 대상자 216명 가운데 비속어를 1회 이상 사용한 화자 수를 조사한 것이다.⁴⁶⁾

■ 조사 결과는 전체 대상자 중 205명인 95%로 집계되어 대부분의 청소년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⁷⁾



[그림 4-1] 비속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 학교급별로 비속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93%(67명), 중학생 97%(70명), 고등학생 94%(68명)로 조사되어 모두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생이 가장 높은 비속어 사용 화자 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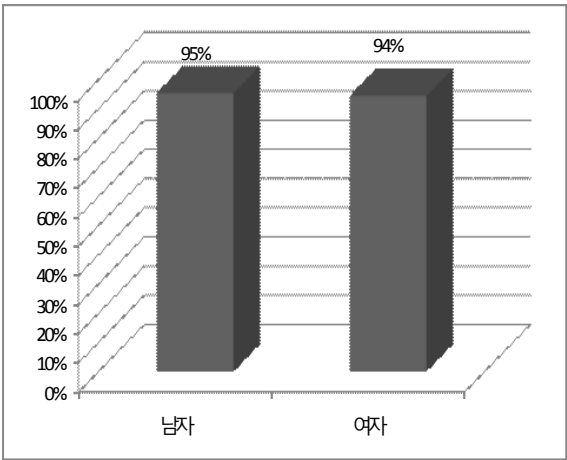


[그림 4-2] 학교급별 비속어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46)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휘는 여러 화자가 사용해서 높은 빈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명의 화자가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높은 빈도를 보일 수도 있다.

47)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은 98%, 중학교 2학년은 99%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로는 남학생이 95%(103명), 여학생이 94%(10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⁴⁸⁾



[그림 4-3] 성별 비속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다음은 비속어 어휘별 사용 화자수가 5명 이상인 어휘를 화자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4-8> 비속어의 어휘별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1	좃나	110	50.9%	42	개	9	4.2%
2	씨	76	35.2%	43	발리다	9	4.2%
3	새끼	74	34.3%	44	쌩까다	9	4.2%
4	씨발	70	32.4%	45	엠창	9	4.2%
5	쩔다	68	31.5%	46	찌질하다	9	4.2%
6	개-	67	31.0%	47	털다	9	4.2%
7	빡치다	42	19.4%	48	구리다	8	3.7%
8	지랄	37	17.1%	49	뜨다	8	3.7%
9	줄라	32	14.8%	50	쌩	8	3.7%
10	병신	31	14.4%	51	씨발새끼	8	3.7%
11	개새끼	30	13.9%	52	구라	7	3.2%
12	짱	30	13.9%	53	구라까다	7	3.2%
13	쓰레기	27	12.5%	54	감치다	7	3.2%
14	싸가지 없다	26	12.0%	55	뒤담까다	7	3.2%
15	까다	25	11.6%	56	씨발놈	7	3.2%
16	꺼지다	23	10.6%	57	튀다	7	3.2%
17	뒤지다	22	10.2%	58	갈구다	6	2.8%
18	바보	22	10.2%	59	그지	6	2.8%
19	지랄하다	22	10.2%	60	까이다	6	2.8%
20	쪽팔리다	22	10.2%	61	대가리	6	2.8%
21	놈	20	9.3%	62	싸가지	6	2.8%
22	미친년	19	8.8%	63	쌩새끼	6	2.8%
23	재수없다	17	7.9%	64	에바	6	2.8%
24	뽕	16	7.4%	65	오마	6	2.8%
25	좃갈다	16	7.4%	66	좃	6	2.8%
26	좃되다	16	7.4%	67	개갈다	5	2.3%
27	개소리	15	6.9%	68	걸레	5	2.3%

48)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남학생이 좀 더 비속어 사용 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8	뒷담까다	15	6.9%	69	구라치다	5	2.3%
29	년	14	6.5%	70	들다	5	2.3%
30	썸다	14	6.5%	71	밝히다	5	2.3%
31	편파	14	6.5%	72	빙신	5	2.3%
32	쳐-	14	6.5%	73	백큐	5	2.3%
33	거지	13	6.0%	74	싸대기	5	2.3%
34	미친놈	13	6.0%	75	씨바	5	2.3%
35	시발	13	6.0%	76	썸	5	2.3%
36	뺑치다	12	5.6%	77	열받다	5	2.3%
37	뒷담	11	5.1%	78	자식	5	2.3%
38	멍청이	11	5.1%	79	죽이다	5	2.3%
39	씨발년	11	5.1%	80	째다	5	2.3%
40	찌질이	11	5.1%	81	째려보다	5	2.3%
41	떨아이	10	4.6%	82	찍히다	5	2.3%

■ 가장 많은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속어는 전체 대상자 216명 가운데 50.9%인 110명이 사용한 ‘좃나’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씨’(35.2%), 새끼(34.3%), 씨발(32.4%), 찼다(31.5%), 개-(31.0%) 등이 30% 이상의 화자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속어 형태별 사용 화자 수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화자가 사용하는 어휘인 ‘좃나’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50.9%에 지나지 않고, 10% 이상의 화자가 사용하는 비속어도 20개인 것으로 보아, 화자별로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 형태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고빈도순 목록과 사용 화자 수 목록의 20위까지의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총 17개 목록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 목록이 청소년 집단에 널리 퍼져 있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고빈도 목록과 화자수 목록 동시 출현	고빈도 목록 출현	화자수 목록 출현
개-, 개새끼, 까다, 바보, 병신, 뺑치다, 새끼, 싸가지 없다, 쓰레기, 씨, 씨발, 졸라, 좃나, 지랄, 지랄하다, 짱, 찼다 (17개)	느그 엄마, 미친년, 좃되다 (3개)	꺼지다, 뒤지다, 쪽팔리다 (3개)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

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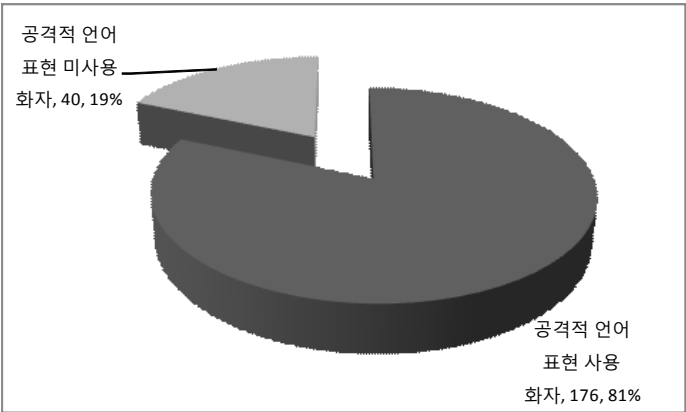
공격적 언어 표현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81%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급별, 성별, 지역별 모두 ‘욕설>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출현 빈도를 보였다.

나.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별 특징

하위 유형별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욕설에는 ‘미친년, 미친놈, 씹새끼, 개새끼, 멍청이, 바보, 병신, 새끼’와 같은 인칭 욕설과 ‘지랄, 지랄하다, 좇같이’ 등과 같이 비인칭 욕설이 두루 나타났고, 상대의 성별과 반대되는 욕설을 사용해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협박에는 ‘얼굴을 갈아주다, 뒷동산으로 갈래?’와 같은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되었고, 비방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주로 나타났다. 저주는 극히 낮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고, 죽음이나 소유한 것을 뺏어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 사용 비율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언어 표현을 2인칭과 3인칭(협담)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동일한 대화 상황에서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비율을 화자 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4]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 전체 조사 대상자 216명 가운데 81%(176명)이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다.⁴⁹⁾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화자를 대상으로 공격적 발화를 사용한 평균 횟수를 구간별로 조사해 보았다.

<표 4-9> 공격적 언어 표현의 출현 빈도 분포(입말)

공격적 언어 표현 발화 수	화자 수	비율
1-5	98	55.7%
6-10	34	19.3%
11-20	24	13.6%
21-30	6	3.4%
31-40	4	2.3%
41-50	3	1.7%
51 이상	7	4.0%
합계	176	100.0%

▣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한 화자 176명 가운데 55% 이상은 5회 이하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1회 이상을 사용한 화자도 25%나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공격적 발화를 사용한 화자의 경우는 109회에 달하고 있다. 아래 예문의 1번 화자가 109회, 2번 화자가 90회 사용한 대화의 일부이다.

화자1: 내가 뭐 시발 놈아. 이렇게 말하니깐 뭔가 막 말 못하겠어.

화자2: 왜? 만나면 하는 말이 일단. 느그 엄마.

화자1: 느그 엄마.

화자2: 느그 엄마.

화자1: 느그 엄마.

화자2: 느그 엄마.

화자1: 느그 엄마. 느그 엄마 양 애미.

화자2: 느그 엄마.

화자1: 느그 엄마.

(중략)

화자2: 뭔 개소리야 병신아.

화자1: 여자를 청정한다고 병신아.

화자2: 머리 더럽기는 [1병신아.

화자1: [1느그 엄마.

화자2: 병신 느그 엄마밖에.

(중략)

화자2: 닥쳐.

화자1: 느그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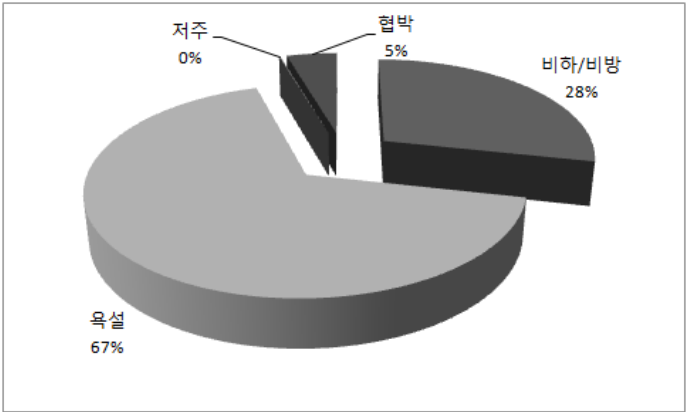
화자2: 미친 새끼.

<중학교, 남자>

49)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은 남학생이 39%, 여학생이 28%, 중학교 2학년은 남학생 81%, 여학생 80%가 공격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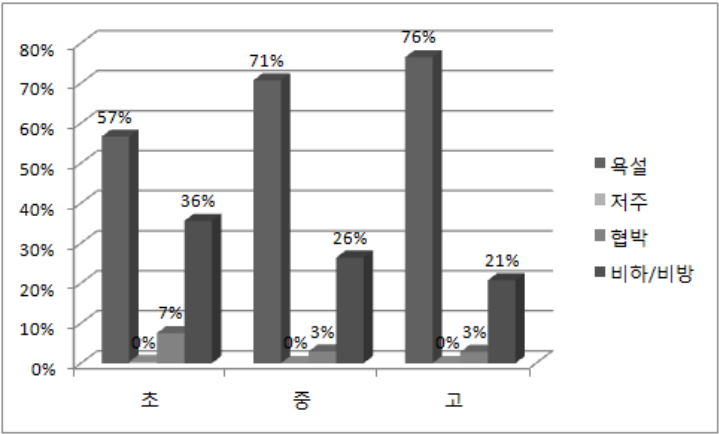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언어 표현을 ‘욕설, 저주, 협박, 비방’으로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하위 유형별 출현 빈도는 ‘욕설>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공격하는 언어 표현인 욕설이 67%로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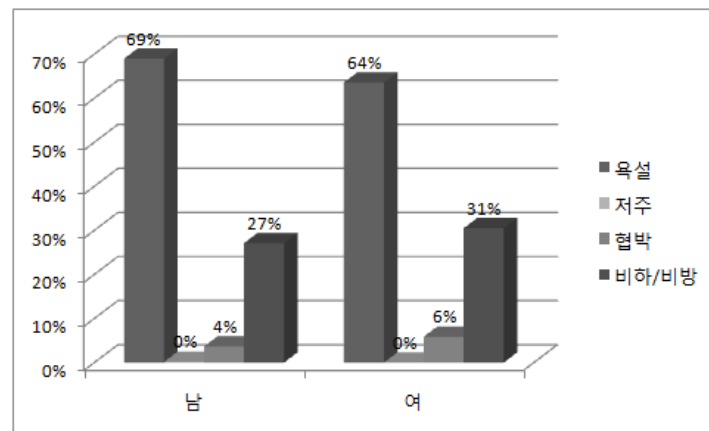
[그림 4-5]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별 비율(입말)

■ 학교급별로는 초중고 모두 ‘욕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학교급별 하위 유형 비율(입말)

■ 성별에 따라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욕설>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공격적 언어 표현의 성별 하위 유형 비율(입말)

2) 공격적 언어 표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을 욕설, 저주, 협박, 비방으로 구분하고, 이들 하위 유형별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욕설

욕설은 비속어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언어 표현으로 2인칭에 대한 욕설과 3인칭에 대한 욕설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2인칭에 대한 욕설에는 인칭 욕설과 비인칭 욕설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고, ‘센냥, 에스씨’와 같은 은어도 욕설에 사용되고 있었다.

- 인칭 욕설: 미친년, 미친놈, 씹새끼, 개새끼, 멍청이, 바보, 병신, 새끼
- 비인칭 욕설: 지랄, 지랄하다, 좇같이, 센냥, 에스씨(센척)

미친년. <초등학교, 여자>
 미친. <초등학교, 여자>
 존나 또라이. <초등학교, 여자>
 이런 멍청이! <초등학교, 남자>
 상년. <초등학교, 남자>
 미친.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병신새끼. <고등학교, 남자>
 씹새끼야. <고등학교, 남자>
 개새끼야. <초등학교, 남자>
 바보야. <초등학교, 남자>

개소리 하지 마. <초등학교, 여자>
 지랄. <초등학교, 여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초등학교, 남자>
 존나 썸 뉘(척) 찢어. <초등학교, 남자>
 뭐 이 에스씨야. <중학교, 여자>
 좇 같애. <고등학교, 여자>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좇같이 생겼는데? <고등학교, 남자>

■ ‘바보, 멍청이’ 등의 기본 욕설에 비해 비난의 강도가 심한 강화 욕설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작작 해! 미친 더러운 년아. <중학교, 여자>
 지랄 말고. 씨발년아. <고등학교, 남자>
 병신새끼. <중학교, 여자>
 존 간나새끼. <중학교, 남자>

■ 대화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욕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단순히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욕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자1: 야, 우리 말해야지. 녹음기인데!
 화자2: 귀찮아!
 화자1: 아! 말하자. 멍청아. <초등학교, 여자>
 화자2: 아. 개웃겨.
 화자1: 뭐 하나? 이 개새끼야. <초등학교, 남자>

■ 상대의 성별과 반대되는 욕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남학생에게 ‘년’이 포함된 욕설이 여학생에게 ‘놈’이 포함된 욕설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성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욕설 사용 양상은 좀더 강한 욕설로 기능하게 한다.

화자2: 야 근데 니 양치 안하는데 왜?
 화자1: 한다. 씨발년아. <고등학교, 남자>
 화자2(여): 아 씨발 냄새나는데. 개같은 년.
 화자1(남): 똥싼년. <중학교, 혼성>
 화자1(남): 아, 풀어 보라구. 이 씨발놈아.
 화자2(여): 사 이 팔은 육. 사 이. <중학교, 혼성>

■ 욕설의 공격 대상이 대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3인칭에 대한 욕설에서도 2인칭에서 사용되었던 욕설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미친년. <초등학교, 남자>
개시키들. <초등학교, 남자>
개 진짜 존나 병맞이. <초등학교, 남자>

■ 험담의 경우에는 공격하는 이유가 함께 드러나기도 한다.

시발 지네가 잘난 줄 알아 병신들이. <초등학교, 여자>
000 있잖아. 완전 일러바치고 지랄이다. <초등학교, 남자>
야 원래 평소에 00랑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존나 처앵기면서 지랄이제. <중학교, 여자>
000 존나 빠쳐. 미친놈이. 야. 지가 뭘 잘났다고 나한테, 나한테 욕하고, <중학교, 여자>
미친놈이 앞에서 개짓하고 지랄이야. <중학교, 여자>

■ 3인칭 욕설에는 2인칭 욕설에서보다 ‘재수없다, 싸가지없다’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000 재수없어 진짜. <초등학교, 남자>
존나 재수없다. <중학교, 여자>
촉구하는 애들이 진짜 싸가지없어. <초등학교, 여자>

■ 비속어를 사용해 제3자를 공격하는 험담의 내용은 주로 외모, 행동 등이 많다.

딱 싸가지없게 생겼어. 애새끼가. <중학교, 여자>
존나 똥똥하다고 그래 갖고 존나 돼지네. <중학교, 여자>
얼굴에 진짜 주근깨 찢어. <중학교, 여자>
아까 들어온 새끼 존나 돼지같은 새끼. <중학교, 여자>
진짜 개 변태 존나 얼굴도 못 생긴게. <중학교, 여자>
완전 발랑 까졌드라이? <고등학교, 여자>

■ 험담의 대상으로는 친구 이외에도 가족, 선생님 등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 ‘새끼, 미친년’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공격하고 있었다.⁵⁰⁾

아니 오자마자 오빠 친구가 있는 거야. 우리 오빠가 무전여행 간다고, 졸업하더니 미친 새끼. <고등학교, 여자> → 오빠 험담
00고 갔잖아, 그 00 새끼. <고등학교, 여자> → 교사 험담
아니- 수일을 삼 점이나 깎았어. 미친 미친년이. <고등학교, 여자> → 교사 험담

50) 녹음 조사를 위해 나간 조사원에 대해서도 욕설로 험담하는 예가 관찰되었다.
(예) 아이 조사원 개새끼들. <고등학교, 남성>

(2) 저주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는 자료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설문 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저주 표현의 특징적인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죽음’과 관련한 저주가 있었고, 명령문이나 기원문의 형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자살해. 죽어. <고등학교, 남자>

■ 또다른 사례에는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표현들이 있다.

가방을 누가 훔쳐가 버려라. <초등학교, 남자>

(3) 협박

협박은 공격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고 으르고 위협하는 것으로, 화자의 행동 의도 표현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문문의 형식의 표현들도 있고, 자신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도를 진술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들 있었다. 이때 출현하는 동사로는 ‘죽다’ 등이 있다.

너 일로 와봐. 넌 당장 내 손에 죽어야 돼. <초등학교, 남자>

■ 화자의 공격 행동의 결과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턱주加里, 뺨뚫어’ 등이 그 예이고, 화자의 공격 행동에 대해서도 ‘갈다, 뒷동산 가다’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너도 만들어줄까 턱주加里로. <초등학교, 남자>
 니 얼굴을 잘라 뺨뚫어로 쓸 거다. <초등학교, 남자>
 갈아줘? <초등학교, 남자>
 갈아줄게 이 얼굴을. <초등학교, 남자>
 뒷동산으로 올래? <중학교, 남자>

■ 폭력 가운데에서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한다. 특히 성과 관련된 상해에 대한 예들도 볼 수 있었다.

머리카락 뽑아버리기 전에. <초등학교, 남자>
 이빨을 확 부러뜨리고 싶어 갑자기. <초등학교, 남자>
 남 남자 이 씹 고추 잘라버릴 거. <고등학교, 남자>
 니 불알 터쳐버린다. <초등학교, 남자>

(4) 비방

상대방의 행위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낮춰 공격하여 상대의 존중의 욕구를 훼손하는 것이다.

■ 비방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특히 ‘나대다’, ‘닥치다’ 등의 동사를 사용해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린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

아 진짜 잘난 척 하지 마.<초등학교, 여자>
 나대지 마. <중학교, 남자>
 닥쳐. <중학교, 남자>

■ 외모, 능력, 자격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주로 나타났으며, 비하 대상도 친구, 선생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하에 사용된 표현들 중에는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어휘가 공격적 표현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 돼지야. <초등학교, 남자>
 똥땡이가, <중학교, 남자>
 이 아스팔트야! <중학교, 여자>
 여드름 난 격투기. <초등학교, 여자>
 그딴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고등학교, 남자>
 교장도 개념이 없네. <중학교, 여자>
 너 장애인처럼 말한다. <중학교, 여자>
 니도 루저야. <중학교, 여자>
 ○○이 니 친구 없지? <고등학교, 남자>
 개념 밑에가 썩어 있어. <중학교, 남자>
 그게 무슨 윤리 선생이야? <고등학교, 남자>
 아 솔직히 사람 선생님이 학생 머리를 때려? 어떻게? 미친거 아니야? <고등학교, 남자>
 왜 선생 됐냐?{비꼬는듯한 말투} <고등학교 여자>

□□ 은어·유행어의 사용 실태

가. 은어·유행어 사용 비율

은어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70%가 사용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유행어는 조사 대상자 전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나. 은어·유행어 어휘 목록의 특징

은어는 폭력, 성, 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관련한 어휘가 다수 출현하고 있었다. 줄임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기성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게임’과 관련한 은어가 많았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에 대한 은어가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폭력, 성, 게임 등에 대한 은어 사용이 많았지만 여학생 자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은어가 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은어 형태와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행어는 정도 부사나 감탄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고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줄임말, 국어 문법에 맞지 않은 표현들도 다수 있었으며, 게임이나 통신상의 어휘들이 입말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고빈도 유행어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주로 게임과 관련한 유행어가 많았다면, 여학생은 외모, 친구, 이성에 대한 유행어가 많았다. 조사 지역 전부에서 공동으로 출현하는 유행어는 비속성을 지니거나 공격적인 것들이었다.

1) 은어 사용 실태

(1) 고빈도 은어의 목록과 특징

자료에서 조사된 총 217개의 은어 가운데 출현빈도 3 이상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10> 고빈도 은어의 출현 빈도(입말)

빈도	형태	의미	빈도	순위	형태	의미	빈도
1	느그 엄마	상대방의 엄마를 성적으로 비하해서 욕함	90	29	쪼리다	겁나다	5
2	야자	야간자율학습	41	30	친삭	친구 목록에서 삭제	5
3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36	31	도배	같은 글이나 표현을 반복	4
4	뜨다	싸우다	29	32	방과	방과후 학습	4

5	엠창	‘엄창’의 변이형	22	33	일짱	‘일진’의 짱(리더)	4
6	전따	진짜 왕따	21	34	장애	장애인	4
7	에바	‘오버하다’의 변이형	20	35	짜지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4
8	일진	불량스러운 아이	19	36	캐쉬백	돈 줄	4
9	가짜게임	거짓말만을 말하는 게임	17	37	현질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함	4
10	발리다	지다	17	38	거시기	성기	3
11	야동	야한 동영상	12	39	고데기	속옷	3
12	징징이	담임 선생님 별명	11	40	따	왕따	3
13	찍히다	안 좋은 인상이 생기다	11	41	뜯다	헐뜯다	3
14	썰까다	모른 척 하다	9	42	만렙	최고의 레벨	3
15	오크	오케이	9	43	물약	게임아이템	3
16	떡치다	시험 못보다	8	44	베프	베스트프렌드	3
17	바르다	이기다	8	45	시비 털다	시비 걸다	3
18	쩌다	수업을 쉬다	8	46	싸모	드라마	3
19	긋도	음부	7	47	얼큰이	얼굴이 큰 사람	3
20	생과	생일 파티	7	48	여주	여자주인공	3
21	털다	비밀을 털어놓다	7	49	자갈	자연스러운 갈색	3
22	팁킬	같은 편을 해치는 게임 방식	7	50	잘나가다	싸움을 잘하다	3
23	이진	일진(싸움잘하는 아이)보다 한 단계 아래	6	51	짹눈	양눈의 시력이 다름	3
24	절친	절친한 친구	6	52	짹질	연애질	3
25	엄창	‘엄마는 창녀’라는 뜻으로, 이러한 사실을 걸로 맹세함.	5	53	켜	진짜 왕따	3
26	은따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아이	5	54	친추	친구 목록에 추가	3
27	장애인		5	55	커버쳐주다	보호하다	3
28	짹지	짹	5	56	피방	피시방	3

<표 4-10>을 다시 빈도 구간을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은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빈도구간	비속어
50-99	느그 엄마 (총 1개)
10-49	가짜게임, 뜯다, 발리다, 야동, 야자, 에바, 엠창, 왕따, 일진, 징징이, 찍히다, 전따 (총 12개)
5-9	긋도, 떡치다, 바르다, 생과, 썰까다, 엄창, 오크, 은따, 이진, 장애인, 절친, 짹지, 쯤다, 쯤리다, 친삭, 털다, 팁킬 (총 17개)
4	도배, 방과, 일짱, 장애, 짜지다, 캐쉬백, 현질 (총 7개)
3	거시기, 고데기, 따, 뜯다, 만렙, 물약, 베프, 시비 털다, 싸모, 얼큰이, 여주, 자갈, 잘나가다, 짹눈, 짹질, 켜, 친추, 커버쳐주다, 피방 (19개)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은어는 ‘느그 엄마’로 총 90회 출현하고 있었다. ‘느그 엄마’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의 엄마를 비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폭력, 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관련된 은어 형태들이 많았다.

- 뜯다, 발리다, 일진, 이진, 시비 털다
- 느그 엄마, 야동, 엠창, 엄창, 긋도, 거시기

▪ 왕따, 찌따, 따, 은따

▣ 줄임말이 많아서 기성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 방과, 친삭, 현질, 따, 베프, 여주, 친추, 절친, 노방(노래방)

(2) 변인별 은어의 목록과 특징

은어의 출현 어휘 목록과 특징을 학교급,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 학교급별

학교급별 은어 사용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는 73개, 중학교는 111개, 고등학교는 83개로 중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은어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 은어를 빈도에 따라 50위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뜨다	22	느그 엄마	87	야자	41
2	왕따	19	왕따	17	엠창	18
3	가짜게임	17	발리다	12	떡치다	8
4	일진	15	징징이	11	째다	8
5	찍히다	10	야동	10	긏도	7
6	찌따	10	에바	9	쌩까다	5
7	생과	7	오크	8	직속	5
8	에바	7	찌따	8	쪼리다	5
9	바르다	6	팀킬	7	발리다	4
10	이진	6	뜨다	5	캐쉬백	4
11	도배	4	털다	5	에바	4
12	엠창	4	방과	4	거시기	3
13	친삭	4	짜지다	4	느그 엄마	3
14	뜯다	3	짜지	4	싸모	3
15	만렙	3	헐다	4	짜눈	3
16	물약	3	고데기	3	찌따	3
17	이상형게임	3	쌩까다	3	깁	2
18	절친	3	얼큰이	3	드링크	2
19	노방	2	엄창	3	딱같이	2
20	다굴	2	여주	3	뜨다	2
21	도배방	2	은따	3	버그	2
22	따	2	자갈	3	쌩벼오다	2
23	리얼쉽	2	장애인	3	엄창	2
24	버그쓰다	2	짜질	3	은따	2
25	삼진	2	찌	3	이메가바이트	2
26	야동	2	커버쳐주다	3	일진	2
27	인삼버그	2	피방	3	장애인	2
28	캐시	2	거털	2	절친	2
29	퀘스트	2	너그-엄마	2	지잡대	2
30	통답자세	2	눈정화	2	진때	2
31	개런	1	느그-빠	2	째지다	2
32	개아	1	떼쓰	2	쪼이다	2

33	거스	1	떨구다	2	털다	2
34	깨다	1	랩	2	학부	2
35	난타하다	1	베프	2	현질	2
36	노 쿨	1	아리다	2	길드	1
37	눌새	1	엘까다	2	넘사벽	1
38	똥 싸다	1	엘창까다	2	눈썹썹이	1
39	렐	1	은상	2	느그엄마	1
40	발리다	1	일진	2	데카	1
41	병맛	1	일짱	2	돈다	1
42	복어	1	잘나가다	2	드립	1
43	붕기다	1	장애	2	득템	1
44	비밀폭소하다	1	지지	2	딸랑이	1
45	빠룩빠룩	1	지지 치다	2	또라이	1
46	삼기다	1	짜가	2	마스터	1
47	섭	1	찰지다	2	말년	1
48	시비 털다	1	친추	2	맞담	1
49	싸직	1			문자돌림	1
50	쌩까다	1				

■ 초등학교에서는 게임과 관련한 은어가 많았다.

- 도배, 만렙, 물약, 도배방, 리얼섭, 버그쓰다, 캐시, 섭

메카닉 그거. 물약 떨어. 물약 완전 많이 들어가. <초등학교, 남자>

니가 만들었잖아! 도배방 삭제해 당장! 알았어? <초등학교, 남자>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성, 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에 대한 은어가 증가하고 있었다.

· 중학교: 느그 엄마, 느그 빠, 발리다, 은파, 일진, 찰지다(주로 남성 간 동성애에서 몸이 성적 매력이 있다),

· 고등학교: 궂도, 느그 엄마, 깔(이성친구), 드링커(drinker), 썸벼오다, 은파, 일진, 맞담(맞담배)

화자: 존나 일학년 때 거의 은파였대. <중학교, 여자>

화자1(여): ○○이 진짜 잘 마신대. 꼭 봐야지, 얼마나 잘 마시는지.

화자2(남): 드링커야 드링커. <고등학교, 혼성>

화자: 개더러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 선생님들 지나가면 좀 그런 선생님들, 선생님 맞담 하실래요? <고등학교, 여자>

나. 성별

성별 은어 출현 빈도를 보면, 남학생은 164개, 여학생은 100개의 은어가 출현하고 있어 남학생의 은어 사용이 여학생에 비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은어 목록을 빈도에 따라 50위까지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3> 성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남자		여자		순위	남자		여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너그 엄마	73	왕따	28	26	친삭	4	작눈	3
2	뜨다	29	야자	24	27	캐쉬백	4	겨털	2
3	야자	17	전따	15	28	헐다	4	갈	2
4	에바	17	일진	13	29	현질	4	노방	2
5	발리다	14	엠창	11	30	거시기	3	삼진	2
6	느금마	13	가짜게임	10	31	따	3	쌔벼오다	2
7	엠창	11	찍히다	8	32	만렙	3	애바	2
8	떡치다	8	생과	7	33	물약	3	킵스	2
9	왕따	8	쌩까다	6	34	쌩까다	3	털다	2
10	가짜게임	7	이진	6	35	얼큰이	3	꼬이다	1
11	긱도	7	징징이	6	36	일짱	3	노 쿨	1
12	바르다	7	야동	5	37	장애	3	눈썹썹이	1
13	야동	7	절친	4	38	짜지다	3	니깎다	1
14	탐킬	7	짜지	4	39	찍히다	3	돈다	1
15	오크	6	째다	4	40	쩐	3	득템	1
16	일진	6	고데기	3	41	커버치주다	3	딸랑이	1
17	전따	6	뜯다	3	42	피방	3	명까먹다	1
18	징징이	5	발리다	3	43	너그-엄마	2	레알	1
19	쪼리다	5	방과	3	44	눈정화	2	맞답	1
20	털다	5	싸모	3	45	너그-빠	2	문어다리	1
21	너그 음마	4	여주	3	46	다굴	2	문어발	1
22	도배	4	오크	3	47	도배방	2	문자돌림	1
23	엄창	4	은따	3	48	드링크	2	뿔미	1
24	장애인	4	이상형게임	3	49	딱같이	2	바르다	1
25	째다	4	직속	3	50	매쓰	2	배신감먹다	1

■ 남학생 자료에게서는 폭력, 게임, 성 등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은어가 다수 출현하고 있었다.

- 뜨다, 발리다, 일진, 전따, 털다, 째다, 다굴
- 캐쉬백, 물약, 피방, 도배방, 만렙
- 긱도

■ 여학생 자료에서도 남학생만큼의 빈도는 아니지만 폭력, 게임 등과 관련한 은어가 출현하고 있었다.

- 엠창, 전따, 왕따, 일진, 쌔벼오다, 이진, 발리다, 은따, 털다

■ 여학생 자료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은어가 나타났다.

- 겨털

다. 지역별

은어의 지역별 사용 실태를 보면, 경인 지역 41개, 강원 지역 54개, 충청 지역 51개, 전라 지역 79개, 경상 지역 51개, 제주 지역 24개의 은어 형태가 출현하였고, 30위까지의 목록과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14>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뜨다	22	가짜게임	17	느그 엄마	90	야자	11	야자	11	왕따	6
2	에바	17	왕따	12	야자	10	일진	9	징징이	11	일진	6
3	엠창	11	곳도	7	엠창	10	왕따	8	직속	5	찐따	5
4	발리다	10	찍히다	7	오크	7	찐따	8	쪼리다	5	야동	3
5	왕따	7	바르다	6	떡치다	5	생과	7	방과	4	야자	3
6	찐따	4	야자	6	탐킬	5	이진	6	캐쉬백	4	피망	3
7	헐다	4	째다	5	거시기	3	뜯다	3	고데기	3	쌩까다	2
8	떡치다	3	도배	4	얼큰이	3	발리다	3	뜨다	3	털다	2
9	쌩까다	3	뜨다	4	에바	3	여주	3	짜지	3	남사벽	1
10	야동	3	찐따	4	장애인	3	노방	2	짜질	3	돈다	1
11	엠창	3	친삭	4	절친	3	다굴	2	커버쳐주다	3	따	1
12	은따	3	만랩	3	째다	3	따	2	눈경화	2	딸랑이	1
13	찐	3	물약	3	칼	2	리얼쉽	2	때쓰	2	똥 싸다	1
14	시비 털다	2	싸모	3	너그-엄마	2	맴	2	떨구다	2	레알	1
15	일진	2	이상형게임	3	느그-빠	2	삼진	2	바르다	2	시비 털다	1
16	일짱	2	자갈	3	딱같이	2	쌔벼오다	2	버그	2	야메	1
17	짜가	2	짜눈	3	발리다	2	야동	2	야동	2	연가시	1
18	짜지다	2	도배방	2	야리다	2	엠까다	2	왕따	2	옛	1
19	째지다	2	드링크	2	엠창	2	엠창까다	2	친추	2	일짱	1
20	적다	2	쌩까다	2	이메가바이트	2	은따	2	캡스	2	자빔	1
21	찍히다	2	야동	2	지잡대	2	은상	2	탐킬	2	잘나가다	1
22	난타하다	1	인삼버그	2	진매	2	절친	2	겨털	1	조뽀	1
23	득템	1	짜지	2	쪼이다	2	지지	2	니깎다	1	지구온석	1
24	맞답	1	현질	2	털다	2	지지 치다	2	데카	1	타짜	1
25	뽕미	1	길드	1	학부	2	찰지다	2	도배하다	1		
26	번호따다	1	나가다	1	겨털	1	통답자세	2	렐	1		
27	베프	1	놀다	1	귀두컷	1	현질	2	발리다	1		
28	병맛	1	놀새	1	꼭지-쌌다	1	개런	1	배신감 먹다	1		
29	비읍 시웃	1	눈썹짝이	1	느그엄마	1	개아	1	베프	1		
30	빠순이	1	니모	1	또라이	1	거스	1	붕기다	1		

■ 전라 지역과 경상 지역이 ‘야자’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빈도를 보면 11회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 지역별로 출현하는 순위와 빈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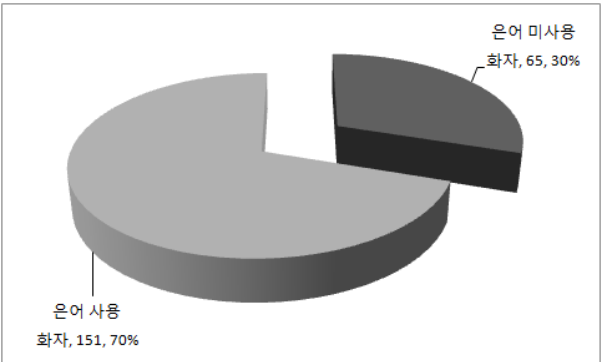
- 경인: 뜨다 > 에바 > 엠창 > 발리다 > 왕따
- 강원: 가짜게임 > 왕따 > 곳도 > 찍히다 > 바르다
- 충청: 느그 엄마 > 야자 > 엠창 > 오크 > 떡치다
- 전라: 야자 > 일진 > 왕따 > 찐따 > 생과
- 경상: 야자 > 징징이 > 직속 > 쪼리다 > 방과
- 제주: 왕따 > 일진 > 찐따 > 야동 > 야자

■ ‘왕따, 찐따, 야동, 야자, 엠창, 일진’ 등이 비교적 지역에 고루 출현하고 있는 은어 목록이었다.

(3) 사용 화자 수에 따른 은어의 목록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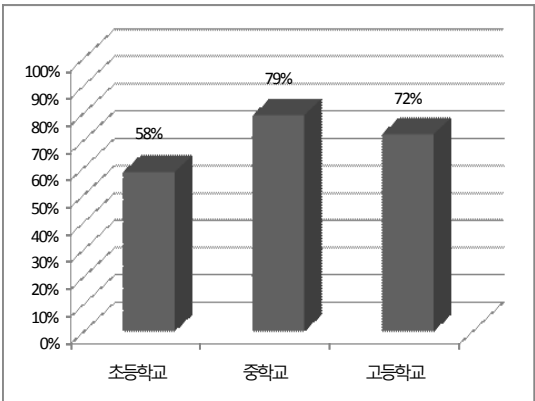
전체 조사 대상자 216명 가운데 은어를 1회 이상 사용한 화자 수를 조사한 것이다.

■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중 151명인 70%로 나타나, 비속어에 비해 은어 사용은 사용 화자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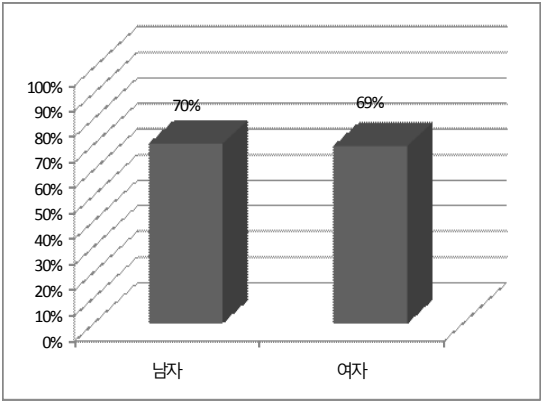
[그림 4-8] 은어의 사용 화자 수 비율(입말)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8%(42명), 중학생 79%(57명), 고등학생 72%(52명)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4-9] 학교급별 은어 사용화자수 비율(입말)

■ 성별로는 남학생이 70%(76명), 여학생이 69%(75명)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10] 성별 은어 사용화자수 비율(입말)

조사 자료에서 사용 화자 수가 2명 이상인 은어를 사용 화자 수가 많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5> 은어의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1	왕따	16	7.4%	37	깡	2	0.9%
2	야자	14	6.5%	38	느그 음마	2	0.9%
3	전따	13	6.0%	39	도배	2	0.9%
4	일진	12	5.6%	40	도배방	2	0.9%
5	발리다	9	4.2%	41	득템	2	0.9%
6	생까다	9	4.2%	42	따	2	0.9%
7	엠창	9	4.2%	43	때쓰	2	0.9%
8	뜨다	8	3.7%	44	만렙	2	0.9%
9	야동	7	3.2%	45	방과	2	0.9%
10	털다	7	3.2%	46	버그	2	0.9%
11	에바	6	2.8%	47	버그쓰다	2	0.9%
12	쩌다	5	2.3%	48	생과	2	0.9%
13	찍히다	5	2.3%	49	싸모	2	0.9%
14	바르다	4	1.9%	50	애바	2	0.9%
15	엄창	4	1.9%	51	야리다	2	0.9%
16	오크	4	1.9%	52	엠까다	2	0.9%
17	은따	4	1.9%	53	이진	2	0.9%
18	일짱	4	1.9%	54	인삼버그	2	0.9%
19	장애	4	1.9%	55	자갈	2	0.9%
20	장애인	4	1.9%	56	자백	2	0.9%
21	절친	4	1.9%	57	직속	2	0.9%
22	징징이	4	1.9%	58	진때	2	0.9%
23	짜지	4	1.9%	59	짜눈	2	0.9%
24	현질	4	1.9%	60	짜질	2	0.9%
25	느그 엄마	4	1.9%	61	쩌지다	2	0.9%
26	떡치다	3	1.4%	62	쪼이다	2	0.9%
27	베프	3	1.4%	63	찍다	2	0.9%
28	시비 털다	3	1.4%	64	쩐	2	0.9%
29	잘나가다	3	1.4%	65	친삭	2	0.9%
30	짜지다	3	1.4%	66	캐시	2	0.9%
31	친추	3	1.4%	67	퀘스트	2	0.9%
32	팀킬	3	1.4%	68	털리다	2	0.9%
33	가짜게임	2	0.9%	69	피방	2	0.9%
34	겨털	2	0.9%	70	학부	2	0.9%
35	고데기	2	0.9%	71			
36	긱도	2	0.9%	72			

■ 은어의 사용 화자 수 빈도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은어 사용이 폭넓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용 화자 수가 가장 많은 은어는 ‘왕따’로 총 16명(7.4%)이 사용하였다. 그 다음이 ‘야자, 전따, 일진, 발리다’ 순으로 나타났다.

■ 고빈도순 목록과 사용 화자 수 목록의 20위까지의 유행어를 비교해 본 결과, 총 14개 목록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어, 비속어, 유행어보다 적은 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은어 사

용이 비속어와 유행어에 비해 청소년 집단 전체에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빈도 목록과 화자수 목록 동시 출현	고빈도 목록 출현	화자수 목록 출현
뜨다, 바르다, 발리다, 썩까다, 야동, 야자, 엠창, 오크, 왕따, 일진, 찌다, 찍히다, 찌따, 예바 (14개)	가짜게임, 곳도, 느그, 엄마, 떡치다, 생파, 징징이 (6개)	엠창, 은따, 일짱, 장애, 장애인, 털다 (6개)

2) 유행어의 사용 실태

(1) 고빈도 유행어의 목록과 특징

유행어는 자료에서 총 485개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으며, 빈도 4 이상의 유행어를 고빈도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16> 고빈도 유행어의 출현 빈도(입말)

순위	형태	빈도	순위	형태	빈도	순위	형태	빈도
1	완전	606	34	야동	12	67	비번	5
2	샘	254	35	변태	11	68	빠이	5
3	개-	184	36	찌질이	11	69	빨쫄하다	5
4	헐	176	37	개념-없다	9	70	엠창	5
5	찢다	160	38	겉나	9	71	썩이다	5
6	대박	153	39	뒷담화	9	72	오케	5
7	나대다	89	40	썩다	9	73	왕-	5
8	빡치다	89	41	오글거리다	9	74	웹툰	5
9	미친	59	42	오크	9	75	은따	5
10	쓰레기	59	43	찌질하다	9	76	패인	5
11	짱	38	44	콜	9	77	훈남	5
12	남친	36	45	간지	8	78	귀요미	4
13	왕따	36	46	뒤담까다	8	79	길막	4
14	막	35	47	수원	8	80	도배	4
15	진실게임	32	48	지르다	8	81	렉	4
16	강	30	49	낙이다	7	82	랩	4
17	여친	28	50	놀토	7	83	루저	4
18	뽕	26	51	빡가다	7	84	반삭	4
19	뒷담까다	25	52	뽕가다	7	85	빡세다	4
20	알바	25	53	생파	7	86	사문	4
21	뽕치다	23	54	팀킬	7	87	생기부	4
22	엠창	22	55	기가	6	88	생일뽕	4
23	찢따	22	56	드립	6	89	선뽕 날리다	4
24	-음	21	57	랩	6	90	셀카	4
25	예바	20	58	장난 아니다	6	91	아이돌	4
26	오키	19	59	절친	6	92	언수	4
27	레알	17	60	초딩	6	93	자살랜드	4
28	진심	17	61	하의실종	6	94	젤	4
29	뒷담	15	62	-염	5	95	과워캐	4
30	게이	14	63	램	5	96	한사	4
31	깁치다	14	64	가관	5	97	현질	4
32	좀비	13	65	낙다	5			
33	쿨하다	13	66	낙시	5			

<표 4-16>을 다시 빈도 구간을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4-17> 유행어의 빈도 구간별 현황(입말)

빈도구간	비속어
500-999	완전 (총 1개)
100-499	개-, 대박, 샘, 찔다, 헐 (총 5개)
50-99	나대다, 미친, 빠치다, 쓰레기 (총 4개)
10-49	강, 게이, 갑치다, 남친, 뒷담, 뒷담까다, 레알, 막, 변태, 뽕, 뽕치다, 알바, 야동, 에바, 엠창, 여친, 오키, 왕따, -음, 좀비, 진실게임, 진심, 짱, 찌질이, 찌따, 쿨하다 (총 26개)
5-9	가관, 간지, 개념-없다, 겁나, 기가, 낑다, 낑시, 낑이다, 놀토, 뒤담까다, 뒷담화, 드림, 랩, 비번, 빠이, 빠가다, 빨쫌하다, 뽕까다, 생과, 수원, 엠창, 워다, 워이다, -염, 오글거리다, 오케, 오크, 왕-, 웹툰, 은따, 장난 아니다, 절친, 지르다, 찌질하다, 초딩, 쿨, 팀킬, -팸, 페인, 하의실종, 훈남 (총 41개)
4	귀요미, 길막, 도배, 렉, 랩, 루저, 반삭, 빠세다, 사문, 생기부, 생일뽕, 선풍 날리다, 셀카, 아이돌, 언수, 자살랜드, 젤, 파워캐, 한사, 현질 (총 20개)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행어는 ‘완전’으로 총 606회 출현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샘’(254회), 개-(184회), 헐(176회), 찔다(160)의 순이었는데 ‘샘’을 제외하고 모두 정도 부사나 감탄사의 기능을 지닌 것이었다.

■ 빈도 10 이상의 유행어는 36개였으며, 이들의 출현 빈도는 2,404회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유행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줄임말이 다수 출현하고 있었다.

- 샘, 강, 여친, 알바, 놀토, 생과, 문상, 절친, 비번, 베프, 길막, 셀카

■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있었다.

- 완전, 진심
- 미친, 망할
- 뒷담

그래서 완전 인어들이 막 이빨 드러내고 사람 잡아먹[2고, <초등학교, 여자>
가식적이라고. 와 진심 장난 아닌데. <고등학교, 여자>
뽕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대. 미친. <중학교, 여자>
야 난 너만 안 들어왔으면 나 여기 없다고 . 아 진짜. 망할. <고등학교, 남자>
뭐 있냐? 벌써 뒷담 다 했냐? 개빨리 했는데? <고등학교, 남자>

■ 유행어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 팀킬, 랩, 현질, 만렙, 도배, 업글, 진캠, 팬픽

■ 통신상에서 사용하는 어미인 ‘-음, -염, -임, -앙’이 입말에서도 사용되고 있었고, 일본어 종결 어미인 ‘-데쓰’도 사용한 예가 보이고 있었다.

내가 친추 하겠음. <중학교, 남자>
 저도염. 놀아주세요염. <중학교, 여자>
 진짜임! 거짓말 아님. <초등학교, 남자>
 완전 남자다잉 이려고. <중학교, 여자>
 나도 두꺼비데쓰. 떡두꺼비 닮은 샘. <중학교, 남자>

(2) 변인별 유행어의 목록과 특징

학교급, 성별, 지역별로 유행어의 출현 어휘 목록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가. 학교급별

자료에서 초등학교 176개, 중학교 243개, 고등학교 198개의 유행어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고, 50위까지 고빈도 목록과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8>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완전	234	완전	214	완전	158
2	헐	72	샘	91	샘	144
3	나대다	48	헐	68	개-	117
4	찢다	41	대박	53	찢다	67
5	대박	39	찢다	52	대박	61
6	진실게임	30	개-	50	빡치다	37
7	쓰레기	27	나대다	35	헐	36
8	빡치다	20	빡치다	32	미친	29
9	샘	19	막	31	남친	27
10	왕따	19	미친	24	쓰레기	18
11	개-	17	강	18	엠창	18
12	뒷담까다	17	-음	17	알바	15
13	뺑치다	13	오키	17	짱	14
14	뺑	11	왕따	17	여친	13
15	여친	11	짱	15	진심	13
16	변태	10	뺑	14	깡치다	11
17	전따	10	쓰레기	14	강	9
18	짱	9	좀비	12	뒷담까다	8
19	생과	7	야동	10	수원	8
20	에바	7	게이	9	쿨하다	7
21	쿨	7	레알	9	나대다	6
22	놀토	6	에바	9	드립	6
23	뒷담	6	워다	9	팸	5
24	레알	6	전따	9	게이	5
25	미친	6	남친	8	뺑치다	5
26	장난 아니다	6	알바	8	오케	5
27	하의실종	6	오글거리다	8	지르다	5
28	간지	4	오크	8	가관	4
29	도배	4	찌질이	7	겉나	4
30	빡가다	4	찌질하다	7	귀요미	4
31	셀카	4	텀킬	7	뒷담	4
32	아이돌	4	개념-없다	6	막	4

33	엠창	4	기가	6	반삭	4
34	강	3	남이다	6	사문	4
35	겁나	3	-염	5	생기부	4
36	까칠하다	3	남다	5	선뺑 날리다	4
37	너전	3	뒤담까다	5	언수	4
38	누구	3	뒷담	5	파워캐	4
39	뒤담까다	3	뺑까다	5	한사	4
40	렉	3	뺑치다	5	개념-없다	3
41	만렙	3	엮이다	5	광팬	3
42	비번	3	길막	4	답살	3
43	뺑세다	3	남시	4	따다	3
44	스크린샷	3	뒷다마	4	물로 보다	3
45	싱크로	3	뒷담화	4	미니미	3
46	웹툰	3	렙	4	뺑가다	3
47	절친	3	루저	4	센 척	3
48	즐	3	뺑쫄하다	4	인서울	3
49	-음	2	생일뺑	4	찐따	3
50	다굴	2	여친	4	초딩	3

▣ 학교급별 고빈도 비속어 목록에서도 ‘완전’이 초등학교 234회, 중학교 214회, 고등학교 158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 고빈도로 출현하는 목록 가운데에는 ‘찐다, 개-, 미친, 뺑치다, 미친, 뒷담까다, 엠창’ 등과 같이 비속한 내용이거나 국어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났다.

▣ 10위 안에 드는 고빈도 유행어 목록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이를 보였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유행어 사용 양상을 보였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동 출현 유행어: 완전, 헐, 개-, 뺑치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동 출현 유행어: 완전, 쌤, 대박, 찐다, 헐, 개-, 뺑치다, 미친

나. 성별

유행어는 남학생이 304개, 여학생이 277개 목록이 출현하고 있었고, 50위까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19> 성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남자		여자		순위	남자		여자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완전	171	완전	435	26	레알	9	레알	8
2	개-	117	쌤	138	27	간지	8	여친	8
3	쌤	116	헐	127	28	개념-없다	8	엮다	8
4	찐다	76	대박	109	29	왕따	8	게이	7
5	나대다	51	찐다	84	30	지르다	8	생과	7
6	헐	49	개-	67	31	게이	7	오글거리다	7
7	대박	44	뺑치다	47	32	남이다	7	찌질이	7
8	쓰레기	43	나대다	38	33	야동	7	기가	6
9	뺑치다	42	미친	37	34	찌질하다	7	수원	6
10	남친	28	왕따	28	35	찐따	7	쿨하다	6
11	미친	22	막	23	36	쿨하다	7	하의실종	6
12	여친	20	짱	22	37	팀킬	7	-염	5
13	오키	19	뺑	20	38	겁나	6	뒤담까다	5

14	에바	17	-음	16	39	놀토	6	빠이	5
15	강	16	쓰레기	16	40	뽕	6	아동	5
16	알바	16	진실게임	16	41	뽕까다	6	왕-	5
17	진실게임	16	진심	15	42	오크	6	초딩	5
18	짱	16	전파	15	43	장난아니다	6	랩	4
19	갑치다	13	강	14	44	콜	6	귀요미	4
20	뒷담까다	13	뒷담	12	45	-음	5	루저	4
21	뽕치다	13	뒷담까다	12	46	가관	5	뽕쫄하다	4
22	막	12	애프	11	47	낙시	5	사문	4
23	변태	11	뽕치다	10	48	드립	5	생일뽕	4
24	애프	11	알바	9	49	랩	5	선뽕날리다	4
25	쑤비	11	남친	8	50	뽕까다	5	아이돌	4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완전’이 1위로 나타났지만 빈도에서는 여학생이 435회로 남학생 171회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 ‘완전’ 이후 5위까지의 순위에서 보이는 유행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학생이 ‘개-’와 같은 비속어나 ‘나대다’와 같이 비방에 사용되는 유행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면, 여학생은 ‘헐, 대박’과 같이 감탄 기능을 하는 유행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 남학생: 개- > 샘 > 찢다 > 나대다

▪ 여학생: 샘 > 헐 > 대박 > 찢다

■ 남학생은 주로 게임, 인터넷과 관련한 유행어가 출현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외모, 친구, 이성애에 대한 유행어가 출현하고 있었다.

▪ 남학생: 팀킬, 만렙, 텍, 랩, 파워캐, 업글, 옥배틀, 낙시, 리얼샷, 도배방

▪ 여학생: 하의실종, 절친, 훈남, 남친, 여친, 동안, 뽕꼬치마, 뽕머리, 루저

길막! 욕, 옥배틀 했어 그 새끼랑. <중학교, 남자>

티셔츠가 완전 긴 거야. 무릎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 하의실종이라고 언니들이 막 찢어보고 그랬어. <초등학교, 여학생>

머리 염색하고 파마하고 씨발 완전! 뽕꼬치마였어, 뽕꼬치마! <고등학교, 여자>

다. 지역별

유행어의 지역별 사용 실태를 보면, 경인 지역 101개, 강원 지역 139개, 충청 지역 90개, 전라 177개, 경상 115개, 제주 100개의 유행어 목록이 출현하였다. 50위까지의 목록과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20>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입말)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완전	124	완전	101	완전	77	완전	76	샘	127	완전	150
2	개-	65	샘	37	헐	29	찢다	59	완전	78	샘	51
3	쓰레기	42	대박	30	찢다	27	막	34	헐	48	대박	45
4	나대다	33	헐	26	나대다	18	헐	34	개-	28	개-	41
5	미친	23	진실게임	25	대박	17	대박	28	-음	21	남친	27
6	헐	23	개-	17	샘	15	개-	19	쑤비	13	강	26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7	대박	22	나대다	17	개-	14	오키	19	절다	13	절다	26
8	빡치다	22	절다	17	진심	11	빡치다	15	빡치다	12	빡치다	20
9	절다	18	알바	14	엠창	10	미친	13	대박	11	혈	15
10	에바	17	왕따	12	빡치다	9	샘	13	미친	7	여친	11
11	샘	11	빡치다	11	짱	9	나대다	12	찌질하다	7	레알	7
12	엠창	11	짱	6	수원	8	짱	12	나대다	6	미친	7
13	뒷담까다	7	하의실종	6	남친	7	워다	9	뽕	5	빡가다	7
14	여친	7	뽕	5	오크	7	뒷담	8	웹툰	5	뽕	7
15	왕따	7	간지	4	뒷담까다	5	왕따	8	뒤담까다	4	기가	6
16	게이	6	도배	4	미친	5	전파	8	변태	4	뒷담까다	6
17	장난아니다	6	뒷담까다	4	여친	5	잡치다	7	뽕치다	4	뽕치다	6
18	쿨하다	6	미친	4	탐킬	5	생과	7	생기부	4	왕따	6
19	~캠	5	아이돌	4	개념없다	4	진실게임	7	자살랜드	4	찌질이	6
20	레알	5	전파	4	반삭	4	게이	6	개념없다	3	짱	5
21	뽕까다	5	과워캐	4	사문	4	놀토	6	겁나	3	전파	5
22	뽕치다	5	누규	3	생일뽕	4	변태	6	뒷담마	3	귀요미	4
23	진심	5	답살	3	쓰레기	4	뽕	6	싱크로	3	잡치다	4
24	전파	5	드립	3	잡치다	3	뽕치다	6	쓰레기	3	남다	4
25	남이다	4	만렙	3	뒷담화	3	엮이다	5	왕-	3	랩	4
26	뒷담	4	멍때리다	3	물카	3	가관	4	젤	3	셀카	4
27	루저	4	미니미	3	물로보다	3	겁나	4	쿨하다	3	연수	4
28	선빵날리다	4	변태적	3	얼큰이	3	레알	4	혐오물	3	한사	4
29	짱	4	속사포렙	3	절친	3	쓰레기	4	가오	2	-염	3
30	길막	3	스크린샷	3	토나오다	3	뇌전	3	강	2	간지	3
31	비번	3	쓰레기	3	뒤담까다	2	뒷담까다	3	까칠하다	2	나대다	3
32	야동	3	팬픽	3	퐁꼬치마	2	파다	3	눈정화	2	남시	3
33	엄창	3	게이	2	반삭하다	2	렙	3	니키키	2	빠이	3
34	육배틀	3	남친	2	뽕터지다	2	뽕쭈하다	3	당근	2	뽕세다	3
35	은파	3	도배방	2	뽕	2	업글	3	떨구다	2	쓰레기	3
36	진렘	3	레드브라운	2	스카이	2	여주	3	레벨스트로	2	알바	3
37	겁나	2	망할	2	아구몬	2	여친	3	텍	2	야동	3
38	고딩	2	물킴	2	알바	2	오글거리다	3	알바	2	에스씨	3
39	귀척	2	본방	2	에바	2	지르다	3	야동	2	오케	3
40	꼬꼬마	2	뽕쭈하다	2	엄창	2	쿨	3	왕따	2	차사고	3
41	남시	2	스키니	2	이메가바이트	2	-염	2	정색	2	지르다	3
42	뒤담까다	2	암바	2	진때	2	간지남	2	정색하다	2	곱둥이	2
43	드립	2	암살왕	2	간지나다	1	광팬	2	존재감	2	공공의적	2
44	퐁머리	2	야동	2	강	1	남이다	2	짱	2	급이 있다	2
45	무너	2	어플	2	고고쟁	1	남자오키	2	초딩	2	뽕튀	2
46	센 척	2	오글거리다	2	귀두꿇	1	다굴	2	토윌	2	뽕꾸뽕꾸	2
47	시비털다	2	조인	2	돌플러스아이	1	덜덜	2	탐킬	2	소맥	2
48	썸씽	2	출석체크	2	뒤땅	1	동인년	2	훈남	2	씨클	2
49	쓰벌	2	쿨	2	뒷담	1	따	2	-테쓰	1	오글거리다	2
50	알바	2	쿨하다	2	들이대다	1	떡지다	2	-입	1	왕자병	2

■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행어로 조사되었다.

■ 5위까지의 순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경인: 완전 > 개- > 쓰레기 > 나대다 > 미친
- 강원: 완전 > 샘 > 대박 > 혈 > 진실 게임
- 충청: 완전 > 혈 > 절다 > 나대다 > 대박
- 전라: 완전 > 절다 > 막 > 혈 > 대박
- 경상: 샘 > 완전 > 혈 > 개- > -음
- 제주: 완전 > 샘 > 대박 > 개- > 남친

■ 10위까지의 유행어 중 6개 지역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목록을 보면, 비속어나 공격적 표현에 사용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개-, 나대다, 혈, 대박, 절다

(3) 사용 화자 수에 따른 유행어의 목록과 특징

전체 조사 대상자 216명 가운데 유행어를 1회 이상 사용한 화자 수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유행어는 조사 대상자 전체가 1회 이상의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성별에 차이 없이 청소년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 화자 수가 4명 이상인 유행어 목록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유행어의 사용 화자 수 빈도(입말)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순위	형태	사용화자수	비율
1	완전	143	66.2%	31	쿨하다	8	3.7%
2	헐	76	35.2%	32	-음	7	3.2%
3	대박	73	33.8%	33	깁치다	7	3.2%
4	쩔다	68	31.5%	34	야동	7	3.2%
5	개-	65	30.1%	35	오글거리다	7	3.2%
6	쌈	53	24.5%	36	개념-없다	6	2.8%
7	빡치다	42	19.4%	37	에바	6	2.8%
8	미친	37	17.1%	38	지르다	6	2.8%
9	나대다	33	15.3%	39	간지	5	2.3%
10	짱	30	13.9%	40	드립	5	2.3%
11	쓰레기	24	11.1%	41	랩	5	2.3%
12	뒷담까다	23	10.6%	42	변태	5	2.3%
13	여친	19	8.8%	43	쑈미	5	2.3%
14	왕따	16	7.4%	44	찌질하다	5	2.3%
15	뽕	15	6.9%	45	초딩	5	2.3%
16	강	14	6.5%	46	남이다	4	1.9%
17	알바	14	6.5%	47	뒷담화	4	1.9%
18	전따	13	6.0%	48	렉	4	1.9%
19	막	12	5.6%	49	빠이	4	1.9%
20	뽕치다	12	5.6%	50	뽕쑈하다	4	1.9%
21	뒷담	11	5.1%	51	업창	4	1.9%
22	레알	11	5.1%	52	오크	4	1.9%
23	진실게임	11	5.1%	53	왕-	4	1.9%
24	찌질이	10	4.6%	54	은따	4	1.9%
25	게이	9	4.2%	55	절친	4	1.9%
26	남친	9	4.2%	56	젤	4	1.9%
27	엠픽	9	4.2%	57	페인	4	1.9%
28	겉나	8	3.7%	58	현질	4	1.9%
29	진심	8	3.7%	59	훈남	4	1.9%
30	쿨	8	3.7%				

▣ ‘완전’이 143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 66.2%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헐(35.2%)’, ‘대박(33.8%)’, ‘쩔다(31.5%)’, ‘개-(30.1%)’가 30% 이상의 화자가 사용하는 유행어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자 중 10% 이상의 화자가 사용하는 유행어는 총 11개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헐’과 ‘쌈’, ‘대박’을 제외하고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완전, 미친), 비속어(쩔다, 개-, 빡치다, 짱, 쓰레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 고빈도순 목록과 사용 화자 수 목록의 20위까지의 유행어를 비교해 본 결과 총 18개 목록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 목록이 현재 청소년 집단에 널리 퍼져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행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빈도 목록과 화자 수 목록 동시 출현	고빈도 목록 출현	화자 수 목록 출현
개-, 강, 나대다, 대박, 뒷담까다, 막, 미친, 뺑치다, 뺑, 샘, 쓰레기, 알바, 여친, 완전, 왕따, 짱, 찼다, 헐 (18개)	남친, 짱 (2개)	뺑치다, 찼따 (2개)

2. 글말·통신언어 수집 조사

2.1 조사 목적과 내용

1) 조사 목적

글말·통신언어 조사의 목적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쓰기와 인터넷 문자 소통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비속어 및 공격적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를 조사하여 청소년의 글말과 통신언어에 나타난 언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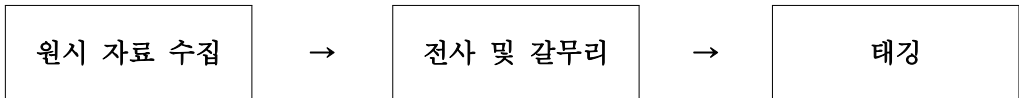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언어폭력을 일으키는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 규범 파괴를 일으키는 은어·유행어의 사용 실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구분	내용
비속어·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속어의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비속어의 학교급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별 사용 비율▪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별 특징
은어·유행어의 사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어의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은어의 학교급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유행어의 전체 목록과 출현 빈도▪ 유행어의 학교급별, 지역별 목록과 출현 빈도

2.2 조사 방법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글말·통신언어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자료 수집

본 조사에서는 글말 수집을 위하여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언어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글말은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수필 형식의 글쓰기와 특정 친구에게 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롤링페이퍼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통신언어는 학급 커뮤니티 및 미니홈피 게시판 글, 댓글을 수집한다.

구분	내용
글말	<div><div>□ 문어체 문어: 작문(기억에 남는 일)</div><div>▪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친구나 가족과 있었던 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체험 활동이나 여행을 다녀온 소감, 영화를 본 일 등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사건을 적는다.</div><div>□ 구어체 문어: 롤링페이퍼⁵¹⁾</div><div>▪ ‘나, ○○에게 말해 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종이를 친구들에게 돌린다. 반 친구들은 해당 친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익명으로 적는다.</div></div>
통신언어	<div><div>□ 일방향 소통: 학급 커뮤니티 및 미니홈피 게시판 글</div><div>□ 양방향 소통: 학급 커뮤니티 및 미니홈피 댓글</div></div>

51) 롤링페이퍼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명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급 친구들 상호간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타낼 수 있다.

<표 4-22> 학교급·지역별 규모(글말·통신언어)

지역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인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강원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충청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전라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경상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제주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1개교*1학급	3학급
합계	6학급	6학급	6학급	18학급

2) 전사 및 갈무리

(1) 수집 자료 규모

본 연구의 수집 자료는 글말이 총 117,955어절로,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7,589어절, 중학교 32,170어절, 고등학교 58,196어절이 조사되었다.

<표 4-23> 글말 자료 수집 규모

(단위: 어절)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작문	롤링페이퍼	작문	롤링페이퍼	작문	롤링페이퍼	
경인	2,317	3,208	2,193	1,746	3,794	6,269	19,527
강원	2,383	3,303	3,934	3,709	5,142	9,006	27,477
충청	2,084	2,626	3,403	1,704	3,544	5,556	18,917
전라	1,770	1,651	3,287	2,386	3,283	2,431	14,808
경상	2,634	2,501	3,422	2,974	4,102	4,709	20,342
제주	2,000	1,112	2,232	1,180	4,404	5,956	16,884
합계	13,188	14,401	18,471	13,699	24,269	33,927	117,955
	27,589		32,170		58,196		

통신언어는 총 103,084어절로, 초등학교 34,596어절, 중학교 33,989어절, 고등학교 34,499어절이 조사되었다.

<표 4-24> 통신언어 자료 수집 규모

(단위: 어절)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게시판	댓글	게시판	댓글	게시판	댓글	
경인	5,018	519	5,185	538	5,016	636	16,912
강원	5,057	545	5,056	541	5,034	513	16,746
충청	5,020	535	5,084	546	5,007	509	16,701
전라	5,332	561	5,108	522	5,468	530	17,521
경상	5,128	636	5,001	505	5,552	537	17,359
제주	5,592	653	5,367	536	5,039	658	17,845
합계	31,147	3,449	30,801	3,188	31,116	3,383	103,084
	34,596		33,989		34,499		

- 작문과 롤링페이퍼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전사하여 파일로 생성한다.
- 학급 커뮤니티 및 미니홈피 게시판 글, 댓글은 온라인상의 자료를 갈무리하여 파일로 생성한다.

□ 작문

수학여행 갔을 때-푸른 바다를 보아서 기분이 좋음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중국으로 감) 많은 쟁계들과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포장마차 거리로 가서 각종 냄새들을 맡으며 힘들게 걸어 감
수업 시간에 망할 선생님들로 인하여 뻥침
놀이공원에 가서 친구와 함께 바이킹을 너무 많이 타 질림 서울에 있는 동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그리움 내 짝이라는 놈은 내가 무슨 말만하면 옆에서 지랄을 떨어대고 새로 전학 온 새끼는 존나 나대며 애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병신 같은 놈 씹, 기분 더러움
시험 성적이 밑으로 밑으로 하락하여 매우 슬픔, 가끔은 새상 살기가 매우 싫어짐 지금 현재 안경다리가 뿌러져서 뻥침

□ 롤링페이퍼52)

1:애자~~!!!!!!~ 애자~~~!!
1:병신아 야 이 병신아
2:돌아이 짓 그만해~!
1:홍태! 안녕 ㅋㅋㅋ
2:띠엣? ㅋㅋ DRI1 닌 이미지를 담당하셈 ㅋ
1:태원아 난 너의 선거권을 믿어 ㅋㅋㅋㅋ
1:게이 ㅂㅇ
1:꺼져! ㅂㅂ나 그냥 너는... 율곡 병원으로 가자구나!
1:애자!! DRY 1!! 이제~ 장난 전화 No×2
1:신태양 FAM
1:널 믿어..^^
2:안녕 ㅋㅋ 너의 짝꿍은 정말 최고야~ 넌 그걸 아닝? ㅋ
2:DRY원!!! 너로 인해 DRY가 탄생한 만큼 넌 꼴끼가 가득해 ㅋㅋㅋㅋㅋㅋㅋ
1:ㅋㅋㅋㅋ 안녕 ㅋㅋ 할 말 없다ㅋㅋ
2:애자!! 아프지 말고 ㅋㅋ 정신 병원도 한번....??ㅋㅋ
2:너는 장애인 짓 좀 안 했음 좋겠어 ^^ㅋ
1:나한테 좀 띠겁게 안 굴었으면 좋겠어
1:기타 좇밥이 왜 갑침?—_—
1:애자 태원 ㅈㅈㅈㅈㅈㅈㅈㅈ
2:DRy ㅎㅎ? 장애짓 자재 좀;
1:홍태원 찌질이 빠가 존나 쪼잔해
2:우아~~ 펜 이쁘다 ㅋㅋㅋㅋ 나 누구게 ㅎㅎ 홍어 홍어 -홍어~ 미안..
2:DR1 장애인 짓 하지마 쫌
1:넌 그냥 장애인 가태... 여드름 관리해
2:안녕! 너 공부 좀 해! 1학년 땀 잘 했는데?
2:안녕^_
1:띠엑! 장애인 짓 하지 마 ㅋㅋ

□ 제시판 글

학원 정말 지긋 지긋 지긋해 — 지금 학원 가야되는데 위가 아픈데 위가 아프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학원을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하면 병원을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병원 문 닫혔으면 좋겠는데 닫혔나??????? 학원 정말 가기 싫은데 위아픈데 학원 가면 위가 더 아픈데 학원을 가야된다니 썩팔루배 ㅣ 미 도랏나 니미랄 씨바 비바비빼빼 ㅣ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씨볼땅구리 아 ㅣ ㅇ이이이ㅣ 잉이이이ㅣ

52) 화자 1은 남학생, 화자 2는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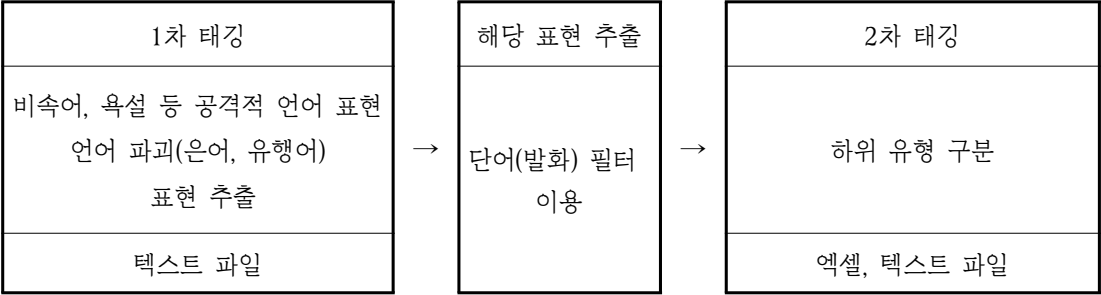
□ 댓글

- 1: ㅇㅈㅋ 은근접사
-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은근히-근접-사진이에요 ㅎㅎ- ○○○이 쓴 거 아님-
- 4: ㅋㅋㅋㅋ 난 특공대 3기!!! ㅋㅋㅋ
- 5: 너 누구?!
- 6: 안 궁금해
- 7: ㅋ 우리반이다... 내 얼굴은 안 나왔네 ^^
- 8: ㅋ 난 내가 사진 들고 있어서 안 찍혔으.. ㅋ
- 9: ○○이 앓녕~ㅋㅋㅋㅋ
- 10: ○○○ 놀기만 하 ㄱㅈㅋ ㅋ
- 11: 그-놈W 땀시 나 담주에 또 주변 뛰어야 한다고 !!!!
- 12: 카가메 ○○○이네~~ ㅋ
- 13: π,τ 으헹헹.. 전 나름 열심히....
- 14: ㅋㅋㅋ 엄휘 ㅋㅋㅋㅋㅋ 저거 누구 엉덩이야 ㅋㅋㅋ
- 15: 아 ㅁㅈ 내 면상 ㅋㅋㅋㅋ
- 16:사탕..... (츄릅)
- 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지금
바사는데도 웃기 ㄷㅈㅋ
- 18: π-τ 일정 변경....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 해야되...
- 19: 혈?? 건의한게 너였냐!!!!!!!!!!!!!!!!!!!!!!!!!!!!!! (머.. 난 좋지만... ㅋㅋㅋ)
- 20: 아..... 글애 글애..... ㅋ
- 21: ㅋ 오냐
- 22: ㅇㅇ 근데 안된데.....
- 23:
- 24: 원 소리인지 몰라서
- 25: 마즘 너가 체육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높여야 ㅎㅎ 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수요일
체육을 7교시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 26: ㅋㅋㅋㅋㅋㅋㅋ 해봄~~ ㅋ 도덕이랑-체육을-봐꿀까?? ㅋ
- 27: ㅋㅋㅋㅋㅋ 몰라 도덕이 언제 들었더라 ㅋ
- 28: 할 말 없다... ㅋ
- 29: 야 건의 사항이 웰케 많냐
- 30: 건의글만 많군 ㅇㅇ
- 31: ㅋ ㅇㅇ ㅋ
- 32: 저... 전 6번 이에요!

3) 태깅

□ 비속어 및 공격적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 등의 빈도를 계산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해 낼 수 있도록 해당 표현에 주석을 부착한다.

▪ 태깅(tagging) 작업은 다음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가. 1차 태깅

- 자료 형식: 한글 파일
- 분석 단위: 해당 표현
- 분석 내용: 언어폭력(비속어, 공격적 언어 표현), 언어 파괴(은어, 유행어) 표현 태그

나. 2차 태깅

- 비속어, 은어, 유행어
- 자료 형식: 엑셀 파일
- 분석 단위: 단어

▪ 비속어·은어·유행어의 유형

대표유형	비속어	유행어	은어
정의	통속적인 저속한 말	한때 집중적으로 쓰이는 말 (사라지거나 일상어로 자리잡음.)	특정 집단에서 비밀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끼리 사용하는 말
예시	좃나, 지랄, 씨발, 뽕치다, 미친년, 찌따	완전, 헐, 대박, 미친, 나대다, 레알	가짜 게임, 겨털, 친삭, 도배

▪ 공격적 언어의 하위 유형

	정의	예시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 훼손하며 공격함.	씨발 새끼야, 시발년아, 좆밥 새끼야, 갑치지 마, 니미 씨부릴, 좆도 못생긴 새끼, 고이거나 처먹어라
저주	초인적인 자연이나 신적 존재, 제3의 힘에 의해 상대방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함.	고자나 되라, 그러다 저주 받는다, 길가다가 굴러라, 나락으로 떨어져라, 망해버려라, 응카 나 밟아라, 시험 망쳐버려라
협박	공격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 화자의 이익 위해 공격함.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고자 시킬 꺼야, 나대면 밟는다, 욕하면 DIE, 목 날라간다, 입을 확 찢어버린다
비방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동작, 성상 등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 훼손함.	개념 없는 것, 고자질쟁이, 공부벌레 징그러워, 귀엽고 예쁜 척하지 마, 돼지야, 애자, 너무 시꺼매, 게이 같애, 여드름 괴물아, 엉덩이킹

다. 3차 태깅

- 2차 태깅을 하면서 나타났던 오류, 수정된 내용을 보완하여 3차 태깅을 실시한다.

라. 분석

- 분석도구로는 엑셀을 활용한다.
- 출현 빈도와 사용 비율을 분석한다.

2.3 조사 결과

□□ 비속어 사용 실태

가. 비속어 사용 비율

비속어는 글말에서 250개, 통신언어에서 236개가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는 글말이 954회, 통신언어가 817회로, 글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글말과 통신언어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출현 어휘 수와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나. 비속어 어휘 목록의 특징

글말은 ‘ㄱ, 존나, 개-, 씨발, 찌파, 찢다, 시발, ㅅㅂ, 새끼, 놈’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특히 통신상에서 나타나는 모음 표기인 ‘ㄱ(fuck you)’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통신언어는 ‘개-, 존나, 찢다, ㅅㅂ, ㄱ, 병신, 시발, 빠치다, ㅇㅈㄹ, ㅂㅂ’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자음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 변인에 의하면 글말에서는 초등학생은 ‘시발, 씨ㅂ, 십파’처럼 하나의 형태에 대한 변이 형태가 많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휘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통신언어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비속어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발, 새끼’ 등의 빈도가 6개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통신언어에서는 6개 지역 모두 ‘개-’의 사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씨발, 병신, 미친’ 등의 사용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1) 비속어 사용 실태

(1) 고빈도 비속어의 목록과 특징

· 비속어는 글말에서 250개, 통신언어에서 236개가 출현하였고, 총 사용 횟수는 글말이 954회, 통신언어가 817회로 나타났다.

· 글말은 ‘ㄱ, 존나, 개-, 씨발, 찌파, 찢다, 시발, ㅅㅂ, 새끼, 놈’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통신상에서 유행하는 음소 표기인 ‘ㄱ(fuck you)’가 글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글말에도 통신언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통신언어는 ‘개-, 존나, 찼다, ㅅㅂ, ㄱ, 병신, 시발, 빠치다, ㅇㅈㄹ, ㄴㅂ’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ㅇㅈㄹ, ㄴㅂ, ㄴㅅ, ㅈㄴ, ㄱㅈ, ㅅㅂ’ 등의 자음 표기와 ‘C8, S니미, see발, 개-to-the-망’과 같이 영어 표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글말·통신언어는 한 형태에 대한 다양한 변이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씨발, 새끼’는 다양한 변이 형태로 압도적인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 씨발: ㅅㅂ, ㅅㅂ, ㅅㅂ, 쉬발, 슈 ㅂㅂ, 슈박, 슈발, 스벌, 식발, 시바, 시발, 시방, 시뵙, 시바, 시버, 싸발, 쑈발, 쑈보, 쑈발, 씨발, c8, C8, see발, She발, thㅣ 발, thㅣ바
- 새끼: ㅅㅂ, ㅅㅂ, 새끼, 새끼, 새끼, 색이, 색히, 생키, 생키, 색히, 세끼, 세히, 색키, 쉼끼, 쉬키, 스키, 습기, 시끼, 시키

▪ 비속한 접두사 ‘개-’가 부정 표현 외에 긍정 표현에까지 결합하여 매우 생산성이 높고, 출현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체언>

- 긍정: 개여신, 개간지
- 부정: 개삽질레, 개조뽀, 개년, 개놈, 개고생, 개실망, 개병맛, 개병신, 개드립, 개객기, 개뽕, 개거지 등

<용언>

- 긍정: 개잘되다, 개귀엽다, 개멋있다, 개이쁘다, 개좋다, 개사랑스럽다, 개바르다, 개웃기다 등
- 부정: 개망하다, 개무섭다, 개불편하다, 개싫다, 개짱나다, 개실망이다, 개못하다, 개욕기다, 개무시하다, 개띠겁다, 개빠치다, 개썰리다, 개지랄하다, 개지랄떨다, 개찼다, 개쪼다 등

<수식언>

- 개많이, 개레알(수식어는 뒤에 오는 표현에 따라 긍정·부정 표현이 달라짐.)

<표 4-25> 고빈도 비속어의 출현 빈도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1	ㄱ	70	개-	73	57	쌍년	3	시키	3
2	존나	45	존나	73	58	씨발롬	3	여깡	3
3	개-	41	찼다	39	59	야매	3	이놈	3
4	씨발	40	ㅅㅂ	37	60	열라	3	조지다	3
5	찼다	37	ㄱ	35	61	옛먹다	3	c8	2
6	찼다	32	병신	27	62	오덕쿠	3	개망	2
7	시발	27	시발	22	63	자빠지다	3	개뿔	2
8	ㅅㅂ	25	빠치다	14	64	전나	3	구라	2
9	새끼	21	ㅇㅈㄹ	14	65	좁밥	3	꾸지다	2
10	놈	20	ㅂㅂ	13	66	쪼	3	대갈	2
11	ㅅㅂ	20	새끼	12	67	짜수	3	똥강아지	2
12	ㅂㅂ	18	줄라	12	68	쪽팔리다	3	마뻡	2
13	잡치다	16	니미	10	69	쳐먹다	3	배신편리다	2

14	넌	16	넌	9	70	털리다	3	병맛	2
15	뽕	15	ㅁㅅ	9	71	호구	3	빠넌	2
16	붕신	14	씨발	9	72	개새끼	2	빡세다	2
17	갈구다	12	ㅈㄴ	9	73	개자식	2	뽕즙하다	2
18	빡치다	12	쳐-	9	74	개관	2	색히	2
19	병아	11	쪽팔리다	8	75	꾸지다	2	시뻡	2
20	꺼지다	10	미친	7	76	대가리	2	시바	2
21	구라	9	바보	7	77	돼지새끼	2	십장구	2
22	바보	9	지랄	7	78	돼지새끼	2	씨	2
23	짜지다	9	눔	6	79	따까리	2	씨뽕	2
24	뜨다	8	디지다	6	80	또라이	2	씨빠	2
25	쳐-	8	쌍	6	81	마빡	2	썹	2
26	아구창	7	썹다	6	82	말뽕	2	썹망	2
27	여병추	7	좃	6	83	맛장	2	엇	2
28	줄라	7	좃다	6	84	ㅂㅅㅅ끼	2	이눔시키	2
29	개새끼	6	다굴	5	85	ㅁㅅ	2	이따구	2
30	논	6	딸리다	5	86	ㅅㅅ	2	자식	2
31	띠껍다	6	ㅁㅅ	5	87	ㅅ끼	2	전나	2
32	시키	6	이년	5	88	사시	2	ㅂ	2
33	임마	6	전따	5	89	시끼	2	촌넌	2
34	지랄	6	s니미	4	90	시발넌	2	캐-	2
35	병신	5	꺼지다	4	91	시발눔	2	파포	2
36	새키	5	니미랄	4	92	시보랄	2	Fucking	1
37	좃갈다	5	미치다	4	93	시비털다	2	see발	1
38	짜식	5	미친넌	4	94	새끼	2	She발	1
39	쪽	5	쌍	4	95	쌍	2	thl마	1
40	뒤지다	4	시바	4	96	씨발넌	2	th 발	1
41	디지다	4	십자루	4	97	씨발눔	2	X팔리다	1
42	미친눔	4	ㅅㅅ	4	98	썹새끼	2	갈구다	1
43	ㅂㅂ	4	짜지다	4	99	아씨	2	개-to-the-망	1
44	존라	4	째다	4	100	앵기다	2	개ㅅㅅ	1
45	줄	4	찌질	4	101	엠병	2	개새꾸	1
46	좃밥	4	호구	4	102	이난	2	개새끼	1
47	짜다	4	까먹다	3	103	자식	2	개새키	1
48	조개다	4	깁치다	3	104	조밥	2	개색기	1
49	조잔하다	4	꼬리다	3	105	존니	2	개식	1
50	찌질이	4	뒷담가다	3	106	줄귀	2	개쓰끼	1
51	거지	3	또라이	3	107	좃만하다	2	개쪽	1
52	까다	3	맛짱	3	108	지랄떨다	2	거지깽깽이	1
53	또라이	3	발리다	3	109	쪼다	2	길레넌	1
54	뽕즙하다	3	삽자루	3	110	전따새끼	2	고자	1
55	새까	3	시망	3	111	캐-	2	고자새끼	1
56	스키	3	시발넌	3	112	턱주카리	2	고자시키	1

(2) 변인별 비속어의 목록과 특징

가. 학교급별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학교급별 비속어 목록과 특징

▪ 고등학생의 어휘수(155개)와 출현 빈도(434회)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어휘수가 91개, 출현 빈도가 295회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어휘수가 89개, 225회로 나타나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초등학생은 ‘시발, 씨발, 쉬발, 십파’처럼 하나의 형태에 대한 변이 형태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반면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속어가 다양하게 저속한 표현이 많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통신상에서 쓰이는 비속한 음소 표기인 ‘ㄱ(fuck you)’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통신언어가 오프라인상의 글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비속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접두사 ‘개-’가 전체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를 활용한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였다.

<표 4-26>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ㄱ	34	ㄱ	30	개-	28
2	전따	30	존나	14	씨발	24
3	시발	20	갑구다	9	쩔다	18
4	씨발	18	개-	8	존나	17
5	씨발	16	쩔다	7	ㅅㅂ	16
6	존나	14	놈	6	놈	13
7	병아	11	전따	6	새끼	13
8	ㅂㅅ	8	구라	5	붕신	11
9	빡치다	7	년	5	년	9
10	쩔다	7	새끼	5	깡치다	8
11	뺑	6	ㅂㅂ	4	ㅂㅅ	8
12	개-	5	뺑	4	아구창	7
13	깡치다	5	ㅅㅂ	4	여병추	7
14	ㅅㅂ	5	시키	4	꺼지다	6
15	짜지다	5	존라	4	ㄱ	6
16	바보	4	쳐-	4	임마	6
17	짜다	4	깡치다	3	뺑	5
18	거지	3	꺼지다	3	시발	5
19	새끼	3	논	3	졸라	5
20	개새끼	2	뜨다	3	좃같다	5
21	개새끼	2	띠껍다	3	구라	4
22	꾸지다	2	스키	3	디지다	4
23	년	2	아매	3	빡치다	4
24	돼지새끼	2	오덕꾸	3	새끼	4
25	뜨다	2	전나	3	좃밥	4

26	미친놈	2	짜스	3	지랄	4
27	ㅂㅅㅅ끼	2	짜지다	3	짜식	4
28	붕신	2	쪽팔리다	3	조잔하다	4
29	ㅅㄱ	2	대가리	2	병신	3
30	ㅅ끼	2	또라이	2	갈구다	3
31	앵기다	2	ㅂㅅ	2	개새끼	3
32	이난	2	바보	2	논	3
33	자빠지다	2	사시	2	뒤지다	3
34	존니	2	시발	2	뜨다	3
35	줄	2	엿병	2	띠껍다	3
36	줄라	2	줄키	2	바보	3
37	쪽	2	조개다	2	뽕줄하다	3
38	찌질이	2	쳐먹다	2	쌍년	3
39	병신	1	병신	1	씨발름	3
40	×되다	1	×두일	1	열라	3
41	×무한	1	×치다	1	줍밥	3
42	개뿔	1	개새끼	1	쪽	3
43	개세기	1	개세	1	쳐-	3
44	까다	1	깡대다	1	개자식	2
45	까먹다	1	꼬라보다	1	개판	2
46	깡죽대다	1	꼰대	1	까다	2
47	꺼지다	1	꼴리다	1	따까리	2
48	꼴똥	1	눈깔	1	또라이	2
49	놈	1	돌대가리	1	말빨	2
50	다굴	1	돼지새끼	1	새까	2
51	뒤지다	1	딱까리	1	시끼	2
52	딸리다	1	딸-	1	시발년	2
53	또라이	1	딸보	1	시발놈	2
54	마뺏	1	ㄱㅈ	1	시보탈	2
55	마뺏이	1	맞장	1	시키	2
56	맞장	1	미친놈	1	쓰ㅂ	2
57	미×	1	바부	1	쌔끼	2
58	ㅂㅅㅅㄱ	1	바위대가리	1	쌍	2
59	병나	1	붕신	1	씨발놈	2
60	병식	1	뺏치다	1	씹새끼	2
61	비듬새끼	1	뺏	1	아씨	2
62	ㅂㅅ	1	뺏이다	1	엇먹다	2
63	ㅂㅅ년	1	뺏치다	1	자식	2
64	샴	1	새까	1	조밥	2
65	새끼	1	새키	1	죃	2
66	쉐끼	1	색하	1	죃만하다	2
67	쉬발	1	생키	1	지랄떨다	2
68	시비털다	1	세히	1	쪼다	2
69	십과	1	시바	1	찌질이	2
70	쌈치다	1	시버	1	캐-	2
71	쌔끼	1	시비털다	1	털리다	2
72	씨발년	1	싸대기	1	호구	2
73	아구지	1	쌔비다	1	개××	1
74	연나	1	씹다	1	개생키	1
75	엇먹다	1	아리다	1	개색히	1
76	엇받다	1	엄창	1	걸래	1
77	ㅈㄱ	1	오덕후	1	게시키	1
78	장애-ㅅㄱ	1	존냐	1	까이다	1
79	족	1	줄	1	깡땡이년	1
80	지랄	1	죃	1	깡디년	1

81	짜식	1	주둥이	1	깡사다	1
82	제리다	1	죽방	1	깡다구	1
83	쪼개다	1	지랄	1	녀석	1
84	찍히다	1	짜고치다	1	눔	1
85	전다새끼	1	쪼뽕	1	니미	1
86	전따새끼	1	전따새끼	1	돌아이	1
87	쳐-	1	친구먹다	1	돼지새끼	1
88	치다	1	호구	1	돼지시키	1
89	턱주加里	1			똥	1
90	털리다	1			똥끼	1
91					똥개	1
92					마빡	1
93					맛짱까다	1
94					미친	1
95					미친놈	1
96					발리다	1
97					방뎡이	1
98					뱅신	1
99					병클	1

■ 통신언어에 나타난 학교급별 비속어 목록과 특징

▪ 초등학생의 어휘수(23개)가 월등히 적었고, 중학생의 어휘수(139개)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어휘수는 134개로 중학생과 비슷하게 출현하였다. 사용 횟수는 초등학생이 총 35회, 중학생이 383회, 고등학생이 399회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씨발, 찢다, 존나’의 표현이 모든 학교급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 중학생은 ‘시발(ㅅㅂ, 시발, 시망, 시바, 시뺑, 시뺑, 씨뺑, 씨뺑, 씨뺑, 씨뺑, 시방, 쑈발, 쑈보, 쑈발, 쑈팔, 씨뺑, 씨뺑, 씨뺑, see발, She발), 새끼(시키, 썬키, 쑈키, 개새꾸, 개새끼, 개새키, 개새기, 개식, 개쓰끼)’의 형태의 변이형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었다.

▪ 비속한 의미의 접두사 ‘개-’는 초등학생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고등학생은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4-27> 학교급별 비속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다굴	5	개-	38	존나	40
2	바보	3	존나	33	개-	35
3	맛짱	2	ㄱ	21	찢다	28
4	ㄱ	2	ㅅㅂ	19	병신	23
5	지랄	2	시발	17	ㅅㅂ	18
6	찢다	2	ㅇㅂㄹ	14	ㄱ	12
7	쪽팔리다	2	ㅂㅂ	10	줄라	10
8	파포	2	니미	9	빡치다	9
9	길레년	1	찢다	9	새끼	9
10	구라	1	ㅂㄹ	7	ㅂㄹ	7
11	꼴받다	1	디지다	6	씨발	6
12	똥کم	1	눔	5	쳐-	6

13	맞짱까다	1	빱치다	5	년	5
14	미치다	1	찢따	5	시발	5
15	ㅅㅅㅅ	1	병신	4	꺼지다	4
16	시다발	1	년	4	떨리다	4
17	심밋트	1	니미랄	4	미친	4
18	씨발	1	쌍	4	바보	4
19	씨×	1	짜지다	4	샴	4
20	존내	1	쩌다	4	십자루	4
21	좃만	1	좃다	4	썩다	4
22	ㅊ	1	까먹다	3	좃	4
23	쳐-	1	ㅊㅊ	3	s니미	4
24			미친	3	꼬리다	3
25			새끼	3	뒷담까다	3
26			여깡	3	ㅂㅂ	3
27			쪽팔리다	3	발리다	3
28			찌질	3	삽자루	3
29			꾸지다	2	이년	3
30			미치다	2	조지다	3
31			미친년	2	지랄	3
32			빠년	2	쪽팔리다	3
33			빨쥬하다	2	호구	3
34			ㅂㅂ	2	개망	2
35			시망	2	깡치다	2
36			시바	2	또라이	2
37			시뻡	2	똥강아지	2
38			시바	2	ㅊㅊ	2
39			시키	2	미친년	2
40			쓰ㅂ	2	배신때리다	2
41			씨발	2	빱세다	2
42			씨밟	2	색히	2
43			씨빠	2	시바	2
44			썩	2	시발년	2
45			썩다	2	십장구	2
46			이년	2	쓰ㅂ	2
47			이놈	2	쌍	2
48			자식	2	썩망	2
49			줄라	2	이따구	2
50			좃	2	ㅈㄴ	2
51			지랄	2	좃다	2
52			쳐-	2	c8	2
53			캐-	2	갈구다	1
54			개뿔	1	개뿔	1
55			개새꾸	1	개ㅅㄱ	1
56			개새끼	1	개쪽	1
57			개새키	1	개-to-the-망	1
58			개색기	1	거지깡깡이	1
59			개식	1	고자새끼	1
60			개쓰끼	1	구라	1
61			고자	1	궁디광팡	1
62			고자시키	1	기집애	1
63			그지	1	까자	1
64			까다	1	꼴통	1
65			까말리다	1	넴	1
66			까이다	1	넴	1

67			깍	1	니미	1
68			깍치다	1	대갈	1
69			꼬봉	1	땀까다	1
70			꿀깍	1	똥푼	1
71			나발	1	뜨다	1
72			날라리	1	口초년	1
73			논	1	마뺨	1
74			눈갈	1	머저리	1
75			대갈	1	미치다	1
76			돼지년	1	병맛	1
77			딸리다	1	병순	1
78			또라이	1	빙신	1
79			띠껍다	1	뺨돌다	1
80			마뺨	1	뽕꾸	1
81			맞짱	1	ㅅㄷㄹ	1
82			병맛	1	새킹	1
83			빠가	1	색히	1
84			ㅅㄷㄹ	1	생일뽕	1
85			새깍똥이	1	생퀴	1
86			새까	1	색키	1
87			색이	1	슈 ㅂ ㅈ	1
88			시1발년	1	슈박	1
89			시발년	1	슈발	1
90			시발라미	1	숙기	1
91			시방	1	식발	1
92			시킵	1	시망	1
93			쌍년	1	시키	1
94			쌍까다	1	써눔	1
95			싸맡	1	씨	1
96			쌍년	1	썹새끼	1
97			쭈발	1	앵기다	1
98			쭈보	1	여덕	1
99			쭈키	1	옛	1
100			췌키	1	옛먹다	1

나. 지역별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지역별 비속어 목록과 특징

· 비속어 수는 경인 지역이 66개, 강원 지역이 133개, 충청 지역이 65개, 전라 지역이 51개, 경상 지역이 41개, 제주 지역이 36개로, 강원 지역에서 비속어 형태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제주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 출현 빈도는 경인 지역이 131회, 강원 지역이 457회, 충청 지역이 128회, 전라 지역이 109회, 경상 지역이 68회, 제주 지역이 61회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 ‘개-’는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하였고, 전라 지역에서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 ‘시발, 새끼, 존나’ 등의 어휘가 6개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표 4-28>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비속어	빈도
1	씨발	13	ㄱ	37	붕신	11	ㄱ	25	개-	6	ㄱ	4
2	개-	7	편따	30	씨발	10	여병추	7	갑치다	4	개-	3
3	아구창	7	존나	24	년	8	존나	7	뜨다	3	구라	3
4	존나	7	시발	21	개-	7	꺼지다	4	ㅂㅂ	3	갑치다	3
5	쩔다	5	쓰ㅂ	20	새끼	5	놈	4	뽕	3	놈	3
6	꺼지다	4	개-	18	임마	5	갑치다	3	열라	3	뽕	3
7	ㅂㅂ	4	ㅂㅂ	18	디지다	4	전나	3	짜속	3	존나	3
8	새끼	4	씨발	17	쩔다	4	쩔다	3	갈구다	2	쪽팔리다	3
9	좃갈다	4	쩔다	16	놈	3	년	2	까다	2	편따	3
10	개새끼	3	ㅂㅂ	13	뒤지다	3	말빨	2	또라이	2	개관	2
11	놈	3	병아	11	ㅂㅂ	3	ㅂㅂ	2	바보	2	논	2
12	뜨다	3	갈구다	10	시발	3	빡치다	2	ㅂㅂ	2	앵기다	2
13	뽕	3	빡치다	9	쌍년	3	뽕	2	새끼	2	오덕쿠	2
14	새끼	3	새끼	8	지랄	3	새끼	2	존나	2	짜식	2
15	씨발놈	3	짜지다	8	뽕	2	엮병	2	쩔다	2	쩔다	2
16	띠껍다	2	놈	7	시발년	2	졸	2	쪼다	2	쪽	2
17	마빡	2	갑치다	6	시보랄	2	졸라	2	쪽	2	갑죽대다	1
18	시발	2	쳐-	5	ㄱ	2	편따	2	개뿔	1	꼬라보다	1
19	쌍	2	구라	4	존나	2	쳐-	2	구라	1	녀석	1
20	씨발놈	2	바보	4	짜식	2	병신	1	년	1	년	1
21	쌌새끼	2	시키	4	병신	1	개새끼	1	논	1	똥	1
22	ㄱ	2	존라	4	개××	1	개새	1	띠껍다	1	미친놈	1
23	지랄떨다	2	좃밥	4	개새끼	1	까다	1	미×	1	ㅂㅂ	1
24	개섹히	1	짜다	4	개생키	1	꼰대	1	바부	1	씨방	1
25	개자식	1	쪼잔하다	4	개자식	1	논	1	새끼	1	아씨	1
26	게시키	1	병신	3	구라	1	눈깔	1	상	1	야리다	1
27	년	1	거지	3	까먹다	1	돼지시키	1	쉬키	1	오덕후	1
28	니미	1	년	3	까이다	1	또라이	1	시키	1	자식	1
29	다굴	1	붕신	3	갑탱이년	1	ㅂㅂ	1	새끼	1	존나	1
30	돼지새끼	1	뽕줌하다	3	갑디년	1	미친놈	1	새비다	1	졸라	1
31	마빡이	1	스키	3	갑사다	1	바보	1	ㅂㅂ	1	주둥이	1
32	맞장	1	좃밥	3	꺼지다	1	뽕	1	졸	1	진상	1
33	맞짱까다	1	찌질이	3	돌대가리	1	뽕이다	1	졸라	1	짓궂이다	1
34	미친	1	개새끼	2	딱까리	1	ㅂㅂ	1	짜식	1	짜식	1
35	바보	1	꾸지다	2	딸리다	1	새까	1	짜지다	1	치다	1
36	방댕이	1	논	2	띠껍다	1	색하	1	째리다	1		
37	병클	1	대가리	2	ㅂㅂ	1	생키	1	쪼개다	1		
38	빠가	1	돼지새끼	2	바보	1	슈발	1	첫빠따	1		
39	빡치다	1	따까리	2	바 위 대가리	1	슈퍼돼지새끼	1	친구먹다	1		
40	뽕뽕	1	또라이	2	새까	1	시바	1	털리다	1		
41	시버	1	뜨다	2	새끼	1	시발	1				
42	시비털다	1	띠껍다	2	세히	1	시키	1				
43	새끼	1	미친놈	2	스별	1	십과	1				
44	씨부릴	1	ㅂㅂㅂㅂ	2	싸대기	1	야매	1				
45	씨불	1	뽕	2	새끼	1	오덕쿠	1				
46	쌌다	1	ㅂㅂ	2	쌍까다	1	자빠지다	1				
47	쌌알	1	ㅂㅂ	2	씨발년	1	지랄	1				
48	아구지	1	사시	2	씨부랄년	1	짜고치다	1				
49	양아치	1	시키	2	쌌새	1	찌질이	1				
50	엇먹다	1	시발놈	2	아마존-두	1	쳐먹다	1				

					꺼비년								
51	임마	1	야매	2	엇먹다	1							
52	죤	1	이난	2	이××	1							
53	죇	1	자빠지다	2	족	1							
54	죤나	1	조밥	2	줄라	1							
55	죇되다	1	죤니	2	죇	1							
56	죇넌	1	죇귀	2	죇같다	1							
57	죇방	1	죇라	2	죇만하다	1							
58	죇빵	1	죇개다	2	죇리다	1							
59	지랄	1	개-	2	짱개	1							
60	지미	1	털리다	2	죇개다	1							
61	쨌히다	1	호구	2	쨌따	1							
62	쨌따	1	×되다	1	쨌따새끼	1							
63	쳐-	1	×두일	1	쳐먹다	1							
64	턱주가리	1	×무한	1	턱주가리	1							
65	호구	1	×치다	1									
66			개새끼	1									
67			개새기	1									
68			걸래	1									
69			깡대다	1									
70			깡다구	1									

■ 통신언어에 나타난 지역별 비속어 사용의 특징

· 비속어 수는 경인 지역이 75개, 강원 지역이 58개, 충청 지역이 76개, 전라 지역이 73개, 경상 지역이 56개, 제주 지역이 29개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 출현 빈도는 경인 지역이 168회, 강원 지역이 117회, 충청 지역이 211회, 전라 지역이 157회, 경상 지역이 123회, 제주 지역이 41회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 강원 지역의 경우, 글말에서는 어휘수와 출현 빈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통신언어에서는 어휘수는 경인, 충청, 전라 지역보다 높지 않았고, 출현 빈도는 제주 지역 다음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 모든 지역에서 비속한 의미의 접두사 ‘개-’의 사용이 매우 높게 출현하였다. 충청 지역, 경상 지역, 제주 지역에서는 1순위로 나타났고, 경인 지역, 강원 지역에서는 2순위로 나타났다. 전라 지역에서는 4순위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6개 지역에 ‘씨발, 병신, 미친’ 등의 사용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표 4-29> 지역별 비속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경인 형태	경인 빈도	강원 형태	강원 빈도	충청 형태	충청 빈도	전라 형태	전라 빈도	경상 형태	경상 빈도	제주 비속어	제주 빈도
1	죤나	25	ㄱ	13	개-	14	병신	16	개-	21	개-	6
2	개-	11	개-	12	ㅇㅈㄹ	14	죤나	16	죤나	13	여짱	3
3	ㅅㅂ	9	쨌다	11	죤나	14	ㅅㅂ	13	씨발	8	심장구	2
4	병신	6	바보	6	쨌다	14	개-	9	빠치다	6	ㄱ	2
5	년	5	상	4	ㅅㅂ	12	씨발	8	니미랄	4	ㅈㄴ	2
6	쨌다	5	줄라	4	ㄱ	11	ㄱ	6	새끼	4	죤나	2
7	심자루	4	꼬리다	3	니미	10	쨌다	5	쨌다	4	쨌다	2

8	좇	4	놈	3	ㅂㅂ	10	씨발	4	병신	2	개뿔	1
9	뒋담까다	3	존나	3	ㅈㄴ	5	지랄	4	ㄱㅈ	2	개쪽	1
10	디지다	3	꺼지다	2	좇라	5	디지다	2	미친	2	꺼지다	1
11	빡치다	3	빡세다	2	ㅂㅂ	4	맞짱	2	빠년	2	꾸지다	1
12	ㅂㅂ	3	빡치다	2	새끼	4	미치다	2	ㅂㅂ	2	년	1
13	삼자루	3	빨쥼하다	2	시발	4	미친년	2	씨빠	2	또라이	1
14	씨발	3	이따구	2	전따	4	ㅂㅂ	2	쌌	2	통강아지	1
15	조지다	3	짜지다	2	s니미	4	ㅂㅂ	2	쌌다	2	ㄱㅈ	1
16	개망	2	파포	2	다굴	3	시뻡	2	이눔시키	2	ㄱㅈ년	1
17	다굴	2	호구	2	딸리다	3	시바	2	좇	2	미치다	1
18	미친	2	c8	2	쌍	3	ㅂㅂ	2	짜지다	2	미친	1
19	미친년	2	병신	1	째다	3	이년	2	찢다	2	발리다	1
20	배신때리다	2	거지쟁쟁이	1	쪽팔리다	3	자식	2	쳐-	2	병순	1
21	새끼	2	기집애	1	병신	2	쳐-	2	촌년	2	빡치다	1
22	시발	2	까다	1	까먹다	2	개뿔	1	개ㅂㅂ	1	씨눔	1
23	시발년	2	까발리다	1	깁치다	2	개새꾸	1	꾸지다	1	씨	1
24	쌍	2	딸리다	1	년	2	개새끼	1	놈	1	쌌다	1
25	씨뺨	2	통강아지	1	대갈	2	개식	1	눈깔	1	이눔	1
26	쌌망	2	ㄱㅈ	1	빡치다	2	개쓰끼	1	디지다	1	ㅈㅁ	1
27	ㄱ	2	마빡	1	샅히	2	개-to-the-망	1	또라이	1	좇라	1
28	전나	2	맞짱	1	시망	2	걸레년	1	미치다	1	쪽팔리다	1
29	좇라	2	미친	1	좇다	2	구라	1	바보	1	호구	1
30	지랄	2	병맛	1	찌질	2	까이다	1	새깁똥이	1		
31	쪽팔리다	2	ㅂㅂ	1	쳐-	2	까자	1	색이	1		
32	찌질	2	새끼	1	갈구다	1	깁치다	1	색히	1		
33	쳐-	2	슈ㅂㅂ	1	개새키	1	꺼지다	1	색키	1		
34	고자	1	슈발	1	개색기	1	꼴깁	1	시다발	1		
35	고자시키	1	숙기	1	고자새끼	1	꼴받다	1	시방	1		
36	구라	1	식발	1	궁디광광	1	꼴통	1	시키	1		
37	그지	1	시바	1	깁	1	년	1	쌍년	1		
38	까먹다	1	씨발	1	날라리	1	논	1	쌍년	1		
39	꼬봉	1	쌌다	1	넵	1	또라이	1	쥘팔	1		
40	나발	1	야리다	1	놈	1	마빡	1	쥘라	1		
41	놈	1	여덕	1	똥폰	1	맞짱까다	1	씨발	1		
42	왜지년	1	옛	1	뜨다	1	발리다	1	씨뻡	1		
43	딸리다	1	오덕후	1	ㄱㅈ	1	빡돌다	1	씨뿔명구리	1		
44	뺨까다	1	웃나	1	미친	1	ㅂㅂ런	1	씨뺨	1		
45	똥깁	1	유치뺨쥬	1	발리다	1	새까	1	쌌걸레	1		
46	띠깁다	1	이눔	1	병신	1	새끼	1	ㄱ	1		
47	머저리	1	ㅈㄴ	1	빠가	1	슈박	1	얕실하다	1		
48	ㅂㅂ	1	잡소리	1	뻡꾸	1	시바	1	옛니	1		
49	ㅂㅂㅂ	1	지랄	1	새킹	1	시발년	1	엠펙	1		
50	병맛	1	지지배	1	생일뻡	1	시킵	1	육씨랄	1		
51	ㅂㅂㅂ	1	진상짓	1	생퀴	1	심밋트	1	이년	1		
52	시망	1	쪽팔리다	1	시1발년	1	쌍	1	째다	1		
53	시바	1	쳐먹다	1	시바	1	쥘발	1	쪽팔리다	1		
54	시키	1	쳐-	1	시발라미	1	씨	1	창녀	1		
55	ㅂㅂ	1	털리다	1	시키	1	앵기다	1	캐-	1		
56	쌍까다	1	Fucking	1	ㅂㅂ	1	옛	1	see발	1		
57	씨뺨	1	thㅣ발	1	쥘보	1	옛먹다	1				
58	쥘발	1	thㅣ바	1	쥘키	1	올라	1				
59	씨×	1			쥘키	1	이빠이	1				
60	쌌다	1			씨뺨	1	젓	1				
61	이년	1			쌌다	1	조넨	1				
62	ㅈㄴ	1			쌌새끼	1	조넨	1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63	전화때리다	1		오덕	1	존내	1				
64	조또	1		이년	1	좃만	1				
65	좃	1		이놈	1	짱깨	1				
66	좃만하다	1		이쌍	1	짜식	1				
67	좃망테크	1		ㅈ르	1	쫄개다	1				
68	좃병신	1		ㅈ밥	1	ㅊ	1				
69	좃가치 생긴 년	1		종나	1	치랄	1				
70	좃병신	1		좃망	1	치발	1				
71	찍사	1		짜식	1	후빨	1				
72	찐따	1		째지다	1	히밤바야	1				
73	ㅊ	1		찌랄	1	She발	1				
74	캐-	1		찐따세끼	1						
75	×팔리다	1		추리하다	1						
76				호구	1						

□□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비율

공격적 언어 표현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욕설 54%, 비방 40%, 헐박 4%, 저주 2%로, 욕설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심한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심한 욕설로 행해지는 공격적 언어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속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속어를 활용한 욕설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욕설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비속어 사용이 가장 낮았던 제주 지역에서만 비방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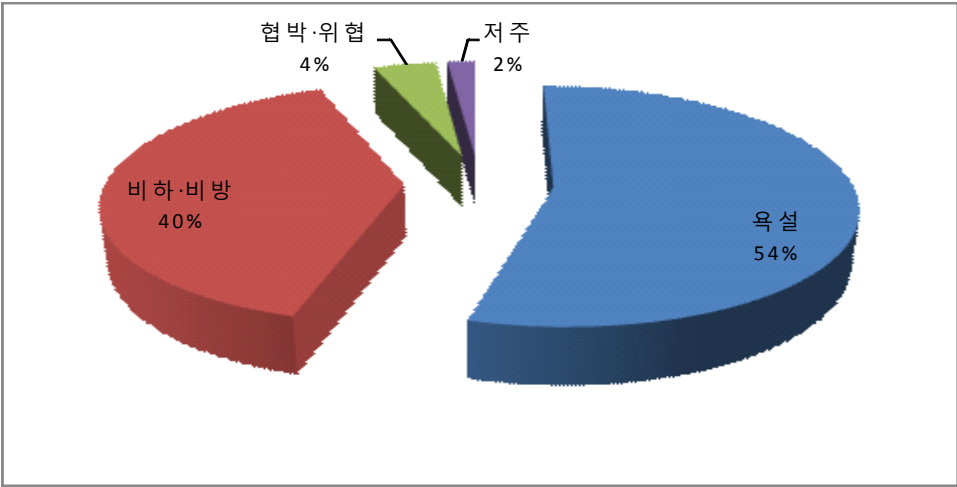
나.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별 특징

‘욕설’은 ‘씨발, 병신, 새끼’와 같은 인칭 표현이 출현 빈도가 높았다. ‘비방’은 ‘나대, 귀엽고 예쁜 척 하지 마, 고자질쟁이, 돼지야, 애자, 여드름 괴물아’처럼 싫어하는 대상(친구)에 대한 외모나 행동을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헐박’은 ‘죽인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고, ‘고자나 되라, 길가다가 자빠지렴, 망해버려라, 설사나 해라’ 등이 출현하고 있었다.

1) 총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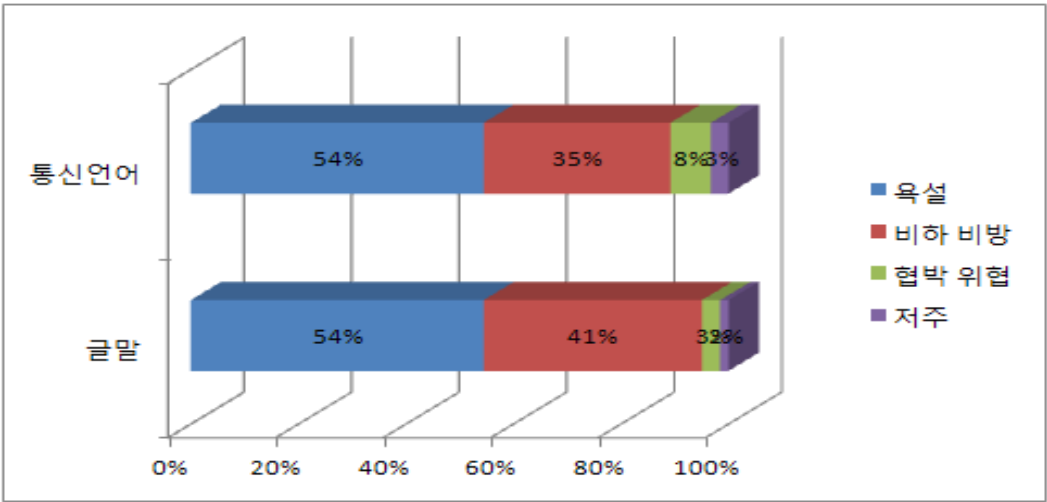
▪ 공격적 언어 표현은 심한 비어나 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욕설이 54%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 신분 등을 비방하는 표현이 40%를 나타냈다. 그밖에 헐박이 4%,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가 2%로 나타났다.

▪ 비속어를 사용하는 심한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4-11]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별 비율

▪ 글말과 통신언어 모두 욕설로 행해지는 공격적 언어 표현이 높게 나타났고, ‘욕설 > 비방 > 협박 > 저주’ 순으로 사용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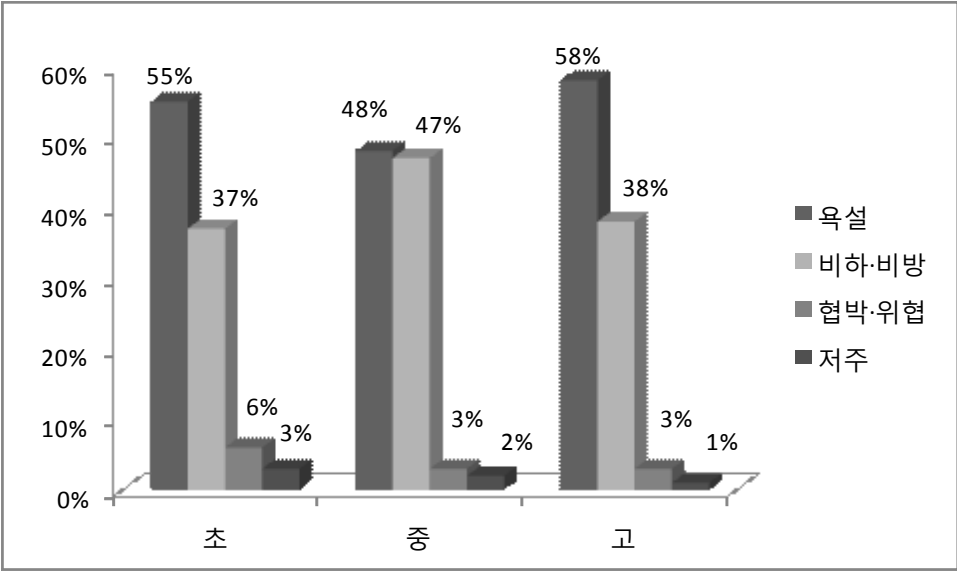


[그림 4-12] 글말과 통신언어 사용 비율

2) 변인별 사용 비율

(1) 학교급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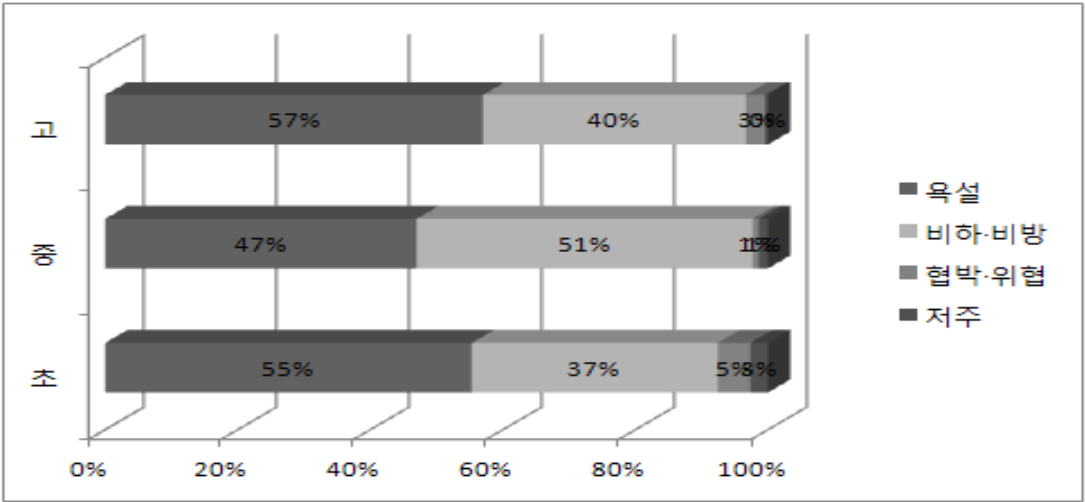
▪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고 모두 심한 욕설로 행해지는 공격적 언어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방 > 협박 > 저주' 순으로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3]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 비율

▣ 글말의 학교급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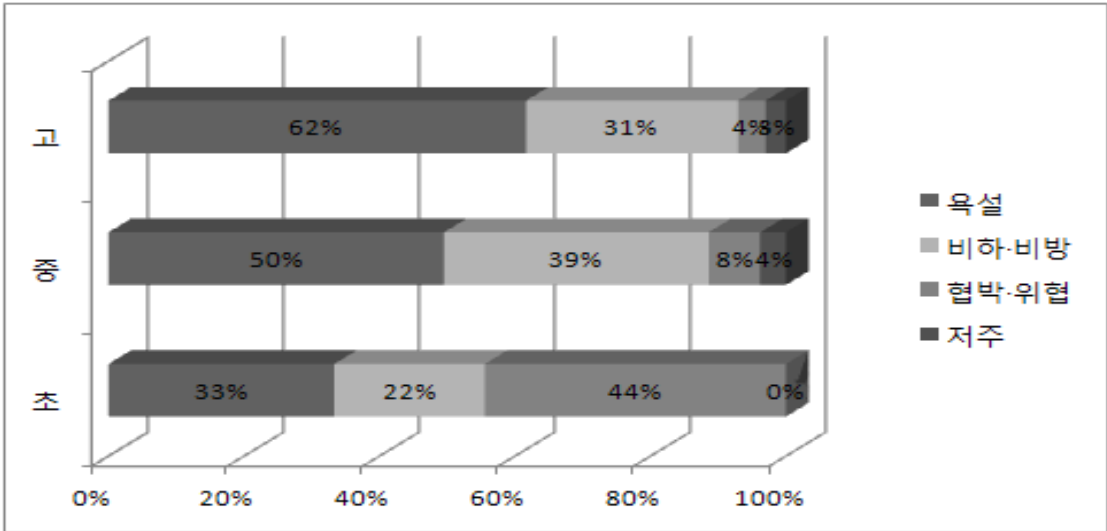
▪ 글말에서도 전체적으로 욕설의 사용이 많았다. 중학생만 '비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학교급에서는 '욕설 > 비방 > 협박 > 저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글말)

▣ 통신언어의 학교급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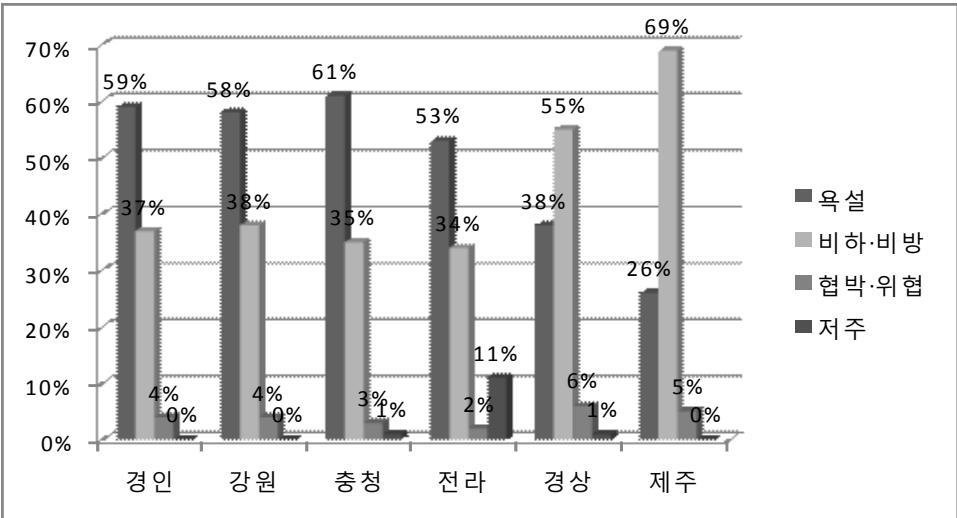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욕설 표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속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속어를 사용한 욕설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5] 학교급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통신언어)

(2) 지역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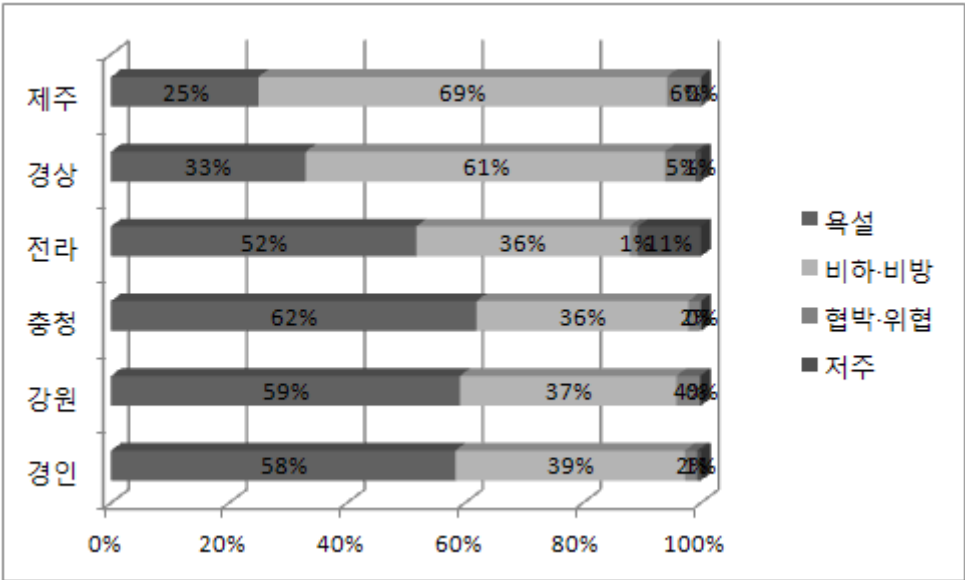
▣ 글말과 통신언어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경인,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고, 경상, 제주 지역은 ‘비방’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6]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

■ 글말의 지역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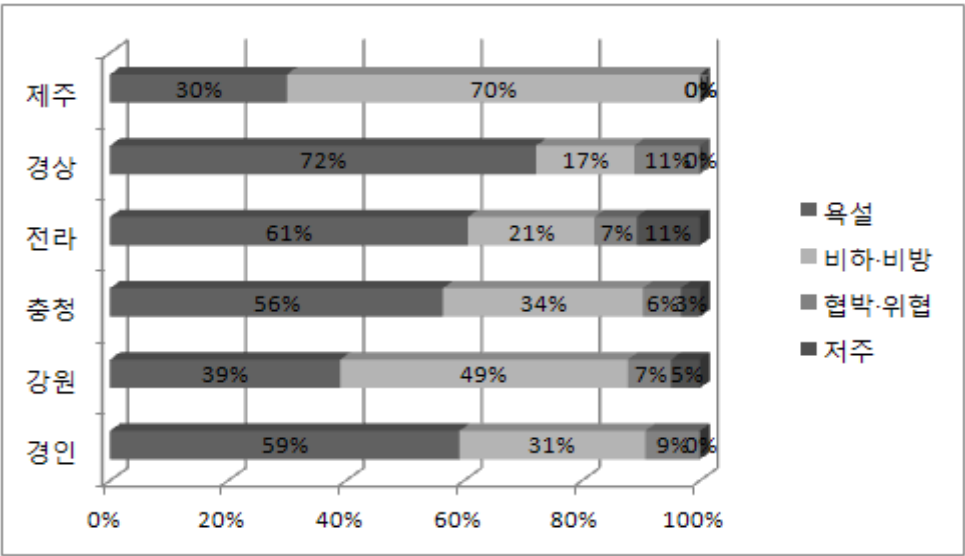
▪ 글말에서는 경인, 강원, 충청, 전라 지역에서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경상, 제주 지역은 비방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4-17]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글말)

■ 통신언어의 지역별 사용 비율

▪ 통신언어에서는 경인,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서 욕설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비방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8] 지역별 공격적 언어 표현 하위 유형 비율(통신언어)

(3) 하위 유형별 표현 특징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언어 표현의 하위 유형을 욕설, 비방, 협박, 저주로 구분하고, 이들 하위 유형별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욕설

■ ‘욕설’은 상대방을 ‘씨발, 병신, 새끼, 거지, 바보, 년, 놈’ 등으로 비속하게 지칭하는 표현이 많았다. 특히 ‘새끼’는 ‘개새끼, 썩새끼, 병신새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 글말 중에서 수필은 욕설이 나타나지 않았고, 롤링페이퍼에서 욕설이 많이 사용되었다. 수필은 수업 시간에 실명으로 작성하여 욕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롤링페이퍼는 종이에 적힌 친구 이름을 보고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익명으로 남기는 형식이어서 2인칭에 대한 욕설이 대부분이었다. 반 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도 ‘ㄱ먹어, ㄱㅈ, 갑치지 마, 존나 나대, 내 개그맨해라 시보랄년아, 나대서 쳐맞고 아주 과관이야, 내 말 썩지 마 새끼, 넌 병신이고 개새끼고 이 개쌍 시발새끼야, 닥치고 살아라 새끼야, 우리 반 공식 변태 새끼처럼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통신언어에서도 2인칭 대상에게 욕설을 하는 표현이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인칭 욕설은 싫어하는 친구나 대상에게 ‘그만 먹어 이 돼지년아, 꿀꺽을 떨어라 아주, 너랑 썩까고 싶어, 빨리 과외 오라고 십장구야, 존나 댓글이 더 웃겨 시발놈아’처럼 직접 대면하고 말하듯이 사용하고 있었다. 3인칭 욕설은 ‘5호ㄱ년아 겁나 띠껍게 구네, 관리실 아저씨 개병신, 미친 담임 존나 맘에 안 든다, 수학 문제집 답지 빌려가서 4시간 후에 준 개년, 얼굴도 조카치 생긴 애, 이년들 원래 내 셔틀이였는데, 존나 그 년 민폐 찢어 진짜 개년, 존나 머리에 똥만 찬 것들’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나. 비방

■ ‘비방’은 싫어하는 대상(친구)의 외모나 행동을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동을 비하하거나 비방한 표현은 ‘나대, 까불지 좀 마, 가식덩어리, 개념 없는 것, 고자질쟁이, 공부벌레 징그러워, 구질구질하니까, 귀엽고 예쁜 척하지 마, 귀찮하지 마, 나에게 들러붙지 마, 너무 애가 싸, 너 손 올릴 때마다 구역질난다, 너 얘기 목소리 내지 마 짜증나니까’ 등이 있었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은 ‘돼지야, 애자, 변태, 쓰레기, 전나똥, 너무 시꺼매, 게이 같애, 여드름 괴물아, 얼굴도 못생긴데다가, 얼굴은 흑인 같고, 엉덩이킹’ 등이 있었다.

■ 글말 중에서, 수필은 비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롤링페이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수필은 수업 시간에 실명으로 작성하여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롤링페이퍼는 종이에 적힌 친구 이름을 보고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익명으로 남기는 형식이어서 2인칭 대상에 대한 비방이 대부분이었다. 2인칭 대상에 대한 비방 표현은 ‘거기 너무

시꺼매, 게이, 고자야, 공부벌레 징그러워, 나대는 거짓말쟁이, 너 너무 입싸, 너는 나의 세발의 피야, 너는 생긴 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는 장애인 짓 좀 안 했음 좋겠어, 너 보면 세균맨 생각 나, 너 손 올릴 때마다 구역질난다, 너 얘기 목소리 내지마 짜증나니까, 너 이해력 딸린다, 넌 그냥 찌질이, 넌 잘하는 게 뭐냐, 넌 장애인인 게 틀림없다, 넌 하나님의 망작, 니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나, 니 얼굴 좀 보고 알아, 뒷사람을 위해서 몸과 머리의 크기를 줄여주겠니, 싸가지 없어, 얼굴도 못생긴데다가, 우주쓰레기, 입에 좌물쇠나 잠가둬, 장애인 가태, 짜증나는 아이 중에서도 1등인 듯, 피부에 비듬 있니' 등이 있었다.

■ 통신언어에서 2인칭 대상에 대한 비방 표현은 '강 싫어,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너 너무 싫다, 너 눈알 무서워, 너 완전 정떨어져, 니 건들면 여드름 옮을라나, 니 성격 고치고 나중에 크면 꼭꼭 성형해라' 등이 있었다. 3인칭 대상에 대한 비방 표현은 '남중 2학년 부진아 개별반 가야 됴, 내 앞에 앉았던 원숭이 빼고는 말야, 냄새 오반, 너무 애가 싸, 대학생이란 게 노트북 갖고 게임할러하고 디시 가고 싸이나 뒤적거리고 있음, ○○○은 못생겼고, 허리는 굽고, 진심 담임이란 게 제자한테 이따구로 대해 놓고 선생으로서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이더라'처럼, 본인이 속한 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 속한 대상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다. 협박

■ '협박'은 '죽인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밖에도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고자 시킬 꺼야, 나대면 데진다, 나대면 뺨는다, 욕하면 DIE, 목 날라간다, 바꾸다 걸리면 흥흥, 바람피면 죽어, 발로 차뺨다, 불알 뜯길 거야, 성대를 뽑아 버리겠어, 씹어 먹을 꺼다, 안올리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양치해 뒤지기 싫으면, 입을 확 찢어버린다, 자꾸 때리면 죽는다, 죽여 버릴 거야, 찢어 버릴 거야' 등이 있었다.

■ 글말은 롤링페이퍼에서 2인칭 대상에 대한 협박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고자시킬꺼고, 나대면 데진다, 목 날라간다, 바람피면 죽어, 발로 차뺨다, 밟힐 준비해라, 불알 뜯길 거야, 성대를 뽑아 버리겠어, 씹어 먹을 꺼다, 양치해 뒤지기 싫으면, 입을 확 찢어버린다, 죽일 거야' 등이 있었다.

■ 통신언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인칭 대상에 대한 협박 표현은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경고하는데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이 편든다고 욕하면 DIE, ○○ 건들면 가만 안 뒤' 등이 있었다. 3인칭 대상에 대한 협박 표현은 '못 보겠는데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죽여버릴 거야, 안올리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주겨 버리고 싶다' 등이 있었다.

■ '협박'은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라. 저주

▣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 저주 표현으로는 '고자나 되라, 그러다 저주 받는다, 길가다가 굴러라, 길가다가 자빠지럼, 나락으로 떨어져라, 망해버려라, 설사나 해라, 시험 망쳐버려라, 없어져라, 응카나 밟아라, 커플천국 다 깨져버려라, 하수구에 빠져, 활동하다 다쳐라' 등이 있었다.

▣ 롤링페이퍼에서는 '고블린과 결혼해라, 그러다 저주 받는다, 길가다가 굴러라, 길가다가 자빠지럼, 설사나 해라, 시험 망쳐버려라, 없어져라, 응카나 밟아라, 하수구에 빠져라, 활동하다 다쳐라' 등이 있었다.

▣ 통신언어에서는 2인칭 대상에 대한 저주 표현으로 '고자나 되라, 나락으로 떨어져라, 망해버려라' 등이 있었고, 3인칭 대상에 대한 저주 표현으로 '기상청 저주할 거야, 커플천국 다 깨져 버려라'처럼 기상청과 커플들을 저주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 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가. 은어·유행어 사용 비율

은어는 글말에서 102개의 어휘가 출현하였고, 통신언어에서 127개가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는 글말에서 452회, 통신언어에서 494회로 통신언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글말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어휘수와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통신언어에서는 출현 빈도는 중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어휘수는 고등학생이 더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유행어는 글말에서는 538개의 어휘수가 출현하였고, 통신언어에서는 651개가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는 글말에서 7298회, 통신언어에서 8825회로 통신언어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행어는 다른 어휘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글말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행어 사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통신언어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 은어·유행어 어휘 목록의 특징

은어는 자음 표기(ㄴㄹ, ㄹㅈ, ㄹㅊ, ㅇㅈㄹ), 숫자 및 영어 표기(sc, c8), 줄임말(남캐, 엽사) 등으로 은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x, x동, x되다, x무한, 미x’처럼 ‘x’로 저속한 표현을 숨김으로써 은비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글말은 강원 지역에서 은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경상, 충청 지역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신언어는 충청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경상 지역에서 가장 저조하였다. 은어는 글말과 통신언어 모두 경상 지역이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유행어는 자음 표기(ㄱ, ㅎ, ㄹㅇ, ㄴㄴ, ㄷㄷ, ㅈㄱ), 이모티콘(--, @@, ^^, ==, ><, ♡, ♡, ㄷㄷ, ㅍ_ㅍ, ㅎ.ㅎ), 숫자 및 영어 표기(ㄴ2, bb, sc, see발), 줄임말(훈남, 귀척, 감놀, 차도녀, 넘사벽, 망다), 종결어미(-9, -5, -3, -G, -데스, -ㄱ, -ㅈ, -ㅇ, -간, -규, -ㄱ, -땡, -당)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글말에서는 유행어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전라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통신언어에서는 유행어가 충청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경상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1) 은어 사용 실태

(1) 고빈도 은어 목록과 특징

▪ 은어는 글말에서는 102개의 어휘가 출현하였고, 통신언어에서는 127개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는 글말에서 452회, 통신언어에서 494회로 통신언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은어는 자음 표기(ㅅㅈ, ㅅㅅ, ㅅㅇ, ㅅㅅ, ㅅㅅ, ㅅㅅ, ㄴㄴ, ㄷㄷ), 숫자 및 영어 표기(ㅁ2, bb, sc, c8), 줄임말(남캐, 엽사, 귀척) 등으로 은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 ‘야x, x동, x되다, x무한, 미x’처럼 ‘x’로 저속한 표현을 숨김으로써 은비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글말에서도 ‘ㅁ2, ㅅㅈ, ㅅㅅ, ㅅㅇ, ㅅㅅ, ㅅㅅ, ㅅㅅ, ㄴㄴ, ㄷㄷ, ㅅㅅ, ㅈㅈ, ㅈㅈ’ 등의 자음 표기가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 통신언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신언어에서 나타난 은어 표현은 자음 표기에 의한 은어(ㅅㅅ, ㄷㄷ, ㅈㅈ, ㅇㅈㄹ, ㄴㄴ, ㅅㅅ, ㅈㅈ, ㅈㅈ, ㅅㅈ, ㅅㅈ, ㅅㅈ, ㅅㅈ, ㅅㅈ)와 줄임말로 나타나는 은어(인강, 망다, 룸메, 플카, 생과, 문친, 피방, 단콘, 막콘, 반모, 시망, 썸남)가 대부분이었다.

<표 4-30> 고빈도 은어의 출현 빈도(글말·통신언어)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1	ㅁ2	37	ㅅㅅ	37	65	다굴	1	ㅈㅈ	2
2	원따	37	인강	31	66	딸-	1	bb	1
3	ㅅㅈ	30	ㄷㄷ	23	67	딸보	1	sc	1
4	ㅅㅅ	25	레알	19	68	똥망	1	ㅈㅈㄹㅈ	1
5	ㅅㅇ	22	ㅈㅈ	16	69	룸메	1	관광	1
6	ㅅㅅ	20	ㅁ	16	70	ㅈㅈ	1	귀척	1
7	ㅅㅅ	18	ㅇㅈㄹ	14	71	맞짱까다	1	깜놀	1
8	ㅅㅅ	14	ㄴㄴ	13	72	미x	1	꼬봉	1
9	레알	13	ㅅㅅ	13	73	ㅅㅅㅅㅈ	1	남시	1
10	ㄴㄴ	12	망다	12	74	발리다	1	남캐	1
11	ㄷㄷ	10	ㅅㅅ	11	75	병클	1	ㄷㅇ	1
12	평친	10	ㅈ	10	76	ㅁ돌이	1	도배	1
13	귀척	9	ㅅㅈ	10	77	똥셋틀	1	동농	1
14	돌다	9	ㅁ	9	78	똥하다	1	뜨다	1
15	ㅅㅅ	9	ㅅㅈ	9	79	똥짜	1	ㅈㅈ년	1
16	ㅅㅈ지다	9	ㄷ	8	80	ㅁ년	1	만렙	1
17	ㅈㅈ	8	룸메	8	81	생과	1	맞짱까다	1
18	뜨다	8	돌다	7	82	셔틀년	1	멀티	1
19	애자	8	플카	7	83	쌈뽕	1	모평	1
20	ㅈㅈ	7	ㄴ	6	84	생까다	1	몸캠	1
21	여병추	7	생과	6	85	썸다	1	뽕미	1
22	ㅅㅈ	6	썸다	6	86	야구 동영상	1	미드	1
23	ㅈㅈ	5	ㅈㅈ	6	87	엄창	1	ㅅㅈ	1
24	똥짜	5	ㅈ	5	88	엠창	1	ㅅㅈㅈ	1
25	ㅈㅈ	5	다굴	5	89	여소	1	ㅅㅈ	1
26	ㅅㅅ	4	ㅈㅈ	5	90	옛받다	1	ㅅㅈ	1
27	간지남	3	사탐	5	91	오덕후	1	분캠	1

28	ㄴㄹㄴㄹ	3	찐따	5	92	용자	1	브금	1
29	볼매	3	표口	5	93	이××	1	빠순이	1
30	빠	3	ㄴ口	4	94	ㅈㄴ	1	빡공	1
31	서틀	3	문친	4	95	ㅈㄹ	1	뻘찌	1
32	오덕쿠	3	십자루	4	96	자삭	1	ㅅㄴ런	1
33	털리다	3	쓰ㄴ	4	97	죽방	1	ㅅㄴ로	1
34	×동	2	ㅈㅈ	4	98	죽빵	1	ㅅㅅ	1
35	깜놀	2	짜지다	4	99	짱개	1	ㅅ교	1
36	맛장	2	째다	4	100	켜털	1	술까	1
37	뽕미	2	첫콘	4	101	페드립	1	시버겔	1
38	ㄴㅅㅅ끼	2	피방	4	102	ㅎㅇㄹ	1	심맛트	1
39	빡공	2	gg	3				쌍수	1
40	ㅂㅅ	2	꼬리다	3				쌍까다	1
41	ㅅㅅ	2	단콘	3				써눔	1
42	ㅅ끼	2	막콘	3				언수외담	1
43	시비털다	2	맛짱	3				엄빠	1
44	ㅇㄷ	2	반모	3				엑박	1
45	야×	2	발리다	3				여덕	1
46	일진	2	시망	3				오덕	1
47	줄귀	2	썸남	3				오덕후	1
48	피방	2	어좁	3				완포자	1
49	×되다	1	언수외	3				은근접사	1
50	×두일	1	여깡	3				일원포스	1
51	×무한	1	엽사	3				입겔	1
52	×치다	1	영캠	3				ㅈㄹ	1
53	BF	1	자게	3				ㅈ口	1
54	ㄱㅈ	1	c8	2				ㅈ밥	1
55	간지나다	1	간지	2				쫓망테크	1
56	간지폭풍	1	ㄱㅅ	2				짤	1
57	개××	1	ㄴㄱ	2				짱깨	1
58	공신	1	무도	2				췌크포트	1
59	꼰대	1	ㅁ2	2				털리다	1
60	ㄴ	1	사빠	2				피쉬	1
61	ㄴㄱ	1	십장구	2				피시방	1
62	납소	1	썸망	2				학주	1
63	넘사벽	1	ㅇㄴ	2				후루꾸	1
64	녹빙	1	지르다	2					

(2) 변인별 은어의 목록과 특징

가. 학교급별 은어의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학교급별 은어 목록과 특징

■ 글말에서 은어는 초등학생이 33개, 중학생이 51개, 고등학생이 59개의 어휘를 나타냈다.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04회, 중학생이 138회, 고등학생이 210회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은어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 초중고 모두 자음 표기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저속한 ‘ㄴㅅ(병신), ㅅㄴ(시발),

ㄱㅈ(꺼져)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 초중고 모두 ‘×’로 저속한 표현을 숨김으로써 은비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되다, ×무한’, 중학생은 ‘×동, 야×, ×동, ×두일, ×치다’, 고등학생은 ‘개××,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4-31>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쩐따	30	ㅁ2	18	ㅁㅇ	22
2	쓰ㅁ	18	ㅅㄱ	9	ㅅㄱ	21
3	ㅁㅅ	8	ㄴㄴ	8	ㅁ2	19
4	ㅅㅁ	5	ㄷㄷ	8	ㅅㅁ	16
5	짜지다	5	ㅈㅅ	7	레알	8
6	레알	4	귀척	6	ㅁㅅ	8
7	ㅁㄹㅁㄹ	3	쩐따	6	애자	8
8	ㄱㅈ	2	돋다	5	평친	8
9	뜨다	2	ㅁㅁ	4	여병추	7
10	ㅁㅅㅅ끼	2	ㅅㅁ	4	ㅈㅈ	7
11	ㅅㄱ	2	ㅈㅋ	4	ㅈㅅ	6
12	ㅅ끼	2	ㄱㅈ	3	팬찌	5
13	×되다	1	뜨다	3	ㄱㅅ	4
14	×무한	1	오덕쿠	3	ㄴㄴ	4
15	ㄱㅅ	1	짜지다	3	ㅈㅈ	4
16	ㄱㅈ	1	×동	2	ㄱㄱ	3
17	다굴	1	ㄱㄱ	2	귀척	3
18	돋다	1	ㄱㅅ	2	ㄱㅈ	3
19	뽕망	1	ㅁㅅ	2	돋다	3
20	맛장	1	ㅁ	2	뜨다	3
21	미×	1	서틀	2	불매	3
22	ㅁㅅㅅㄱ	1	ㅇㄷ	2	간지남	2
23	ㅁ	1	야×	2	깜놀	2
24	ㅁ년	1	ㅈㅈ	2	ㄷㄷ	2
25	시비털다	1	줄귀	2	빵공	2
26	야구 동영상	1	평친	2	쓰ㅁ	2
27	엿받다	1	×두일	1	일진	2
28	ㅈㄹ	1	×치다	1	털리다	2
29	ㅈㅅ	1	간지나다	1	간지폭풍	1
30	ㅈㅈ	1	간지남	1	개××	1
31	털리다	1	공신	1	ㄴ	1
32	ㅎㅇㄹ	1	꼰대	1	넘사벽	1
33	BF	1	ㄴㄱ	1	녹빙	1
34			남소	1	룸메	1
35			딸-	1	맛짱까다	1
36			딸보	1	뽕미	1
37			레알	1	발리다	1
38			ㄱㅈ	1	병클	1
39			맛장	1	ㅁ	1
40			뽕미	1	빵하다	1
41			ㅁ돌이	1	팬찌	1
42			빵섭틀	1	ㅁ	1
43			생과	1	서틀	1
44			시비털다	1	서틀년	1

45			썸다	1	쌘쌘	1
46			엄창	1	쌔까다	1
47			오덕후	1	엠창	1
48			자삭	1	여소	1
49			죽방	1	용자	1
50			짜짜	1	이××	1
51			피방	1	ㅈㄴ	1
52					죽빵	1
53					짜지다	1
54					짱개	1
55					전따	1
56					ㅈㅋ	1
57					켜털	1
58					페드립	1
59					피방	1

▣ 통신언어에 나타난 학교급별 은어 목록과 특징

▪ 통신언어에서 은어는 초등학생이 22개, 중학생이 72개, 고등학생이 76개의 어휘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6회, 중학생이 243회, 고등학생이 205회로 중학생의 출현 빈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 출현 빈도는 중학생이 더 높았지만, 어휘수는 고등학생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수치는 큰 차이를 보였고, 중고등학생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 초중고 모두 자음 표기 중에 ‘ㄷㄷ(덜덜), ㄱㄱ(gogo), ㄴㄴ(nono)’가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피방’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하여 저학년 때부터 피시방을 즐겨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초등학생 때는 보이지 않던 영어 표기가 중학생(gg)과 고등학생(c8, bb, sc)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썸남, 썸망, 좇망테크, ㅈ밥’처럼 성과 관련된 표현이 증가하고, ‘학주, 룸메, 언수외, 모평’ 등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출현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표 4-32> 학교급별 은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ㄷㄷ	7	ㅅㅅ	19	인강	29
2	ㄷ	5	ㄷㄷ	14	ㅅㅅ	18
3	다굴	5	빠	14	레알	16
4	ㄱㄱ	3	ㅇㅈㄹ	14	룸메	8
5	ㅈ	3	망다	10	ㅂㅈ	7
6	ㅈㅈ	3	ㅂㅂ	10	ㄱㄱ	6
7	ㄴㄴ	2	ㄱㄱ	7	ㄴㄴ	6
8	망다	2	ㅅㄱ	7	돌다	6
9	맞짱	2	ㅈㄴ	7	ㄴ	5
10	ㅅㄱ	2	ㅈㅈ	7	사탐	5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11	ㄴ	1	ㄱ	6	십자루	4
12	도배	1	플카	6	썸다	4
13	맛짱까다	1	ㄴㄴ	5	꼬리다	3
14	뽕미	1	뽕따	5	ㅂㅂ	3
15	ㅂ밀	1	표ㅁ	5	발리다	3
16	ㅂㅅㅈ	1	문친	4	썸남	3
17	생과	1	짜지다	4	언수외	3
18	심밋트	1	째다	4	ㄱ	2
19	ㅇㄴ	1	ㅈㅈ	4	ㄱㅅ	2
20	ㅈㅈ	1	첫콘	4	ㄴㅁ	2
21	피방	1	ㄱ	3	ㄷㄷ	2
22	피쉬	1	단콘	3	ㅁㅈ	2
23			레알	3	무도	2
24			ㅁㅈ	3	빠	2
25			막콘	3	생과	2
26			반모	3	십장구	2
27			생과	3	ㅈㅂ	2
28			어줍	3	썸망	2
29			여짱	3	ㅈㄴ	2
30			엽사	3	자게	2
31			영캠	3	지르다	2
32			gg	3	ㅈㅈ	2
33			ㄴㄱ	2	ㅈㅂ	2
34			ㄴㅁ	2	c8	2
35			ㄷ	2	ㄱㄷㄴㅅ	1
36			ㅂㅅ	2	간지	1
37			사빠	2	관광	1
38			시망	2	ㄱ	1
39			ㅈㅂ	2	남시	1
40			썸다	2	ㄷ	1
41			인강	2	뜨다	1
42			ㅈㅈ	2	ㅁㅈ년	1
43			피방	2	모평	1
44			간지	1	몸캠	1
45			귀척	1	미드	1
46			감놀	1	분캠	1
47			꼬봉	1	브금	1
48			남캐	1	ㅂ2	1
49			ㄷㅇ	1	빡공	1
50			돈다	1	ㅅㄱ	1
51			동농	1	ㅅㅂㄹ	1
52			만렙	1	술까	1
53			맛짱	1	시망	1
54			멀티	1	시벼겔	1
55			ㅂㅂ	1	써눔	1
56			ㅂㅌ	1	언수외탐	1
57			ㅂ2	1	엑박	1
58			빠순이	1	여덕	1
59			뽕찌	1	오덕	1
60			ㅅㅂ런	1	완포자	1
61			ㅅㅅ	1	일전포스	1
62			ㅅ표	1	입겔	1
63			쌍수	1	ㅈㄴ	1
64			쌍까다	1	ㅈㅁ	1
65			ㅇㄴ	1	ㅈ밥	1
66			엄빠	1	ㅈㅅ	1
67			오덕후	1	쫄망테크	1
68			은근접사	1	ㅈㅈ	1
69			자게	1	짱께	1
70			짤	1	ㅈㅂ포트	1

71			피시밭	1	털리다	1
72			학주	1	플카	1
73					피방	1
74					후루꾸	1
75					bb	1
76					sc	1

나. 지역별 은어의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지역별 은어 목록과 특징

▪ 은어는 ‘강원 > 충청 > 경인 > 전라 > 경상 = 제주’ 순으로 어휘의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은어의 출현 빈도는 ‘강원 > 충청 > 경인 > 전라 > 제주 > 경상’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은어는 강원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경상 지역에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 ‘배2’가 모든 지역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표 4-33>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순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ㅅㄱ	10	전파	30	배2	17	배2	9	레알	4	레알	8
2	평친	7	ㅂㅇ	21	ㅅㄱ	12	여병추	7	뜨다	3	ㄴㄴ	3
3	배2	4	ㅅㅂ	20	ㅂㅅ	3	ㅂㅅ	2	ㅂㄹㅂㄹ	3	돋다	3
4	ㅅㅂ	4	ㅅㅂ	18	귀척	2	ㅅㄱ	2	ㅂㅂ	3	불매	3
5	뜨다	3	ㅂㅅ	13	ㅇㄷ	2	전파	2	돋다	2	전파	3
6	ㅈㅅ	2	ㄷㄷ	9	ㅈㅅ	2	춧ㅋ	2	배2	2	ㄱㅈ	2
7	춧ㅋ	2	ㅈㅅ	9	개××	1	ㄱㄱ	1	ㅅㅂ	2	빡공	2
8	ㄴ	1	ㄴㄴ	8	깜놀	1	ㄱㅅ	1	평친	2	오덕꾸	2
9	다굴	1	애자	8	ㄴㄱ	1	공신	1	ㄱㄱ	1	ㄱㅅ	1
10	똥망	1	짜지다	8	ㄴㄴ	1	ㄱㅈ	1	ㄱㅅ	1	간지남	1
11	맛장	1	ㅈㅈ	7	룸메	1	깜놀	1	미×	1	간지폭풍	1
12	맛짱까다	1	귀척	6	ㅂㅂ	1	꼰대	1	ㅂㅇ	1	귀척	1
13	병클	1	ㅅㄱ	6	빠	1	남소	1	ㅈㄴ	1	넘사벽	1
14	빠	1	ㄱㅈ	5	빵하다	1	ㄷㄷ	1	ㅈㅅ	1	녹빙	1
15	시비털다	1	뽕찌	5	서틀	1	ㅁ춧	1	ㅈㅈ	1	배2	1
16	썩다	1	ㄱㅅ	4	서틀년	1	뽕미	1	짜지다	1	ㅂㅂ	1
17	죽방	1	돋다	4	썩까다	1	ㅅㅂ	1	춧ㅋ	1	야구동영상	1
18	죽빵	1	배2	4	여소	1	생과	1	털리다	1	오덕후	1
19	ㅈㅈ	1	ㅈㅈ	4	이××	1	오덕꾸	1				
20	전파	1	ㄱㄱ	3	ㅈㅅ	1	일진	1				
21	커털	1	×동	2	짱개	1	ㅈㅅ	1				
22	피방	1	간지남	2	전파	1	페드립	1				
23	BF	1	뜨다	2	평친	1						
24			ㅂㅅㅅ끼	2	ㅎㅇㄹ	1						
25			ㅅㄱ	2								
26			ㅅ끼	2								
27			서틀	2								

28		야×	2									
29		줄귀	2									
30		털리다	2									
31		×되다	1									
32		×두일	1									
33		×무한	1									
34		×치다	1									
35		ㄱㅈ	1									
36		간지나다	1									
37		딸-	1									
38		딸보	1									
39		레알	1									
40		맞장	1									
41		땡미	1									
42		ㅂㅅㅅㅂ	1									
43		발리다	1									
44		빠	1									
45		빠돌이	1									
46		뽕셋틀	1									
47		뽕짜	1									
48		ㅂㅅ	1									
49		ㅂㅅ년	1									
50		시비털다	1									
51		쌈뽕	1									
52		엄창	1									
53		엠창	1									
54		옛받다	1									
55		용자	1									
56		일진	1									
57		ㅈㄷ	1									
58		자삭	1									
59		피방	1									

▣ 통신언어에 나타난 지역별 은어 목록과 특징

▪ 통신언어는 ‘충청 > 경인 > 강원 > 전라=제주 > 경상’ 지역 순으로 어휘의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출현 빈도는 ‘충청 > 제주 > 경인 > 전라 > 강원 > 경상’ 지역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통신언어에서는 충청 지역에서 은어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경상 지역에서 저조하였다.

- 글말과 통신언어 모두 경상 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 ‘ㄴㄴ(nono)’ 표현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하였다.
- ‘레알’은 경상 지역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도 부사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표 4-34> 지역별 은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ㅅㅅ	9	ㄷㄷ	10	빠	16	ㅅㅅ	13	ㄴ	3	인강	21

2	인강	9	레알	7	ㅇ스르	14	ㄷㄷ	6	ㄱㅈ	2	플카	6
3	룸메	8	ㄱㄱ	5	ㅅㅅ	12	망다	6	ㅅㅅ	2	사탐	5
4	ㄴ	4	돈다	4	ㅅㅅ	10	ㄷ	4	썸남	2	ㄱㄱ	4
5	ㄴㅇ	4	꼬리다	3	ㄷㄷ	6	ㄱㄱ	3	썸다	2	문친	4
6	십자루	4	영캠	3	레알	5	ㅈ	3	ㅈㅈ	2	첫콘	4
7	ㄴㄴ	3	ㄴㄱ	2	망다	5	레알	3	짜지다	2	ㄴㄴ	3
8	레알	3	ㄴㄴ	2	ㅈㄴ	5	ㅅㄱ	3	ㄱ	1	ㄷ	3
9	ㅂㅅ	3	무도	2	ㅈㅈ	5	ㅈㅈ	3	ㄱㄷㄴㄱ	1	단콘	3
10	ㅈ	2	ㅈㅈ	2	표ㅇ	5	ㄱ	2	귀척	1	막콘	3
11	다굴	2	짜지다	2	ㄱㄱ	4	맞짱	2	도배	1	반모	3
12	썸망	2	c8	2	ㄴㄴ	4	ㅅㅅ	2	돌다	1	언수외	3
13	엽사	2	간지	1	ㅂㅅ	4	ㅂㅅ	2	망다	1	여깡	3
14	꼬봉	1	ㄱㄱ	1	ㅅㄱ	4	생과	2	몸캠	1	자게	3
15	ㄷㅇ	1	남캐	1	편파	4	ㅅㅅ	2	빠순이	1	ㅈ	2
16	ㅅㅅ	1	ㅇㅈ	1	다굴	3	ㅈㅈ	2	ㅅㄱ	1	ㄴ	2
17	ㅅㅅㅈ	1	만렙	1	어좁	3	피방	2	째다	1	십장구	2
18	분캠	1	맞짱	1	째다	3	관광	1	bb	1	ㅈㄴ	2
19	ㅅㄱ	1	멀티	1	돈다	2	ㄴㄴ	1	gg	1	ㄱ	1
20	ㅅㅅㅇ	1	미드	1	사빠	2	맞짱까다	1			ㄷㄷ	1
21	생과	1	ㅅㅅ	1	생과	2	발리다	1			레알	1
22	솔까	1	브금	1	시망	2	ㅂㅂ2	1			ㅇㅈ	1
23	시망	1	ㅅㄱ	1	ㅈㅈ	2	뺨찌	1			ㅇㅈ년	1
24	시벼겔	1	ㅅㅅ	1	ㄱ	1	ㅅㅅ런	1			모평	1
25	ㅅㅅ	1	ㅅㅈ	1	간지	1	ㅅ표	1			발리다	1
26	썸까다	1	생과	1	ㄱㄱ	1	심밧트	1			빠공	1
27	썸남	1	썸다	1	깡놀	1	쌍수	1			써눔	1
28	썸다	1	엑박	1	남시	1	엄빠	1			썸다	1
29	ㅇㄴ	1	여덕	1	ㄷ	1	지르다	1			언수외탐	1
30	일전포스	1	오덕후	1	동농	1	짱께	1			엽사	1
31	입겔	1	은근접사	1	뜨다	1	피쉬	1			완포자	1
32	ㅈㄴ	1	ㅈㄴ	1	ㅇㅈ	1	피시뵤	1			ㅈㅇ	1
33	ㅈㅈ	1	지르다	1	뽕미	1	gg	1			ㅈㅈ	1
34	쫓망테크	1	ㅈㅈ	1	ㅅㅈ	1						
35	ㅈㅈ	1	ㅈㅈ	1	ㅅㅈ	1						
36	짤	1	털리다	1	발리다	1						
37	편파	1	피방	1	ㅂㅂ2	1						
38	ㅈㅈ	1	후루꾸	1	ㅅㅅ	1						
39	플카	1			썸다	1						
40	피방	1			ㅇㄴ	1						
41					오덕	1						
42					인강	1						
43					ㅈㄴ	1						
44					ㅈ밥	1						
45					ㅈㅈ	1						
46					ㅈㅈ표트	1						
47					학주	1						
48					gg	1						
49					sc	1						

2) 유행어 사용 실태

(1) 고빈도 유행어의 목록과 특징

■ 글말에서는 538개의 어휘가 출현하였고, 통신언어에서는 651개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출현 빈도를 보면 글말에서 7298회, 통신언어에서 8825회로, 통신언어가 더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 유행어는 자음 표기 현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illegible]

■ 유행어는 줄임말이 매우 다양하여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방(피시방), 훈남(훈훈한 남자), 남소(남자 소개), 남친(남자 친구), 공신(공부의 신), 귀척(귀여운 척), 깡놀(깡짜 놀라다), 디카(디지털 카메라), 똥망(또라이 망함),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룸메(룸메이트), 막콘(마지막 콘서트), 맛다(맛한 다이어리)

■ 유행어는 ‘^^, --, ==, ><, ♡.♡, ㅌㅌ, @@, 표_표, ㅎㅎㅎ’ 등의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종결어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 숫자 표현: -9, -5, -3
- 영어 표현: -G, -테스
- 자음 표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ㅎ
- 기타 표현: -간, -거등, -걸랑, -겨, -고등, -규, -그등, -귀, -괘, -네다, -노, -뇨, -농, -능, -늑, -닝, -다는, -다능, -당개, -다, -담, -당, -더, -딩, -되, -왕, -둑, -둥, -듬, -땡, -디, -딩, -땀, -땅, -따, -떠, -떠여, -땡, -또, -퐁, -뜨, -뜸, -땡, -라는, -랑개, -렁, -룽, -ㄹ다, -와, -삼, -셈, -섶, -셔, -성, -소, -쇼, -송, -수, -썬, -슈, -스, -슴, -슴다, 슴되, -쌈, -싸, -씨, -써, -쓰, -쏙, -쫓, -촛, -아, -앙, -여, -염, -오, -옹, -와, -웃, -용가리, -웅, -윙, -으, -음, -응, -이, -잉, -자, -장, -제, -저, -전, -정, -좌, -꺾, -즐, -쪼, -쭉, -쭈, -돋, -갑, -쿵, -쿨, -풍, -푸, , -하, -혀, -효

<표 4-35> 고빈도 유행어의 출현 빈도(글말·통신언어)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순위	글말	빈도	통신언어	빈도
1	ㅋ	2363	ㅋ	2607	58	꺼지다	10	힉	11
2	^^	533	ㄷㄷ	1337	59	뉴규	10	ㅈ	10

3	ㅎ	506	ㅎ	686	60	ㄷㄷ	10	ㅅㅅ	10
4	ㅌㅌ	356	-ㅇ	396	61	-쌔	10	-효	10
5	-ㅇ	317	-ㅁ	379	62	평친	10	ㅁㅁ	9
6	-ㅁ	309	^^	335	63	구라	9	쌔	9
7	><	195	--	275	64	귀척	9	쌔	9
8	--	185	-음	174	65	돌다	9	ㅇㅋ	9
9	나대다	140	><	129	66	ㅂ2	9	암튼	9
10	안농	100	개-	73	67	쌔	9	업뎃	9
11	ㅎㅇ	84	존나	73	68	ㅉㅉ	9	ㅉㅌ	9
12	완전	70	짱	56	69	-규	8	쳐-	9
13	ㅌ	70	-ㄴ	54	70	ㅌㅉ	8	네튼	8
14	짱	63	-여	51	71	트립	8	ㄷ	8
15	-ㅅ	56	쌔	47	72	민폐	8	룸메	8
16	존나	44	완전	43	73	-삼	8	-삼	8
17	개-	41	ㅇㅇ	40	74	애자	8	아와	8
18	귀요미	37	절다	39	75	야동	8	야자	8
19	ㅁ2	37	헐	38	76	절친	8	여편	8
20	전따	37	강	37	77	젤	8	-자	8
21	쫘	36	ㅅㅂ	37	78	쳐-	8	초딩	8
22	열공	32	ㅌ	35	79	추카	8	허	8
23	절다	32	대박	33	80	크크	8	돌다	7
24	-자	31	인강	31	81	하	8	-되	7
25	ㅅㅅ	30	ㅎ.ㅎ	30	82	하이	8	미친	7
26	ㅅㅂ	25	-ㅅ	27	83	-9	7	뽕	7
27	님	22	-능	26	84	ㅌㅅ	7	-써	7
28	ㅂㅇ	22	님	24	85	-ㅂ	7	아나	7
29	강	21	ㄷㄷ	23	86	ㅇㅋ	7	아잉	7
30	ㅉㅂ	20	쫘	23	87	여병추	7	침	7
31	♡.♡	19	-땅	20	88	여친	7	하핫	7
32	ㅂㅅ	18	레알	19	89	울	7	@.@	6
33	쌔	18	안농	19	90	잉	7	귀요미	6
34	안농	18	무튼	18	91	줄라	7	-규	6
35	대박	17	-잉	17	92	초딩	7	꼬기	6
36	베프	17	ㅌㅌ	16	93	쿨하다	7	ㄴ	6
37	센터	17	빠	16	94	왓팅	7	닉넵	6
38	ㅎ2	17	-쌔	15	95	그닥	6	-딩	6
39	감치다	16	ㅇㅉㄹ	14	96	노자	6	-ㅂ	6
40	-잉	16	흑	14	97	논	6	뽕	6
41	뽕	15	ㄴㄴ	13	98	맘	6	생과	6
42	부럽	14	나대다	13	99	시크하다	6	업신	6
43	붕신	14	-디	13	100	왜캐	6	여튼	6
44	여신	14	-뜸	13	101	우왕	6	-오	6
45	ㅉㅅ	14	ㅂㅂ	13	102	잉여	6	올만	6
46	님	13	빡치다	13	103	ㅉㅉ	6	-웅	6
47	레알	13	-엄	13	104	침	6	왜캐	6
48	방가	13	젤	13	105	폭풍-	6	우왕	6
49	뽕	13	컴터	13	106	Ge2	5	ㅉㅉ	6
50	갈구다	12	망다	12	107	ㅌㅌ	5	챗방	6
51	ㄴㄴ	12	생측	12	108	뽕찌	5	표	6
52	남친	12	줄라	12	109	아와	5	하	6
53	빡치다	12	울	11	110	아농	5	헤	6
54	병아	11	ㅉㅅ	11	111	앗농	5	화이또	6
55	싸랑	11	컴	11	112	-여	5	후	6
56	헐	11	ㅎㅇ	11	113	완존	5	호영	6
57	5래	10	히	11					

(2) 변인별 유행어의 목록과 특징

가. 학교급별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학교급별 유행어 목록과 특징

· 유행어는 초등학생이 150개, 276개, 333개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행어 사용 어휘수도 증가하였다.

·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003회, 중학생이 2263회, 고등학생이 4032회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2배씩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 초중고 모두 ‘ㄱ, ㅎ, ^^, --, ㅌㅌ, ><, -ㅁ, -ㅇ, ㅎㅇ’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ㄱ, ㅎ, ^^, ㅌㅌ, --, ><’ 등 통신상에서 쓰이는 감정 표현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 초중고 모두 ‘ㄱ’의 출현 빈도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 ‘ㄱ’을 문장부호처럼 표현 종결 부분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경우, ‘나대다’가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잘난 체하거나 적극적인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때부터 ‘찐따, 빠치다’처럼 비속한 유행어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보다 더 다양하거나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

· 통신상이 아닌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어체 글쓰기 활동에서도 규범에 어긋나는 통신언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4-36>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ㄱ	192	ㄱ	627	ㄱ	1544
2	나대다	94	ㅎ	170	^^	326
3	-ㅁ	71	^^	144	ㅎ	288
4	^^	63	-ㅁ	134	ㅌㅌ	230
5	ㅎ	48	-ㅇ	102	-ㅇ	179
6	ㅌㅌ	45	--	89	><	133
7	-ㅇ	36	ㅌㅌ	81	-ㅁ	104
8	ㄴ	34	ㅎㅇ	55	--	79
9	찐따	30	><	54	안뇽	62
10	완전	29	나대다	42	-ㅈ	33
11	쓰다	18	안뇽	34	짱	33
12	--	17	ㄴ	30	완전	32
13	존나	13	-ㅈ	23	열공	29
14	병아	11	짱	22	개-	28
15	><	8	ㅁ2	18	ㅎㅇ	27
16	귀요미	8	안뇽	18	ㅁㅇ	22
17	ㅁㅈ	8	ㅎ2	16	ㅈㅌ	21
18	부럽	8	님	15	-자	21
19	짱	8	센터	15	썰	21
20	크크	8	존나	14	ㅁ2	19
21	대박	7	귀요미	11	귀요미	18
22	빠치다	7	-자	10	쩔다	18

23	절다	7	쭙	10	존나	17
24	-9	6	갈구다	9	ㅅㅅ	16
25	베프	6	ㅅㄱ	9	강	15
26	뽕	6	완전	9	♡.♡	14
27	-삼	6	5래	8	쌈	14
28	절친	6	개-	8	여신	13
29	개-	5	ㄴㄴ	8	븜신	11
30	갑치다	5	ㄷㄷ	8	뽕	11
31	ㅅㅅ	5	하이	8	-잉	11
32	쭙	5	방가	7	남친	10
33	넴	4	야동	7	뉴규	10
34	레알	4	ㅈㅈ	7	대박	9
35	맘씨	4	절다	7	베프	9
36	방가	4	추카	7	갑치다	8
37	ㅇㅋ	4	귀척	6	레알	8
38	안뇽	4	맘	6	민폐	8
39	짜다	4	쩍	6	ㅅㅅ	8
40	핍팅	4	전파	6	싸랑	8
41	후	4	헐	6	애자	8
42	ㄴㄴㄴㄴ	3	강	5	평친	8
43	카	3	구라	5	-규	7
44	큱	3	돌다	5	넴	7
45	하	3	자백	5	여병추	7
46	헐	3	♡.♡	4	ㅈㅈ	7
47	OTL	3	19금	4	쿨하다	7
48	ㅈㅈ	2	드립	4	꺼지다	6
49	ㅅㅅㅅㅅ끼	2	-ㅅ	4	넴	6
50	븜신	2	ㅅㅅ	4	ㅅ2	6
51	뿌잉	2	부럽	4	ㄴ	6
52	ㅅㅈ	2	뽕	4	울	6
53	ㅅ끼	2	ㅅㅅ	4	ㅈㅈ	6
54	싸랑	2	-쌈	4	폭풍-	6
55	쌈	2	시크하다	4	뽕찌	5
56	아놔	2	싸이코패순	4	뽕	5
57	에바	2	아뇽	4	-쌈	5
58	완존	2	존라	4	여친	5
59	왜캐	2	츠ㅋ	4	젤	5
60	잉	2	쳐-	4	졸라	5
61	-잉	2	초딩	4	침	5
62	장애	2	그닥	3	훗	5
63	쩍	2	ㅈㅈ	3	Ge2	5
64	존니	2	갑치다	3	ㅈㅈ	4
65	졸	2	꺼지다	3	구라	4
66	졸라	2	냄시	3	굳	4
67	진따	2	논	3	ㄴㄴ	4
68	짱나다	2	시크남	3	나대다	4
69	찌질이	2	-ㅈ	3	노자	4
70	ㅎㅇ	2	앗뇽	3	드립	4
71	헉	2	-여	3	빽치다	4
72	히히	2	오덕쿠	3	왈케	4
73	oky	2	옹하	3	우왕	4
74	×되다	1	완존	3	잉여	4
75	×무한	1	인기남	3	ㅈㅈ	4
76	♡.♡	1	잉	3	쌈	4
77	ㅈㅈ	1	-잉	3	ㅈㅈ	3
78	ㅈㅈ	1	전나	3	갈구다	3
79	개세기	1	젤	3	귀척	3
80	강	1	ㅎㄷㄷ	3	그닥	3
81	구갱	1	하	3	급-	3
82	귀여미	1	항	3	ㅈㅈ	3

83	갑죽대다	1	하잉	3	논	3
84	꺼지다	1	42	2	도도녀	3
85	꼴똥	1	×동	2	돌다	3
86	남친	1	ㄱㄱ	2	루저	3
87	님	1	ㄱㅅ	2	무튼	3
88	데헛	1	경부	2	볼매	3
89	데헛	1	귀엽	2	부끄	3
90	돌다	1	-괴	2	빠이	3
91	떨리다	1	깜찌기	2	빨쭈하다	3
92	또라이	1	넘	2	빨	3
93	똥망	1	노자	2	시크너	3
94	마빠이	1	-능	2	아놔	3
95	-ㄱ	1	따롱	2	알러뷰	3
96	ㅂ2	1	또라이	2	야자	3
97	ㅂㅅㅅㄱ	1	ㅂ2	2	엄친딸	3
98	범생	1	ㅂㅅ	2	열라	3
99	병나	1	범생	2	오글	3
100	부끄	1	베프	2	을	3
101	빠적	1	변태	2	왕-	3
102	ㅂㅅ	1	빠	2	짜응	3
103	ㅂㅅ년	1	뽕	2	차도녀	3
104	셀카	1	ㅅㅣㅋ-종결자	2	쳐-	3
105	-쌈	1	서틀	2	초딩	3
106	서방님	1	시크	2	허접	3
107	시비털다	1	쌈	2	형	3
108	싸ㅇㅇ	1	ㅇㄷ	2	훗팅	3
109	셀링하다	1	ㅇㅋ	2	힝	3

■ 통신언어에 나타난 학교급별 유행어 목록과 특징

▪ 통신언어의 경우, 초등학생은 141개, 중학생은 434개, 고등학생은 346개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출현 빈도는 초등학생이 1252회, 중학생이 4516회, 고등학생이 3057회로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통신언어에서도 ‘ㄱ, ㄷㄷ, --, ><, ^^, ㅎ, -ㅇ, -ㅁ’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통신언어에서는 전체 학교급에서 모두 ‘ㄷㄷ, --’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의 빈도가 월등히 높았던 글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 비속한 의미의 접두사 ‘개-’는 초등학생에게서는 출현하지 않았고, 중고등학생은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 통신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종결어미가 글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4-37> 학교급별 유행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ㅋ	323	ㅋ	1421	ㅋ	863
2	ㄷㄷ	211	ㄷㄷ	636	ㄷㄷ	490
3	^^	136	ㅎ	415	-ㅁ	191
4	ㅎ	126	-ㅇ	219	ㅎ	145
5	-ㅁ	54	--	165	-ㅇ	136
6	-ㅇ	41	-ㅁ	134	-음	90

7	--	34	^^	128	--	76
8	-음	30	><	86	^^	71
9	짱	23	-음	54	존나	40
10	><	19	개-	38	쌈	38
11	대박	12	-ㄴ	33	개-	35
12	-ㄴ	10	존나	33	인강	29
13	-여	9	-여	27	찢다	28
14	헐	9	짱	25	><	24
15	ㄷㅈ	7	ㅇㅇ	24	강	19
16	ㅇㅇ	7	헐	22	완전	19
17	나대다	5	ㄱ	21	ㅅㅂ	18
18	넌	5	-ㅅ	20	레알	16
19	ㅈ	5	ㅅㅂ	19	-여	15
20	-되	5	완전	19	ㅎ.ㅎ	15
21	완전	5	강	16	ㄱ	12
22	-능	4	-능	16	-ㄴ	11
23	-염	4	안뇽	15	대박	11
24	젤	4	ㅈㅈ	14	생축	11
25	쭈	4	빠	14	졸라	10
26	컴터	4	ㅇㅈㄹ	14	넌	9
27	ㄱㄱ	3	흑	14	-디	9
28	ㅈ	3	무튼	13	ㅇㅇ	9
29	빵터지다	3	-땅	12	-땅	8
30	-삼	3	-잉	12	-뜸	8
31	쌈	3	쭈	12	룸메	8
32	울	3	ㅎ.ㅎ	12	빡치다	8
33	ㅈㅅ	3	넌	10	야자	8
34	ㅎ.ㅎ	3	대박	10	젤	8
35	하	3	망다	10	짱	8
36	☎하다	2	ㅂㅂ	10	ㅂㅂ	7
37	강	2	ㅎㅇ	10	쭈	7
38	-겨	2	찢다	9	초딩	7
39	귀요미	2	힝	9	헐	7
40	작	2	여편	8	ㄱㄱ	6
41	ㄴㄴ	2	ㄱㄱ	7	ㄴㄴ	6
42	랩	2	ㅅㄱ	7	-능	6
43	망다	2	-쌈	7	돋다	6
44	-ㅂ	2	아잉	7	쌈	6
45	-ㅅ	2	업뎃	7	-쌈	6
46	ㅅㄱ	2	ㅈㄴ	7	업신	6
47	쌈	2	ㅈㅅ	7	여튼	6
48	-쌈	2	히	7	-염	6
49	ㅇㅋ	2	ㅈ	6	쳐-	6
50	ㄱ	2	쌈	6	ㄴ	5
51	-잉	2	암튼	6	-딩	5
52	찢다	2	챗방	6	빨	5
53	침	2	-효	6	-ㅅ	5
54	카	2	ㄴㄴ	5	사탐	5
55	팝	2	나대다	5	컴	5
56	하핫	2	넌	5	컴터	5
57	휠배	2	닉넵	5	고딩	4
58	힝	2	-뜸	5	팬춘하다	4
59	오훗	1	빡치다	5	-규	4
60	고교평	1	섬	5	꺼지다	4
61	고쌈	1	-써	5	넌	4
62	교실-줄이	1	아놔	5	팔리다	4
63	구라	1	울	5	무튼	4
64	귀차니즘	1	-자	5	미친	4
65	꼬악	1	편파	5	섬	4
66	ㄴ	1	컴	5	ㅇㅋ	4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67	-네다	1	ㅍㅍ	5	여친	4
68	넉넉	1	하하	5	호영	4
69	-다는	1	헤	5	-3	3
70	-다능	1	후	5	나대다	3
71	도배	1	@.@	4	네톤	3
72	똥겁	1	개안타	4	뒷담까다	3
73	말아톤	1	구리다	4	-듬	3
74	무튼	1	귀요미	4	ㅂㅂ	3
75	뽕미	1	꼬기	4	-삼	3
76	미니미	1	-디	4	썸남	3
77	ㅂ밀	1	문친	4	-고	3
78	ㅂㅅㅈ	1	-오	4	아나	3
79	바이	1	올만	4	아오	3
80	반팅	1	-웅	4	안농	3
81	방가	1	쭈까	4	알바	3
82	방팅	1	ㅈㅈ	4	암튼	3
83	뽕	1	첨	4	예효	3
84	뽕	1	첫콘	4	열공	3
85	뿌잉	1	컴터	4	왕따	3
86	생과	1	허	4	왜케	3
87	선플	1	홈피	4	왠케	3
88	쇼	1	화이트	4	우왕	3
89	-슈	1	호호	4	울	3
90	-쌈	1	♡.♡	3	인서울	3
91	-써	1	ㄱ	3	-잉	3
92	썸쓰	1	-다는	3	-자	3
93	썸	1	단콘	3	자기	3
94	ㅇㄴ	1	디카	3	중딩	3
95	-고	1	-떠	3	표	3
96	아나	1	레알	3	-풍	3
97	아놔	1	레이	3	허	3
98	아싸라비아	1	ㅍㅈ	3	-효	3
99	안농	1	막콘	3	히	3
100	어의상실	1	미친	3	축	2
101	얼짱	1	-ㅂ	3	@.@	2
102	업뎃	1	반모	3	==	2
103	오잉	1	빠마	3	ㄱ	2
104	올만	1	뽕	3	개망	2
105	-웅	1	생과	3	ㄱㄱ	2
106	완존	1	-송	3	깁치다	2
107	왕따	1	ㅇㅋ	3	깨알같다	2
108	울	1	아나	3	꼬기	2
109	울이	1	어즘	3	ㄴㅍ	2
110	음하하	1	-염	3	남친	2
111	-응	1	엽사	3	ㄷㄷ	2
112	人	1	왜케	3	담	2
113	짬	1	우왕	3	-당게	2
114	질친	1	우왕	3	-다	2
115	젤루	1	-으	3	-데스	2
116	-저	1	은근	3	-듬	2
117	존내	1	-응	3	또라이	2
118	-귀	1	-장	3	ㅍㅈ	2
119	즐	1	-정	3	멍때리다	2
120	ㅈㅈ	1	짜응	3	메라플	2
121	쳐-	1	짱나다	3	무도	2
122	추카	1	찌질	3	배신때리다	2
123	친츄	1	친추	3	빠	2
124	카각	1	각	3	빡세다	2
125	컴	1	표	3	뽕	2
126	컴뽕	1	헛	3	뿌잉	2

127	컴터	1	-혀	3	생계형커플	2
128	프_프	1	gg	3	생과	2

나. 지역별 목록과 특징

■ 글말에 나타난 지역별 유행어 목록과 특징

· 글말은 ‘강원 > 경인 > 제주 > 충청 > 경상 > 전라’ 순으로 높은 어휘수를 나타냈다.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강원 > 경상 > 경인 > 충청 > 제주 > 전라’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강원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라 지역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모든 지역에서 ‘ㄱ, ㅌㅌ, ㅎ, ^^, -ㅇ, -ㅁ, --, ><’ 등의 통신언어 표현이 고빈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6개 지역 모두 ‘ㄱ’의 출현 빈도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

· 6개 지역 모두 이모티콘 웃음(^^)이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롤링페이퍼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4-38>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글말)

글말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순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ㄱ	410	ㄱ	650	ㄱ	366	ㄱ	260	ㄱ	393	ㄱ	284
2	^^	122	ㅎ	139	ㅎ	119	-ㅁ	50	ㅎ	132	^^	87
3	ㅌㅌ	61	^^	119	-ㅇ	89	^^	43	^^	83	ㅌㅌ	73
4	-ㅇ	55	-ㅁ	100	^^	79	ㅌㅌ	37	-ㅇ	72	ㅎ	52
5	-ㅁ	48	나대다	76	ㅌㅌ	66	-ㅇ	30	-ㅁ	71	-ㅇ	30
6	><	42	--	63	><	62	--	26	ㅌㅌ	66	><	27
7	ㅎ	38	ㅌㅌ	53	안농	30	ㅎ	26	--	36	-ㅁ	25
8	--	32	-ㅇ	41	ㅎㅇ	22	ㄴ	25	안농	36	--	16
9	ㅎㅇ	29	ㄴ	37	ㅁ2	17	나대다	16	나대다	21	완전	15
10	-ㅅ	20	><	33	열공	17	><	12	><	19	여신	13
11	나대다	18	전파	30	-ㅁ	15	짱	11	-ㅅ	17	안농	12
12	완전	17	완전	26	-자	14	뉴규	10	센터	15	짱	12
13	안농	13	존나	24	--	12	ㅁ2	9	귀요미	10	귀요미	8
14	짱	12	ㅎㅇ	22	ㅅㄱ	12	-ㅅ	8	썸	10	레알	8
15	ㅅㄱ	10	ㅂㅇ	21	붕신	11	여병추	7	짱	8	민폐	7
16	납친	9	쓰ㅂ	20	짱	11	존나	6	하이	7	♡.♡	6
17	ㅎ2	9	개-	18	5래	7	ㅎㅇ	6	개-	6	님	5
18	개-	7	ㅅㅂ	18	개-	7	쌔	5	완전	6	썸	5
19	존나	7	찢다	16	나대다	7	쌔	5	-자	6	폭풍-	5
20	평친	7	안농	15	ㅂ2	7	19금	4	헐	6	대박	4
21	-9	6	ㅂㅅ	13	ㅎ2	7	꺼지다	4	뽕	5	ㄴ	4
22	쿨하다	6	님	11	강	6	크크	4	-잉	5	-자	4
23	귀요미	5	병아	11	썸	6	귀요미	3	절친	5	개-	3
24	방가	5	갈구다	10	완전	5	깁치다	3	후	5	강	3
25	열공	5	귀요미	10	추카	5	노자	3	깁치다	4	구라	3
26	-자	5	ㄷㄷ	9	아농	4	-쌔	3	대박	4	굳	3
27	찢다	5	베프	9	찢다	4	시크남	3	레알	4	깁치다	3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28	꺼지다	4	빡치다	9	-능	3	야동	3	방가	4	ㄴㄴ	3
29	대박	4	ㅈㅈ	9	드립	3	왜캐	3	열공	4	돈다	3
30	ㅁ2	4	짱	9	ㅂㅈ	3	-잉	3	ㅎㅇ	4	볼매	3
31	ㅂㅂ	4	썸	9	베프	3	전나	3	하	4	뽕	3
32	잉	4	ㄴㄴ	8	부립	3	절다	3	42	3	쌈	3
33	잉여	4	애자	8	-쓰	3	추카	3	♡.♡	3	안나뽕	3
34	썸	4	강	7	안농	3	겔플	2	강	3	야동	3
35	-규	3	-ㅈ	7	-취	3	-규	2	넌	3	엄친딸	3
36	넌	3	쌈	7	초딩	3	넌	2	넌	3	존나	3
37	무튼	3	안농	7	뽕	3	맘	2	ㅂㄹㅂㄹ	3	전따	3
38	부끄	3	ㅈㅈ	7	훗팅	3	ㅂㅈ	2	ㅂㅂ	3	고맙	2
39	뽕	3	귀척	6	-G	3	망가	2	뽕	3	-괴	2
40	아놔	3	깡치다	6	♡.♡	2	부립	2	싸랑	3	ㅂㅈ	2
41	에마	3	ㅂㅂ	6	경부	2	빡치다	2	앗농	3	까칠하다	2
42	울	3	♡.♡	5	귀척	2	뽕	2	열라	3	나대다	2
43	인기남	3	ㅂㅈ	5	-규	2	ㅂㅂ	2	크크	3	넌	2
44	♡.♡	2	뽕찌	5	깡찌기	2	싸랑	2	갈구다	2	논	2
45	강	2	-삼	5	넌	2	ㅇㅋ	2	급-	2	도도녀	2
46	그닥	2	자뽕	5	따롱	2	아놔	2	돈다	2	부립	2
47	넌	2	쳐-	5	맘	2	안농	2	또라이	2	빡공	2
48	노자	2	Ge2	5	-ㅂ	2	앗농	2	맘	2	뽕	2
49	베프	2	ㅂㅈ	4	뽕	2	야자	2	-ㅂ	2	-ㅈ	2
50	뽕	2	구라	4	-ㅈ	2	여친	2	부립	2	ㅂㅂ-종 결자	2
51	센터	2	대박	4	ㅇㄷ	2	우왕	2	ㅁ2	2	싸랑	2
52	-쌈	2	돈다	4	ㄴㄴ	2	졸	2	뽕	2	알러뷰	2
53	싸랑	2	드립	4	-여	2	졸라	2	ㅂㅂ	2	여친	2
54	썸척하다	2	맘찌	4	여친	2	썸	2	쌈	2	열공	2
55	ㄴㄴ	2	부립	4	완존	2	전따	2	알러뷰	2	오덕꾸	2
56	안너응어응	2	ㅁ2	4	우정하다	2	ㅂㅂ	2	오글	2	왕-	2
57	안니용	2	시크하다	4	-잉	2	쳐-	2	완존	2	울	2
58	웬케	2	싸이코패션	4	ㅈㅈ	2	캡짱	2	젤	2	-잉	2
59	우왕	2	ㅈㅈ	4	절친	2	하	2	존나	2	정색남	2
60	-잉	2	존라	4	젤	2	형	2	절다	2	절다	2
61	ㅈㅈ	2	짜다	4	존나	2	형	2	ㅋ	2	차도녀	2
62	깡	2	5래	3	척오	2	==	1	평친	2	파팅	2
63	-취	2	ㅂㅂ	3	칭구	2	♡.♡	1	훗팅	2	훗	2
64	짜응	2	그닥	3	42	1	ㅂㅂ	1	Ya설	2	-9	1
65	ㅂㅂ	2	냄시	3	개××	1	ㅂㅂ	1	-3	1	ㅂㅂ	1
66	칭구	2	뽕신	3	개생키	1	개세	1	5글5글	1	간지남	1
67	쿠헬	2	뽕춤하다	3	겔맹이	1	공신	1	-ㅂ	1	간지폭풍	1
68	ㅎㄷㄷ	2	뽕	3	고딩	1	ㅂㅂ	1	ㅂㅂ	1	겔둥이	1
69	햄볶다	2	-쌈	3	구라	1	깡놀	1	ㅂㅂ	1	귀차니즘	1
70	oky	2	ㅇㅋ	3	귀요미	1	남소	1	공부벌레	1	귀척	1
71	개섹히	1	열공	3	기욤이	1	논	1	구갱	1	귀요미	1
72	경부	1	오크	3	깡놀	1	ㄷㄷ	1	구라	1	그닥	1
73	게시키	1	울	3	깡사다	1	대박	1	귀여미	1	근육녀	1
74	굳	1	옹하	3	꺼지다	1	등그리	1	귀엽	1	기욤이	1
75	귀찮니즘	1	젤	3	ㄴㅂ	1	등그리	1	귀엽	1	깡죽대다	1
76	근자감	1	찌질이	3	ㄴㄴ	1	디따	1	-규	1	남친	1
77	-괴	1	황	3	남친	1	디카	1	급-	1	넌사벽	1
78	ㄴ	1	허접	3	대따	1	또라이	1	깡죽이	1	녹빙	1
79	남폰	1	헐	3	데헛	1	루저	1	나맹이	1	노자	1
80	-농	1	훗	3	데헛	1	ㅂㅂ	1	남친	1	-능	1
81	대박	1	×동	2	딸리다	1	만	1	논	1	디따	1

82	다기	1	간지남	2	룸메	1	몰카	1	ㅂㅇ	1	따랑	1
83	드립	1	넌	2	무튼	1	뽕미	1	범생	1	막장	1
84	-딩	1	논	2	ㅂㅂ	1	민폐	1	베프	1	매너남	1
85	뽕망	1	또라이	2	방가루	1	-ㅂ	1	변태	1	민폐녀	1
86	루저	1	띠엑	2	버닝	1	베프	1	빠빠이	1	민폐씨	1
87	마9마9	1	랩	2	빠	1	변태	1	살앙	1	-ㅂ	1
88	마빡이	1	ㅂ2	2	빠빠	1	빠이	1	-삼	1	방가등	1
89	멍미	1	ㅂㅂㅂㅂ	2	뿌잉	1	뽕	1	색쉬하다	1	베프	1
90	미친	1	방가	2	사롱	1	ㅂㅂ	1	생츱	1	부끄	1
91	-ㅂ	1	범생	2	쌌	1	-삼	1	섹시녀	1	북9	1
92	반명	1	빠이	2	-쌌	1	생과	1	-쌌	1	불쌍	1
93	베뷔	1	뽕	2	서틀	1	쌌	1	쌌	1	미주얼	1
94	병클	1	뽕로롱	2	서틀년	1	-고	1	-성	1	빠2	1
95	부립	1	ㅂㅂ	2	싸랑	1	아나	1	-송	1	빠릿하다	1
96	북호	1	ㅂㅂ	2	쟁까다	1	암농	1	썰렁개그	1	뽕터지다	1
97	미주얼	1	상꼬마	2	싸랑	1	앗녕	1	썰렁하다	1	뽕	1
98	빠	1	서틀	2	ㅇㅋ	1	어쩔	1	썰렁	1	ㅂㅂ	1
99	빠2	1	시크녀	2	안용	1	열공	1	-쓰	1	셀카	1
100	빡치다	1	야×	2	알라뽕	1	오덕쿠	1	안경탱이	1	시크	1

■ 통신언어에 나타난 지역별 유행어 목록과 특징

· 어휘수와 출현 빈도 모두 ‘충청 > 전라 > 경인 > 강원 > 제주 > 경상’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모든 지역에서 ‘ㅋ, ㅌㅌ, ㅎ, ^^, -ㅇ, -ㅂ, --, ><’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6개 지역 모두 ‘ㅋ’의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 글말에서는 웃음(^^)이 더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통신언어에서는 울음(ㅌㅌ)이 모든 지역에서 ‘ㅋ’ 다음으로 높게 출현하고 있었다. 통신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 형식으로 본인의 상태나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글들이 많아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39> 지역별 유행어 출현 빈도(통신언어)

통신 순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형태	빈도
1	ㅋ	416	ㅋ	561	ㅋ	481	ㅋ	536	ㅋ	337	ㅋ	276
2	ㅌㅌ	271	ㅌㅌ	195	ㅌㅌ	301	ㅌㅌ	223	ㅌㅌ	152	ㅌㅌ	195
3	-ㅂ	87	ㅎ	70	ㅎ	202	ㅎ	157	ㅎ	120	ㅎ	77
4	-ㅇ	68	-ㅇ	57	-ㅇ	89	-ㅇ	99	--	55	^^	75
5	ㅎ	60	-ㅂ	46	^^	86	^^	64	-ㅂ	53	-ㅂ	63
6	-음	49	^^	32	-ㅂ	71	-ㅂ	59	-ㅇ	47	-ㅇ	36
7	--	46	--	26	--	68	--	54	^^	34	-음	34
8	^^	44	><	18	-음	36	><	31	개-	21	--	26
9	존나	25	ㅇㅇ	14	><	32	-음	27	><	20	쌌	22
10	강	24	ㅎ.ㅎ	14	빠	16	존나	16	-음	16	인강	21
11	><	18	ㅂ	13	개-	14	ㅂㅂ	13	존나	13	-ㄴ	15
12	흑	14	개-	12	ㅇㅂㄹ	14	-땅	12	쌌	10	짱	15
13	완전	12	-음	12	존나	14	-여	12	짱	10	><	10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14	개-	11	찢다	11	찢다	14	-ㄴ	10	-ㅅ	8	여편	8
15	짱	11	ㄷㄷ	10	ㅅㅅ	12	ㅇㅇ	10	헐	8	컴터	8
16	-ㄴ	10	-여	10	-ㄴ	11	개-	9	안농	7	개-	6
17	ㅅㅅ	9	완전	9	-ㅅ	11	무튼	8	빡치다	6	-능	6
18	-여	9	대박	8	ㄱ	11	짱	7	업뎃	6	-여	6
19	인강	9	레알	7	완전	11	ㄷㄷ	6	완전	6	사탐	5
20	넌	8	-뜸	6	대박	10	망다	6	-ㄴ	5	ㅇㅇ	5
21	롬메	8	무튼	6	ㅂㅂ	10	ㄱ	6	-여	5	완전	5
22	헐	8	짱	6	생츠했	10	업신	6	넌	4	ㄱㄱ	4
23	대박	6	켓방	6	넌	9	화이트	6	썰	4	문친	4
24	야자	6	ㄱㄱ	5	-여	9	나대다	5	ㄱ	3	-셈	4
25	-능	5	강	5	헐	9	-능	5	대박	3	-염	4
26	썰	5	헐	5	ㅇㅇ	8	-딩	5	-뜸	3	첫콘	4
27	찢다	5	-규	4	-잉	8	안농	5	빨	3	하하	4
28	썰	5	-능	4	-디	7	찢다	5	-잉	3	헐	4
29	개안타	4	돈다	4	울	7	컴터	5	-풍	3	ㄴㄴ	3
30	고딩	4	쌈	4	짱	7	ㅎ.ㅎ	5	하	3	나대다	3
31	ㄴ	4	우왕	4	ㅎ.ㅎ	7	ㅎㅇ	5	혜	3	넌	3
32	ㄴㅇ	4	졸라	4	-능	6	-효	5	@.@	2	네톤	3
33	나대다	4	초딩	4	ㄷㄷ	6	넌	4	==	2	ㄷ	3
34	-셈	4	팬준하다	3	썰	6	ㄷ	4	ㅎ하다	2	단콘	3
35	아잉	4	-ㄴ	3	레알	5	쌈	4	작	2	대박	3
36	여튼	4	닉넌	3	망다	5	왜케	4	-와	2	막콘	3
37	히	4	디카	3	ㅈㄴ	5	-잉	4	랩	2	반모	3
38	ㄴㄴ	3	섬	3	졸라	5	쭈까	4	ㅇㅈ	2	뿌잉	3
39	뒷담까다	3	은근	3	ㅈㅈ	5	헐	4	무플	2	암튼	3
40	레알	3	존나	3	ㅇㅇ	5	@.@	3	미친	2	열공	3
41	빡치다	3	컴	3	ㄱㄱ	4	ㄱㄱ	3	ㅅㅅ	2	인서울	3
42	ㅂㅂ	3	ㅇ	3	강	4	ㄱ	3	-셈	2	자게	3
43	-ㅅ	3	히	3	구리다	4	대박	3	썰남	2	젤	3
44	-삼	3	개알같다	2	꼬기	4	-디	3	올레	2	썰	3
45	쌈	3	꺼지다	2	ㄴㄴ	4	레알	3	ㅈㅅ	2	친추	3
46	ㅇㅇ	3	ㄴㄱ	2	ㅂㅂ	4	빠마	3	-제	2	1318	2
47	-염	3	ㄴㄴ	2	ㅅㄱ	4	-ㅅ	3	찢다	2	강	2
48	-응	3	-듬	2	쌈	4	ㅅㄱ	3	쳐-	2	ㄱ	2
49	젤	3	메라플	2	ㅇㅋ	4	-셈	3	컴	2	ㄴ	2
50	중딩	3	무도	2	젤	4	언녕	3	-푸	2	닉넌	2
51	컴	3	빡세다	2	전파	4	-염	3	ㅎㅇ	2	-와	2
52	ㅎㅇ	3	빡치다	2	후	4	왕	3	히	2	-망	2
53	헐	3	빨쭈하다	2	힝	4	ㅈㅅ	3	헉	2	-라는	2
54	흠피	3	뽕	2	♡.♡	3	-자	3	힝	2	레이	2
55	개망	2	생계형커플	2	담	3	-정	3	-5	1	무튼	2
56	작	2	섭	2	딸리다	3	썰	3	-3	1	베프	2
57	ㄱ	2	-셈	2	-땅	3	침	3	ㄱ	1	쌈	2
58	네톤	2	쌈	2	-ㅂ	3	작	3	ㄱㄷㄴㄱ	1	ㄱ	2
59	-와	2	쏘리	2	섬	3	히	3	개ㅅㄱ	1	아나	2
60	-듬	2	-고	2	아와	3	힝	3	-결랑	1	ㅈㄴ	2
61	-디	2	안농	2	안농	3	ㄱ	2	썰	1	존나	2
62	미친	2	암튼	2	어좁	3	강	2	고딩	1	작궁	2
63	바이	2	-염	2	여친	3	-규	2	귀요미	1	찢다	2
64	배신패리다	2	올만	2	엘게	3	꼬기	2	귀척	1	컴	2
65	쌈	2	-잉	2	우앙	3	네톤	2	나대다	1	플카	2
66	ㅇㅋ	2	ㅈㅅ	2	일욜	3	-당게	2	녀자	1	ㅎ.ㅎ	2
67	ㄱ	2	썰	2	짜응	3	-다	2	-능	1	-혀	2
68	아나	2	츄릅	2	짱나다	3	-또	2	-닝	1	-효	2

69	아나	2	카	2	초딩	3	-뚝	2	-다는	1	-3	1
70	아싸	2	카	2	헤	3	-하	2	대빵	1	빠이	1
71	엽사	2	-쿤	2	-효	3	하하	2	댕기다	1	오후	1
72	예쓰	2	간지	1	호영	3	바	2	-다	1	ㄱ	1
73	-오	2	거지쟁쟁이	1	히	3	-삼	2	-데스	1	-거등	1
74	-자	2	곰탕이	1	-3	2	생과	2	데이뚜	1	겐	1
75	전나	2	굿뜨	1	추	2	-슈	2	도배	1	교실-줄이	1
76	-저	2	귀요미	1	-거	2	쓰하	2	돈다	1	귀요미	1
77	줄라	2	ㄱㄱ	1	귀요미	2	-써	2	-딩	1	귀차니즘	1
78	찌질	2	까앙	1	잡치다	2	ㅇㅋ	2	뽕뽕하다	1	-그등	1
79	쳐-	2	-파	1	돈다	2	-고	2	-땅	1	-기	1
80	폼	2	남캐	1	-땀	2	아나	2	-떠	1	꺼지다	1
81	호호	2	날씨	1	-떠	2	아잉	2	-떠여	1	끄웃	1
82	히히	2	-노	1	만빵	2	암튼	2	또라이	1	남친	1
83	힝	2	느므	1	빵터지다	2	-앙	2	-땡	1	노자	1
84	@.@	1	-데스	1	뽕	2	에효	2	-롱	1	눈정화	1
85	강추	1	드립	1	뽕	2	-오	2	망다	1	ㄷㄷ	1
86	개그감	1	-듬	1	-삼	2	왁	2	멍미	1	-다는	1
87	-거등	1	-디	1	생과	2	울	2	몸캠	1	담	1
88	-겨	1	-딩	1	-싸	2	젤루	2	무튼	1	당근	1
89	겜딩	1	딸리다	1	-써	2	ㅈㅈ	2	미니미	1	덜덜	1
90	고고	1	-땅	1	아눔	2	-썸	2	하2	1	드려	1
91	-고등	1	레이	1	아싸	2	쳐-	2	바바	1	등업	1
92	교복-배틀	1	-리안	1	아오	2	척오	2	빠순이	1	댕기다	1
93	구라	1	-ㅁ다	1	알빠	2	표	2	뽕냥	1	또라이	1
94	귀요미	1	ㅁㅈ	1	열공	2	폼	2	ㅈㄱ	1	-뚝	1
95	귀차니즘	1	막장	1	올만	2	휠배	2	-서	1	레알	1
96	귀찬	1	만랩	1	웅	2	호미	2	-슴	1	랩	1
97	그지	1	만쉐	1	-웅	2	호영	2	-슴다	1	루저	1
98	기요미	1	말아톤	1	-으	2	♡.♡	1	싸이코	1	ㅁㅈ	1
99	까	1	멍미	1	ㅈㅈ	2	-ㄱ	1	쌀롱	1	ㅁㅈ년	1
100	꿀꿀하다	1	모드	1	-자	2	-간	1	썰리다	1	모평	1

3. 직접 조사 결과 종합

3.1 비속어 사용 실태

■ 비속어는 입말에서는 총 541개(4769회), 글말에서는 250개(945회), 통신언어에서 236개(817회)가 출현하고 있었다.

■ 입말, 글말, 통신언어에서 공통으로 ‘좃나, 씨발, 새끼, 개’ 등의 비속어가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 다양한 표기가 가능한 글말과 통신언어는 입말에 비해 여러 형태가 출현하고 있었다.

▪ 글말에서는 ‘ㄱ, ㅅㅅ’이, 통신언어에서는 ‘ㅅㅅ, ㄱ, 시발, ㅇㅈㄹ, ㄷㅅ’ 등 모음이나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고빈도로 출현하였는데, 입말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들이었다.

▪ 글말과 통신언어는 ‘ㅅㅅ, ㅅㅅ, ㅅㅅ, 쉬발, 슈 ㅅㅅ, 슈박, 슈발, 스벌, 식발, 시바, 시발, 시방, 시뺑, 시바, 시버, 싸발, 쑈발, 쑈보, 쑈발, 씨발, c8, C8, see발, She발, thㅣ발, thㅣ바’처럼 하나의 형태에 대한 변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입말, 글말, 통신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였고, 성과 관련되거나 강도가 센 비속한 형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입말은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초등학생은 93%, 중고등학생은 96%가 비속어를 1회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글말은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은 295회, 중학생은 225회, 고등학생은 434회를 보여 초등학생·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컸다. 이에 비해 통신언어에서는 초등학생이 35회, 중학생 393회, 고등학생 399회를 보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를 보였다.

▪ 입말에서는 초등학생은 ‘바보, 씨, 쓰레기, 멍청이’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ㄴ그 엄마, 좃되다, 씨발놈, 씹새끼, 엠창’ 등과 같이 성과 관련한 비속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좀더 비속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 글말에서는, 초등학생은 ‘시발, ㅅㅅ, 십파’처럼 하나의 형태에 대한 변이 형태가 많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어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통신언어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출현 빈도가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는 입말에서는 경인과 전라가 가장 많은 비속어 어휘가 출현하였고, 제주가 가장 적은 수의 어휘가 출현하였다. 글말에서는 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가장 적었으며, 통신언어에서는 충청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 지역별 특징을 보면, 입말·글말·통신언어가 표기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고빈도 출현

어휘와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 입말에서는 6개 지역 모두에서 ‘쫓나’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그 다음 순위는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씨발’이 차지하고 있어, 전체 고빈도 목록과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새끼, 찢다, 뺨치다, 개’ 등은 5-6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지역에 따라 고빈도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글말에서는 ‘시발, 새끼’ 등이, 통신언어에서는 ‘씨발, 병신, 미친’ 등이 6개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 글말과 통신언어에서는 ‘붕신, 여병추, 씨ㄴ, ㄴㄴ, ㅇㅈㄴ, 상, 십자루, 니미’ 등은 1개 지역에 한정되어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3.2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 공격적 언어 표현은 입말·글말·통신언어 모두 ‘욕설>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사용 비율이 나타났다.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심한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여,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 입말에서는 ‘욕설(67%), 비방(28%), 협박(5%), 저주(0.3%)’의 비율을 보였다.

▪ 글말과 통신언어에서는 ‘욕설(54%), 비방(40%), 협박(4%), 저주(2%)’의 비율로 출현하였다.

▣ 학교급별, 지역별로도 ‘욕설>비방>협박>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 지역에서만 비방이 욕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 욕설은 입말·글말·통신언어 모두 ‘미친년, 미친놈, 씹새끼, 개새끼, 멍청이, 바보, 병신, 새끼’와 같은 인칭 욕설이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입말의 경우, 남학생에게 ‘년’이 포함된 욕설이 여학생에게 ‘놈’이 포함된 욕설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성과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욕설 사용 양상은 좀 더 강한 욕설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비방은 입말·글말·통신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상대의 외모, 능력, 자격 등을 비하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비방에 사용된 표현 중에는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어휘가 ‘애자’ 등과 같이 변이 형태로까지 실현되며 입말·글말·통신언어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 위협은 입말·글말·통신언어 모두 ‘죽인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입말에 비해

글말(통신언어)에서 보다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 저주는 입말·글말·통신언어 동일하게 가장 낮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었으며, 입말에서는 ‘가방을 누가 훔쳐가 버려라’, 글말(통신언어)에서는 ‘고자나 되라, 길가다가 자빠지렴, 망해버려라, 설사나 해라’ 등이 출현하고 있어, 입말에 비해 글말(통신언어)에서 보다 다양한 표현을 볼 수 있었다.

3.3 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1) 은어 사용 실태

▣ 은어는 입말에서는 217개(761회)가 출현하였고, 글말에서는 102개(452회), 통신언어에서는 127개(494회)가 출현하였다.

▣ 입말·글말·통신언어 모두 저속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학교 내 집단 소외와 관련한 은어들이 많았다.⁵³⁾

▪ 폭력과 관련된 ‘뜨다, 발리다, 일진, 이진, 다굴, 맞짖’, 성과 관련된 ‘야동, 엠창, 엄창, 꽃도, 거시기’, 집단 소외와 관련된 ‘왕따, 찌따, 따, 은따, 오덕쿠, 오덕후, 셔틀, 빵섭틀, 셔틀년’ 등이 출현하였다.

▣ 기성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줄임말과 자음표기, 숫자 및 영어 표기 등이 많았는데, 특히 글말·통신언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줄임말은 기존의 국어 문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입말·글말·통신언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줄임말에는 ‘방과, 노방’과 같이 단어 중간이나 끝음절이 탈락하거나, ‘베프, 여주, 친추, 친삭’과 같이 단어의 첫 음절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한자어, 영어에 관계없이 줄임말을 생성하고 있었다. ‘깜놀’과 같이 부사와 동사의 첫 음절로 구성된 줄임말도 있었다.

▪ 글말·통신언어에서는 자음 표기(ㄸㄹ, ㄹㅈ, ㄹㅊ, ㅇㅈㄹ), 숫자 및 영어 표기(sc, c8), 줄임말(남캐, 엽사), ×표기(야×, ×동, ×되다, ×무한, 미×)와 같이 저속한 표현을 기성세대들이 모르게 숨김으로써 은비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 입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은어는 ‘느그 엄마’였는데, 글말·통신언어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고 있다.

53) 청소년의 은어는 또래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청소년 언어 문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어로 숨기려고 하는 내용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 문제가 되는 현상의 일부라면 은어 사용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학교급별로 은어 어휘를 보면, 입말과 통신언어는 중학생이 가장 많은 은어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글말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어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 지역별로는 입말에서는 전라가 79개로 가장 많은 은어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제주가 24개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글말은 강원이 59개, 제주와 경상이 18개, 통신언어는 충청이 49개, 경상이 19개로 매체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출현하는 은어 어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 입말에서는 ‘왕따, 찐따, 야동, 야자, 엠창, 일진’ 등이 비교적 6개 지역에 고루 출현하고 있었다.

▪ 글말과 통신언어에서는 ‘빠2, 레알, ㄱㅅ, ㅅㅅ’ 등이 비교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은어들이었다.

2) 유행어 사용 실태

■ 유행어는 입말에서는 총 485개(3329회)의 형태가 출현하였고, 조사 대상자 전원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글말에서는 538개(7298회), 통신언어에서는 651개(8825회)가 출현하고 있어 비속어나 은어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 고빈도 유행어 가운데에는 입말·글말·통신언어에서 공통적으로 ‘개-, 찐다, 갑치다’ 등의 비속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입말·글말에서 줄임말(쌤, 강, 여친, 알바, 놀토, 생파, 문상, 절친, 비번, 베프, 길막, 셀카), 종결어미인 ‘-음, -임’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통신언어의 영향이 입말과 글말에 크게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입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행어는 ‘완전(606회)’이었으며, ‘쌤(254회), 개-(184회), 헐(176회), 찐다(160회)’의 순으로 정도성을 표시하거나 감탄사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글말(통신언어)에서 ‘ㄱ, ㅎ, ^^, --, ㄷㄷ, ><’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유행어의 기능이 매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학교급별로는 입말과 통신언어에서는 중학교가 가장 많은 유행어 어휘가 출현하고 있었고, 글말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입말은 ‘완전, 개-, 나대다, 대박, 헐, 찐다’ 등이 학교급별, 지역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글말·통신언어는 자음 표기(ㄱ, ㅎ, ㅂㅇ), 이모티콘(--, @.@, ^^, ><,

ㅌㅌ), 숫자 및 영어 표기(ㄸ2, bb, sc, see발), 줄임말(훈남, 귀척, 감놀, 차도녀, 넘사벽), 종결어미(-9, -5, -3, -G, -데스, -ㄱ, -ㅈ, -ㅇ, -규, -귀) 등이 지역별,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주된 유행어 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 방안

1. 청소년 언어 실태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청소년 언어 실태에 관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청소년 언어 사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문제적 언어 사용의 범위와 정도의 심각성

- 현재 청소년 언어는 비속어 등 왜곡된 언어가 잠식하고 있다. 비속어는 초등학생의 97%, 중고등학생의 99%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은어나 유행어는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의 경우 100%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문제적 언어의 광범위한 사용 외에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거친 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높은 어휘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열라, 이빨까다’ 등의 비교적 강도가 낮은 비속어에서부터 ‘좃까다, 엠창/엠창’ 등의 강도가 높은 비속어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술까말, 안습’과 같은 규범 파괴의 정도가 낮은 은어·유행어에서부터 ‘팔라, 죽빵치다, 개’와 같이 규범 파괴의 정도가 심한 어휘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욕설, 헐박, 저주, 조롱 등 공격적 언어 표현도 문제이다. 특히, 자신과 관련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가족(어른)에게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에 공격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과 은어·유행어 사용에 대한 용인 태도의 증가

-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고 비규범적인 언어를 아무런 비판이나 문제점의 인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경우,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욕을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등의 응답이 늘어나는 등 그것을 용인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비판의식 없이 용인하는 태도는 실제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언어 실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 사회적 건전성 및 건강성의 상실

- 비속어나 공격적 언어 표현은 가정 경제 수준과 거주 지역의 도시화 정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소득층과 대도시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적 관심이나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계층에서 청소년 언어의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언어 문제야말로 그 사회의 건전성이나 건강함을 반영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범정부적 관심 및 사회적, 교육적 대처의 미비

- 청소년의 문제적 언어 사용은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교육적, 사회적 차원의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미리 예방하지 못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개선책 구안 및 관리 주체를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의 언어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적절한 것은 ‘국가기관’이라고 반응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선안의 제안에서도 청소년 언어 문제 해결을 학생 요인보다는 사회 환경의 개선에서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많이 나타났다.

-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언어 문제는 청소년 자신이나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이 이미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 동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언어 문제가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주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된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 개선 방안을 구안하였다.

주요 요인		개선방안의 주안점
■ 가정환경 요인 - 스트레스(가정 내 언어폭력) - 가족응집성	⇒	■ 가정 내 언어폭력 근절 ■ 가족 간 소통 역량 강화
■ 교육 환경 요인 - 학업 스트레스	⇒	■ 학업 스트레스 줄이기
■ 사회문화 환경 요인 -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 용인 태도 - 또래 간 응집성 - 청소년 집단(방과 후) 활동	⇒	■ 청소년의 자발적 언어 개선 분위기 확산 ■ 언어폭력의 피해 홍보 및 교육 ■ 청소년 집단(방과 후)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언어 사용에 대한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나 교사의 통제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대상 설문 결과> 참조). 따라서 비속어 등의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자각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 청소년 언어 사용에 대한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청소년 대상 설문 결과> 참조). 따라서 가정 내 언어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 간 소통 역량을 강화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언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은 공격적 언어 표현과 비속어 사용으로 나타났다. 은어와 유행어 사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파악되었다(<교사 대상 설문 결과> 참조). 따라서 공격적 언어 표현과 비속어 사용에 대한 대책이 보다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언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 방안은 (1)‘언어 폭력에 관련된 문제 학생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교육), (2)‘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바른말 사용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홍보), (3)‘가정 내 언어 순화 및 지도 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캠프, UCC 공모전 등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같은 일회성 행사 위주의 개선 방안은 실효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교사 대상 설문 결과> 참조). 따라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들을 위주로 구체화하는 일이 요구된다.

3. 추진 및 시행 체계

청소년의 언어 사용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각각의 현상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서 드러나는 문제 현상은 다양한 변인들이 관여하는 복합적 현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수행 이전에 이론 연구를 수행하여 변인들을 설정하였고 이어서 실제 조사를 통해 이를 상관 분석함으로써 주요 요인들을 확정하였다. 확인된 변인들은 관련된 것끼리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체계화는 주요 요인과 연계된 해결 방안의 마련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 방안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부여한다.

3.1 추진 체계

▶ 청소년 언어 문제의 성격 규정과 개선 방안 마련의 지침

지금까지 청소년 언어 문제는 청소년 정책 속에 포함되어 다루어져 왔으며, 구체성이 결여되고 개개인에게 맞기는 형태를 취해 왔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언어 문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지침으로 삼도록 한다.

- 문제 해결의 통제성과 예측성: 사회문화 환경 요인에는 청소년 언어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언어 문제를 해결,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한 통제 요인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들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안될 수 있다.
- 개선 방안 실행의 용이성과 자발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집단 활동 등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대상 학생의 보편성과 평등성: 청소년들의 가정, 성적, 개인별 특성 등의 개별 요인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개선 방안 마련의 반영 사항(문헌 및 정책 연구)

- 청소년의 문제적 언어 사용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언어 사용을 개인적 차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 측면의 접근과 함께, 국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육과정 차원의 고려 또는 반영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언어 문제는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분포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제 학생의 처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함을 말해 준다.

- 청소년의 언어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이 즉자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언어의 문제는 이론적, 논리적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차원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 정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면에서 현재까지의 정책들은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구의 설정을 결여하고 있다. 각 부처가 지닌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행의 체계 또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정책 프로그램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특징을 반영하는 등 인간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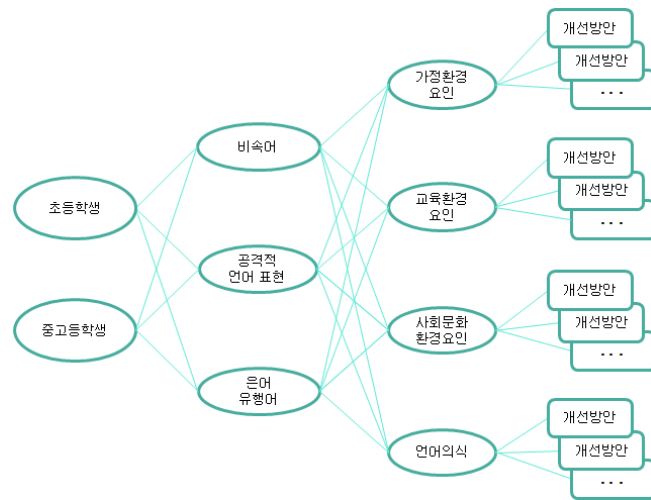
▶ 개선 방안 마련의 반영 사항(설문 조사 연구)

- 청소년 언어 문제는 그 문제 유형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 동안의 개선 방안은 통신 언어의 규범 파괴, 욕설 등과 같이 특정 유형에만 치중되어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 이들에 대한 유형화와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문제 유형을 비속어, 공격적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로 구분하고, 언어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예방과 개선으로 나누어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학교급별로 청소년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개선 방안은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상식적 수준의 대책 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 교육 환경, 사회 문화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성장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개선 방안의 우선순위는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근거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파악된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 방안을 선정하고 문제 해결의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된 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개선 방안의 구조 설계

청소년 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시급성, 실행 형태, 목표 효과 등으로 매우 다양한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개선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개선 방안은 실행 상의 차원으로 볼 때는 교육 정책이면서 동시에 예방 정책일 수도 있다.

▪ 시급성에 따른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분류

- └ 우선 과제: 시급성이 높은 과제
- └ 차기 과제: 시급성이 다소 낮은 과제

청소년 언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시급성에 따라 우선 과제와 차기 과제로 구분된다. 우선 과제는 시급성이 높아 당장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이다.

▪ 목표 효과에 따른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분류

- └ 진단: 청소년의 언어의 문제점 및 심각성 평가
- └ 예방: 청소년 언어 문제의 예방
- └ 개선: 청소년 언어, 환경 개선

해결 방안은 진단, 예방, 개선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진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언어가 지닌 문제점과 수준, 심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다음으로 ‘예방’은 청소년의 언어 사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 실행, 평가되는 방안이다. 끝으로 ‘개선’은 언어 사용에 현저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 문제를 치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실행 형태에 따른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분류

- ┌ 제도: 제도 및 정책 마련
- ├ 교육: 교육 및 상담 활동
- ├ 홍보: 홍보 활동 및 캠페인 전개
- └ 연구: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해결 방안은 그 실행 상의 형태에 따라 제도, 교육, 홍보,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는 제도 및 정책의 마련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교육은 청소년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말하며, 홍보는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된다.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에서부터 실제적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응용 연구를 포괄한다.

▪ 개선 방안의 전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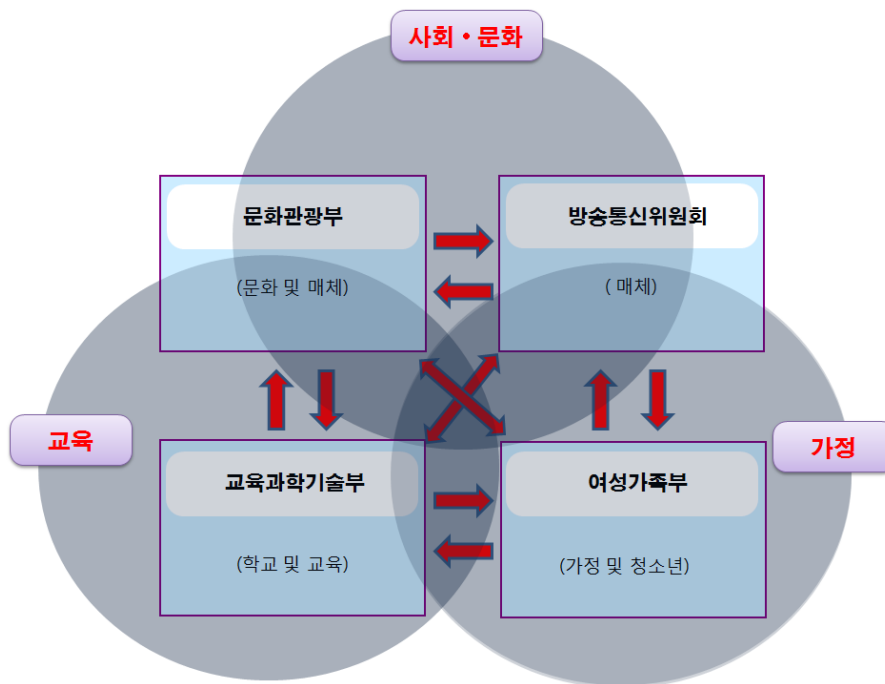
청소년의 언어 문제 해결 방안은 입체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었다. 해결 방안은 제도, 교육, 홍보, 연구의 성격을 지닌 세부 사업의 총합이면서 그것들이 관련된 것끼리 모여 하나의 사업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 언어 문제를 진단, 예방, 개선하는 목표 효과를 거두게 된다.

3.2 시행 체계

▶ 부처별 협력 체계의 정립

청소년 언어 문제는 범정부적, 범사회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해결 방안의 구안을 위해 설정한 사회·문화, 교육, 가정이라는 범주는 정책적 실현의 주체와도 대응시켜 볼 수 있다.

범주별로 관련된 정부 부처를 대응시켜 체계화함으로써 문제 현상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관점의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실행 체계 수립에 도움이 된다. 각 정부 부처는 자신과 관련된 변인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되, 유관 기관끼리 쟁점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부처별 협력 체계의 정립-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사회·문화, 교육, 가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회문화 범주는 문화 및 매체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로 관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범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시행이나 국가 교육과정 마련 등 교육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다

른 범주와 접점이 생기는 부분,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변인과 겹쳐지는 부분(공공언어의 사용 및 교육 등)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협력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가정 범주는 여성가족부가 주로 관여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교육의 지원과 학교 외의 청소년 생활에 관여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특히 협력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처의 특성상 교육적 정책의 측면과 사회적 정책의 측면을 모두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처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청소년 언어 문제의 상설 전담 기구 설치

청소년 언어 문제는 각 부처의 고유한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언어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 언어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의 수행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성격이 있으며 그 문제적 심각성이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언어 문제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정책 시행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설치될 상설 전담 기구는 그 동안의 정책적 미비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 등의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부처 간의 협력적 교류 및 추진 체계 마련
- 청소년 언어의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 개발
- 청소년 언어 문제의 전문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
- 청소년 특성 및 청소년 언어에 관한 장기 기초 연구(외부 연구 기관 섭외 및 의뢰)
- 청소년 언어 문제와 청소년 문제의 통합적 접근 방안 수립
- 범정부적 홍보 계획 및 사업 추진 전략 수립
- 해외 청소년 및 청소년 언어 정책의 연구 및 벤치마킹

상설 전담 기구는 위와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되, 아래와 같은 추진 전략을 그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상설 기구는 각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그 성격에 따라 적절히 조율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청소년의 언어 문제를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각급 학교 및 현장과 긴밀히 교류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책 시행의 효과를 거두는 시기를 장기적으로 잡아 시행하되 그 성과를 엄정하게 측정하도록 하며 정책의 추진 계획은 중간보고 및 평가를 통해 수시 개편한다.

- 청소년 언어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은 가정 내 소통 강화,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지도, 학교교육의 부정적 환경 개선 및 효율화를 세부 목표로 잡아 접근한다.
-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청소년 문제 행동이나 청소년 언어에 관련된 정책 중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되, 현재의 정책 내용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개선 방안 시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개선의 시급성 및 개선 방안의 실효성 정도에 따라 사업 순위를 정하였고, 순서대로 사업 목록을 제시한다.

<표 5-1>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 프로그램	영역
우 선 과 제	□□ 청소년 언어 품격 높이기 사업	▪ 청소년 언어 지킴이	제도
		▪ 찾아가는 바른말 교육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 TV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편)	홍보
	□□ 청소년 집단활동 활성화 사업	▪ 중고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	교육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청소년 언어 문제 진단 도구 개발	연구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제도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기관 신설/선정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 기반 구축 사업	▪ 청소년 언어 연구	연구
		▪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연구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관련 규칙 제정	제도
차 기 과 제	□□ 가족 간 소통 역량 강화 사업	▪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 연구	연구
		▪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사업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연구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 TV프로그램/공익광고(부모 교육편)	홍보
	□□ 초등학생 학업 스트레스 줄이기 사업	▪ 다양성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사제동행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교육
	□□ 건강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사업	▪ 인터넷 언어 사용 모니터링	홍보
		▪ 폭력적 언어 입력 차단 프로그램 개발	교육

각 사업별 개요와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언어 품격 높이기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비속어 등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력이 또래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획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비속어·은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또래 간 바른말 사용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청소년 언어 지킴이’, 타당한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통해 비속어 등에 대한 용인 태도를 전환시키는 ‘찾아가는 바른말 교육’, 대중매체를 통해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언어 지킴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방송국 등과의 업무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찾아가는 바른말 교육’은 실제 수행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방안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정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V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다큐멘터리 또는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짧은 시간(5분 이내)에 함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청소년 언어 품격 높이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지킴이 - 찾아가는 바른말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 TV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편)
------------------	--

• 프로그램 내용

제도	<청소년 언어 지킴이>
○ 목적: 또래 간 올바른 언어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	
○ 대상자 범위: 초등학생, 중학생	
○ 추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방송국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 언어 지킴이>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환경 분석 및 요구 사정 → 프로그램 성취 목표 설정 → 평가 도구 마련 → 학습자용 프로그램 모듈 개발, 교수자용 운영 매뉴얼 개발 → 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
○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지킴이 선정: 반에서 리더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p>※ 교육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언어지킴이 선정 방법이 강제적이어서는 안 됨.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친구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므로 소시오그램⁵⁴⁾을 활용하여 학급 내에서 가장 영향력 및 접점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소시오그램의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는 학급자랑대회, 창의적인 자기소개 경연대회, 장기자랑 등과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벤트 경연 대회를 간단하게 주관하여 1등 투표를 받은 학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시행의 거부감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p> <p>- 활동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언어순화 캠페인, 활동 보고대회(학급에서의 활동, 미디어 감시 활동 등), 대체어 찾기 및 사용 운동 주재 · 교외 활동-자원봉사 모니터링 활동, 언어 개선 캠프 참여, 인터넷 블로그 내 언어 사용 규범 마련, 언어 순화 관련 자료 포스팅⁵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블로그 내 언어사용 규범을 마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욱 실제적이고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혹은, 한 명의 학생이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급회의를 통하여 대표로 선정된 학생이 교육을 받아 규범을 배우고,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학급블로그’를 운영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 활동에 대한 보상: 상점 부여(사회봉사 마일리지 등), 상품 제공, 방송국 견학 및 텔레비전 방송 출연, 언어 개선 활동의 참여도를 토대로 한 리더십 인증제도, 내신 성적의 행동 발달 사항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은 임명장과 같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면 참여율이 낮아지고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언어지킴이’ 티셔츠나 바른말, 순화어 등이 적힌 학용품과 같은 물건을 상품으로 제공 - 국립국어원과 방송국에서 ‘언어 지킴이’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언어 사용의 리더로서의 책임감 고양과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주체 기관에서 언어 지킴이를 기수별로 운영함으로써 활동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언어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p>○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방송국</p> <p>○ 수행 주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중 상당수는 독서지수나 영어 능력 등의 평가를 사설기관과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음. </p> <p>○ 개발 기간: 1년(교육과정 개발 6개월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6개월)</p>	
교육	<찾아가는 바른말 교육>
<p>○ 목적: 청소년 언어 전문가가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바른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속어 등에 대한 용인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함.</p>	

- 주안점
 - 언어 문제 유형과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교육 방법 차별화(심각한 수준의 경우 교육과 상담 병행)
 -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방문 교육
- 프로그램 내용
 - 교육 대상: 학교급별(초등, 중고등), 심각성 정도(일반/심각한 수준)
 - 교육은 언어 전문가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
 - 교육 내용
 - 자신의 언어생활 점검과 반성-자가진단 평가
 - 폭력적 언어 사용과 규범 파괴적 언어 사용의 폐해 인식-사용의 실태, 부정적 영향(뇌, 인간관계, 정서, 학습)
 - 개선 방법: 올바른 소통 방법, 부정적 감정의건 표현법 알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자기 통제 능력, 분노 및 충동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키우기, 우리말 가꾸기 등
 - 교육 방법: 동영상 시청, 모둠 활동, 역할극, 상담(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모 상담(필요시))
 - ※ 모둠활동, 집단상담 시 학생들이 친구들 간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빼앗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 상담의 인원은 5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조사하고, 의도적으로 같은 집단에 모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동영상 시청의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되 현실생활과 밀접한 '최근' 영상을 보여줌.
 - ※ 부모 상담의 경우, 상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일기 쓰고 반성하기'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
 - ※ 역할극의 경우, 역할을 나누어 상황을 연기해보고 그때의 기분과 입장은 어땠는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기록 → 바꾸어 역할을 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눔 →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학습 → 바르게 수정된 언어로 다시 역할극 수행 등의 절차로 진행
 - ※ 역할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할극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있음직한 상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화 상황에 대한 점검과 현실적인 재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일상 대화 조사 및 구조화가 필수적임.
 - 교육 시간: 1회 / 장기(10회 이상)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국어학자, 국어교육 전문가,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 개발 기간: 1년
 - ※ 교육내용 개발은 추후 과제에서 체계화·구체화가 필요함.

홍보

<청소년 언어 개선 TV 프로그램(청소년 대상편)>

- 목적: TV를 통해 청소년 언어 개선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함.

○ 형식과 내용

- 형식: 현재 방영되고 있는 캠페인 성격의 공익 광고 또는 일회성의 다큐멘터리나 토론 프로그램보다는 ‘EBS 지식채널’과 같이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함축적인 영상으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 ‘EBS 지식채널’은 수업 시간에 주제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내용: 비속어, 폭력적 언어 사용이 지닌 폐해(비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받는 사회적 평가의 차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 대상자 범위: 초중고생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방송국

○ 수행 주체 및 업무

- 기획: 국립국어원, 방송국, 국어교육, 교육학 전문가
- 제작/방송: 방송국

○ 개발 기간: 1년

• 기대효과

- 비속어 등의 사용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의 자각과 전반적 사회 분위기 전환을 통해 일상 언어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부담을 절감함.
- 함축적이고 짧은 영상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대중매체 홍보 자료뿐 아니라 수업 보조 자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임.

54) 소시오그램이란 간접적인 질문 또는 생활과정을 관찰하여 누가 누구와 가까우며 거리가 있는가를 발견하여 선으로 연결한 도표이다. 이는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소시오그램은 사회학·심리학·사회심리학 및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집단 내의 친소(親疏) 관계 및 전체적인 인간관계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의 소집단 분포와 집단의 실질적인 리더(leader)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학급을 지도하는 교사가 소시오그램을 통하여 학급 내의 학생들의 친소관계·소집단 분포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학급을 지도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급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55) 학생 스스로 제작한 언어순화 관련 자료나 국립국어원, 방송국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 관련 사례로는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언어 순화 및 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파워 블로거 프로젝트(<http://blog.naver.com/alphablogger>)가 있다.

□□ 청소년 집단 활동(방과후 활동) 활성화 사업

• 개요

청소년 설문 결과 중고생의 경우, 도시화되고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언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은 또래 집단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언어 문제가 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화 정도가 심한 지역,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집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교육	<중고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
○ 목적:	방과후 활동의 대상을 중고생으로 확대 실시하여 청소년의 집단 활동 활성화를 통해 언어 문제 개선 효과를 도모함.
○ 대상:	중고등학생
○ 제4차 청소년 정책에 따르면 현재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조정’을 위해 부처 간 방과후 서비스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 및 사각 지대 해소와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상별·내용별 특화 모델 개발·운영 중임.	
○ 이들 정책 추진에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방과후 프로그램의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어야 함.	
-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 특기/적성,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래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수행 주체: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개발 기간:	1년

• 기대 효과

- 방과 후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 청소년들을 방과 후 방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을 확대됨.
- 방과 후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

• 개요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피해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바, 언어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행동 개선 및 심리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언어 문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언어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p>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언어 문제 진단 도구 개발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기관 신설/선정
----------------------------------	---

• 프로그램 내용

연구	<언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
	<p>○ 목적: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인 상담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p>○ 개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프로그램 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학생 상담: 자존감 회복, 언어폭력 피해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 · 가해 학생 상담: 폭력적 언어 사용이 지닌 폐해, 타인 공감하기, 소통 능력 키우기 등 -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간 및 시간 · 상담 방식(집단 상담, 역할극 등) - 실제 상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 보완함. <p>○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p> <p>○ 수행 주체: 상담심리, 교육학, 국어교육 전문가</p> <p>○ 개발 기간: 1년</p>
연구	<언어 문제 진단 도구 개발>
	<p>○ 목적: 언어 문제에 대한 객관적 척도를 제시하여 언어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교</p>

육의 목적과 내용 설정에 기여하기 위함.

○ 주안점

- 진단 도구는 학교급, 개인/집단으로 구분하여 개발
- 진단 영역은 평가 방법에 따라 구성함.

○ 개발 내용

- 대상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진단 영역
 - 언어 문제 유형: 폭력적 언어 사용, 규범 파괴적 언어 사용
 -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요인(학년, 성별), 개인특성요인(공감 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자기표현능력, 공격성), 가정환경요인(가족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가정내 언어폭력), 교육환경요인(교사-학생간 정서적 지지도, 비공식적 사회 통제, 학업 스트레스), 사회문화요인(대인관계 스트레스, 친구간 응집성, 비공식적 통제력)
 - 언어 사용 실태: 폭력적 언어 사용 실태(가해/피해), 규범 파괴적 언어 사용 실태, 의사소통 유형
- 진단 방법: 다면적 평가(관찰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과학기술부(* 2011.10.6. 교과부 ‘학생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집중 운영 발표 중 ‘언어사용 자가 진단지 개발’ 포함됨.)

○ 수행 주체: 국어학, 국어교육, 교육학, 심리학 전문가(필참)

○ 개발 기간: 1년

제도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 목적: 청소년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 청소년 상담 전문가 중 언어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상태임.	
○ 언어폭력 상담가는 상담과 언어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지녀야 함.	
○ 전문가 양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폭력 상담에 대한 교육 실시 - ‘청소년 언어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사 양성 	
※ 참고: ‘청소년 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원 양성 및 자격검정 시행안 마련(1996),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실시(2003))	
○ 현재 청소년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의 업무 협약 필요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수행 주체: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개발 기간: 장기	
교육	<언어폭력 상담 기관 신설/선정>

- 목적: 언어폭력과 관련한 전문 상담 기관을 신설/선정
- 기관 신설/선정 방안
 - 신설: 청소년 언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을 새로이 설립함.
 - 선정: 기존의 청소년 상담 기관에 추가로 ‘언어 문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 관련 기관 간의 협약 및 학제간 연구를 통해 추진 가능함.
- 기관의 업무
 -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업무
 - 청소년 언어 상담사 양성
 - 청소년 언어폭력 및 상담에 대한 연구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수행 주체: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개발 기간: 1-2년

• 기대효과

- 언어폭력 상설 전담 기구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 전문가를 통한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 언어 문제 진단 도구를 통해 문제의 정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효과를 높임.

□□ 청소년 언어 개선 기반 구축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언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언어 순화 방법 연구 등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언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또한 언어 문제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여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소년 언어 개선 기반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연구 -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 콘텐츠 개발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관련 규칙 제정
--------------------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연구	<청소년 언어 연구>
○ 목적: 청소년 언어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 언어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안점	- 청소년 언어의 전반적인 특성 파악과 문제점 도출을 위한 연구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주기(5년)마다 청소년 언어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실태 조사 내용으로는 폭력적 언어 사용 실태, 비속어·은어·유행어 사용 실태, 매체별 언어 사용 실태(인터넷, 휴대전화 등), 어문규범 준수 실태 등이 있음. -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청소년 언어 문제의 변천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청소년 언어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 대상자 범위	- 초·중·고생
○ 개발 주체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국어학, 국어교육 전문가 - 개발 기간: 장기
연구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목적: 청소년의 거친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전한 언어 사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교육학, 심리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통합적 교육 콘텐츠 구축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문제 유형: 언어폭력, 규범파괴 - 교육 목적(문제의 심각성 정도): 예방, 개선 - 콘텐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문제의 폐해(정서, 사회관계, 학습 능력 등)에 대한 콘텐츠 · 개선 방법: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구축 · 형식: 인쇄 책자, 동영상, 활동지, 학습 지도안 - 콘텐츠 구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 및 프로그램 수집 · 공모전을 통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콘텐츠 분류는 교육 대상, 교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 주체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국어교육 전문가(현장 교사 포함), 교육학 및 심리학 전공자 - 개발 기간: 2년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26 1120 354 1178">연구</th><th data-bbox="354 1120 1370 1178"><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6 1178 354 1236">○ 목적: 학교 및 기관에서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td><td data-bbox="354 1178 1370 1236"></td></tr> <tr> <td data-bbox="226 1236 354 1299">○ 주안점</td><td data-bbox="354 1236 1370 1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전문가와 현장 교사와의 협력 연구로 현장 적용에 용이하도록 함. - 언어 순화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함. </td></tr> <tr> <td data-bbox="226 1299 354 1944">○ 내용</td><td data-bbox="354 1299 1370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특별 활동 시간에 활용(※청소년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 - 교육 시간은 10주로 함.(※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 교육 내용은 언어 문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개선 방안 도출은 학생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심의 교재로 특성화함. - 개인 활동과 조별 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 대상 학급 전체의 언어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유도함. - 학생 활동과 교사 지도 사항을 동시에 제시하여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생 활동의 방향 설정에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지도안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교재 활용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콘텐츠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개선 방안에 대한 효과 등은 추후 교재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음.) </td></tr> <tr> <td data-bbox="226 1944 354 2000">○ 개발 주체와 기간</td><td data-bbox="354 1944 1370 2000"></td></tr> </tbody> </table>	연구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 목적: 학교 및 기관에서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전문가와 현장 교사와의 협력 연구로 현장 적용에 용이하도록 함. - 언어 순화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특별 활동 시간에 활용(※청소년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 - 교육 시간은 10주로 함.(※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 교육 내용은 언어 문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개선 방안 도출은 학생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심의 교재로 특성화함. - 개인 활동과 조별 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 대상 학급 전체의 언어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유도함. - 학생 활동과 교사 지도 사항을 동시에 제시하여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생 활동의 방향 설정에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지도안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교재 활용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콘텐츠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개선 방안에 대한 효과 등은 추후 교재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음.) 	○ 개발 주체와 기간	
연구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 목적: 학교 및 기관에서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전문가와 현장 교사와의 협력 연구로 현장 적용에 용이하도록 함. - 언어 순화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 -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특별 활동 시간에 활용(※청소년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 - 교육 시간은 10주로 함.(※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 교육 내용은 언어 문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개선 방안 도출은 학생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심의 교재로 특성화함. - 개인 활동과 조별 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 대상 학급 전체의 언어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유도함. - 학생 활동과 교사 지도 사항을 동시에 제시하여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생 활동의 방향 설정에 안내 역할을 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지도안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교재 활용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합하여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의 콘텐츠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개선 방안에 대한 효과 등은 추후 교재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음.) 										
○ 개발 주체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국어학, 국어교육 전문가(현장 교사 포함) - 개발 기간: 2년 	
제도구축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관련 규칙 제정>
<p>○ 목적: 청소년 언어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 언어 사용, 악플 등을 사용한 학생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 교육법, 학칙, 학급 운영 규칙 등 여러 층위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벌점제,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규칙 존중하기 교육 실시 <p>○ 개발 주체와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 수행 주체: 각급 학교 - 개발 기간: 장기 	

• 기대효과

- 기초 연구를 통해 청소년 언어 정책, 언어 문제 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
-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 콘텐츠와 교재 개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가족 간 소통 역량 강화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가정 내에서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의 경우 가정 내 부모의 비공식적 통제가 공격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간의 올바른 소통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족 간 소통 역량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 연구 -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연구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 연구>
<p>○ 목적: 언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을 마련하기 위함.</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중 대화법 관련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함. <p>○ 연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언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의 중고생과 부모 - 내용: 가족간 의사소통 방법 점검,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타인에 대해 공감하기 등 - 교육 방법: 강의, 체험 활동, 역할, 상담 등 - 교육 시간: 단기/장기 <p>○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p> <p>○ 수행 주체: 국어학, 국어교육, 교육학 전문가</p> <p>○ 개발 기간: 1년</p>	
교육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p>○ 목적: 가족 간 신뢰 회복과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청소년이 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행동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간의 연계 <p>○ 교육내용: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 연구> 결과물 활용</p> <p>○ 교육 방법 및 시간: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함.</p>	

※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을 가진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임(교사 설문 결과 일회성 캠프 등은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 교육 내용 개발: 국어학, 국어교육 전문가
- 교육 수행: 청소년 관련 단체

○ 개발 기간: 1년

• 기대 효과

- 가족 간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교육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 보호 기능 등을 강화함.

- 현재 운영 중인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통해 교육 내용이 보다 충실해짐.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청소년 언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인 부모의 언어폭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언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가정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현장 교육 시행, 대중매체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 청소년 언어 개선 TV 프로그램/공익 광고(부모 교육편)
------------------------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연구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가정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력과 바람직한 대화법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 개발 ○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의 폐해와 부정적 영향 조사: 문헌 조사, 심층 면담, 심리검사를 통해 실시(질적 연구 방법) · 문제 표현 사례 수집 및 분석(설문 조사) · 바람직한 대화법 제시 - 교육대상: 초중고생 학부모 - 교육시간: 단기(1회) - 결과물 형태: 강의안, 강의 보조 도구(워크북, 관련 동영상)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 수행 주체: 국어학, 국어교육, 교육학 전문가 ○ 개발 기간: 1년
교육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언어 사용 방법을 교육 ○ 대상자 범위: 초중고생 학부모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결과물 ○ 수행 주체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국립국어원이 관리(기획, 운영), 전문가 교육 수행 - 2안: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교육 수행 협의(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 시설 활용, ※ 업무협약 필요)하고 국립국어원이 전문가 파견 교육 수행. ○ 개발 기간: 6개월 	
홍보	<청소년 언어 개선 TV 프로그램/공익 광고(부모 교육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TV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가 지닌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 방법을 홍보함. ○ 형식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결과물 활용, 국내외 연구 결과 활용 · 광고: <청소년 언어 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내용 개발> 결과물 활용(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개선 방법 제시) ○ 대상자 범위: 초중고생 학부모 ○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방송국 ○ 수행 주체 및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국립국어원, 방송국, 국어교육, 교육학 전문가 · 제작/방송: 방송국 ○ 개발 기간: 1년 	

• 기대효과

- 부모의 언어폭력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의 언어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력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부모의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비속어, 은어, 유행어 사용뿐 아니라 공격적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초등학생 학업 스트레스 줄이기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청소년 언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획된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언어 사용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로 초등학생들에게 널리 퍼진 과도한 선행 학습의 폐해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받는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를 쇄신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생 학업 스트레스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사제동행 문화 체험 프로그램
------------------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제도	<다양성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p>○ 목적: 학업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고 부정적 언어 사용을 예방하고자 함.</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패러다임으로 전환 - 교육과정(Curriculum)의 본래 뜻에 따라,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자 개인이 경험한 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함. - 속도와 반복의 교육이 아닌 폭과 깊이를 다양화하는 교육과정의 개인화 유도 -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인이 되는 선행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나 학급 혹은 학습자에 따라 개별화되지 못한 획일적 교육 내용 때문이므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성 발현을 위한 교육 내용 마련 및 관련 활동 프로그램 강화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구 단위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 교수학습 연구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하여 프로토타입 개발 및 확산 유도 - 학생 개개인의 소질 및 특기 개발을 위한 교내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의 상설화 - 활동의 결과를 학교 전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발표회(학예회, 체육대회, 공연, 전시 등) 기획 <p>○ 대상자 범위와 시간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초등학교 교사,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주체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수행 기관: 초등학교 - 개발 기간: 1년 	
교육	<사제동행 문화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 활동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의논하여 체험하도록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체험 프로그램 목록화 작업 - 학교 단위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법 마련(필수 참여 여부, 참여 횟수, 비용, 결과물 제출 등) ○ 대상자 범위와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초등학교 교사, 학생 ○ 개발 주체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수행 기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관련 기관 - 개발 기간: 1년 	

• 기대효과

- 경쟁이 아닌 개인의 다양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임.
- 교실 밖 체험을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함.

□□ 건강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사업

• 개요

이 사업은 인터넷(커뮤니티, 댓글, 채팅 등),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 폭력, 명예훼손, 언어 규범 파괴 등의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폭력적 언어의 입력이 차단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폭력적 언어 사용을 예방하고자 한다.

건강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언어 사용 모니터링 - 폭력적 언어 입력 차단 프로그램 개발
------------------------------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홍보	<인터넷 언어 사용 모니터링>
	<p>○ 목적: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인터넷 언어 사용 모니터링 사업 검토 후 내용 수정·보완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알파플러스 블로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등이 있음.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요원 선발(자격: 중·고등학생) - 활동 내용: 교육 참여(올바른 인터넷 문화, 바른말 사용 교육), 언어 문제 신고, 순화어 홍보, 활동 결과 제출 - 보상: 관련 교육 제공, 활동 증명서, 연말 우수 활동 학생 시상, 배지 (※ 국립국어원은 언어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음) <p>○ 대상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중·고등학생 <p>○ 개발 주체와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국립국어원, 방송통신위원회 - 개발 기간: 1년
교육	<폭력적 언어 개선을 위한 입력 차단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
	<p>○ 목적: 폭력적 언어, 규범파괴 언어 사용시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인터넷)에서 이들을 사용할 수 없는 장치 마련</p> <p>○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 내용

-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금지어 사용시 입력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활용
- 이메일 작성,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청소년이 즐겨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사이트에서 폭력적 언어, 규범적 언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금지어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후 개발 여부 결정)

○ 개발 주체와 기간

-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 수행 기관: 소프트웨어 전공자
- 개발 기간: 1년

• 기대효과

- 청소년 자발적 참여로 개선 효과 높임.
- 언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언어 문제 개선의 효과를 높임.

참고문헌

- 강분순(2007), “중학교 학급 홈페이지 언어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항(1991), 현대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 강영배(2004),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11-2, 한국청소년학회.
- 고전(2003), 일본교육개혁 흑·백서 - 21세기 교육실행플랜의 환상과 실사, 학지사.
- 구봉희(2007), “인터넷 대화방 언어 연구: 고교생 언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연(1981), “學生 俗語의 形成·發達에 關한 考察”,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권선미(2008), “통신 언어 성 욕설의 실태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제7권 2호, 한국언어과학회.
- 권이중 · 권병진(1999), 청소년 유해환경 이론, 교육과학사.
- 김갑년(1999), “독일어에 나타난 욕설의 화행론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7, 텍스트언어학회.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기석(2001), “휴대전화 문자언어의 실태 분석과 국어교육적인 방안”, 교육한글 제14호, 한글학회.
- 김나현(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언(1999), 국어 비속어 사전, 프리미엄북스.
- 김동연(2000),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 국어 비속어 사전에 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 김민수(1953), “은어(변말) 시고 특히 거지 말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국문학 6, 국어국문학회.
- 김봉섭(1998),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운(2002),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 김상준(2003), “한국 방송언어의 오용 유형과 개선 방안”, 방송문화 262호, 한국방송협회.
- 김선영 외(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과 청소년의 비행관계”, 상담학 연구 제5권 3호, 한국상담학회.
- 김수진(2005), “청소년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김순호(1972), “언어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바른 말하기의 실천 연구”, 조사연구 62, 경기교
연.

김시정(2011), “국어의식의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기(2003), “고교생들의 채팅언어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수(1983), “대학생의 언어생활실태와 국어회부의 방안 : 대화 속의 외국어 혼용상을 중심
으로”, 새마을연구논총 3, 경북대학교 새마을연구소.

김영인(1992), “본교 학생들의 언어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15,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
구소.

김영호 (2002), “청소년 동아리 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논총 제6호, 경
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옥향(2004), “통신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희(2006), “초등학생의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용희(2007), “공감능력과 관련된 성격 특성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권 3호, 한국
심리학회.

김우경(2001), “중·고등학생 이야기의 언어 특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은영(2009),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문화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장일(2003), “정보화 시대의 학생 언어 순화와 사이버 윤리”, 교육전남 101호, 전라남도 교
육과학연구원.

김정하(2006),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중·고등학생 은어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국(2005), “공무원의 통신언어 활용 실태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 下: 경상북도 경산시를
중심으로”, 월간 자치발전 11권 11호 통권127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종훈 외(2005) 은어·비속어·직업어, 집문당.

김주덕(2002), “고등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주일(2003), “독일의 청소년약물중독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김주일(2004), “독일의 청소년보호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

김주일(2007), “독일 약물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1, 한독교육학회.

김지선(2010), “고등학교 1교사 1봉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

- 구 제 27권 제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 김진태(2006), “사이버공간에서의 중학생 은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성(1977), “한국 대학생의 은어조사-남녀대학생 1,270명 응답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76, 국어국문학회.
- 김현주(2007), “청소년들의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 실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열(2005), “중학생들의 ‘외계어’ 사용실태 연구”, 인문과학연구 29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의 운용실태와 방향, 태학사.
- 김희숙(2001), “컴퓨터통신에서의 한국어 어휘사용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노혁(2002), 청소년 복지론, 대학출판사.
- 두산동아 출판부 편 (1994),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 드미트리,명(1992), “재소 고려인의 언어 실태”, 통일한국 106, 평화문제연구소.
- 라용호(1993), “은어의 연구-청주지역 여중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기(2004), “진주교대 학생들의 언어 사용 양태와 지향: 총학홈페이지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2집, 진주교육대학교 학생과.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호, 국어학회
- 문화관광부(2001),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3), “국어 실태 지수 개발”, 문화관광부.
- 민태운(2003), “동아리미학-학생들에게 있어서 동아리는 무엇인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박갑수(1988), “최근 방송인의 언어실태”, 방송연구 27, 방송위원회.
- 박미애(2003), “학급내 언어적 폭력의 내용 분석 : 부산시 남자 중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6),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폭력적 언어와 유행어 사용 실태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09), “세계화를 대비하는 지구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3-3.
- 박선영(2010), “영국의 복지정책 동향과 청소년 정책”, 청소년 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박선영(2011), “영국의 청소년 정책과 시민교육 고찰”, 청소년 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박성수 외(1997), 청소년의 언어 세계 - 은어, 속어, 욕설탐구, 청소년 상담 문제 연구 보고서 17,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세춘(1968), “아동들의 언어생활실태 : 조작어를 중심으로”, 교육평론 114, 교육평론사.
- 박영변(1972), “은어의 사적 생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성·박진규(2009),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6-11.
- 박종률(2006),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욕설의 특징과 교육적 해악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3, 한국스포츠교육학회.
- 배정애(2005), “중고등학생 은어 연구 - 구리시 남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동선(1999), “신어, 유행어를 통한 일본의 시대상 분석”, 일본어문학연구 제59호, 한국일본어문학회.
- 변성은(2006), “청소년 통신 언어 순화를 위한 지도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윤언(2003), “청소년의 의사소통 양상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윤언·이광호(2004), “청소년의 인터넷상 언어 사용에 나타난 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서병국(1978), “대학생 은·속어의 단면”, 국어교육연구 10, 경북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연구회.
- 서울대 동아연구소편(1974), 국어국문학사전, 신구문화사.
- 서정범(1973), “은어의 사회병리”, 월간중앙 68, 중앙일보사.
- 성낙수(2005), “초·중·고등학생들의 국어사용 실태와 분석”, 청람어문교육 제31집, 청람어문학회.
- 소재희(2010), “청소년의 욕설사용과 자아개념 및 충동성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봉희(2009), “중학생의 욕설 사용 실태와 욕설 사용 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모돌(2003),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의 욕설/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의 관계”, 텍스트언어학 15, 텍스트언어학회.
- 손해영 외(2011),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티 소속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한국방송학회.
- 송근진·박충선(1999), “청소년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사회과학연구 6,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송진행(2003), “초등학교 고학년의 통신언어 사용실태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아(2004), “청소년 통신 언어의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연구보 29,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신기상(1992), “우리말 욕설 연구”, 국어교육79, 한국어교육학회.
- 신기철·신용철(1989),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 신종희(2002), “중학생 PC통신 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제34집, 한국어교육학회.
- 신혜숙(2010), “댄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중독 현상과 정서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9호, 한국사회체육학회.
- 안선옥(2006), “중학생 구어 표현 양상과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2004), “국립국어원의 언어실태 조사”, 새국어생활 제14권 제4호, 국립국어원.
- 양명희(2005), 청소년 언어 생활 실태 연구: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
- 오승호(2009), “폭력의식의 형성과 유형에 대한 연구”, 법교육연구 42, 한국법교육학회.
- 오창석(2010), “청소년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지숙 외(2010),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제한적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유경아(2005), “통신언어의 오용 실태와 지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철 외(2001),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덕중(1997), “학원폭력의 사회심리학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 한국교원대학교.
- 윤석민(2000), “고등학생의 성격 및 일탈행동유형에 따른 은어사용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03), “통신언어의 국어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창(1976), “은어·비속어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창(1981), “은어 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 이도민(2007), “욕설 표현의 국어교육적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실(2003), “일본의 청소년 정책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청소년복지연구 5,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이미진(2008),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선민(1994) "あいづち行動の 韓日比較 ; 社會言語學的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일어일문학연구 24, 한국일어일문학회.

이성식 외(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수영(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놀이 중심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녕(1975), (현대)국어대사전, 한서출판사.

이승준 · 이진우(2003),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 성심사회학 제8집, 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이영숙 외(199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1995),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장기계획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정민 · 최혜경(2001), "중학생의 언어 사용 실태", 동국어문학 제13집, 동국어문학회.

이정복(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 문화, 한국문화사.

이정화(2004),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 및 지도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원 역(1998), 일본 청소년육성의 현실과 대응방안- 일본중앙교육심의회 답신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주학(2009), "중학생 어휘 사용 양상 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형일(2006), "중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임은미(1997), "청소년의 언어 세계-은어, 속어, 욕설 탐구", 상담사례 연구집, 청소년대화의광장.

장경희(2010),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장경희(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장소원(2000), "방송인의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 보도프로그램의 경우를 중심으로", 방송연구51, 방송위원회

장태진(1977), "은어 연구-범죄인 은어의 구문론적 특징", 어문학 12, 한국어문학회.

장태진(1982), 국어사회학, 형설.

장태진(1998), 국어 변말의 연구, 태학사.

장휘숙(2002), "청소년용 공격행동 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4-4, 한국심리학회.

전병철(2000), "채팅언어 연구", 개신어문연구18, 개신어문학회.

- 전병철(2003), “N세대의 언어 실태 연구”, 언어학 제7호, 중원언어학회.
- 전병철(2007), “맷글에 나타난 욕설의 형태 연구”, 언어학연구 제11호, 한국중원언어학회.
- 정길남(1988), “국민학교 아동들의 언어 실태에 관하여”, 한국교육논총 1, 서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소.
- 정길남(2000), “서울교대생들의 언어 실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나리(2010), “중등 대안학교 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규(2010), “중학생의 통신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아(2003), “통신언어의 실태와 개선 방안”, 대전어문학 제19·20집,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정선희(2007), “청소년 통신 언어 실태 분석 및 지도 내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호 외(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7권 2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정인웅(2005),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권·백영철(2004), “지체부자유 학생의 인터넷 통신 이용과 사용언어 실태 분석”,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언어치료학회.
- 정창웅(2004), “통신 언어의 전이 양상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택윤(2009),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2010), “고등학생의 사회적 상호 작용 담화 실태 분석 및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옥 외(1997),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용환(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문화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은희(2006), “중학생의 문장 실태와 교육방안”,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일규(2003), “컴퓨터 통신에서의 청소년 대화에 나타난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3집,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 조향(2003), “청소년 언어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인우(2003),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언어 양상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 조사.
- 최무전(1985), “은어·속어의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정(1999), “학생 은어의 변천에 관한 고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성(2002), "컴퓨터 통신 대화방 언어의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2000), "청소년들의 가출충동과 가출행동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이현(1997), "중.고등 학생 은어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2009),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국어 지식 영역의 지도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1983), "고교생의 은어 사용 실태 조사 분석", 어문교육논총 7, 부산대학교.
- 한국 브리태니커 편집부(200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
- 한미경(1988), "높임말 사용 실태 연구", 국어교육논지 14, 대구교육대학교국어교육연구회.
- 한성우(2005), "방송언어실태지수", 방송과 우리말 제2권, 문화방송 우리말위원회.
- 한승희 외(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 활동 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영지(2006), "중학생의 채팅 언어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영기(2002), "종교활동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재영(2008),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댓글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 허철수 외(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 복지연구 제 12권 제 3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홍대식(1983), 심리학개론, 양영각.
- 홍영수 외(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홍정효(2008), "네트워크 기반 게임의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유아 언어 파괴, 은어 및 비속어 사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17-1, 부산유아교육학회.
- 홍지은(2006), "PC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상민 · 한규석(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 황순재(1998),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여름호, 국립국어연구원.
- 황패강(1976), "비속어, 은어 유행과 그 사회심층적 의의",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Alcock. P.(2003), Social Policy in Britain, London, Palgrave Macmillan.
- Allen, I. L.(1998), "Slang: Sociology. In J. Mey & R. Asher(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agmatics. Amsterdam: Elsevier, 878-883.
- Alpha Research(2007), "Safer Internet for children: Qualitative Study in 29 European

- Countries", *National Analysis: Bulgaria*, 27.
- Andersen, G.(1997), "They like wanna see like how we talk and all that. The use of like as a discourse marker in London teenage speech. In M. Ljung(ed)", *Corpus-based Studies in English*. Amsterdam: Rodopi, 37-48.
- Andersson, G. & P. Trudgill(1990), *Bad language*, Oxford: Blackwell.
- Apte L. M.(1998), "Taboo Words. In: Mey J.L, and Asher R.E.(eds)", *Concise Encyclopedia of Pragmatics*, Amsterdam, Elsevier.
- Bradac, J. J. & Giles, H.(2005),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niceties, complexities, curiosities, monstrosities, and How it all works. In K.L. Fitch & R.E. Sanders(Eds)",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1-230.
- Bradac, J. J. & Street, R. L. Jr(1989/90), "Powerful and powerless styles of talk: A theoretical analysis of language and impression formatio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23, 195-242.
- Butler, J.(1997), "Mind your slanguage. Kids reveal their new lingo", In *The Mirror*, Friday July 18, 1997.
- Caskey, M. M.(2002), "Using parent-student pairs for Internet instruction,"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34, 304-314.
- Crystal, D.(2001), *Language and the Intern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zell, T., & Victor, T(2006), *The new Partridge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Volume I, London: Routledge.
- De Klerk, V.(1995), "Slang in South African English. In R. Mesthrie(Ed)", *Language and social history: Studies in South African sociolinguistics*, Cape Town: David Philip, 265-290.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schools*, White paper.
- Dines, E.(1980), "Variation in discourse - and stuff like that", *Language in Society*, 1, 13-31.
- Dumas, B. & J. Lighter(1978), "Is slang a word for linguists?", *American Speech* 53, 5-17.
- Dundes A. and Schonhorn M.R(1963), "Kansas University Slang: A New Generation," *American Speech*, 38, 163-177.
- Eble, C.(1996a), *Slang and sociability: in-group language among college student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Eble, C.(1996b), "American college slang. In E.W. Schneider(Ed)", *Focus on the US*, Amsterdam: John Benjamins, 289-296.
- Erman, B.(1996), "'Guy's just a dickhead' the context and function of just in teenage talk.

- In Kotsinas", U-B., Stenström. A-B. & A-M. Carlsson.(eds), Institutionen för nordiska språk, Stockholms universitet, 96-110.
- Garrett, P., Coupland, N. & Williams, A.(2003), Investigating language attitudes: Social meanings of dialect, ethnicity and performance,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 Krauss, R. M. & Chiu, C.(1998), "Language and social behavior. In D.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Fourth edition. Boston, MA: McGraw-Hill, 41-88.
- Mattiello, E.(2003), "Slang compounds as one case of morphological complexity. In:Merlini Barbaresi L,(ed.)", Complexity in Language and Text, Pisa, Edizioni Plus, 343-377.
- Maurer, D. W. & High E. C.(1980), "New Words - Where do they come from and where do they go?", American Speech 55, 184-194.
- Mlangeni, B.(2003), "Teenagers' slang leaves oldies wacked", Sunday Times, 01 June 2003.
- Munro, R.(1990), Slang U, New York: Harmony House.
- Partridge, E.(1970), Slang to-day and yesterday Fourth edi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Qualifications of Curriculum Authority(QCA).(2007), Citizenship,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3.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J. Svartvik(1985),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Razuvajeva, O.(2009), "Slang in the Turkish Language as a Social", Linguistic, and Semiotic Phenomenon,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8 No 1.
- Romaine, S. & D. Lange(1991), "The use of like as a marker of reported speech and thought: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in progress", American Speech, 228-278.
- Sornig, K.(1981), Lexical innovation: A study of slang, colloquialisms and casual speech, Amsterdam: John Benjamins.
- Stenström, A., Andersen, G., & Hasund, I. K.(2002), Trends in teenage talk: Corpus compilation, analysis and findings, Amsterdam: John Benjamins.
- Stenström, A-B.(1995), "Taboos in teenage talk. In G. Melchers & B. Warren (eds)", Studies in Anglistics. Stockholm Studies in English 85,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71-80.
- Stenström, A-B.(1997), "Tags in teenage talk. In U. Fries et al (eds)", From Aelfric to the New York Times, Amsterdam: Rodopi.
- Stenström, A-B.(1998), "From sentence to discourse: cos(because) in teenage talk. In A.

- Jucker & Y. Ziv (eds)",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 and Theory. Amsterdam: Benjamins, 127-146.
- Stenström, A-B.(2000), From slang to slanguage: a description based on teenage talk, *Mi a szleng*.
- 朝日新聞社(2004). 朝日キーワード.
- 今井由紀子(2003). 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有識者懇談會報告書について, 青少年問題50(6).
- 加藤俊治(2000).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青少年問題48(2).
- 厚生労働省(2001). 国民生活基礎調査.
- 国立教育政策研究所(2001). 小学校教育課程の実施に関する状況調査.
- 小杉礼子(2003). 自由の代償, 日本労働研究機構.
- 菱川雄治(2000). 中央省廳等改革と青少年行政, 青少年問題48(11).
- 青少年育成推進會議(2002). 青少年育成推進要綱.
- 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有識者懇談會(2003). 青少年の育成に関する有識者懇談會報告書.
-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2000). 青少年行政のあゆみと21世紀への展望, 青少年問題第47(2).
- 高橋滿(1999). 青少年政策の新傾向, 韓日中青少年問題シンポジウム資料, 明知大學校社會教育大學院.
- 內閣府(1999-2003). 青少年白書.
- 內閣府(2001). 男女共同參畫に関する世論調査.
- ――(2003). 青少年育成施策大綱.
- 內閣府政策統括官(總合企畫調整擔當)(2001). 內閣府政策統括官における青少年健全育成の推進にかかる豫算について, 青少年問題第49(6).
-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高校生の未來意識に関する研究.
- 文部科學省(2003). 學校基本調査.
- ――(2004). 教育の構造改革：畫一と受信から自立と創造へ.
- 矢野眞和(2001). 教育社會の設計, 東京大學出版會.
- 若者自立・挑戰戰略會議(2003). 若者自立・挑戰プラン.

연구 책임자: 장경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필영 (한양대학교 한국어언어문학과 교수)
 김명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태경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부교수)
 김정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송수민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 보조원: 전은진 (한양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안정호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강사)
 문선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시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권대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박보령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김원희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발 행 인	권 재 일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3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1년 12월 일
발 행 일	2011년 12월 일
인 쇄	○○○문화사